

현대불교

www.buddhanews.com ☎ 구독신청 02)737-0090 · 대표 02) 737-8881 The Hyundae Bulkyo 불기 2548년 (서기 2004년) 4월 21일(음력3월 3일) 수요일 (주간) 제470호

고객의 행복한 여행을 추구하는 여행사



제주도 · 중국전문 성지순례 여행사
(주)행복만선
Tel. 02)720-8489

각종 소송에 시달리는 조계종

"조계종 관련 각종 고소 · 고발 건이 없으면 별로 할 일이 없을 겁니다."

불교계 한 관계자가 조계종 총무원을 담당하는 서울 종로경찰서에 들렀다가 경찰서 한 관계자에게 들었다는 하소연이다.

삼보정재 낭비 뿐 아니라 불교계 위상을 추락시키는 각종 고소 · 고발 건이 조계종을 괴롭히고 있다. '폭력'으로 뜻을 관철시키려는 행태는 어느 정도 사라졌지만, '절집' 내부의 문제를 각종 사회법에 제소하는 '습'은 여전히 조계종의 병폐로 남아있기 때문이다.

위상 추락 · 정재 낭비 '사회법 기대기' 이제그만!

매년 10건 이상 소송 제기
총무원 "해종행위 강력 대응"
"법 · 제도 원칙 집행" 주장도

최근만 해도 원융 스님은 '총무원장 당선무효' 소송(1심 계류 중)과 '총무원장 직무집행정지' 소송(2심 계류 중)을, 홍선 스님은 '범어사 주지임명 절차이행금지가처분신청'과 '범어사 주지후보자 확인 및 임명 절차 이행' 소송을 조계종 총무원장 법장 스님을 상대로 각각 제기한 상태다.

이와 관련 조계종은 4월 14일 총무원장 이름의 담화문을 발표하면서 "범어사 문중 내 극히 소수의 해종행위자들이 종단의 권위와 안정을 해치는 소송을 제기해 종단 내 종헌질서에 이해가 부족한 법원의 눈과 귀를 막고 종단의 자율적 인사권을 침해하는 일단의 결정을 받아 종단을 훼손하려는 기도를 하고 있다"며 "해종행위자들이 더 이상 종단에서 발붙이지 못하도록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일련의 종단 관련 소송에 대해 강력하게 경고했다.

이처럼 종단 내부의 문제를 사회법에 제소한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조계종 총무원에서 발행한 〈98 · 99년도 종단소송판결문 모음집〉에 따르면 당시 '총무원장직무대행직무집행정지가처분' '총무원장직무존재확인' 등 총 18건의 종단 관련 소송이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현상은 5~6년이 지난 현재까지 별반 달라지지 않았다. 총무원 한 관계자는 "종단 뿐 아니라 사찰과 스님을 상대로 사회법에 제기한 소송이 매년 10건 이상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실제로는 2배가 넘은 20건 이상 될 것"이라고 말했다.

1994년 개혁 이후 역대 종단 집행부들은 종단 내부의 문제를 사회법에 제소하는 것에 대해 무조건 '해종행위'로 간주하고 엄중 대처한다는 방침을 세워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일이 끊이지 않는 것일까?

조계종 기획실장 여연 스님은 "사사로운 이해관계 때문"이라고 분석한다. 또 소송 합의 과정에서 생기는 각종 '부산물' 때문에 소송이 지속되고 있다는 견해도 있다.

이 외에도 집행부 흔들기를 통한 개인 또는 집단의 종단 내 영향력 확대 기도와 소송제기자들에 대한 집행부의 징계 미온 때문이라는 시각도 있다.

그러나 홍선 스님과 함께 소송을 제기했다 취하한 정야 스님(부산 선암사 주지)은 "그간의 종무행정이 원리원칙대로 집행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즉 종단 내 사법기관들이 정치적 이해관계에 얽혀 제대로 된 판결을 내리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종헌 · 종법 등 각종 법적 · 제도적 미비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들이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데에는 이견이 없다. 삼보정재 낭비는 차치하더라도 조계종 뿐 아니라 불교계 전체 위상이 추락하기 때문이다.

또 종단 대표가 소송에 휘말릴 경우 대정부 교섭에 막대한 지장이 생길 뿐 아니라, 잘못된 부분이 있더라도 스스로 정화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하는 등 '내부출혈'이 심각할 수 있다.

참여불교재가연대 박광서 상임대표는 "종단 관련 소송들이 끊이지 않는 것은 종단에 대한 애정이 없기 때문"이라고 못 박으며 "무관심의 장막을 걷어내고, 이해관계를 떠나 내부에서 양측을 중재할 수 있는 승가그룹이 형성돼야 한다"고 해결 방안을 내놓기도 했다.

남동우 기자 dwnam@buddhapia.com

불자의원 28명 제17대 총선 당선자

개신교 117명 가톨릭 61명

제17대 총선에서 당선된 의원 총 299명중 불자국회의원은 모두 28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중앙선관위에 제출한 이력서에서 종교가 불교라고 밝힌 불자는 16명 이었으며, 나머지 12명은 전화로 확인됐다. 특히 이같은 결과는 1996년 15대 총선에서 당선된 83명, 2000년 16대 총선 43명 보다 적은 수치다.

이에 반해 개신교는 117명, 가톨릭이 61명에 달했으며, 나머지 93명은 원불교 등 다른 종교 또는 무종교인이거나 종교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다. 다음은 이번에 당선된 불자 국회의원 명단이다.

열린우리당(8명) △정봉주(서울 노원 갑) △최재성(남양주 갑) △이광재(태백 · 영월 · 평창 · 정선) △이용희(보은 · 옥천 · 영동) △이영호(강진 · 완도) △강창일(제주 · 북제주 갑) △이은영(비례대표) △윤원호(비례대표) **한나라당(18명)** △김병호(부산 부산진 갑) △주호영(대구 수성을) △이명규(대구 북 갑) △이해봉(대구 달서 을) △정갑윤(울산 중) △최병국(울산 남 갑) △엄호성(부산 사하 갑) △이계진(원주) △정문헌(홍천 · 횡성) △홍문표(홍성 · 예산) △김태환(구미 을) △이덕모(영천) △장윤석(영주) △이인기(고령 · 성주) △안홍준(마산 을) △김재경(진주 을) △김학송(진해) △박세일(비례대표) **민주노동당(1명)** △조승수(울산 북).



5개국 출 · 재가 순례단
"한반도 평화 기원"

일본 일련종 니치키(日歸) 스님을 비롯해 우크라이나, 러시아 등 5개국 출 · 재가자 8명으로 구성된 평화순례단이 4월 15일 부처님 사리와 함께 경기도 연천 호국통일사를 방문했다. 서울 도선사 주지 혜자 스님과 한국종교연합 대표 진월 스님도 남북통일과 한반도 평화를 기원하며 통일대종을 울렸다. 사진=박재완 기자

"상생과 희망 정치 기대"
조계종 총선 관련 논평

조계종은 4월 16일 총선 관련 논평에서 "상생과 희망의 정치를 기대한다"고 발표했다.

조계종은 논평에서 "투표 결과로 나타난 국민의 간절한 요구는 화합과 상생으로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정치를 해달라는 주문"이라며 "여당이나 야당 모두 17대 국회에서는 새로운 정치에 대한 국민적 열망을 명확하게 인식해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펼쳐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남동우 기자

조계종 중앙신도회 공식 출범
5월 7일 조계사서 통합대회

조계종 중앙신도회와 전국신도회가 5월 7일 오후 2시 조계사에서 통합대회를 갖고 '대한불교조계종 중앙신도회'로 공식 출범한다.

대회는 1부 통합선언과 2부 통합신도회 핵심사업 발표, 3부 문화행사 순으로 진행되며, 2부에는 신도대중의 의지와 바람을 담은 '종단에 드리는 건의문'이 발표될 예정이다.

양 신도회는 일관성 있는 신도운동과 재가불자 정보 네트워크 구성을 위해 지난해 3월 통합에 합의했다. 이후 통합추진위를 구성, 통합신도회의 나아갈 방향과 신도회의 정체성, 신도조직 등에 관해 수차례의 세미나와 워크숍 등을 개최하며 의견조율을 해왔다.

김은경 기자 ilpck@buddhapia.com

비전 있는 현대불교에 오십시오

불교 정보의 총본산 '현대불교'가 내일을 이끌 인재를 찾습니다.

■모집부문
경력: 취재기자 ○명, 출판 · 인터넷 부문 ○명
수습: 기자 ○명

■응시자격
① 불교신자 ② 4년제 정규대학 졸업자(남자는 수습기자의 경우 1976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병역면제 남자 또는 여자는 1979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전형방법: 1차 서류전형, 2차 필기시험, 3차 면접

■원서접수기간 및 방법
1. 접수기간 : 2004년 4월 22일(목)까지
2. 접수방법
인터넷 일간 붓다뉴스(http://www.buddhanews.com)에서 이력서와 자기소개서 양식을 다운받으신 후 E-mail(cgseo@buddhapia.com)로 보내시면 됩니다.
3. 제출서류 (1차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는 시험당일에 제출하십시오. (최종합격자가 아닌 경우 제출서류는 돌려드립니다)
4. 1차 합격자 발표
개별통보 및 인터넷 공고 (문의전화 02-737-8881)

'할'



그림 · 조태호

- 지환 스님 법문에서(법문은 24, 25면에서 만나세요) -

불교정보 총본산 현대불교신문 구독신청 (02)737-0090

도법 · 수경 스님의 생명 평화 탁발순례단 지리산권 순례 회향 동행기 6면

선원장 초청 대법회 현웅 스님 4월 25일 오전 10시 조계사

마하몰(www.mahamall.co.kr) 봉축캐릭터 용품전

마하몰에서 전화와 인터넷으로 봉축용품을 준비하세요!! 상담 및 주문전화 02) 732 - 1520



■봉축현수막 : 나염
90cm×6m (40,000원)
90cm×7m (45,000원)
90cm×8m (50,000원)

■봉축현수막 : 세로
90cm×6m (60,000원)
90cm×7m (70,000원)
90cm×8m (80,000원)

■지하철현수막
105cm×200cm (40,000원)
※현수막 크기, 내용은 변경가능

※ 기타 현수막 사이즈 주문가능

■장엄번(만장기)
90cm × 210cm (40,000원), 90cm × 230cm (45,000원)

■캐릭터비닐만월등
32cm × 32cm
분홍,빨강,파랑,
노랑,초록,색상별

■캐릭터 청사초롱
4,000원 고급 본염 인쇄 ※최소주문수량 100개

■어깨띠 2,500원
※100매 이상 사찰명 인쇄가능

■봉축버튼
3,200원
※8개 1세트

■봉축티커세트
30,000원
※100매 1세트

■봉축풍선세트
30,000원
※100개 1세트(대롱 포함)

■성인용/아동용선캡
3,000원

■자외선 차단 선캡
6,000원

■차량용 깃발
4,000원, 20×30cm

■큐방 연꽃 차걸이
3,600원
재질 : 마블
색상 : 노랑,분홍,
연두,보라,오렌지

■연꽃전등(大)
50,000원
15cm(높이)×
13cm(넓이)

■연꽃리본
일반 : 25,000원
고급 : 35,000원
노랑,연분홍,연보라
※100개 1세트

■연꽃전등(中)
35,000원
15cm(높이)×
17cm(넓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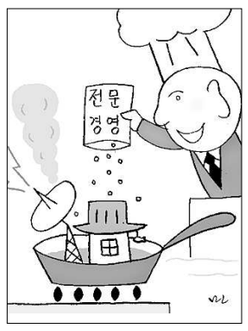
지면에 광고된 상품 외에 보다 많은 봉축용품을 인터넷 마하몰에서 만나보세요. 국민은행 006-01-0785-361 / 우체국 010041-01-012219 ㈜현대불교신문사 / 농협 053-12-113210 하동규



포교방송 전문경영 시대 열자

불교방송과 불교TV 책임자가 전문경영인이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른 바 지식사회에서 사회와 개인에게 온갖 삶의 기능을 일깨워주는 기구의 책임자가 전문경영인이어야 한다는 점은 지극히 타당하다.

그런 필요성이야 어디 불교방송과 불교TV 뿐이겠는가. 더구나 대중을 상대로 매스 · 미디어를 운용하되, 보편적이고 감동을 주는 불교정신을 바탕으로 전파미디어를 운용하는 위치라면 더욱 그러하다. 전법의 인연은 많이 심을수록 좋은 것이고 그 메카니즘의 발달에 발맞춰 전문성을 제고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그와 같은 당연한 필요성이 돌출하는 까닭은 지금까지 '사장자리'를 결정함에 있어 한 전문가가 오래도록 닦은 기량이나 매스 · 미디어에 대한 문화적 역량보다는, 정파와 종파 또는 방송 외적 필요성이나 즉흥적 유용성을 우선했기 때문이기도 할 것이다.

불교정신 · 사회적 저널리즘 조화
진실과 충실한 설득방법 찾아야

물론 이런 경우 '전문적 경영인'에 대한 해석은 이해에 따라 각기 다를 수도 있다. 또한 그와 같은 다른 해석은 방송의 영향력과 경영 모두에 한계를 나타내고, 갈등과 사람 바꾸기 악순환의 구실이 되기도 한다.

대체 방송 전문경영이란 게 무엇인가. 방송이란 게 돈이 드는 사업인 만큼 생존과 발전을 위한 수입 지출 기능을 갖추어야 함은 물론이지만 순위에 있어 그 항목이 우위일 수는 없다. 직원들과 함께 스스로 경영하는 방송의 문화적 정체성 확립보다는 훨씬 덜 중요하기 때문이다.

특히 전문분야가 분명한 경우에는 맡은 전문분야의 사회적 접근방법을 알고 있어야 한다는 점도 불가결한 경영기능이다.

내 개인적 의견이지만, 특히 종교방송의 경우에는 프로그램 전반에 그 종교의 정신과 철학이 깔리게 하면서 사회적 저널리즘에 참여하는 게 정상이란 생각이다. 그 종교의 예배장소와 똑같은 기능을 하는 것은 아니란 뜻이다.

그리고 방송의 필연적 기능인 사회적 의제설정을 위한 분명한 소신과 예측의 기능을 지녀야 한다고 본다. 이들 덕목이 모두 쉬운 것은 아니다. 그러나 어려운 만큼 시행착오가 가능하고 잘못되었을 때는 비로소 책임을 지고 사람이 바뀌면 되는 것이다.

한 분야의 문화적 정체성을 설명하고 직 · 간접으로 이를 전달하는 일이란 매우 어려운 일이다.

불교계 방송도 이제는 결코 소수의 수용자를 위한 방송체계가 아니라 사회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보편성을 추구해야 한다. 비슷비슷한 경쟁에 치우치는 일반 방송에 비해서 전달 내용과 방법에 있어 좀더 진실과 규범에 충실한 설득방법을 써야 한다는 점이 바로 불교계 방송에서 머리들 맞대고 연구해야 할 일이다.

이런 어려운 과제를 능히 처리해나갈 수 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받는 사람을 우리는 '전문경영인'이라고 부른다.

■ 김학천(건국대 교수 · 신문방송학과)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회 장 : 노대행
발행·편집인 : 김광삼
인 쇄 인 : 채수삼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인터넷 日刊 현대불교 www.buddhanews.com
정보센터 '부다피아' www.buddhapia.com
불교쇼핑 '마하몰' www.mahamall.co.kr
온라인서점 '여시아문' www.yosiamun.com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다-3379
대표전화 02-737-8881

편집국 (02)722-4162 FAX (02)737-0698
광고국 (02)732-1522 FAX (02)737-0697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737-009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110-170

구독료:1개월 5천원 영구 62만5천원

사찰 역사 문화·수행환경 보호 '의무화'

문광부·조계종 '전통사찰보존법' 개정안 협의

사찰 역사문화 및 수행환경 침해 방지를 위한 법제화가 추진되고 있다. 이는 지난해 12월 노무현 대통령이 해인사 방문 시 조계종 종정 법전 스님에게 약속한 '역사문화 보전을 위한 제도개선 마련'에 따른 것이다. 이와 관련 조계종은 최근 문화관광부와 전통사찰 보존법 개정안 협의를 마쳤다.

이 안은 '역사문화보존구역'을 도입하고 '전통사찰보존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전통사찰 보호 장치를 강화하고, '전통사찰'과 '경내지' 개념을 명확히 할 뿐 아니라, 종단 인사권을 침해하는 조항 개선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이 안에 따르면 개발사업자에게 전통사찰 역사 · 문화적 가치 및 수행환경 보호 의무 조항을 신설해, 전통사찰과 전통사찰 주변 환경 침해 법적 대응 근거를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각 시 · 도에 '전통사찰보존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해, 위원회에서 해당 사찰과 사찰 또는 문화재 관련 전문가, 지역 유지 등의 전통사찰 보존 조사 · 심의 활동을 근거로 각 지역 실정에 맞는 실질적인 전통사찰 보존 대안을 개발할 수 있도록 했다.

개발제한구역 내 위치한 전통사찰 경내지에서 불사를 할 경우 전통사찰보존법에서 허가 사항을 관장하도록 해, 본래의 역사 문화적 가치를 훼손하는 경우에 대비한 심의 절차를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전통사찰보존구역'을 '역사문화보존구역'으로 변경해 이 구역에서 개발행위를 할 경우 전통사찰보존위원회의 심의를 미리 받도록 했다.

역사문화보존구역이란 전통사찰 경내지 외 지역으로, 전통사찰 주변의 역사 · 문화적 가치와 풍치 보존 및 수행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지역이다.

문광부 장관의 동의 없이 전통사찰 건조물과 경내지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내지 주변의 전통사찰 소유 토지에 대해 공용수용 · 사용 제한처분 한 경우 이를 무효로 하고, 전통사찰 경내지를 전통사찰 '소유지' 뿐 아니라 제3자에게 사용을 허가 받은 토지도 명시해 전통사찰 목적에 맞게 사용하고 있는 토지 모두 경내지에 포함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했다.

이 외에도 전통사찰 주지가 전통사찰보존법을 위반하거나 분규로 인해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시 문화관광부 장관이 해임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사찰 소속 대표단체 대표자에게 요청하도록 개정했다.

이 안은 법제처 심의와 국회 상정 및 통과 등의 과정이 남아있다. 조계종은 전사법 개정과 병행해 역사문화보존구역과 관련한 입법을 촉구한다는 계획이다.

남동우 기자 dwnam@buddhapia.com

<주요 내용>

- 역사문화 보호구역 도입
- 전통사찰 보존위원회 설치
- 경내지 · 전통사찰 개념 명확히
- 종단 인사권침해 조항 개선



새스님 343명 탄생

통도사서 단일계단 수계산림

조계종 제 24회 단일계단 구족계 수계산림이 회향되면서 191명의 비구와 152명의 비구니 스님이 탄생했다. 4월 8일부터 14일까지 양산 통도사에서 열린 수계 산림은 3월 12일 치러진 4급 승가고시 합격자와 사미, 식차마나니 등 총 346명이 참여해 343명이 구족계를 받았다.

양산=천미희 기자

도롱뇽소송 '기각'

"환경법 퇴보 판결 지속적 대응 전개"
지율 스님 기자회견

"재판부의 도롱뇽 소송 기각은 환경법의 퇴보다. 자연의 권리와 미래 세대의 환경권은 보장되어야 한다"

울산지방법원 제10 민사부(부장판사 김동욱)가 지율 스님과 도롱뇽의 친구들이 낸 '도롱뇽 소송'을 기각한 것과 관련 지율 스님과 천성산 전국비상대책위는 4월13일 부산시청 앞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명서를 발표했다. 또한 지율 스님은 고등법원에 항고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 특히 미타암과 내원사가 낸 공사착공금지가처분 신청이 기각된 것에 대해서 "내원사와 미타암 소유의 땅 500만평에 대해서는 문화와 자연환경보존을 이유로 모든 행위를 제한해 왔으면서도 수호권 조차 주지 않는 것은 명백히 모순되는 판결"이라고 반박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지율 스님은 "희망의 역사를 쓰는 일은 결코 멈출 수 없다"며 지속적인 대응을 다짐했다.

이날 오후 부산시청 동백홀에서 '지율, 숲에서 나오다' 출판 기념회를 가진 지율 스님과 천성산 비대위는 향후 부산 고법 항소와 현장 투쟁을 함께 펼쳐나갈 방침이다. 또한 4월 20일 오후 6시 30분 동보서적에서 '천성산과 거지 성자 노이아르의 만남' 행사를 열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수녀님과 거지 성자 노이아르가 함께 동참하는 천성산 보호를 위한 자전거 투어와 '기차길옆 오막살이'라는 천성산 보존을 위한 퍼포먼스, 학생들을 대상으로 판결문 독후감 모집 등 다양한 행사를 통해 여론 확산에 주력할 방침이다.

부산=천미희 기자

"北 불교문화복원 추진본부 세운다"

법장 스님, 교구본사 간담회서 밝혀

최근 금강산 신계사 복원, 단청 지원, 사찰기와 지원 등 북한 불교문화재 복원을 위한 지원사업이 활기를 띄고 있는 가운데, 북한 불교문화재 관련 업무를 총괄하게 될 '북한불교문화재복원추진본부(가칭)'가 준비되고 있다.

조계종 총무원은 4월 12일 백양사 관광호텔에서 열린 '백양사 · 대흥사 · 선운사 교구 본말사 주지 및 신행단체장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히고 "불교문화재 복원뿐 아니라 세미나 등 학술분야까지 담당하게 될 공식단체를 출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와관련 총무원 사회부장 미산스님은 "총무원에서 북한관련 기구를 준비 중에 있으며 이 기구를 통해 지원하는 방안을 찾겠다"고 밝혔다.

한편 조계종 총무원장 법장 스님이 직할 교구 주지스님들도 본사 주지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 마련에 긍정적인 뜻을 밝혔다.

법장 스님은 4월 13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1층에서 열린 '직할교구 교구 본말사 주지 및 신행단체장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준엽 · 남동우 기자

문화재청 초대차장
이승규 씨 임명



한국문화재보호재단 이승규(56 · 사진) 이사장이 4월 16일 문화재청 초대 차장에 임명됐다.

이승규 차장은 1967년 기술직으로 공직을 시작해 행정직으로 전직한 후 99년부터 문화관광부 종무관, 문화재청 문화유산국장, 문화관광부 감사관, 문화정책국장 등 문화재와 문화예술분야의 요직을 두루 거쳤다.

오유진 기자

제29대

봉 법주사 주지 진산식 행

대한불교조계종 제5교구본사 속리산 법주사 제29대 주지 도공스님의 진산식을
아래와 같이 봉행하오니 사부대중여러분의 많은 동참을 바랍니다.

■ 일 시 : 불기 2548(2004)년 4월 22일 (음력 3. 4. 목) 오전 11시
■ 장 소 : 속리산 법주사 용화보전 앞
■ 연락처 : (우)376-863 충북 보은군 내속리면 사내리 209
법주사 종무소 ☎ 043)543-3615 전송 043)543-3620

대한불교조계종 제5교구본사
법주사 주지 진산식 봉행위원회

경기 침체 사찰에도 영향

전국 절 50곳 조사, 시주 최고 절반 줄어

최근 우리 사회의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사찰들도 신도가 줄거나 시주금이 감소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 사찰들은 이를 극복하기 위해 특별행사 개최, 교양대학 활성화, 지역법회 재개 등 묘안을 짜내고 있다.

본지가 수도권과 강원 · 충청 · 영남 · 호남 등 전국 50여 표본사찰을 전화로 설문한 결과, 사찰의 수입이 적게는 10%에서 많게는 절반까지 급감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에 소재한 S사찰과 안양의 H사찰의 경우 불전금 수입이 50% 이상 줄었고, 정기법회 참석인원도 예년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서울의 G사찰 이천의 G사찰도 불전금과 기도비가 예년의 70%에 머물고 있다고 밝혔다.

광주의 W사찰과 M사찰의 경우 불전비, 기도비, 보시금 등이 50%대로 급감했고, 둘러보러 오던 참배객의 발길이 거의 끊겼다. 게다가 기도비나 보시금은 분납으로 내겠다는 사례도 최근 6개월 사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주요 관광지에 위치한 관람료사찰의 경우도 주요 수입원인 문화재 관람료 수입이 3분의 2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인천의 J사찰과 공주의 G사찰은 2~3월 두달간 문화재관람료가 15%가량 적게 걷혔다.

이같은 현상은 경기 침체가 가계의 어려움으로 이어져 불자들의 주머니도 쉽게 열리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반면 법회나 기도에 참석하는 인원이 증가한 경우는 어려울수록 신앙에 의지하려는 경향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이들 사찰에서 개인의 소망을 발원하는 인등수요가 늘어난 점이이를 반증한다. 특히 이들 사찰은 특별법회, 법회일 조정 등 자구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서울의 조계사, 봉은사, 도선사, 부산 혜원정사, 여여선원, 인천 흥륜사, 대전 광수사, 울산 내원암, 영천 은해사, 수원포교당, 밀양 용궁사 등은 불전금과 신도수가 예년 수준이거나 약간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사찰들은 교양대학을 활성화해 신도를 늘리고, 특별 · 지역법회 등을 열어 신도들을 절로 이끌고 있다. 신도교육 등을 통해 신도들과 쌍방향으로 교류하고 활성화를 모색해 사찰과 한층 가깝게 한다는 점도 한 비결로 나타나고 있다.

박봉영 기자 bypark@buddhapia.com



“깜짝 이벤트 기대해도 좋아요”

자타공인 봉축행사 최고팀…올 테마 ‘共用’

학생회·여신도 등 공연 준비·의상 제작 한창

“초롱아, 부채 모양을 잘 잡아야 해. 자 다시 해 봐, 동미도 잘 쫓아오고….”

“선생님, 잘 안돼요. 음악이 없어서 그런가?”

제17대 총선날인 4월 15일 오전 안양 한마음선원 3층 법당. 15명의 여 중 · 고생들이 부채춤 배우느라 진땀을 흘리고 있다. 같은 시간, 2층과 4층 강당에서는 학생들이 스포츠 댄스와 수화공연 연습에 열중하고 있다.

한마음 선원의 학생회는 이번에도 200여명으로 ‘거리포교단’을 구성해 부채춤, 스포츠댄스, 풍물, 수화, 인도춤, 장구춤 등 10여개의 팀들이 봉축행사가 열리는 서울 조계사 인근 인사동에서 무대를 설치하고 각종 공연을 선보인다.

지하 1층 식당에서는 여신도들이 모여 제등행렬 때 입을 의상을 직접 제작하고 있다. 재봉틀 소리와 바느질에 열중하는 숨소리가 긴장감을 느끼게 한다. 지하 3층에서는 장엄등 채색 작업이 한창이고, 그 옆에서 봉축행사준비 책임을 맡고 있는 청년회 지도법사 혜묵 스님과 청년회장 박성완씨는 준비상황 점검표를 놓고 의견을 나누고 있다. 봉축일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안양 한마음 선원은 더욱 분주해졌다. 안양 한마음선원의 본격적인 봉축 행사 준비는 이미 3월부터 시작됐다. 청년회를 중심으로 어린이회, 학생회는 물론 거사회(법형제회)와 여신도회가 역할을 분담해 진행하고 있다.

올해 한마음 선원의 봉축행사 테마는 ‘공용(共用)’. 행사를 준비하는 사람들이 서로 화합하고, 행사를 보는 사람들과 화합하고, 그 사람들과 자연이 화합해 모두가 하나가 되자는 의미다.

한마음선원은 자타가 공인하는 봉축행사의 최고팀. 혜묵 스님은 “대행 큰스님의 말씀대로 모든 대중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방향으로 행사를 기획해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올해 불자들을 놀라게 할 비장의 카드는 무엇이냐”는 물음에는 “미리 알려지면 재미없잖아요” 하면서 “기대해도 좋다”고 덧붙였다.

한명우 기자

인드라망 ‘생명살림불사’

인재 양성·도량 기금 마련

인드라망생명공동체(상임대표 도법)가 인재 양성과 도량 기금 마련 등을 위한 ‘생명살림불사’를 시작한다.

인드라망은 이를 위해 추진위원단(공동추진위원장 백납석)과 운영위원회 등을 구성키로 했다. 또 생명살림도량 기금 조성을 위해 법회와 좌담회, 설명회 등을 개최할 예정이다. 도량은 청소년 공간(20평), 교육원 및 법당(30평), 사무공간(20평), 생협매장 및 휴식공간(15평) 등으로 꾸밀 계획이다.

생명살림불사를 위한 도법 스님의 ‘즉문즉설(卽門卽說)’ 법회는 4월 21일 오후 7시 남원에서 시작된다. 법회는 도법 · 수경 스님이 진행하고 있는 생명평화 탁발순례 예정지를 따라 지속적으로 펼쳐진다.

생명살림불사 좌담회 및 추진위원단 출범식은 5월 6일 오후 7시 서울지역에서 열린다. ‘우리시대의 새로운 불사’ 주제로 정토회, 우리는 선우 등이 토론에 참가할 전망이다. 6월 중순에는 도량 설명회 및 후원 기금 조성 만찬회도 열릴 예정이다.

한편 인드라망은 4월 13일 이라크 파병 철회 성명서를 발표했다.

인드라망은 성명서에서 “이라크전이 내전 상태로 진전되고 있고, 초기 파병했던 국가는 파병군을 철수할 계획”이라며 “이런 상태에서 한국군을 파병한다는 것은 국제 정세에 아둔하거나 한국 젊은이들의 목숨을 함부로 취급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남동우 기자



국태민안 기원 서울 삼각산 도선사(주지 혜자)가 4월 13일 ‘국태민안 기원 총무원장 법장 스님 초청 대법회’를 호국참회원 3층 앞 안마당에서 봉행했다. 7백여명이 함께 한 이날 법회는 생전예수재 및 49일 지장기도 회향법회를 겸해서 진행됐다. 사진=김은경 기자

한·일 청소년 문화교류 나선다

파라미타, 8월18일부터 대마도·부산서

2004년 한 · 일 청소년들이 ‘新조선통신사’로 양국의 문화교류를 위해 나선다.

파라미타청소년협회(회장 원택)가 문화관광부의 지원을 받아 8월 18일부터 25일까지 7박 8일간 대마도와 부산일대에서 한 · 일문화교류 ‘조선통신사 역사현장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한국 측 청소년 30여명이 우선 대마도 이나시현을 방문, 일본 대마고등학교 청소년들과 일본불교문화 체험을 한 후 일본측 청소년을 초청, 한국불교문화를 체험하는 시간으로 꾸며진다.

파라미타 조한곤 과장은 “이번 조선통신사 프로그램이 한 · 일 청소년의 상호방문교류로 진행되는 만큼, 양국의 불교문화를 비교 · 분석해 보는 시간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은경 기자

총선개표 인터넷 생중계

대구불교방송 실시간 정보제공

BBS 대구불교방송은 17대 국회의원 총선 투개표현황을 인터넷으로 실시간 중계했다.

4월 15일 대구불교방송 전산팀(팀장 최대종 외 8명)이 도표와 그래프를 이용해 보도한 총선투개표현황 인터넷실시간중계는 비록 대구 경북지역에 한한 데이터 보급차원이었으나 교계에서 처음 있는 일로 교계방송의 능력과 위상을 한층 올릴 수 있었다는 호평을 받고 있다.

최대종 팀장은 “처음이라 데이터 확보에 어려움이 많았다”며 “앞으로 관련기관과의 연계를 통해서 보다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안내를 할 것이며, 전국단위로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배지선 기자

범어사 ‘화합의 등’ 밝혀야

고은, 만해 비판 근거는?

“이젠 안정되는가 싶었더니…”

범어사 차기 주지 선출을 둘러싼 오랜 갈등을 지켜보던 불자들의 한결같은 반응이다. 3년이 넘는 시간동안 부산 유일의 교구본사이자 선찰대본산인 범어사는 국고보조금 횡령 의혹, 차기 주지 선출을 둘러싼 내홍을 겪었다. 그동안 범어사는 제 역할을 상실한 채 비틀거렸고, 위상은 말할 수 없이 추락했다. 최근에는 산중총회에서 대성스님이 만장일치로 차기 주지로 추대되었지만 그 결과를 인정하지 않는 스님들은 서울지법에 주지임명절차이행금지가처분 신청을 냈고 그것이 받아들여졌다. 범어사의 안정은 또 저만큼 멀어져버린 것이다.

누가 옳고 누가 그런가 하는 문제를 따지기엔 범어사는 너무 멀리 흘러왔다. 한시라도 빨리 승가 본연의 자세로 돌아와야 한다. 대중을 교화해야 할 스님들의 갈등은 교단 파괴와 위상약화로 직결되기 때문이다. 교단이 파괴되는 것을 보았을 때는 능히 화합하며 남의 착한 일은 칭찬하되, 타인의 부끄러운 일은 결코 말하지 않아야 한다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고자 삭발염의한 불제자가 아니던가?

봉축을 앞 둔 요즘 범어사에 화합의 등이 밝혀지길 기원하는 마음들, 더욱 간절하다.

천미희 기자

목탁소리

시인 고은 씨가 1975년 펴낸 <한용운 평전>이 새삼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논란의 도화선은 법보신문 이재형 차장이 <불교평론> 2004년 봄호에 게재한 ‘고은의 만해론을 비판한다’란 제목의 논단. 이 씨는 이 글에서 “고은 씨는 만해 스님을 열등감의 소유자이며 순수하지 못한 승려로 묘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고은 씨는 이 책에 대해 “만해의 인간적 한계를 그대로 드러냈을 뿐”이라고 말한다.

역사적 인물에 대한 평가는 보는 이의 시각에 따라 다를 수 있다. 하지만 고은 씨의 만해 스님에 대한 평가가 논란을 불러일으키는 것은 그가 제1회 만해시문학상 수상자이자 만해축전의 대회장을 맡고 있기 때문이다. 고은 씨가 책에서 만해 스님을 근본적으로 부정한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평가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나 자료를 제시하지 못한다면 만해축전의 대회장으로서 도덕적 이중성이라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30여 년 전 자신의 가치평가가 담긴 글을 수정이나 해명 없이 재발간한 것도 독자들이 만해 스님을 잘못 이해하게 할 수 있는 책임 없는 행동으로 비쳐진다.

고은 씨는 지금이라도 분명한 해명을 해야 한다.

여수령 기자

기도하는 도량, 공부하는 도량, 이웃과 함께하는 도량
대한불교조계종 奉恩寺

육조단경 논강 회향에 따른 감사의 말씀

선종 수 사찰이자 강남 최고의 포교도량인 봉은사는 지난 2월 21일부터 4월 10일까지 총 8회에 걸쳐 육조단경 논강을 진행하였습니다.

육조단경은 선종 최고의 경전이며 선문제파(禪門諸派)의 종지가 파생되어 나온 원천이 되는 경전입니다. 특히 조계 혜능스님의 법맥을 계승한 우리 조계종에 있어 육조단경은 종단의 중요한 소의경전 가운데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육조단경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통해 조계종의 수행 가풍을 새롭게 하고 현대인의 선 수행의 생활화를 이루기 위해 마련된 이 소중한 법석에 많은 대중이 동참하여 성황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에 지면을 빌어 육조단경 논강이 여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훌륭한 법연을 베풀어 주신 모든 대덕스님과 선지식, 그리고 동참 대중과 설판재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특히 바쁘신 가운데서도 본 논강을 빛내 주신 혜국 큰스님과 고우 큰스님, 그리고 지안 스님과 성본 스님을 비롯한 모든 논주와 논사님들께 심심한 감사를 올립니다. 아울러 본 논강을 후원해주신 종단 관계 기관과 교계 언론사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인사를 전하는 바입니다.

봉은사는 이번 육조단경 논강의 성과를 바탕으로 올 하반기에도 새로운 논강, 새로운 법연을 조직하여 사부대중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사부대중 여러분의 깊은 관심과 동참이 있으시길 당부합니다. 감사합니다.

불기 2548년 4월 15일

대한불교 조계종 수도산 봉은사 주지 설담 원혜 합장

불기2548 봉은사 봉축행사 안내

사월 초파일은 불교 최대의 경축일입니다. 어두운 사바세계에 진리의 빛을 밝히신 부처님을 기리기 위해 불자들은 연등을 밝혀 공양하고, 연등축제와 제등행진 등을 비롯한 다양한 행사로 부처님의 오심을 기뻐합니다. 봉은사는 2548년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다음과 같은 행사를 마련하여 불자님들과 함께 부처님을 맞이하고자 합니다. 불자 여러분의 많은 동참을 바랍니다.

- 봉축 법요식 및 관불식(5월 26일, 대웅전 앞마당)
- 전통 등 전시회(5월 19일 ~ 26일, 보우당)
- 불교서적 및 용품전시 판매전(5월 19일 ~ 26일, 일주문 앞)
- 봉은사 옛날 사진 콘테스트(5월 19일 ~ 26일, 법왕루)
- 범종을 울려라!(불교 교리 퀴즈대회, 5월20일, 미륵전 앞)
- 불교전통 혼례식 시연 (5월 25일, 대웅전 앞)
- 불교사진작가협회 사진전시회(5월 23일 ~ 26일, 보우당)
- 도농공동체 먹거리 장터(5월 19일 ~ 26일, 일주문 옆)
- 연등축제 개막식(5월 19일, 대웅전 앞마당)
- 동자승 출가체험(5월 16일 ~ 27일, 선불당)
- 코엑스몰 포교활동(5월 22일, 삼성역 주변)
- 서원사탕 나누기(초파일, 대웅전 앞마당)
- 점등식(초파일, 봉은사 전역)

◆행사관련 문의 : 봉은사 포교실 ☎ 02)516 - 5652
◆봉축 등 접수 및 문의 : 봉은사 접수부 ☎ 02)3218 - 4800~5

'비구니 종단' 보문종 이끄는 스님들

'세계 유일의 비구니 종단' 보문종에 항상 따라 붙는 수식어다. 보문종은 1972년 최초의 출가 비구니였던 석가모니 부처님의 이모인 마하파자파티를 종조로 창종된 종단이다. 보문종이 창종된 시기는 불교 역사에서도 격변의 시대였다. 통합 종단을 둘러싸고 비구승과 대처승의 대립이 격화되면서 많은 사찰들이 분규의 소용돌이에 휘말렸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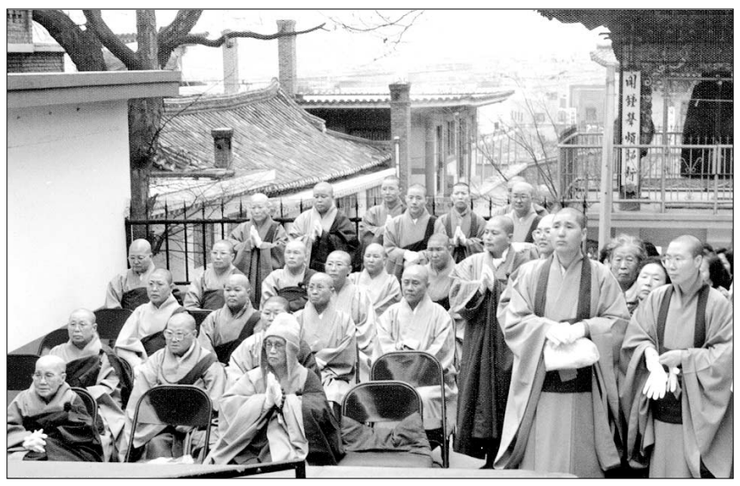
소외 이웃·새싹 불자와 자비세상 열어가요



혜안 스님 혜일 스님 법준 스님 혜월 스님 법종 스님 지환 스님 덕현 스님 대인 스님 묘관 스님

1971년 긍탄 스님과 은영 스님은 비구니 도량인 보문사의 재산을 지키기 위한 수단으로 '재단법인 대한불교 보문원'을 설립했다. 이를 기반으로 이듬해 비구니와 여성의 권익을 높이고 사회 발전에 기여하자는데 뜻을 같이한 비구니 스님들이 보문종을 창종했다.

보문종은 석가모니 부처님이 이 세상에 출현하신 깊은 뜻을 받들어 수행하고, 그 변화신(變化身)이신 관세음보살이 세상을 구제하신다는 자비원력을 성취하기 위해서 위로는 깨달음을 구하고 아래로는 중생을 제도하는 것(上求菩提 下化衆生)을 종지로 삼고 있다. 그래서 1971년부터 30여년간 불우노인의 거처인 시자원을 건립해 경로 사업을 실시했고 1987년 은영유치원 설립, 1994년 은영어린이집 설립해 교육과 복지에 매진해 왔다.



1972년 창종된 보문종은 세계 유일의 비구니 종단으로 비구니 위상을 높이는데 일익을 담당해 왔다. 사진은 초대 총무원장을 지낸 은영 스님 추모비 제막식 때 참석한 보문종 스님들.

사찰분규 격랑 속 1972년 창종
국내 34개·해외 4개 사찰 운영

보문종이 지금의 모습을 갖추기 까지는 긍탄 스님과 은영 스님의 역할이 매우 컸다. 그러나 이 두 스님은 모두 입적했고 현재는 혜안 스님 등 보문종 집행부를 중심으로 전국 34개 사찰, 해외 4개 사찰 등 총 38개의 말사를 거느리며 비구니 종단의 위세를 넓혀가고 있다.

종단의 정신적인 지주인 종정 **혜안 스님**은 1912년 경북 청도에서 태어나 1927년 전주 정혜사에서 영명 스님을 은사로 출가했다. 이후 1932년 내장사에서 한영 스님을 계사로 보살계를, 1939년 원통사에서 동산 스님으로부터 구족계를 수지한 스님은 석남사 등 전국 비구니 선방에서 수십 안거를 마친 수좌 출신이다. 그래서 대외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종단내의 가장 큰 어른으로 추앙받고 있다.

원로원장 **혜일 스님**은 1945년 정혜사 강원을 수료하고 완산선원에서 40여년간 참선 수행에만 전념했다. 그러나 종단의 발전을 위해 세간을 나와 1991년부터 2001년까지는 총무원장 소임을 맡으며 다양한 활동을 펼쳤고 지금은 전주 정혜사에서 지역 포교에 앞장서고 있다.

한국불교 역사 가운데 최초의 비구니 모임인 우담바라회 초대 회장을 역임한 은영 스님을 은사로 1936년 출가한 원로 **법준 스님**은 은사 스님의 유지를 받들어 비구니 스님의 위상 강화에 많은 기여를 했다. 지난해까지 보문사 주지 소임을 맡았으며 비구니 교육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

혜일 스님과 함께 완산선원에서 30 하안거를 성만한 **혜월 스님**도 종단의 원로로 중요 종책이나 기타 종단 행정에 많은 자문을 하고 있다. 또한 비구니 수행체계 확립에도 많은 원력을 기울이고 있다.

실질적으로 종단의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법종 스님**은 내원사, 해인사, 석남사 등에서 수십안거를 성만한 수좌 출신으로 최근 서울시 도시계획사업으로 철거된 무료 양로 시설 시자원에서 중생들의 아픔을 함께 나눴다. 1981년 총무원 교무부장을 시작으로 20여년간 종단 행정을 두루 경험했고 한국종단협의회 참여 등 대 사회적 활동에도 적극적이어서 종단 위상을 한층 업그레이드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총무부장 **법수 스님**, 교무부장 **진일 스님**, 재무부장 **금주 스님**도 법종 스님을 도와 종단의 재정을 비롯해 비구니 스님의 교육, 수행 분야와 부처님의 자비를 실천하는 복지 분야의 종무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종회의장 **지환 스님**은 군산 흥천사에 주석하며 10여년간 군산역에서 무료 급식 활동을 펼치고 있는 불교 복지 전문가. 지난 1987년 반야 유치원을 설립해 불교적 소양을 가진 인재양성에 힘을 보태고 있는 스님은 종단의 주요 사업을 결정하는 종회를 불협화음 없이 잘 운영하는 등 종단 안정에 기여하고 있다.

계행이 청정하기로 유명한 **덕현 스님**은 호계원장 소임을 맡으며 종단 내 300여 종도들의 종풍진작에 나서고 있다. 특히 비구니 계율에 대한 학문적 연구도 게을리 하지 않고 있어 '비구니 우바리'로 통한다.

재가불자의 계율에도 관심이 많은 스님은 종단내에서 보살계 법회 등을 주도하며 계율의 중요성을 확산시키고 있다.

재단법인 대한불교 보문원 이사장 **대인 스님**의 활동도 빼 놓을 수 없다. 1955년 보문사에서 일조 스님을 은사로 출가한 스님은 1981년부터 89년까지 총무원 재무부장의 소임을 맡으며 재정 관리에 대한 종무 감각을 키워왔다.

1997년부터는 종단의 모든 재산에 대한 관리 책임을 맡으며 삼보 정재를 보호하는 '신장'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묘관 스님은 종단의 원로이자 총본사 보문사 주지로 활동하며 현재의 보문사 사격을 이루는데 일조하고 있다. 1942년 출가한 스님은 잠시 전주 정혜사에서 참선 수행을 하기도 했지만 평생을 보문사에서 주석하며 초대 총무원장을 역임한 은영 스님을 도와 선원인 선불장, 불교회관 동원정사, 만불전, 석굴암 등의 불사에 만전을 기해왔다.

특히 보문사에서 운영하는 은영유치원과 은영어린이집의 재정적인 후원자로 불교의 새싹을 키우는데도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보문종은 앞으로 어린이집 등 복지시설 수탁을 통해 부처님의 자비를 실천하고 이웃과 하나된 종단으로 입지를 굳혀나갈 계획이다. 또한 그동안 '풍경소리' 지원, 보문역 만남의 광장 개소 등 많은 지원을 한 지하철 포교에도 전력할 방침이다.

양로시설·어린이집·유치원 등
복지·교육사업에 힘쏟아

김두식 기자 doobi@buddhapia.com

한국의 비구니 스님 <12> 창일 스님

禪敎 겸비… 70년 수행 전념



"어린 시절 모셨던 스님들을 생각하면 하루도 게을리 살 수가 없어. 먹을 것도 제대로 없었던 궁핍한 시절이었지만 엄격히 계율을 지키며 수행에 매진할 정도로 근기가 수승하셨지. 아직도 그 스님들을 마음속의 사표로 삼고 있어요."

서울 약수동 미타사 칠성각 창일(昌一) 스님은 70년 이상 절집에서 살면서 수행에 전념해 왔지만 아직도 시봉했었던 큰스님들에 비하면 별로 한 일이 없다고 겸손해 하신다. 그러나 스님의 주름진 얼굴과 겸손한 말투에서 세수 80이 넘은 수행자의 깊은 수행력을 느낄 수 있었다.

1924년 서울에서 태어난 창일 스님은 6살 어린 나이에 미타사에서 계택 스님을 은사로 출가했다.

스님은 어린 시절 절집의 생활이 재미있었다고 회상한다. 공양간에서 밥 짓는 일부터 예불을 올리는 일까지 모두가 힘들었지만 새롭고 신기하기만 했었다고 한다.

"살아있는 전통문화 전수자"
상좌들 교육 전폭 지원

재미있고 신이나는 일은 오래 기억되는 법. 스님은 아직도 어린 시절 은사 스님에게 전수받은 사찰 음식 만드는 법, 전통 범패 의식 등을 아직도 그대로 행하고 계신다.

스님의 상좌인 성연 스님은 "아직도 화엄경, 금강경 등 다수의 경전을 외우시고 사찰 종무와 관련된 기관의 전화번호를 모두 암기할 정도"라며 "산중의 사찰에서도 옛 것을 많이 잃어버린 요즘 우리 스님은 '살아있는 전통 문화 전수자'라 불러도 손색이 없다"고 말한다.

1945년 서울 안국동 선학원에서 만공스님을 계사로 구족계를 수지한 스님은 1959년부터 10년간 합천 해인사 관음암, 홍제암에서 감원(암자의 살림살이를 책임지는 소임)을 맡으며 종무 행정을 경험했다. 또 해인사 승가대학에서 지관 스님에게 사사를 받으며 교학에 대한 공부도 게을리 하지 않았다.

불교는 머리속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생각에 해인사 삼선암 선방 등에서 10년동안 참선에 전념하기도 했다.

이후 스님은 1968년 양산 상북면 소토리에 성림사를 창건했고, 1979년부터 현재까지 미타사 칠성각에 주석하며 미타사 중수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창일 스님은 은사 스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이 너무 크다고 토로하신다. 그래서 상좌들에게도 남다른 애정을 갖고 뒷바라지를 해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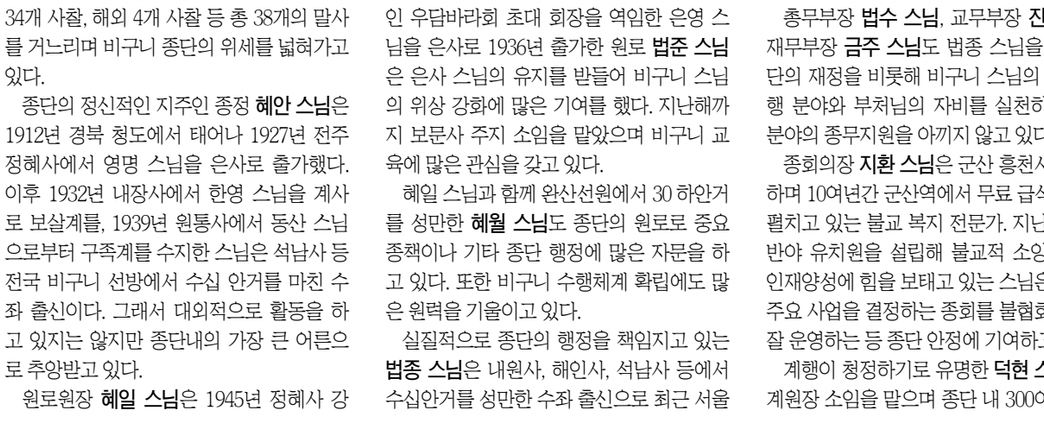
10여명의 상좌 모두를 젊은 시절부터 전통 강원에 보내 훌륭한 스님들과 인연을 맺게 해 주었고 강원 졸업 후에는 일반 대학에 진학시켜 배움의 기회를 넓혀 주었다. 맏 상좌인 성림사 주지 성우 스님이 문학가로 활동하고 있고 대만에 유학한 성관 스님이 의정부에서 포교에 나서고 있다. 또한 성연 스님은 미타유치원 원장으로 은사 스님의 내리 사랑을 실천하고 있다.

성우 스님은 "스님이 상좌들에게 현대식 교육을 시킨 것은 수행자로서 갖춰야 할 품성과 지식을 습득해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불법을 홍포하라는 뜻"이라며 "스님은 불교 미래를 위해 꼭 필요하다며 어린이, 중고등부, 대학생 불자들에 대한 지원도 아끼지 않으신다"고 귀띔한다.

김두식 기자

한가지 소원을 꼭 이루는
삼사순례 및 방생도량

귀의 삼보하옵고,
해수관음도량인 **해동용궁사**는 앞은 푸른 바다요, 뒤는 산으로 **삼사순례**나 **방생법회** 하는데 가장 좋은 곳으로 유명합니다.
전국의 佛子님께서는 甲申년 새해를 맞이하여 해동용궁사에 오셔서 많은 공덕을 성취 하시기 바랍니다.



◀ 대형 주차장 완비
◀ 입장료 무료
◀ 점심공양 가능
◀ 방생물 배달해 드림

www.yongkungsa.or.kr
한가지 소원을 꼭 이루는
해동용궁사
HAE DONG YONG KUNG TEMPLE
전화: 051) 722-7744,7755

방생 및 삼사순례 안내



삼보전에 귀의 합니다.
각 사암 대덕 큰 스님께 인사 올립니다.

본 성모암은 **진묵대사**님께서 탄생하신 불거촌에 효행을 실현한 사찰로서 진묵대사님 어머님의 묘소와 더불어 진묵대사님의 영정을 봉안한 도량으로 가까이에는 진묵대사께서 육신방생의 유래가 있는 100만평의 능제 저수지가 자리한 해동의 최고 방생지이며 방생과 더불어 금산사·망해사·흥복사·봉서사를 연결하는 삼사순례의 적격지입니다. 조사님의 혼이 머무는 본도량에 왕림하시어 일체 서원을 이루시길 사부대중과 더불어 발원합니다.

전주 군산 간 벚꽃길따라 100리, 윤달 삼사순례 오십시요.

오시는 길
◎ 호남고속도로 전주 IC에서 군산방면 - 대야검문소에서 김제방면으로 10분 거리
◎ 서해안 고속도로 동군산 IC. 서김제 IC에서 5분거리

종무소 ☎(063)544-0416 (사전에 필히 전화 접수바랍니다.)
Fax 063)542-6991 www.sungmoam.net
점심공양을 무료로 해드립니다. 하루 일천명의 점심공양 가능(무료)

전북 김제시 만경읍 화포리 불거촌 388번지
성 모 암 대중일동

부산불심 노인복지로 앞장선다

범어사, '빨래방 白衣民族' 개업
세탁 봉사 통해 일자리 제공

양정 · 개금복지관 '실버와 그린…'
산학 협동 · 신개념 활동 도입

고령화 사회를 맞아 노인 일자리, 노인 복지 문제 해결을 위해 부산과 대구 불교계가 발 벗고 나서 눈길을 끈다.

사회복지법인 범어사 금정노인인력지원기관(관장 강규성)이 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빨래방 白衣民族(백의민족)'을 5월 1일 개업하며, 불교사회복지회 대구 남구노인인력지원기관은 '나눔의 가게(재활용 가게)'를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사회복지법인 불국토 양정재가노인복지센터(관장 박용하)는 부산여자대학과 연계, 복지 네트워크 형성에 나섰다.

'빨래방 白衣民族'은 풍년떡집, 해피케어 등 금정노인인력지원기관의 노인 일자리 창출 프로그램 중 하나로 4명의 고정인원을 비롯 총 20명에 이르는 노인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게 된다. 금정구 남산동에 위치한 빨래방은 25kg, 18kg 2대의 세탁기와 건조기 1대, 간판 등의 설치를 완료하고 세탁기 시운전 등 개업 준비를 서두르고 있다.

빨래방 白衣民族의 또 하나 빼놓을 수 없는 주요사업은 인근 복지관이나 동사무소 등과의 연계를 통한 봉사활동. 가정파견봉사에서 소화할 수 없는 이불 등 대형 세탁물을 빨아주는 봉사활동을 펼치게 된다.

김재오 담당 복지사는 "빨래방이 어르신들의 일자리이자, 휴식공간이 되도록 시설을 갖출 예정"이라며 "빨래방 시설에 필요한 행거, 빨래바구니, 중고 TV 등이 부족하다"며 어르신들의 경제적 자립에 필요한 후원을 기다린다고 말했다.(051)516-3045

한편 양정재가복지센터와 개금복지관은 4월 16일 부산여자대학 마릭홀에서 '실버와 그린의 마주보는 세상' 및 '노인학대 쉼터 노인지킴이 봉사단' 발대식을 갖고 대학의 물적 · 인적 자원을 활용한 노인 복지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사회복지과뿐 아니라 피부미용과, 차문화복지과, 제과제빵과, 호텔조리과, 안경광학과 등 5개 학과의 학생들을 중심으로 지역 내 독거노인들과 연계하고 4월부터 12월까지 매주 1회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발마사지, 이 · 미용 서비스, 물놀이, 낙엽 밟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들은 학생들에게 그들의 전문성을 살린 봉사경험을, 어르신들에게 외로움 해소와 문화욕구 충족을 가져다 줄 것으로 전망된다.

부산 최초로 시도되는 산학 협동의 복지프로그램으로 관심을 모으고 있는 '실버와 그린의 마주보는 세상'을 기획한 윤기혁 실장은 "젊음과 연륜의 만남은 일방적인 서비스와 복지 개념을 탈피, 상호 교류와 나눔의 복지개념이 도입될 것"이라고 말했다.

15명 정도의 노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게 되는 나눔의 가게는 준비 단계에서 자금난에 봉착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러나 '가족의 힘으로 노인의 일자리를 만들어 드립시다'라는 구호를 내걸고 노인들과 온 가족이 함께 하는 벼룩시장을 구상 중이며, 6월에는 매장마련을 위해 노인들이 직접 일일호프를 연다. '나눔 가게'에 함께 할 어르신을 모집중이며 모집기간은 4월 21일까지(053)471-8900

천미희 · 배지선 기자

경산 '코발트광산' 영가 천도재



한국전쟁 전후에 억울하게 숨진 영가들을 위해 코발트 광산 앞에서 펼쳐진 천도재 현장.

54년만, 150여명 참석

경산과 청도 및 기타지역 코발트광산 민간인 피학살자유족회(공동회장 이태준, 이동췰)가 4월10일 경산시 평산동 코발트 광산 앞에서 한국전쟁을 전후해 억울하게 숨진 수천의 영가들을 위한 천도재를 거행했다.

괘불이운, 영가들에 대한 관욕, 원명스님 법문, 지장불공, 시식 순으로 이어진 이날 천도재에는 마산 태고종 관해사 자운 스님을 비롯한 강진 선각종 불영암, 광주 금정암 심향사, 나주 법정암 · 덕양암, 수원 원광사 등에서 온 8명 스님이 주관했으며, 대구사원주지연합회 회장 원명 스님이 법문했다. 그 외 경산 청도지역의 유족과 시민단체회원 150여명이 참석했다.

배지선 기자

여수 석천사 '하얀연꽃' 상량



무료노인복지시설 '하얀연꽃'의 상량식 모습.

720평 현대식 건물
60세 이상 노인 무료

노인전문 요양시설 '하얀연꽃'이 4월 11일 여수 돌산 평사리 바닷가에 모습을 드러냈다.

여수 석천사(주지 진옥. www.scsa.or.kr)가 건립중인 하얀연꽃은 임종을 앞둔 노인 복지시설로 이날 지역사암 스님과 신도, 지역기관장 등 1200여명이 동참한 가운데 상량식을 봉행했다.

상량식에서 진옥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불사에 동참하는 자비실천행이야말로 아집과 욕망을 정화하고 깨달음을 이루는 발보리심의 계기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

기념식에 이어 참가자들은 1층 다목적 프로그램실 벽에 장식할 도자기 타일에 자신의 이름을 기입하고 상량문 그네타기와 불교의식 등 다양한 행사에 동참했다.

이날 상량한 '하얀연꽃'은 자녀가 없거나 있어도 보살핌을 받지 못하는 60세 이상 노인들이 생활하는 무료노인복지시설로 1만여 평의 대지에 720평 현대식 건물이다. 복지건물에는 삼천불전 법당을 비롯 목욕실, 물리치료실, 각종 프로그램실 등이 들어서며 오는 10월경 완공된다.(061)662-1607

이준엽 기자

법련사 후불탱화 점안식



서울 법련사(주지 보경)가 4월 19일 대웅보전에 봉안할 후불탱화(사진)와 영산회상의 삼천불탱화, 신중탱화 점안 법요식을 봉행했다.

법련사는 후불탱화 점안식을 기념하기 위해 19일부터 21일까지 3일간 오전과 오후로 나눠 송광사 방장 보성 스님을 비롯해 설정, 현해, 혜인, 암도, 근일 스님 등을 초청, 특별설법회도 가졌다. 또 19일부터 후불탱화봉안기념 기도법회를 시작, 25일까지 진행한다.

한명우 기자

인천불교회관 10일 개원



인천불교회관 관장 일지 스님이 그 동안의 회관불사 경과보고를 하고 있다.

인천전법도량 인천불교회관이 4월 10일 조계종 총무원장 법장 스님 및 포교원장 도영 스님, 종회의장 지하 스님 등 500여명의 사부대중이 참석한 가운데 점안식 및 개원법회를 갖고, 인천지역의 포교거점으로서의 활동을 시작했다.

이날 개원법회에서 총무원장 법장 스님은 발원문을 통해 "회관이 여러분들의 법신을 장엄하기 위한 신행 · 수행공간으로써, 깨달음을 얻고 덕을 행해 해탈하는 공간으로 활용되기를 바란다"고 격려했다.

이에 앞서 인천불교회관 관장 일지 스님은 "인천불교회관 건립을 위해 힘써주신 종단 및 인천사암연합회, 그리고 여기 계신 많은 신도들께 감사드린다"며 "인천지역불교의 중흥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법회는 시상식과, 종회의장 지하 스님의 격려사, 중앙신도회 백창기 회장과 인천광역시 행정부 김동기 부시장의 축사 순으로 이어졌으며, 총무원장 법장 스님은 인천불교회관 관장 일지 스님의 공로를 치하하며, 표창장을 수여했다.

김은경 기자

통도사 금강계단 보살계 수계산림

불보종찰 통도사(주지 현문)는 4월 23일부터 25일까지 통도사 금강계단에서 혜남스님을 전계대화상으로 금강계단 보살계 수계산림을 봉행한다.

23일 입재 법회에서는 통도사의 자매결연사찰인 중국 불광산사 성운 대사 초청 법회가 열린다. (055)382-7182

천미희 기자

광주 5 · 18 행불자 영산재

광주 5 · 18 민주화운동 행방불명자들의 왕생극락(往生極樂)을 기원하는 영산재가 4월 9일 국립5 · 18묘지 광장에서 열렸다.

5 · 18 행불자 위령제 봉행위원회가 주관한 이날 영산재는 전 조계종 총무원장 월주 스님, 한국민족종교협의회 한양원 회장, 천도교 이철기 교령 등 종교계 대표와 5 · 18 민주화 단체대표, 행불자 가족 등 200여명이 동참했다.

이준엽 기자

팔공산 묘적암 산신재 · 음악회

경북 영천 팔공산자락에 위치한 묘적암(주지 성인)이 4월 28일부터 5월 4일까지 중창불사 원만회향을 위한 산신대재를 거행하고 4일 오후2시 기원음악회를 개최한다. 011-9693-2930

배지선 기자

미얀마유학생 · 노동자 신년법회

대구 영남불교대학 · 관음사(회주 우학)는 4월 18일 미얀마유학생 및 노동자 30명이 참석한 가운데 미얀마 양력 설날인 4월 17일을 기념하는 신년법회를 7층 법당에서 봉행했다.

배지선 기자

둥근 공으로 뭉친 '한마음'



경기에 앞서 한마음선원 광주 · 부산지원 소속 축구선수들이 합장을 하고 있다.

한마음선원 광주 · 부산지원
화합 · 심신공부의 장 펼쳐

한마음선원 광주지원(지원장 혜월)과 부산지원(지원장 혜도)의 친선 축구 경기가 열렸던 4월 11일 광주환경시설공단 축구전용구장. 경기 시작 전부터 응원 열기가 뜨거웠다. '부산지원 환영해요'라는 문구를 등에 붙인 광주지원 응원단의 율동에 부산지원 청년회 응원단은 "우리는 한마음!"이라는 구호로 화답했다. 전후반 각 25분씩 2번의 경기 끝에 1대 1 무승부. 몸으로 부대끼며 하나 된 경기 동안 부산과 광주 신도들은 어느새 한마음이 되어 있었다.

"축구 경기를 하러 와서 마음공부까지 하고 돌아갑니다. 스님과 신도님들, 선수단 모두가 한마음 한뜻이 돼 축구공처럼 둥글고 원만하게 돌아가는 모습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부산지원 축구단 박영백 단장은 이렇게 소감을 밝혔다. 2002년 1월, 타 지역에 비해 불심이 약한 광주지역에 축구를 방편으로 포교의 불씨를 지피기 위해 창단 됐던 구도단이 2003년 창단, 훈련에 돌입한 부산지원 선수단을 초청하면서 성사된 이날 경기는 축구를 통한 정진의 시간으로 회향됐다.

구도단 주최의 행사였지만, 신도회가 공양 준비를 자청했고, 남편이 선수로 뛰는 보살들은 응원단을 결성, 맹연습에 돌입하기도 했다. 이처럼 이날 경기는 축구를 통한 부산과 광주의 첫 만남이라는 점에 더해 광주 신도들의 정성스런 마음이 보태지면서 법담을 나누며 도반애를 다지는 화합의 장으로 승화됐다.

광주=천미희 기자

동판 팔만대장경 조성불사 원만성취를 위한
제44회 해인사 팔만대장경 수호 정대불사

귀의 삼보하옵고, 불자님의 가정에 부처님의 자비광명이 충만하시길 축원 드립니다.
팔만대장경 정대불사(八萬大藏經 頂戴佛事)는 조선 태조 7년(1398년) 팔만대장경판을 강화도 선원사에서 해인사로 이전할 때 많은 신도들이 경판을 머리에 이고 옮긴데서 유래되었습니다.
지난 61년 이후 올해로 44년째 해인사에서 봉행해 오고 있는 해인사 팔만대장경 수호 정대불사는 인류문화의 보고인 해인사 팔만대장경을 진심으로 수호하고 부처님의 말씀을 널리 전하고자 하는 해인사를 대표하는 최대의 행사이며, 법보신앙의 꽃입니다.
특히 이번 해인사 팔만대장경 수호 정대불사는 최고의 동판대장경 조성을 위해 그동안 누차에 걸쳐 각계 전문가들이 검수하고 한국과학기술원(KIST)에서 검증한 동판 팔만대장경 경판의 완성본을 부처님께 바치는 **동판 팔만대장경 봉정식**을 더불어 봉행합니다. 최상의 공덕이 될 이 불사에 두루 동참하시어 한없는 복덕과 지혜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법회일정안내

■ **일 시 : 2004년 4월 27일(화) ~ 4월 28일(수) [음 3월 9일 ~ 10일] 양일간**

4월 27일(음 3월 9일)
- 시 련 : 오후 4시
- 입 재 : 오후 6시
- 해인삼매법문 : 오후 7시
- 대령관욕 : 오후 10시

4월 28일(음 3월 10일)
- 영가천도 : 오전 4시
- 괘불봉안 : 오전 8시
- **동판대장경 봉정식 및 정대법회 : 오전 9시**
- 회 향 : 오후 1시

■ **증명 :** 법전 대종사 ■ **법어 :** 지관 대화상 ■ **법사 :** 원융, 종묵 큰스님
※ 동참금 : 30,000원(1인) ※ 영가동참금 : 영가1위당 10,000원

■ **접수안내 :** 접수처 - 경남 합천군 가야면 치인리 10번지 해인사 종무소
천도법회 사무실 : (055)934-3105~6 FAX (055)934-3107

■ **온라인접수 :** 농 협 843174-51-003929 (예금주 : 해인사) 우체국 611806-01-000327 (예금주 : 해인사)
※ 우편접수 및 온라인 접수는 전화 확인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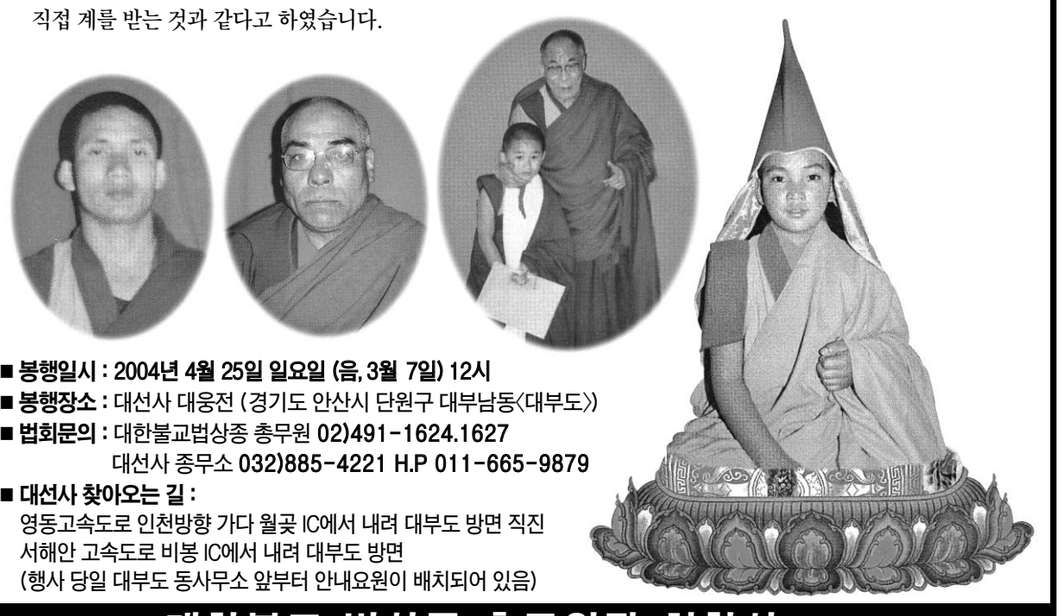
대한불교조계종 법보종찰 해인사 주지 박세민 합장

대한불교법상종

봉 생불 잠보라마 초청 수계 대법회 행

본 종단에서는 잠보라마 생불 초청 국제 수계 대법회를 봉행합니다.
달라이라마가 인정하는 환생 생불이신 잠보라마님을 모시고 수계법회를 봉행하오니 수희 동참하시어 두터운 업장을 소멸하시고 큰 공덕 받으시길 기원합니다.

달람살람 사원의 달라이라마 존자님이 인증하는 환생불이신 잠보라마님에게 수계를 받으시면 석가 세존님께 직접 계를 받는 것과 같다고 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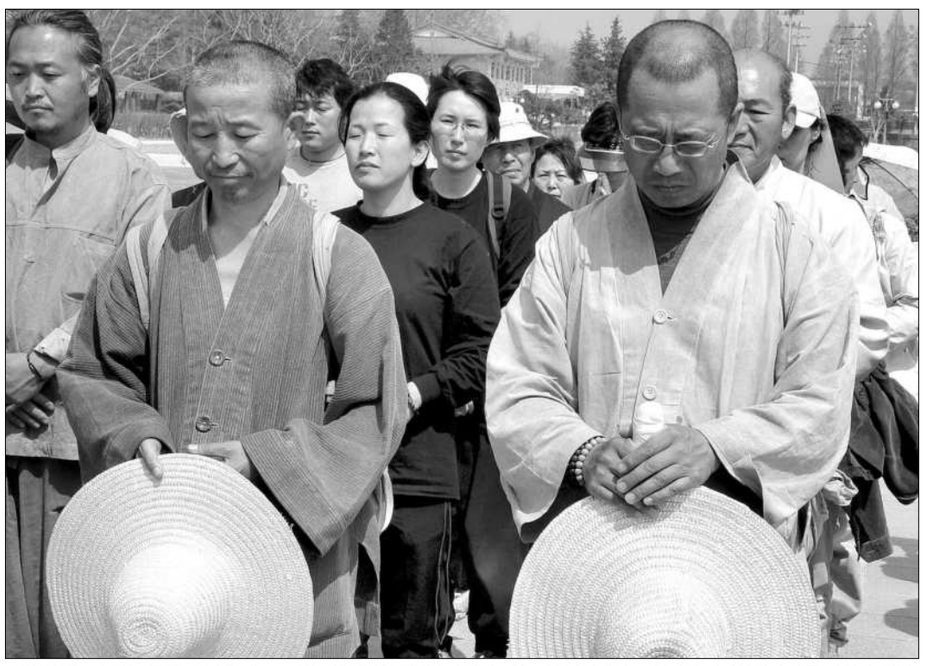
■ **봉행일시 : 2004년 4월 25일 일요일 (음, 3월 7일) 12시**
■ **봉행장소 :** 대선사 대웅전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대부남동〈대부도〉)
■ **법회문의 :** 대한불교법상종 총무원 02)491-1624.1627
대선사 종무소 032)885-4221 H.P 011-665-9879
■ **대선사 찾아오는 길 :**
영동고속도로 인천방향 가다 월곶 IC에서 내려 대부도 방면 직진
서해안 고속도로 비봉 IC에서 내려 대부도 방면
(행사 당일 대부도 동사무소 앞부터 안내요원이 배치되어 있음)

대한불교 법상종 총무원장 최학산 합장

※총무원 공지사항 : 사찰등록증, 임명장, 승려증, 포교사 신분증 미교부자 교부바랍니다. 2004년 5월 20일까지 총무원으로 연락 바랍니다.

"만남·상생의 길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4월14일 지리산권 순례 마친 생명평화 탁발순례단



도법(왼쪽) · 수경(오른쪽) 스님을 대표로 하는 생명평화 탁발순례단이 4월14일 남원에서 45일간의 지리산권 순례를 마쳤다. 탁발순례단이 남원 '만인의사 순의탑' 에서 정유재란때 희생당한 호국영령을 추모하는 묵념을 하고 있다.

순례도로·지리산통합문화권 등 대안 제시

45일간 1500리 하루 50여명씩 만나
농촌붕괴·환경파괴 현장 안타까워
22일 제주로 이동 남쪽 순례 본격화

이 시대에 사라져가는 생명과 평화를 구걸하고자 길 떠났던 생명평화탁발순례단(단장 도법 스님)이 4월 14일 남원에 입성했다. 순례시작 45일째이자 지리산권 탁발순례를 마치는 날이기도 하다.

이로써 지리산 노고단에서 탁발순례시작을 고한 뒤, 구례-하동-산청-함양을 거쳐 남원에 이르기까지 지리산을 빙 둘러 한바퀴 돌았다. 하루 40리씩 족히 1500리 길을 걸었다. 매일 50여 명씩, 주말에 많게는 500여명을 만나 생명평화 결사에 동참할 것을 호소했다.

"사람은 역시 걸어야 합니다. 실상사 주지로 살 때보다 몸무게가 더 늘었어요. 마음도 한결 가벼워지고…"

이날 순례단을 만난 것은 남원 초입 만복사지였다. 점심공양 후 남원지역 단체장, 신도들과 간담회를 갖는 도법스님에게 건강을 챙기자 "이보다 더 건강 할 수 없다"며 미소를 보인다. 그렇지만 석탑 그늘에 누워 오수를 즐기는 수경스님, 여기저기 각자가 편한 대로 자리를 잡아 휴식을 취하는 진행요원들의 남루한 모습이 오랫동안 길에서 살고 있는 순례단이다.

지난 45일, 어찌 보면 무작정 떠난 길이기도 하다. 매일 면단위 마을에서 마을로 걸어가며 사람들을 만나, 그들에게 생명평화를 설명하고 평화결사에 동참하도록 하는 탁발의 길. 3년이 걸릴지 10년이 걸릴지 끝을 알 수 없는 길에서의 생활이기에 무모하기 이를 데 없었던 것이다.

그래도 지리산권 순례를 마치고 나니 앞으로 순례단이 해야 할 일, 함께 가야 할 길이 보인다고 한다.

도법 스님은 "실상사에서는 찾아온 사람들과의 만남이었다면 탁발순례는 찾아가 만나는 과정이다"고 말한다. "길을 걸으면서 자기자신과의 대화를 통해 자신을 만나고, 지역현장에서는 지역민과 만났다"고 한다. 그러면서 "순례길에서 만난 것은 희망과 절망이 교차한다"고 말했다. 탁발순례단이 만난 현장은 절망스러웠다.

"농촌의 붕괴가 참담할 정도예요. 마을마다 나이 50대가 막내인 경우가 허다합니다. 아직도 개발논리에 빠져있는 단체장들로 인해 환경파괴도 말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탁발순례단 총괄진행을 맡고 있는 이원규 시인은 "앞으로 5년 후면 땅이 있어도 노동력이 없어 농촌이 무너질 것 같다"며 안타까워한다. 3000여명의 농촌마을에 초등학교 입학생 4~5명꼴로 농촌의 공동화로 인해 나라의 기반이 흔들리지 않을까 걱정스럽다는 것이다.

순례단 살림을 맡아 이끌면서 이원규 시인이 가장 힘들었던 것은 '사고와의 전쟁'이다. 길이 없었다. 지리산을 둘러 길이 있으되 사람이 아닌 차가 다니는 길이었다. 때때로 폭 70cm 의 사람이 가는 길이 있지만 대형트럭이나 고속으로 다니는 차량 속에 목숨을 걸어야하는 길이었다. 그래서 몇 가지 대안을 내놓았다.

지리산 자락을 도보로 순례할 수 있는 '순례도로' 개설을 건교부장관에 제안했다. 이 길은 예전에 있었던 농로, 강둑길, 오솔길로 이어지는 '사람의 길'로 최근 건교부에서 심도있게 추진하고 있다는 소식이다.

또한 지리산을 에워싸고 있는 5개 시, 군 단체장들을 모두 만나 '지리산통합문화권'을 제안했다. 생태의 보고인 지리산을 '최소 개발로 보호하고 생태관광으로 유도하자'는 지리산통합문화권은 탁발순례단의 조율에 단체장들이 적극 참여하고 있다.

먼저 구례에서 추진 중인 지리산 케이블카 설치문제와 관련해 남원시장과 구례군수, 국립공원관리공단 등 3개 단체장에게 제시했다. 지리산을 관통하는 도로(1861번 지방도) 양쪽에 주차장을 설치하고 셔틀버스나 무공해 모노레일을 설치해 차량운행을 최소화하자는 것이다. 주차장에 차량을 두기 때문에 체류시간이 길어져 지역민들의 관광수입에도 효과적이다. 이 제안은 단체장들이 관심을 갖고 있어 합의만 되면 빠른 시일 내에 시행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사람들 간의 갈등해소는 참으로 어려움을 느낀다. 특히 사랑과 자비를 외치는 종교 간의 갈등은 감내하기 어렵다. 탁발순례길에 기독교 교회와 원불교 교당에서 몇 밤을 의탁했지만 몇몇 성직자들은 교당 참배마저도 거절하곤 했다.

그래도 함양성당에서 순례단이 주일미사를 함께 보며 도법스님이 생명과 평화에 대한 강론을 한 뒤 미사헌금 절반을 생명평화 기금으로 받는 즐거움도 있었다.

이날 '며칠만' 하고 따라나섰다가 남원까지 함께 탁발길에 나섰던 박남주 시인이 지리산권 회향을 기념해 시를 낭송했다.

"…이 길, 생명평화 탁발순례의 길 / 넘치고 남는 것을 탁발하려는 것이 아니네 / 콩 한 톨, 쌀 한줌 같이 나누려는 / 그 함께 하려는 마음을 탁발하려는 것이네 / 지상의 뭇 생명을 품어 깨어나게 하는 / 오 어머니, 대지의 너른 품안을 탁발하려는 것이네…"

이제 순례단은 4월 22일 4 · 3의 아픔이 남아있는 제주도로 떠난다. 한 달간 제주도 한라산 자락을 돌고 다시 남쪽에서부터 본격적인 생명탁발의 길을 떠난다.

글 · 사진=이준엽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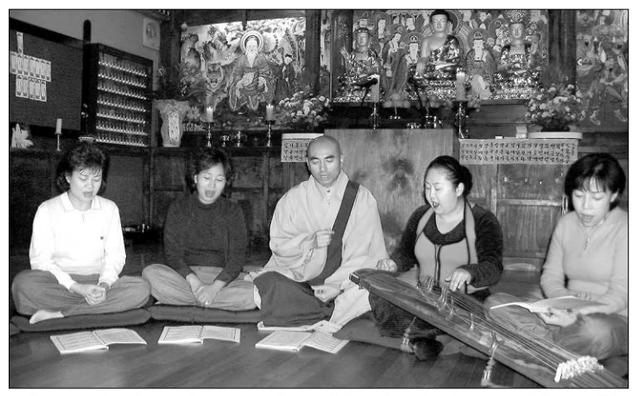


지리산권 순례는 4월14일 남원 만인의총에서 침묵의 명상과 생명평화의 경 독경으로 마무리 됐다.

지금, 우리 절에서는…

서울 화곡동 대각정사

도심속 전법도량 몫 '톡톡'



대각정사 주지 해각 스님과 불자들이 김혜은 씨의 가야금 연주에 맞춰 찬불가를 부르고 있다.

창건 1년, 무료교양대 운영하며 유명
백련봉사회 주축 신도간 유대 돈독

서울 강서구 화곡 2동에 위치한 대각정사는 대각종(총무원장 만청)의 서울지역 포교를 담당하고 있는 전법도량이다. 상가 건물 3층에 위치해 있어 얼른 눈에 띄지는 않지만 화곡동 지역 주민에게는 친근한 이웃이다.

대각정사는 2003년 7월 창건된 전형적인 도심포교당이다. 아직 1년이 되지 않은 일천한 역사에도 불구하고 대각정사는 요즘 유명세를 치르고 있다. 무료 불교교양대학을 운영하면서 불교와 대각종을 알리고 있는 것이 인기비결이다. 인근 주민들의 입에서 입으로 빠르게 전해진 것이다.

교양대학에는 처음 문을 열자마자 수강생 178명이 등록, 수업이 있는 날이면 불자들의 열기가 법당에 가득하다.

건물 앞을 지나다가 절에서 들리는 소리치고는 '심상찮은' 가야금 가락에 한번쯤 올려다보게 하는 것도 대각정사만의 또 다른 특징이다. 대각정사에서 울려 퍼지는 가야금 연주 소리는 화곡동의 명물이 됐다. 가야금 연주의 주인공은 이화여대에 강의를 나가고 있는 김혜은 씨.

김 씨는 친구 따라 대각정사에 왔다가 주지 해각 스님의 '소리'에 대한 남다른 열정을 접하고 가야금 연주를 자청하게 됐다.

김 씨는 "가야금 연주에 맞춰 부르는 찬불가는 피아노 반주로 찬불가를 부를 때보다도 경건하면서도 흥을 돋우기 때문에 불자들이 친근하게 느끼는 것 같다"며 "소문을 듣고 찬불가를 배우기 위해 찾아오는 불자들도 많다"고 말한다.

대각정사는 교양대학이나 각종 봉사활동, 농장 등 사찰과 신도 운영에 관련된 모든 일을 신도회와 백련봉사회가 전담한다. 이는 신도들의 참여도와 주인의식을 높이는 효과가 있는데, 이렇게 모든 행사를 주관하다 보니 신도들의 신행이 더 적극적이 되었다.

특히 백련봉사회는 신도 가운데 어르신끼리 사는 가정과 형편이 어려운 집을 찾아 청소에서부터 이사, 김치 담기 등 작은 힘이라도 보태는 활동을 펼쳐 신도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

김포에 마련된 5백여 평 규모의 농장 관리도 봉사회의 일 중의 하나. 여기에서 나오는 작물은 불우이웃과 어려운 신도들에게 나누어 준다. 이는 신도간 유대를 증진하는 좋은 기회가 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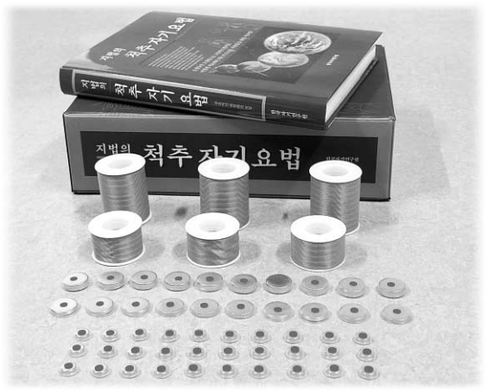
주지 해각 스님은 대각종 서울교구 종무원장을 겸하고 있다. 스님은 대각종의 서울지역 포교도량이면서 지역을 대표하는 모범사찰로 일구겠다는 원력을 세웠다. 이런 역할을 충실히 하기위해 해각 스님과 신도들은 한발 한발 내딛어 가고 있다.

주지 해각 스님은 "간절한 원력과 실천만 있다면 모든 일을 이룰 수 있다"고 강한 자신감을 보였다. (02)2699-6384

박봉영 기자

다른 치료법과 비교 불허!
최고의 건강체를 만들어가는 지법의 척추 자기요법!!

질병의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수많은 분들을 위한 치료법



세상에 공개되지 않은 자석치료의 진수

척추자기요법을 발명한 지법스님은 1976년에 법주사에 출가한 사문으로써 송광사, 통도사, 범어사등의 사찰에서 수행하였으며 **20여년전에 중생들을 질병에서 구원해주는 약사여래기도를 하면서 영험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 뒤에 약사여래부처님을 호신불로 모시면서 동양의학에 관심을 갖고 체침을 비롯하여 민간요법을 연구하게 되었으며 그 중에서도 **모든 사람들이 쉽고 간단하게 치료할 수 있고 부작용이 전혀 없는 자기요법을** 오직 치료효과에만 중점을 두고 연구하였으며 **인체의 가장 중요한 척추를 강하게 다스리면서** 오장육부의 질환과 좌골신경통, 요통, 오십견등의 질환을 다스리는데 가장 체계화된 치료법을 발명하였습니다. 또한 자기치료가 **근골과 근육을 강하게 해주고, 체내의 노폐물을 분해하여 체외로 빠르게 배출시키면서 혈액을 맑게하고 질게하면서 혈액순환을 원활히 한다**는 것을 밝혔습니다. 그 후에 난치성질환으로 고통받는 환자들을 무료로 치료하면서 병마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의술을 베풀다 많은 사람들의 요청에 의해 이번에 척추자기요법을 세상에 공개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자석이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자석은 크기나 가우스(세기)양이 수 많은 종류가 있으며 이 모든 자석을 치료용으로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그 중에서 인체에 가장 적합한 자석을 사용할 때 치료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으며 생체기능을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이 제품의 자석은 **반영구적으로 자력이 변하지 않는 최고의 품질인 특수한 자석만을 엄선하여 선별하였으므로** 한번 구입하시면 평생동안 반복해서 치료할 수 있고, 치료효과 또한 여타의 다른 치료법과 비교를 불허하는 원리를 이용했기 때문에 **삼폐(폐식,폐변,폐면)의 즐거운 삶을 다시 찾을 수 있습니다.**

음양오행의 원리를 이용한 치료법

◎ 수행하는 스님들이 치료하면 척추가 곧아지고 기혈의 흐름이 원활해집니다.
◎ 심장이나 폐, 위장, 대장등 오장육부의 질환.
◎ 관절염, 골수염, 오십견, 요통등 관절의 질환.
◎ 여성들의 생리통, 요실금, 냉증등의 부인병 질환
◎ 남성들의 조루, 정력감퇴, 소변이상등의 질환.
◎ 고질적인 천식, 숙취, 변비, 감기등의 질환을 부작용없이 쉽게 다스릴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부담없이 치료법에 대해서 문의해주십시오! 성심성의껏 자세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홈페이지란에 들어가서 보시면 치험사례 및 척추자기요법에 대해서 좀더 자세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발명특허 출원된 제품 | 한세트가격: 150,000원

상담및 구입문의 : 02-987-3110 / 011-9643-8161
국민은행 824002-04-030421(예금주 : 홍현의)

내자신의 건강과 내가족의 건강을 평생동안 지켜주는 건강지킴이 돈으로 가치를 따질 수 없는 귀중한 치료법!

건강을 위해서 언제나 노력하고 연구하는 한국자기원이 되겠습니다.

韓國磁氣院 서울시 강북구 수유1동 488번지

홈페이지주소 : www.jibub.com E-Mail : jibub@jibub.com

탈 종 공 고

◇사찰명 : 효성사 ◇주소 : 경남 하동군 청암면 중이리 870-1
◇주지 : 보혜 (이정숙). 일현 (손병수)

◇사찰명 : 성북암 ◇주소 : 경기 의정부시 녹양동 384-7
◇주지 : 수경 (장영숙)

◇사찰명 : 연화사 ◇주소 : 경기 포천군 소흘읍 2가 8리 433번지
◇주지 : 수월 (강금순)

◇사찰명 : 대성암 ◇주소 : 경기 의정부시 호원동 85-9
◇주지 : 도범 (정동수)

◇사찰명 : 청간사 ◇주소 : 경기 의정부시 의정부2동 438-23호
◇주지 : 권웅 (이영규)

위 사찰은 귀 종단의 종지종풍이 맞지 않아 이에 탈종함을 공고합니다.

2004년 4월 21일

대한불교대승종 총무원장 법하

대구불교방송
인터넷 홈페이지 무료제작
문의) 053-427-5114
대구 FM 94.5MHz
안동 FM 97.7MHz
포항 FM 105.5MHz
www.dgbbs.co.kr

BBS 춘천불교방송 FM100.1MHz
음악이 있는 오후 오후 3:05 ~ 4:00
감자바우 황금바우 오후 4:10 ~ 4:45

봉은사 참살림 수행결사 회향하던 날

'관세음보살~' 청규 잘 지키며 살겠습니다

생전예수재 새로운 경향으로 주목
16가지 청규 새기며 49일간 정진
자신의 변화 불교바꾸는 힘 확신 계기
생명나눔운동 1백여명 동참, 보살행

"49일 동안 하루도 거르지 않고 참회의 108배를 했던 마음을 항상 지니고 앞으로의 생활에서 죄악과 허물을 짓지 않도록 하심을 실천하세요. 참회는 지금까지의 죄를 뉘우쳐서 영원히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다짐입니다. 지금까지의 수행이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또한번 발심해 보세요."

봉은사 교무국장 혜문 스님은 생전예수재 기간 동안의 수행을 점검 받으러 온 김대자행(46 · 서울 잠실동) 보살에게 참회의 참뜻을 일깨워준다. 그러면서 스님은 묻는다. "보살님은 49일 동안 무엇을 실천했습니까? 또 그때의 마음은 어떠했나요?"

서울 삼성동 봉은사의 참살림 수행결사는 생전예수재의 참의미를 되새겨 생활속에서 불교를 실천하는 49일간의 정진이다. 또한 생전예수재의 본질은 잊혀진 채 방편만이 본질로 인식되는 관행을 깨는 장엄한 불사다. 나아가 '더 이상 불교가 잘못된 길로 나아가서는 안된다'는 불자들의 서원이며 바른 길을 제시하는 좌표다.

회향식이 열린 4월 15일 오전 11시 법왕루를 가득 메운 5백여명의 불자들은 저마다 소망을 품고 1080번의 절을 올렸다. 오늘의 수행결사가 내일의 불교를 바로잡는 밑거름이 되리라는 각오가 느껴진다. 뺨을 타고 흘러내리는 땀 한방울에도 그런 신념이 깃들어 있다.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절을 하면서도 관세음보살을 염송하는 입은 쉴 사이가 없다. 무릎이 너무 아파서 더 이상 절을 할 수 없는 불자들도 보인다. 그러나 잠시 쉬었다가 이내 다시 절을 하는 그들에게서 불교의 희망은 새록새록 피어난다.

3월 4일부터 시작된 참살림 수행결사에 동참한 인원은 어림잡아 5백여명. 봉은사에 다니는 신도들은 물론 수행결사를 한다는 소식을 듣고 찾아온 불자와 종무원이 더불어 살아가는 불교정신을 회복하는 데 동참했다. 이들은 '기복을 수행으로'라는 화두를 잠시도 놓지 않고 16가지 청규를 가슴에 새기며 49일동안 수행과 실천에 힘써왔다.

수행결사는 참회, 기도, 염불, 지계, 감사, 선정, 보시, 발원, 정진, 독경, 사경, 공양, 보살행, 공덕, 서원, 만행 등 16가지 청규 가운데 저마다 자신이 선택한 청규를 실천하는 방식으로 진행돼 왔다. 불자들은 청규를 지키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지 실감했다.

수행점검을 받던 노점숙(54 · 서울 수서동) 보살은 "지킬려고 수십 번을 다짐했는데 결국은 제대로 지킨 청규가 하나도 없다"고 토로했다. 교육국장 원성 스님이 조언했다. "처음에 지키는 일은 쉽지 않죠. 습이 있기 때문입니다. 생활을 바꾸는 일이 어떻게 쉬울 수 있겠어요. 하지만 청규를 지켜가면서 수행을 계속한다는 마음가짐이 더욱 중요합니다."

사실 지키지 못할 청규는 하나도 없었다. 오히려 청규를 하나하나 실천하면서 불자들은 나 자신으로부터의 변화가 불교를 바꾸는 힘이 된다는 확신을 가지게 됐다고 입을 모았다.

이날은 수행결사의 13번째 청규인 보살행을 실천할 수 있도록 생명나눔실천본부와 서울동부혈액원 차량이 특별히 봉은사를 찾았다. 법왕루 안에서 1080배가 진행되고 있는 동안 밖에서는 헌혈과 장기기증 서약, 화장 서약을 위해 30여명의 불자들이 줄을 서 있었다. 주지 원혜 스님을 선두로 50여명의 불자들이 헌혈과 장기기증 · 화장 서약을 했다. 헌혈 부적격 판정을 받은 40여명을 포함하면 1백여명이 생명나눔운동에 참여한 셈이다.

헌혈이 한참 진행되고 있는 차량에서 윤석천(49 · 서울 노유동) 씨는 "내가 지은 업장을 소멸해 준다고 해서 처음 생전예수재에 동참했었지만, 참살림 수행결사의 취지를 보고 제 자신이 참 부끄럽게 느껴졌었다"며 "모든 사람이 더불어 사는 것이 불교라는 작은 깨달음을 얻게 됐다"고 말했다. 무엇보다 윤 씨는 옆에 있는 아들 수호(16 · 군자중 3년)에게 아버지로서 보여주지 못했던 나눔을 보여줄 수 있어 기쁘다고 했다. 수호의 표정도 밝다. 아버지를 따라 절에 오기를 잘했단다.

재가불자의 신행을 바로 세우고 불교의 수행풍토를 새롭게 바꾸는 첫 시도라는 점에서 봉은사의 참살림 수행결사는 큰 의의를 지니고 있다. 봉은사는 이 수행결사가 전국의 모든 사찰로 확산되기를 서원하고 있다. 특히 봉은사는 불자들이 나에서 이웃으로 신행을 넓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오늘은 참살림 수행결사가 끝나는 날이지만 그동안 동참했던 이들에게는 또 다른 수행결사가 시작되는 날이기도 하다. 이제는 자신과의 약속이다. 나태해지기 쉬운 일상으로 돌아가 스스로를 다스려야 한다. 이렇게 수행결사는 계속된다.

글=박봉영 기자 bypark@buddhapia.com
사진=고영배 기자 ybgo@buddhapia.com


봉은사 참살림 수행결사는 왜곡된 생전예수재의 의미를 회복하고자 시도된 수행운동이다. 불자들이 함합소(緘合疏)를 머리에 이고 도량을 돌며 참회의 기도를 올리고 있다.





수행결사를 마치고 성만증을 받는 모습(맨 위)과 사경에 몰두하고 있는 불자들(두번째), 사후 장기기증 서약으로 보살행을 실천하는 동참자(세번째), 생명나눔에 동참한 스님과 불자들이 성만증과 헌혈증을 들고 웃고 있다(아래).

수행결사 이끈 혜문 스님

"수행 통한 체득 생활속 실천 우란분절에 2차 결사 행할 것"



"참살림 수행결사는 수행을 통한 체득이 현실의 삶으로 이어져야 한다는데 그 뜻을 두고, 자기만을 위한 기도를 지양하고 제대로 수행하고 실천하도록 하고자 하는 수행운동이라 할 수 있습니다."

생전예수재를 수행결사로 바꾼 봉은사 교무국장 혜문 스님. 스님은 "부처님에게 절하듯이 어른을 공경하고 가족을 사랑하며 이웃을 생각할 때라야 진정으로 참살림 수행결사에 동참하는 것"이라며 "봉은사를 시작으로 교구본사로, 나아가 각 말사까지 이 운동이 확산되어 재가불자의 수행을 바로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혜문 스님은 "성철 스님의 주도로 이루어진 봉암사결사와 같은 결사운동은 한국불교를 정법불교와 수행불교로 바로 세우는 힘이 되어 왔다"며 "이번에 그치지 않고 올 우란분절(음력 7월 15일)에 맞춰 2차 수행결사를 실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생전예수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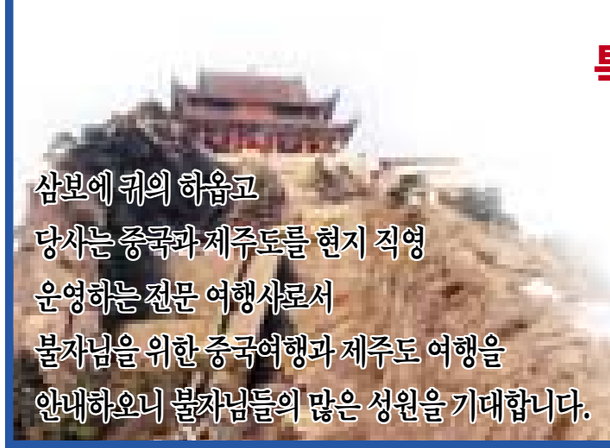
면죄부, 기복신앙 잘못 이해 현재에 충실, 베푸는 삶 강조

생전예수재(生前豫修齋)는 살아 생전에 미리 수행과 공덕을 닦아두는 재다. 자신의 49재를 미리 지내고 금은전을 만들어 갚는 것이다. 그러나 49재를 지내고 돈만 내면 죽은 다음에 좋은 곳에 갈 수 있다는 생각이 팽배해 있다. 사찰에서도 이를 지나치게 강조함으로써 본래 의미인 참회와 공덕을 희석시키는 경우가 많았다. 이 때문에 미리 죄를 면제 받는 기복신앙의 표상처럼 잘못 이해되고 있는 것이다.

<지장보살본원경> 이익존망품에는 생전예수재에 관해 "생전에 좋은 인연은 닦지 않고 죄만 많이 지은 사람이 죽은 후 권속들이 그 사람을 위해 공덕을 베풀지라도 그가 받을 수 있는 것은 7분의 1 뿐이고 나머지 7분의 6은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돌아가게 된다. 그러므로 현재나 미래의 중생들은 스스로 수행하여 공덕을 받으라"고 설명하고 있다.

즉, 자신이 죽은 이후를 미리 생각해 몸을 삼가고, 주위의 모든 사람들에게 베푸는 삶을 살라는 것이 생전예수재다. 따라서 예수재 기간 이후에도 꾸준히 기도하고 수행해야 한다. 이것이 생전예수재의 참 뜻이라 할 수 있다.

고객의 행복한 여행을 추구하는 여행사
(주) 행복만선 Tel. 02)720-8489


삼보에 귀의 하옵고
당사는 중국과 제주도를 현지 직영
운영하는 전문 여행사로서
불자님을 위한 중국여행과 제주도 여행을
안내하오니 불자님들의 많은 성원을 기대합니다.

특별기획안내 (호화 유람선으로 중국여행을 ...)
◎ 출발일 : 2004년 4, 5, 6월
1. 북경 / 백두산 7일 (매주 화요일 출발) 69만원
2. 청도 / 태산 / 곡부 / 천불산 (만불동) 6일 (목, 토 출발) 40만원

불교 성지순례 <중국 4대불산>
1. 관음도량 - 보타산 / 낙가산 5일 79만원
2. 지장도량 - 구화산 / 황산 5일 79만원
3. 보현도량 - 아미산 / 낙산대불 5일 85만원
4. 문수도량 - 오대산 / 운강석굴 5일 69만원
5. 달라이라마의 성지 - 티벳/ 낙산대불 8일 169만원

요금포함내역(공통사항)
- 포함사항: 왕복항공료, 호텔(4성급, 2인1실), 천일정 관광 및 식사, 차량료, 선박료, 인천공항세, 현지공항세, 관광진흥기금, 1억원 여행자보험
- 불포함사항: 여권, 비자비, 현지 기사/가이드 팁, 개별비용 - 비고: 11명당 1명 무료, 10명이상 출발가능, 인솔자 동행

고품격 여행과 윤년 제주도 삼사순례! 소원성취 방생법회를 최남단 마라도에서...
▶일요일 출발 - 225,000원 ▶화, 목, 토 - 248,000원 ▶금요일 출발 - 289,000원

<요금 포함내역 및 특전>
왕복항공료, 관광 1급호텔 2박, 조식 2회, 중식 2회, 마라도 유람선, 마라도해상국립공원 입장료, 여미자, 퍼시픽랜드 (돌고래, 바다사자쇼), 해미안 녹차/해수 사우나, 제주 10경 관광안내. 차량료, 여행자보험

<관광일정 - 일요일 출발 기준입니다>

제 1일	제주공항 도착 → 마라도 "기원정사" 방문 및 방생법회 → 오! 설록(설록茶밭 및 뮤지엄)방문 → 호텔 투숙 및 저녁공양(자유식)
제 2일	호텔 아침공양 후 → 동양 최대의 식물원 "여미지" 관광 → 제주의 해금강이라 불리는 "주상절리"를 관광 → 점심공양 돌고래, 바다사자의 환상적인 쇼 "퍼시픽랜드"를 관람 → 동양 최대의 사찰 "약천사" → 밀감/버섯 농장 견학 "정방폭포"(혹은 천지연 폭포)를 관광 → 호텔 투숙 및 저녁 공양(자유식)
제 3일	해미안 녹차/ 해수 사우나 (제주에서 가장 유명한 온천!!!) → 아침공양 → 시내에서 쇼핑 → 한라산 내 "신비의 도로" → "절물휴양림"에서 삼림욕을!!! → "조랑말 체험" 또는 "몽골리안 마상쇼" 관광 → 성읍민속마을 관람 → 점심공양 → "통일불사리대탑(고관사)"방문 → 제주공항으로 이동 → 김포공항 해산

50명 이상 단체는 별도의 일정(맞춤)과 가격을 드립니다 !!!

나눔의 연등 3천개 남산 밝힌다

대원정사, 순환도로 일대에…매주 일요일 오후 공평사거리 거리모연

화사한 꽃들이 어우러진 서울 남산 순환도로 일대에 나누는 기쁨 자비의 연등 3천개가 불을 밝힌다.

서울 후암동 대원정사(상임법사 김범준)는 4월 21일부터 5월 26일까지 경내와 남산순환도로에 이웃을 돕는 나눔의 연등 3천개를 매단다. 연등은 한 개당 3천원이며, 연등불사에 동참한 불자 및 일반인들에게는 매일 축원기도도 해준다. 문의 (02) 773-9171, 754-1613

대원정사는 등을 구입하고 만드는 비용은 물론 운영비까지 모두 사찰이 부담하고, 연등값 1천여만원은 전액 현대불교 연중캠페인 '나눔의 손잡기 운동' 후원성금으로 기탁한다는 방침이다. 대원정사는 '나누는 기쁨 자비의 3천등 달기' 운동을 홍보하기 위해 5월2일, 9일, 16일, 23일 서울 공평동 공평사거리 융프라우 앞에서 거리모연에도 나선다. 일요일 거리 연등 모연 접수시간은 오후 2시~6시이다.

대원정사 김범준 상임법사는 "이타하면 자리가 저절로 되듯이 사찰도 이웃들에게 회향하면 신도들의 활동성이 늘어나고, 사찰도 운영이 나아진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다"며 "작은 단위사찰인 대원정사가 대승불교 실천도량으로 모범모델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불교 대중화 운동의 중심사찰이었던 대원정사는 2년전 김범준 상임법사의 부임과 함께 불자들과 사찰의 실천모델을 만들어 가고 있다. 지난해 자비의 등달기 운동을 펼쳐 1천58등을 매달아 수익금으로 매주 월요일 점심시간에 남산공원에서 무료급식을 실시했다. 또 서울소년원 고봉 중 · 고교 법회지원 및 하계 동계수련회 개최 후원, 군법당 지원사업등을 실시하고 있다. 저소득층 가정 80호에도 쌀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

대원불교대학 무료교육도 사회적 회향과 결을 같이 한다. 1백30여명의 수강생들은 교육비에 준하는 비용을 사회 곳곳에 회향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그런 만큼 앞으로 불교호스피스 교육도 실시하는 등 자원봉사자 양성에도 적극 나설 계획이다.

김원우 기자 wwkim@buddhapia.com



대원정사 김범준 상임법사(왼쪽 첫번째)가 신도회 임원들과 자비의 연등을 매달고 있다.

도와주세요

부산 몰운대종합사회복지관은 장애인 및 독거노인들을 위한 사랑의 후원품을 기다리고 있다. 지원 분야는 장애인의 날 기념 관광을 비롯해 독거노인 생신상 차려드리기, 재가노인 밑반찬 서비스 등이다. (051)264-9033

소년소녀가장과 결식아동 후원

◇서울 영등포 탑사포교원 주지 무량 스님이 1급 시각장애자와 소년소녀가장 후원결연을 신청했다.

◇미국 하와이주 호놀룰루에 살고 있는 교포 장지원 보살(무량사 신도)이 본사에 소년소녀가장돕기 성금을 매달 기탁키로 했다.

◇서울 광진구 구의동 조미란(011-9878-6365)씨가 소년소녀가장 후원을 신청했다.

◇전북 전주시 인후동 이영옥 보살이 본사 계좌로 매달 어려운 이웃돕기 성금을 보내기로 했다.

나눔의 손잡기 동참

◇한마음선원 안양본원(주지 혜원 스님)은 네차례에 걸쳐 나눔 저금통 총 600여개를 일요법회에서 배포했다. 한마음선원 안양본원은 연말까지 총 1천여개의 나눔 저금통을 모으겠다고 밝혔다.

◇서울시 장위1동 이채양씨
저금통- 3개 스티커-10장

특별취재팀
김원우 차장, 박봉영 기자, 김철우 기자

"불법의 본질 전해주고 싶은 마음뿐"

불서 2천권 법보시하는 임채수 씨



"많은 분들이 불행속에 살고 있습니다. 한사람이라도 더 행복하고 싱그러운 삶을 살 수 있길 바라며 불법의 본질을 전해 주고픈 마음뿐입니다."

최근 법화경 강설서 <산은 흐르고 물은 서 있네>를 출간하고 전국의 불교교양대학, 승가대학, 신행단체, 교구본사 등에 2천 여권의 책을 이미 법보시한 임채수 법화사상 연구소 소장(69 · 법명 희장 부산불교신도회 고문 · 사진).

임 소장은 "방대한 경전에 두려움을 느끼는 사람이나 지혜의 완성을 위해 노력중인 사람들에게 바른 길을 제시하고 싶어 책 출간과 법보시를 결심했다"고 밝혔다. 정법(正法) 만나기 전에 겪었던 고충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지혜를 만나지 못해 고통받는 다른 이들의 고통을 덜어주고 싶기 때문이었다. 임 소장은 불교 공부의 깊이를 더하고자 하는 이들에겐 <산은 흐르고 물은 서 있네>를, 초심자나 비불자들에게는 삶의 진솔한 얘기들로 불법의 가르침을 풀어낸 <하얀 소나무의 미소>의 법보시를 발원했다. 김해 교도소에서 6년째 법화경 강의를 하고 있는 것을 비롯, 법보시는 임 소장의 일상이 되었다.

"누구에게 준다거나 베푼다는 생각보다는 부처님께 진 빚을 갚는 것"이라는 임 소장은 "보시 중에 가장 값진 보시는 중생심에 허우적거리는 나를 가엾게 여기고, 노력과 관심을 기울여 나의 내면을 온전히 밝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으로의 계획을 묻자 임 소장은 "평화사상인 일승과 법화사상의 섭리를 많은 분들과 함께 나누는 것이 내 생의 전부"라며 바른 불법 저변화에 한 생을 받칠 뜻을 분명히 했다. (051)469-3100

천미희기자

백혈병 주황이 도와주세요



세 살배기 주황(사진)이가 백혈병과 힘겨운 싸움을 하고 있다.

현재 서울 신촌세브란스병원에서 투병 중인 주황이의 정확한 병명은 급성림프구성백혈병. 지난해 5월 진단을 받고 1년째 항암치료를 받고 있지만 1천 여 만원의 치료비를 감당하지 못해 애를 태우고 있다.

특히 주황이 아버지 김윤환 씨(37)가 최근 사업실패로 10억 원 이상의 부채를 지고 있는데다가 불안, 초조, 우울감 등의 정신장애까지 호소하고 있어 주위를 더 안타깝게 하고 있다.

(사)생명나눔실천본부가 추천한 주황이에게 도움을 줄 분은 농협(053-01-243778), 예금주는 생명나눔. (02)734-8050

김철우 기자

나눔의 캠페인 통장입금 현황

광주 k보살 5만원
최재순 보살 3만원

수요일은 1080 누르고 福 짓는날!

나눔의 손잡기 기금모금 ARS

전국어디서나 일반전화 · 휴대폰으로 1080 누르면 '관음손'이 됩니다

현대불교신문사가 창간 10주년을 맞아 벌이고 있는 연중캠페인 '나눔의 손잡기'는 불자들이 보다 쉽게 나눔을 실천할 수 있도록 나눔의 ARS (060-700-1080)를 3월 26일 개통했습니다. 삼보에 귀의하는 마음으로 일반전화와 휴대폰을 통해 060-700-1080을 누르면 3천원이 자동으로 불우이웃돕기 성금으로 전달됩니다.

ARS : 060-700-1080

나눠드립니다

우리사회에는 현재 점심을 굶는 어린이들이 1만 4천여명이나 되고 6천여명의 소년 · 소녀가장, 64만여명의 독거노인 등이 한 하늘아래 살고 있습니다. 이웃들과 마음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 불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나눔 저금통 분양합니다



원숭이해를 맞아 원숭이 저금통을 분양합니다. 저금통은 회사 가정 가게 단체사무실등에 비치하시면 됩니다. 특히 불자가 운영하는 가게에 기금 모금용 저금통을 비치할 경우 '나눔의 가게'로 선정해 드립니다.

스티커 드립니다

사찰, 자동차, 건물, 가방에 붙일 수 있는 나눔의 손잡기 스티커를 나눠드립니다. 나눔의 손잡기 스티커는 조선일보가 전개중인 '우리이웃' 캠페인과 상호 협조에 의해 엠블럼을 공동 사용합니다.

현대불교와 좋은 벗 풍경소리가 함께 하는 '나눔의 손잡기'



"어린이 · 청소년 법회에 찬불동요 테이프와 CD를 보냅시다"

현대불교신문사와 좋은 벗 풍경소리가 공동으로 '전국 어린이 청소년 법회에 창작 찬불동요테이프와 CD 보내기' 캠페인을 전개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순수한 마음을 지니고 있는 어린이 청소년들에게 아름답고 순수한 부처님의 마음을 담은 어린이 청소년을 위한 창작 찬불동요를 선물해 주세요.

불자님들 한 분 한 분의 정성은 미래의 부처님 되실 어린 불자들에게 '불성'을 가꾸어 주는 참된 불사가 될 것입니다.

◀ 어떻게 참여하나

◇종단 · 사찰 · 기업 · 단체 · 개인 모두 동참 가능합니다.

◇본사 · 연고사찰 단체 등에 전달할 수 있습니다.

◇1구좌 1만원입니다.

◇보급기간: 2004년 3월부터 12월31일까지

◀ 어떻게 진행되나

◇매주 캠페인 내용이 소개됩니다.

◇매달 한번씩 동참자 명단을 게재합니다.

◇아름다운 사연을 본지에 지속적으로 소개.

※ 온라인구좌 / 농협 053-12-132878
예금주: 좋은벗 풍경소리 이종만

※ 문의 / 좋은벗 풍경소리 (02) 723-9836

♥ 각 종단의 나눔운동과 연결

함께하면 큰 힘이 됩니다. 각 종단과 NGO 복지단체들이 벌이고 있는 사업과 연대합니다. 또 자비의 콘서트(불자가수) 법률 및 세무상담(불자 변호사 세무사)봉사에 참여하거나 사업연대가 가능합니다.

♥ 나눔의 손잡기 공동체

내가 가진 돈, 힘, 시간, 지식 등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보시하도록 연결해 드립니다. 자원봉사를 원함에도 그 방법을 몰라 실천하지 못하는 불자들의 중개소 역할을 자부합니다. 모범이 되는 봉사자들을 추천해 주세요.

♥ 나눔의 손잡기 기금참여

남을 돕고 싶은 분들은 계좌나 한통의 전화로 자비를 실천하는 ARS(060-700-1080)를 통해기금을 보내주세요. 결식아동, 소년소녀가장, 독거노인, 장애우등 우리사회에서 함께 살고있는 이웃들에게 전달해 드립니다.

▮이렇게 참여하세요

♥ 어려운 이웃 사연 제보

주위의 어려운 소년소녀가장, 결식학생, 독거노인, 장애우의 사연을 알려 주세요.

♥ 정기후원 참여

소년소녀가장들과 결식아동들의 후원자가 되어 매월 정기적으로 생활비나 급식비를 줄 수 있습니다. 소년소녀가장, 결식아동과 결연을 희망하시는 분은 연락주십시요.

♥ 불자기업의 사회공헌

기업의 사회공헌은 이제 필수 불가결한 것입니다. 불자기업들과 불교복지시설을 연계하여 후원하거나 시설을 건립해 드립니다.

♥ 외국인노동자와 불교지도자 자매결연

불교권 국가의 외국인 노동자와 불교계 각 종단 스님과 단체 운동가간 자매결연을 추진합니다. 불안에 떨고 있는 노동자들과의 결연을 희망하는 스님과 불교지도자들을 모십니다.

♥ 각 사찰의 공양미 나누기

불자들이 보시한 각 사찰의 공양미를 소년소녀가장 및 독거노인들에게 지원해주세요. 어려운 곳이나 복지시설에 공양미를 보내고 싶은 사찰은 본사로 신청해주시고, 공양미가 필요한 시설은 연락바랍니다. 과일과 김장, 양념, 라면, 과자류 등 식품도 접수 받습니다.

♥ 자비의 헌혈증 및 장기기증

개인이 소장하고 있는 헌혈증을 보내주세요. 장기기증에도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 보고싶은 가족찾기

미아는 물론 실종가족과 이산가족, 입양아들을 찾아드립니다. 사연을 보내주십시요.

공무원 불자회 창립 잇따라

천안시청 17일 각원사서

직장 신행단체들이 잇달아 결성되고 있어 직장 내 신행활동에 청신호가 되고 있다. 충남 천안시청에 불자회가 결성됐고, 부여군청 정심회가 내달 5월에 창립된다. 또 수원지역 공무원 불자연합회 출범도 본격화되고 있다.

천안시청 공무원 불자회는 4월 17일 천안 각원사에서 불자회 창립 기념 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법회는 각원사 대원 스님의 법어, 이광로 초대회장의 경과보고 등으로 진행됐다.

천안시청 불자회는 이번 창립법회 준비를 위해 지난 3월 8일 천안 성불사에서 창립발기인 모임을 갖고, 초대회장에 이광로 도로과장을, 총무에 주재석 기획실 의회계장을 선출했다. 또 한달간의 회원모집에 들어가 현재 60여 명을 확보했으며, 앞으로 관내 20여 개의 지역 사찰을 순회하는 법회를 봉행키로 했다.

천안시청 불자회 주재석 총무는 "많은 공무원 불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법회를 마련하고 싶다"며 "불교회원들이 생활불교를 실천하고 천안지역 불교 활성화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부여군청 5월 1일 '정심회' 첫 법회

수원시 공무원불자회도 준비 박차

부여군청 정심회도 오는 5월 1일 부여군 청소년개발원에서 창립법회를 봉행한다. 지난 3월 5일 청내 회의실에서 회원 59명이 모인 가운데 '부여군청 정심회' 발기인대회 및 창립총회를 가진 부여군청 정심회는 초대회장에 김원선 종합민원실장을 선임하는 한편, 지도법사로는 부여 고란사 주지 성수 스님을 위촉할 예정이다.

또 정심회는 정기법회를 매주 수요일에 열고, 지난해 부여군 신전자문서시스템 동호회 게시판에 개설한 불교사상연구회를 통해 사이버 불교공부 마당을 마련하기로 했다.

부여군청 정심회 김주서 부회장은 "그간 불교체험을 통해 성지순례를 자주 갖고 소모임으로 '부처님 말씀나눔회' 등도 운영해 왔다"며 "앞으로 모범적인 공무원 불자회가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신행프로그램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수원시 공무원 불자회 출범도 무르익고 있다. 수원시 공무원 불자회 창립준비위원회(위원장 이병일 · 팔달구청 정보통신계장)는 최근 수원경기불교문화원에서 발기인 20여 명이 모여 예비모임을 가졌다.

창립준비위는 지난해 10월부터 경기불교문화원에서 불교기초교리를 공부한 수원시청, 수원시 4곳 자치구 소속 20여 불자공무원들이 올 초 석남사에서 수계를 받는 등 활발한 활동을 해오고 있다.

김철우 기자

일터 불자들 봉축행사 준비 분주

한 달 앞으로 다가온 부처님 오신 날. 전국의 일터불자회들은 어떤 봉축 행사들을 준비하고 있을까? 지역, 근무여건, 직무 특성 등에 따라 직장불자회들이 다양한 봉축 행사를 마련하고 있다. 자체 봉축법요식 봉행은 기본이고, 음악회, 사경법회, 무료진료봉사, 소년 · 소녀가장 초청 사생대회 등에 이르기까지 다채롭다. '일터 불심'의 봉축 준비. 어떤 행사들을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미리 살펴본다.



오신 뜻 기리고
이웃과 나누고

"준비부터 즐거워요"

음악회 · 진료봉사 · 각종 위문행사 등 풍성한 초파일 '기대'

▲소외된 이웃과 함께= 서울 구로구청 불자회는 5월 26일 인천 19사단 승리부대를 찾는다. 올해로 두 번째인 이번 방문에는 위문품, 도서, 음식 등이 전달된다. 대한가수불자회는 5월초 육군 1군단 및 경기도 자비원을 방문해 위문 공연을 펼치고, 한국운전기사불자연합회 부산지역회는 5월 19일 해군 제3함대와 부산 용호동 전 · 의경 전투부대를 방문한다.

또 창원 두산중공업 법우회는 5월 5일 경남 고성군 아동복지 시설인 보리수동산 아이들을 초청한다. 법우회 내 자원봉사 모임 '함께 가는 길'이 마련하는 이번 행사에서는 사생대회, 백일장, 체육대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서울 성북승무소 법우회도 5월초에 지난 98년부터 자매결연을 맺어온 소년소녀가장 6세대를 방문해 즐거운 한 때를 지내고, 우리은행 서울불자회는 5월 8일 장애아동 요양시설은 상락원을 찾아 목욕봉사활동을 펼친다. 이와함께 삼성정밀 불자회는 5월말에 연등수익금 전액을 울산 노인복지시설인 목련의 집에 전달한다.

음악회 등 문화행사도 준비되고 있다. 동국대 경주병원 직원불자회는 5월 26일 동대 의대생 불자모임 '한마음회'와 함께 환자 위문 음악회를 연다. 민요, 판소리, 가요 등이 공연되는 이 음악회에는 동대 국악과 학생, 병원 자원봉사단체들이 참여한다. 또 서울 성북구청 불자회는 구청 앞마당에 '봉축 애드벌룬'띄우는 등 봉축 열기를 확산시키고, 국토개발원 불교회는 5월 25일 연구원내 회의실에서 봉축 기념 '사경법회'를 봉행한다.

▲전문직 특성 살려 봉사= 전국병원불자연합회는 5월 9일 부처님오신날을 기념해 충남 당진 일대로 무료진료봉사활동을 떠난다. 당진군 합덕문화회관에서 열리는 이번 무료진료에는 내과, 피부과, 한방과, 물리치료 등 총 50여 명의 불자 의료진이 자비인술을 펼친다.

무료 상담활동도 벌인다. 지난해 창립한 감정평가사 불자회는 5월 1~2일 백담사 만해마을에서 스님 및 인근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무료 감정평가 상담활동을 벌인다.

상담 분야는 토지 및 일반적인 부동산 · 동산, 기타 재산 등에 관해 문의를 받는다. 이밖에 불자약사보리회는 5월 2일 서울 종로 종묘공원에서 불자 약사 50 여명이 동참해 무료 투약봉사 활동을 벌인다.

▲참회 · 나눔 담은 '등 달기'= 전국불자교정인연합회의 전국 41개 지회는 불자 교도관 및 재소자들이 직접 '참회의 등'을 제작해 교도소 내를 장엄한다. 철도청불교단체협의회도 특색 있는 등 달기 행사를 벌인다. 전국 21개 소속 단위기관 청사 및 역사에 '무사고 기원의 등'을 부처님오신날 전후로 내건다.

40여 병원불자회로 구성된 전국병원불자연합회는 사무실과 병실을 연꽃과 연등으로 장엄한다. 국립의료원 불자회는 연등을 제작해 환자들에게 나눠주고, 동국대 경주병원 불자회는 컵등을 보시한다.

또 서울 은평구청 불심회, 대구광역시청 유마회, 거창군청 불자회, 광주광역시청 불자회 등 한국공무원불자연합회 산하 지차제 불자회는 청사 광장 또는 시내 중심가에 지역사 암연합회와 공동으로 봉축탑 점등식을 봉행한다. 이밖에 서울지역 21곳 경찰불교회들은 5월초에 서울지방청 대강당에서 '서울지역 경찰불자 합동대법회'를 연다.

김철우 기자 in-gan@buddhapia.com

우리불자회는요

춘천시청 도반회

7명이 시작 '공부하는 즐거움' 전해

연꽃심기로 호반의 도시에 불교바람

'호반의 도시', 춘천시. 강원도의 힘은 이곳에서 시작됩니다. 찬란한 불교의 역사도 바로 여기 춘천에서 비롯됩니다. 그 한복판에 우리 도반회가 있습니다. 신행활동은 물론 지역불교발전에 한 몫을 맡으며 신행바람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우리는 강원도 춘천시청 공무원 불자들의 모임 '도반회'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탁마하고 회원들간 신심을 키우기 위해 지난 2000년에 창립한 직장불자회입니다. 도반회가 결성된 지 벌써 4년이 됐습니다. 그동안 우리 도반회는 힘들 때 든든한 나무처럼 도반들의 곁을 지켜줬고, 외로울 때 포근한 어머니의 품처럼 안식처가 됐습니다. 슬플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회원들에게 따뜻한 어깨를 내어주는 그런 도반회였습니다. 아직도 창립법회 때의 환희심이 기억에 생생합니다. 7명의 회원들이 부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간절한 발원을 올리던 그 때가 말입니다. 일터에서 일과 신행활동을 함께 할 수 있어 우리 도반들은 참으로 행복한 불자들이었습니다.

법회는 꾸준히 열었습니다. 매주 시청 내에서 정기법회를 봉행했고, 매월 한 차례씩 전국의 사찰을 찾아 갔습니다. 불교공부도 열심이었습니다. 춘천시 석왕사 불교대학에서 불자의 기본자세, 불교입문, 수행법 등 다양한 주제로 불교이해의 폭과 깊이를 더했습니다. 경전읽기도 빠트리지 않습니다. 동국대 조용길 교수 등 불교계에서 명망 높은 학자들에게 불법의 정수를 배웠습니다.

불교 의식 익히기에도 열심이었습니다. 2003년에 조계종 포교원이 주최한 직장직능 의식집전교육에 회원 7명이 참가해 목탁치기, 법회 진행 등 의식실습을 직접 배웠습니다.

한국공무원불자연합회 활동도 적극적이었습니다. 공무원불자연합회 행사 때면 꼭 참가해 전국의 불자공무원들과 친목을 다지고, 신행정보도 나눴습니다.



춘천시청 도반회원들이 지난 2002년 통도사에서 한국공무원불자연합회 창립 2주년 기념법회를 마치고 기념촬영했다.

자랑거리는 또 있습니다. 2002년에 도반회 홈페이지(http://doban.chuncheon.go.kr)를 개설했습니다. 이곳을 통해 신행담도 공유하고, 불교에 대한 생각도 교환하는 등 홈페이지는 우리 도반회의 또 다른 '사이버 법당'이 됐습니다.

앞으로 우리 도반회는 연꽃식재사업을 적극 전개할 생각입니다. 지난해 큰 홍수로 실패했던 춘천 공지천 연꽃심기 사업을 거울삼아, 올해는 춘천시가 추진 중인 생태공원에 연꽃식재사업을 펼칠 계획입니다. 또 강원지역의 직장직능 불자회와 연계활동을 강화할 생각입니다. 홍천군청, 강원도청 등의 불자회와 합동법회를 봉행해 강원도 지역에 '불교바람'을 일으켜 보려고 합니다. 불자님들, 우리 도반회를 지켜봐주십시오. 부지런히 정진하는 직장불자회의 모범이 되겠습니다.

■정상현 회장(시청 지적과장)

120년만에 찾아온 윤달이 낀 갑신년은 金의 해! 부자 되는 해입니다.

소원성취(象眞珠) 영험메달, 금불상 반지



※ 본 제품은 큰 스님의 높으신 법력으로 백일불공을 마치고 영험으로 제작된 성품으로 몸에 지니고 있으면 강한 영험을 느낄 수 있으며 서원하는 모든 일들이 풀리며 부처님의 자비광명이 함께 하십니다. ※18k도 주문·제작

금불상 영험 반지 는
중앙에 금불상 부처님을 모셨고 그 위에 맑은 수정을 안치하였으며 둘아가며 六字大明王眞言 즉 옴마니반메훔을 양각하여 영원불멸의 생명력을 두었습니다. 좌우측엔 불교 긴자를 양각하여 스님과 재가불자들의 수행정진에 도움이 되게 하였습니다.

누가 휴대해야 하는가?
- 부정을 소멸시키고 소원성취를 발원하시는 분
- 집안에 우환이 있거나 환자가 있을때
- 삼재가 드신 분
- 부부화합 · 자손의 번창과 무사번영을 기원할 때
- 운전자의 무사고를 기원할 때
- 시험을 앞둔 수험생
- 부모님의 만수무강을 기원드리는 효도선물


골드 14k 영험 메달
상진주/14k 2.3돈/다이아 1EA ₩ 192,000


실버 영험 메달
상진주/은 2.3돈/다이아 1EA/가죽체인 ₩ 105,000


골드 14k 금불상 영험 반지
남반지:수정/금불상/14k 2.8돈/큐빅 6EA ₩ 222,000
여반지:수정/금불상/14k 2.6돈/큐빅 6EA ₩ 204,000


실버 금불상 영험 반지
남·여반지:수정/금불상/은 2.8돈/큐빅 6EA
남·여 각각 ₩ 99,000

※ 주문시 배송비는 무료이며, 개별 점안불공을 거쳐 보석감정 원본을 첨부하여 출시되는 관계로 배송이 다소 지연될 수 있음을 양해 바랍니다.

正進洋行 상진주 JEWELRY 제조·판매 [Balian] 주문처 ☎02)2231-9305(주야 접수)

http://kumdeung.com

황 금 연 등



금년 부처님 오신날에는 황금빛 찬란한
황금 연등으로 온 누리를 밝히소서

KD 금등사 대리점 모집 · 구매상담 031) 846-1950. 011-774-1452



경건, 울림, 휘몰아치는 몸짓

흰 장삼에 붉은 가사를 수하며 백옥같은 고깔을 쓰고 나비처럼 가볍게 춤사위를 흩날리는 '나비무'. 이번 공연의 '운심게' 작법에서 선보인다.

불교의 전통의식과 공연예술이 무대에서 만난다.

4월 29일 오후 4시와 저녁 7시30분 두 차례에 걸쳐 서울 호암아트홀에서 이뤄지는 '한동희 스님의 육법공양' 공연이 바로 그것이다.

동희법음회 주최로 열리는 이번 공연의 주제인 육법공양은 신라시대부터 전통적으로 행해 온 불교의 6가지(향, 등, 꽃, 과일, 쌀, 차) 공양을 그 의미와 특색에 따라 연주와 춤으로 무대예술화한 전통불교의식.

1959년부터 영산재 예능보유자인 송암 스님으로부터 40여년 동안 범패를 비롯해 작법을 사사한 동희 스님(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이수자)이 이번 공연의 구성과 연출을 맡았다. 동희 스님은 95년 영산재의 모든 작법을 철저히 고증하고 정리한 '영산대작법'을 무대에 올려 불교문화계에 큰 반향을 불러 일으킨 바 있다. 특히 스님은 후학들을 위해 수십 년에 걸쳐 틈틈이 범패를 악보로 만들고 의식작법의 동작 하나하나를 직접 그려 무본(舞本)을 만들기도 했다.

'육법공양'은 절을 마치고 경건하게 꿇어 앉은 자세에서 바라를 땅에 고요히 부딪쳐서 소리내고, 다시 바라를 울리며 일어서서 기하학적인 구도로 바라의 울림을 허공에 퍼뜨리는 '명발(鳴鈸)'로 시작된다. 이어 도량을 수호하고 재의 원만회향을 기원하는 '팔부금강(八部金剛)', 엄숙한 분위기의 '봉청(奉請)', 바라무의 기본적 형태인 '요잡(繞匝)', '법고(法鼓)', 길을 일으킨다는 '기경(起經)', '걸수(乞水)', '돌 진언(眞言)', '거령산(擧靈山)', '육법(六法)', '운심게(運心偈)', '원아게(願我偈)', '화청(和請)' 순으로 진행된다. 이중 팔부금강, 거령산, 걸수 등은 소리이고 명발, 요잡, 기경, 운심게는 작법이다.

동희 스님의 '육법공양' 공연

불교의 6가지 공양의식 무대 예술화
법고와 어우러진 피리소리, 몸짓 백미
장엄, 의상 옛 전통 그대로 손수 제작
4월 29일 서울 호암아트홀에서

불교의식공연의 하이라이트는 뭐니뭐니해도 잰 박자로 숨가쁘게 진행되는 법고다. '육법공양'도 예외는 아니다. 점입가경, 몰아지경, 법열락, 정중동…. 끝간데 없이 몰아 들어가는 숨가쁜 박자와 구해 스님의 피리소리, 그 속에서 펼쳐지는 동희 스님의 표정과 몸짓은 불교예술의 백미를 만끽하기에 충분하다.

동희 스님의 공연에서는 눈여겨 볼거리가 또하나 있다. 바로 무대 의상이다. 스님은 공연에 필요한 모든 장엄 · 의상을 옛 전통 그대로 손수 만들었다. 이번에도 흰 장삼에 붉은 가사를 걸치고 백옥같은 고깔로 춤사위를 흩날린다.

동희 스님의 단독 무대이지만 구해(호적), 덕림(북, 태징), 지월(북), 진성, 성혜, 증문, 지수, 해범 스님 등 10여명의 스님들이 동참해 흥을 돋워주는 것도 이번 무대의 특징이다.

동희 스님은 "소중한 불교유산인 육법공양의 모습을 원형에 가깝도록 재현해서 그 문화적 가치와 정신을 널리 선양하며 불교를 알리고자 이번 무대를 마련했다"고 취지를 밝혔다. 또 스님은 "특히 이번 무대는 40여년간 불교예술을 가르치다 3년전에 열반하신 故 송암 스님의 뜻을 기리는 의미도 함께 포함돼 있다"고 덧붙였다. (02)532-2760 글=김주일 기자 jikim@buddhapia.com

재의식에 사용되는 기본춤인 바라무를 선보이고 있는 동희 스님(사진 왼쪽)과 '육법공양' 의식의 한 장면.



함께 즐기는 마음 종교 다를수 없다

제1회 템플처치 공연예술제



가족애를 주제로 한 극단 차이무의 연극 '양덕원 이야기'.

사찰과 성당, 교회 등 종교시설들이 문화공간으로 탈바꿈하고 있다.

불교, 개신교, 천주교 등 3대 종교로 구성된 템플처치 공연예술제운영위원회는 4월 12일 일산 여래사에서 '제 1회 템플처치 공연 예술제' 개막식을 가졌다.

불교, 개신교, 천주교 위원회 구성
여래사 신갈성당 등 7곳 무대 마련

6월 30일까지 매주 토 · 일요일에 걸쳐 열릴 이번 예술제는 일산 여래사, 포이동 능인선원, 수원포교당, 새벽월드교회 평화센터, 안양중앙성당, 안산 대학동 성당, 신갈 성당 등 7개 종교시설에서 연극과 음악회, 뮤지컬 등 5개 문화공연이 무대에 올려진다.

이날 행사에서 조계종 문화부장 탁연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문화관광부에서 1억6천만원이 지원된 이번 예술제는 지난해 10월 '종교시설의 문화공간화' 시범운영을 통해 이뤄진 결과"라며 "문화공연을 교류하고 즐기는 것 자체가 바로 이웃 종교간에 친근한 대화를 나누는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사찰 공연은 △일산 여래사(5월 9일: 어린이 뮤지컬, 23일:째즈) △수원포교당(5월 15 · 16일:어린이 뮤지컬, 6월 6일: 째즈, 19일 · 20일: 뮤지컬 하이라이트) △능인선원(5월 26일: 작은 음악회, 6월 13일: 째즈) 등의 일정으로 진행된다.(02)736-2250

김주일 기자

부처님의 자비광명이 충만한 기도 영험도량에 법비 오는

동해사 삼사순례



동해사 비 오는 곳

◎ 동해사에서
낙산사 10분 소요,
휴휴암 15분 소요, 불탑사 10분 소요
◎ 바닷가 방생지 5분 소요
◎ 대형주차장 완비

100일기도 접수안내

꼭 소원이 간절하신분 접수하여
한가지 소원이라도 이루어보세요.
◇기도시간 : 4:00시 ~ 5:30분
오전 10시 ~ 11시 20분, 오후 5시~6시
◇기 도 비 : 10만원
(농협 331036-51-062531 동해사)



삼보전에 귀의하옵고
밤 낮없이 사리탑위에 법비가 내려, 부처님의 자비광명이 충만해있는 동해사. 법비의 자비광명으로 화신하여 중생들의 어리석음을 깨우쳐 주시고 계신곳 동해사에 오시어 순례도 하시고 마흔 두가지 중 어떤 소원도 이룰 수 있는 사십이 수주 진언의 기도를 하시고져 하는일 이루어 보시기 바랍니다.

동 해 사 주지 혜명 합장
강원도 양양군 손양면 학포리 156번지 033-672-2900

방생 집전스님이 필요한 불교단체는 주지스님 집전 가능함.

불교성지순례
17년간 불자님들과 함께합니다

(주)실크로드여행사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68-5 서흥빌딩 9층 조계사앞 (02)720-9600

부처님의 숨결을 느낄수 있는 성지순례!!
성지순례는 전통있는 실크로드와 함께 최고의 순례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특선1 하롱베이 / 앙코르와트 6일 999,000원
●일정 : 인천-앙코르와트-하노이-하롱베이-인천 ●출발일 : 5월 28일

특선2 보현보살의 성지 아미산, 세계자연유산 구채구 112만원

몽골, 바이칼호수 8일(몽골 대초원과 러시아 바이칼호수) ▶출발일 : 6월 7일
▶일 정 : 인천-울란바타르-이르쿠츠크-시베리아-바이칼호수-울란바타르-테를지-인천

파키스탄, 실크로드 탐방 19일 ▶출발일 : 6월 21일
불상의 탄생지 파키스탄의 간다라유적과 카라코함하이웨이르 따라 파미르고원(총령)를 넘어 실크로드로-세계최장수 마을 훈자-쿠차 천불동 등 비경을 찾아 탐방하는 일정
▶일 정 : 인천-라호르-탁실라-페샤워르-스와트-칠라스-길기트-훈자-카슈카르-쿠차-우루무치-돈황-서안-인천

중국불교 4대 명산 순례 *10명이상 출발 가능
▶지장보살의 성지 구화산 5일 (남경-구화산 지장성지-천하제일 황산-항주-영은사,서호-상해) 85만원
▶관음보살의 성지 보타산 5일 (상해-항주-영파-보타산-관음현신처 조음동,보제사,낙가산 등-상해) 79만원
▶문수보살의 성지 오대산 6일 (조주선사의 백림선사 임제선사의 임제사, 오대산, 운강석굴 등) 95만원

미얀마 성지순례 6일 (미얀마 최고의 불교 유적지 순례) ▶출발일 : 4월 22일 149만원
▶일 정 : 인천-양곤-바간(2000여개의 불탑-거대한 유적군)-만달레이-양곤(쉐다곤대탑,까바에파고다-진신사리친견)-인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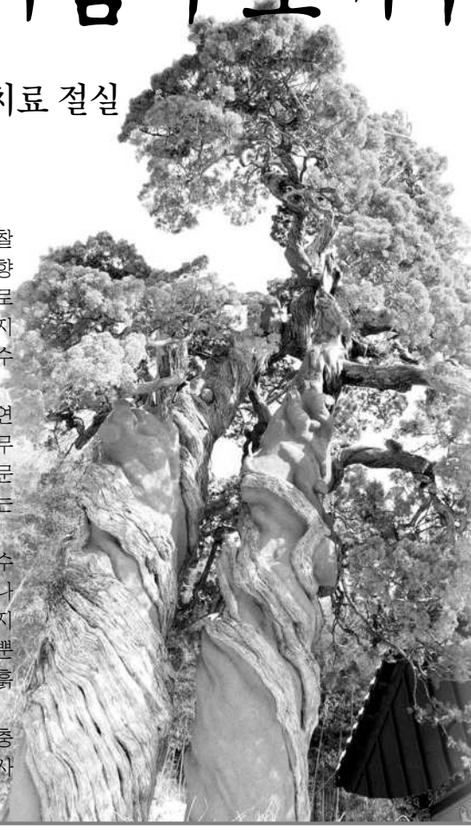
티벳 성지순례 11일 ▶출발일 : 6월 3일
실크로드의 수많은 경험으로 특색있는 티벳의 불교성지를 찾아서...
티벳일주 11일(티벳 라사에서 히말라야를 넘어 카투만두까지) ▶일 정 : 라사-포탈라궁-장체-시가체-라체-시가(에베레스트등 히말라야 조망)-장무-카투만두

수미산 순례 24일 ▶출발일 : 6월 4일, 7월 6일 , 9월 3일
수미산 순례의 선구자 실크로드가 수미산 순례단을 모집합니다. 수미산 순례는 어렵고 그만큼 많은 경험을 필요로합니다. 미리 준비하시는 것이 좋으며, 실크로드만의 노하우로 수미산 순례를 완벽하게 진행하겠습니다.

사찰천년지킴이 노거수를 지키자

병충해 · 영양부족 등 꾸준한 치료 절실

문화재청 관리실태 토론회



나이테 켜켜이 사찰의 역사를 담고 있을 것 같은 사찰의 노거수(老巨樹). 양평 용문사 은행나무, 송광사 곱향나무, 운문사 처진 소나무는 대표적인 사찰의 노거수로 이들은 각 사찰의 보물로 꼽힌다. 그러나 사찰의 천년 지킴이 자리를 지켜온 노거수들이 간단한 치료부터 대수술을 받아야 할 처지여서 빠른 대책이 요구된다.

문화재청(청장 노태섭)이 지난 4월 13일 개최한 '천연기념물 노거수 관리실태 평가토론회'는 나무병원 실무자들과 노거수 실태조사팀이 모여, 노거수 치료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현장에서 축적한 노하우를 공유하는 자리였다.

현재 국내 노거수는 모두 141그루. 이 가운데 외과수술을 받지 않은 나무는 8그루에 불과할 만큼, 노쇠한 나무가 대부분이다. 병충해나 공해에 의한 피해, 나무를 지탱하는 줄기가 썩어 속이 비는 공동화 현상, 영양 부족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비료를 너무 많이 주거나 뿌리를 흙으로 완전히 덮어버려 문제가 되기도 한다.

노거수 치료에는 줄기의 외과수술 외에 뿌리 수술, 병충해 방제, 영양 공급, 주변환경 정비 등이 적용된다. 용문사 은행나무는 1983년부터 외과수술 4회에 영양 주사 2회, 뿌리수술 1회의 치료를 받았고, 화엄사 올벚나무도 외과수술 2회, 영양 주사 1회, 뿌리수술 1회의 치료를 받았다.

특히 13일 문화재청의 토론회에서는 속이 빈 나무줄기를 치료하는 방법에 대한 논의가 가장 활발하게 이뤄졌다. 나무속을 메울 재료와 기술, 그리고 나무속을 메우기를 반대하는 문제까지 다양한 의견이 오갔다.

재료의 경우 1980년대 이전에는 시멘트로 줄기를 메웠지만, 최근에는 우레탄 폼이나 에폭시 수지, 실리콘으로 바뀌고 있다. 나무를 지탱하고 주위의 충격을 이겨낼 만큼의 강도가 요구되고 나무 생장에 피해가 없어야 하기 때문이다. 나용준(서울대) 명예교수는 "줄기의 형성층을 덮지 않는 기본적인 기술상의 문제가 지켜지지 않아, 조직이 부패하는 경우도 있다"라며 재료를 활용하는 기술상의 문제도 지적했다.

한편 박상진(경북대) 교수는 "나무속이 완전히 비어 있는 경우에는 속을 메우지 않는 것이 나무 손상을 막는 방법"이라며 "외국에서도 속을 자연상태 그대로 두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주장했다. 이는 속을 메우기 전 부패한 부위를 긁어내면서 살아있는 세포를 손상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특히 2002년 고사한 용주사 회양목처럼 지름이 작은 경우에는 살아있는 부위를 긁어낼 확률이 높아 생장에 치명적이라는 것이다.

오유진 기자 e_exist@buddhapia.com

홍성기 교수 "연기론에 음양오행 핵심 포함"

최연식 교수 '비밀의기' 궁예 시대 저술 추정

한국불교학회 40회 춘계학술대회

한국불교학회(회장 이평래) 제40회 춘계학술발표대회가 4월 17~18일 금강대학교에서 개최됐다. 이번 학술발표대회는 불교교학, 불교사학, 응용불교 등 3개의 분과로 나뉘어 발표가 진행됐다.

발표된 20편의 논문 가운데 연기론과 음양오행론의 연관관계를 살핀 '연기설의 관계론적 해석에 기반한 음양오행론의 재구성'(홍성기 아주대 교양학부 교수)과 새로운 불교문헌을 연구한 '<건나표가일승수행자비밀의기(健拏標訶一乘修行者秘密義記 · 이하 비밀의기)>의 찬술시기와 찬술자'(최연식 금강대 불교문화연구소)라는 두 논문이 눈길을 끈다.

홍성기 교수의 '연기설의 관계론적 해석에 기반한 음양오행론의 재구성'은 발생적 · 역사적 측면에서 전혀 무관해 보이는 연기론과 음양오행론을 연계시키고 있어, 그 시도 자체가 새롭다는 평가다.

홍 교수는 논문에서 "최근 불교학계에서 활발히 연구되고 있는 '불교생태학'이 연기설에 대한 구조적 이해가 결여돼 문제점을 드러낸다"며 "원자력 폐기물과 같은 산업폐기물은 왜 외경(畏敬)의 대상이 되지 않는지 등을 밝히지 못한다"라고 문제제기했다. 즉, 이러한 불교생태학의 한계를 해결하기 위해, 연기론이 갖는 보편적 잠재론과 거시적인 순환조절시스템이 요구되며, 이 같은 이유로 음양오행론을 연구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연기설과 음양오행론은 어떻게 관계지을 수 있을까? 이에 대해 홍 교수는 "연기론이 같음과 다름을 합한 보편적 관계론이고 음양오행론의 핵심인 상생(相生)과 상극(相剋)관계가 연기론의 구조 속에 이미 포함돼 있기 때문"이라며 둘 사이의 연관관계를 밝혔다. 또 "음양오행론은 분류와 변화의 체계가 동시에 구성돼, 전체와 부분들이 유기적인 관계를 맺는다"며 "서양의 과학이 일단 세계를 분류한 후 이들 간의 인과관계를 설정하는 것과는 다른 연기적 성질"이라고 덧붙였다.

최연식 교수는 '<비밀의기>의 찬술시기와 찬술자'에서 "최근 한국불교의 문헌으로 알려진 <비밀의기>는 궁예가 후고구려를 건국했던 10세기 경에 지어진 책으로 추정된다"고 밝히고 있다. <비밀의기>에 등장하는 '평양신성(平壤新城)'이라는 지명이 궁예 정권 성립 이후에나 가능한 명칭이기 때문이다. 최 교수는 "후삼국시기에서 고려 초에 이르는 시기에 불교문헌이 거의 전하지 않기 때문에 이 책의 가치는 작지 않다"고 강조했다.

특히 <비밀의기>는 사상적으로도 신라 하대의 화엄사상 동향에 대한 이해를 돕는 책이다. 최 교수는 "이 책은 의상을 계승하는 신라 '화엄종'을 기반으로 '대승기신론'사상과 '밀교적 요소'를 결합하려는 민간과 재야 불교계의 흐름을 보여줘 의미 있다"고 설명했다. 오유진 기자

선사상 조명 활발

선문화학회 등 세미나 이어져

선(禪)을 주제로 한 학술발표회가 연이어 개최돼, 선사상을 재조명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불교선학연구원(이사장 법장)이 4월 24일 수덕사에서 개최하는 제5회 학술대회는 선사들의 사상을 현대에 적용해 보는 자리다. 김경집(동국대) 교수의 '경허의 선사상과 현대적 의미'와 이덕진(창원전문대) 교수의 '만공의 선세계와 현대인의 정신윤리', 차차석(원광대 대학원) 박사의 '선사의 행적을 통해 본 선의 역사의식', 정기문(강원대) 교수의 '선의 경제윤리와 현대사회', 박영재(서강대) 교수의 '선수행법의 현대적 활용' 이 발표된다.

이에 앞서 17일 개최된 선문화학회(회장 김용정)의 제1회 정기학술발표대회에서는 이유군(중국사회과학원) 연구원의 '중국북조시대의 석굴과 선법'과 유국충(중국 청화대) 교수의 '<마가지관(摩訶止觀)> 중의 36금설(禽說)', 장미경(성균관대) 강사의 '선어록과 소화', 박영재 교수의 '선어록과 언어에 관해서'도 발표됐다.

오유진 기자

우희종 교수의

불교와 생명과학 <38>

자신을 사랑한다는 것

지난 글에서 언급한 것처럼 삶과 죽음에 있어 자연사 · 자살 · 안락사라는 형태는 중요한 것이 아니다. 각자가 자신의 삶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선택하느냐가 중요한 문제다. 이러한 선택에서 필요한 것은 스스로를 되돌아봐야 하는 질문이다. 그 질문은 '과연 나는 나를 사랑하고 있으며, 또 나를 사랑한다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이다.

'나를 사랑한다는 것'은 모든 것의 시작점으로서 참으로 중요한 말이지만, 과연 나를 사랑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명확히 말하는 이들은 그다지 많은 것 같지 않다. 하지만 잘 들여다보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은 '지금 이 자리의 나를 있는 그대로 무조건 수용한다'는 것 외에 다름 아니다.

결과를 얻어도 후회가 없고, 후회 없는 삶이기에 만족할 뿐이다. 단 후회 없는 삶이 결코 무엇을 완벽하게 해냈거나 매우 좋은 결과를 얻어서 되는 것이 아님을 잊지 말아야 한다.

한편 불완전한 자신을 그대로 수용할 때 주변의 다른 이들도 평등하게 수용할 수 있다. 모자란 자신도 그대로 수용할 수 있기에 비로소 너를 인정하고 수용할 수 있으며, 동질성을 바탕으로 너와 내가 둘이 아님을 알게 된다.

나를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 타인도 사랑할 수 없다. 자신을 수많은 기준으로 정죄하고 판단하는 사람은 그 기준으로 타인을 판단하고 정죄한다. 자신의 삶을 후회하면서 동시에 타인을 비난하고 세상을 원망한다. 스스로

지금의 나를 그대로 수용하는 것은 항상 깨어 일체를 사랑하는 '如如함'

누구도 완전한 인간은 없다. 실수도 하고 울고 웃으며 살아가고 있다. 하지만 진정 자신을 사랑하는 이는 우리가 원래 그러함을 알아 자기가 '그러한 모습 그대로 온전하다'는 것을 받아들인다. 이 자리(차안)를 떠나 가야할 곳(피안)이 따로 없음을 알 뿐이다.

지금 이 자리의 나는 과거 살아온 내 삶의 결과이다. 따라서 지금의 나를 수용하는 것은 나의 과거를 그대로 수용한다는 말이고, 지금의 내가 이룰 미래의 나 역시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이 자리에서는 누가 잘나고 못나고가 없다. 오직 엄숙한 내 몫으로서의 삶이 있을 뿐이다.

진정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의 삶이 객관적으로 어떤 평가를 받던, 결코 스스로의 삶을 후회하지 않는다. 이미 그의 삶은 온전한 것이기에 더 나은 결과를 낳기 위해 노력할 뿐이다. 어떤 힘든 삶의 몫을 짊어지니 안타까운 일이다. 결국 있는 그대로의 자신의 모습을 수용하고 감사할 수 있는 사람만이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할 수 있다.

그렇다면 많이 부족한 나를 어떻게 수용할 수 있을까?

오직 깨어있음으로 수용할 수 있다. 깨어있음이란 항상 자신을 되돌아보는 과정이다. 동시에 각자(覺者)란 깨달음을 얻은 자가 아니라 깨어있는 자라고 말하는 것처럼, 깨달음 그 자체이기도 하다. 그렇기에 깨어있는 자는 항상 자신을 돌아보며, 지금 이 자리에서 자신의 모습이 이대로 여여(如如)하다는 것을 알아 부족한 자신을 아무 조건 없이 수용하여 진정 사랑하게 된다. 오직 깨어 있으라. 그리하여 서로 (나와 나, 나와 너) 사랑할지니.

■서울대 수의과대학 면역학교실



우리 가족에겐 名品이 있다!

20여년을 오직 한 길로만 걸어온

성광수의 수신토종오가피!



국내최대 오가피 재배자 성 광 수

챙기셨습니까?

나를 위해, 가족을 위해 월드컵국가대표선수들이 먹은 "수신토종오가피"를 챙겨주십시요.

신제품 발매 개시

오가피!!

이젠 어디에서나 간편하게 챙기세요.

5대신문 히트상품선정으로

그 품질을 인정받은 수신토종오가피!

아직도 안 챙기셨어요? 지금 바로 전화주세요.

상담과 동시에 오가피에 대한 자세한 자료를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 국내 최대 규모 오가피 농장
- 2003년 5대 일간지 히트상품 선정
- 오가피 관련특허 보유기업(제0322351호)
- 2002년 월드컵 선수들이 먹은 그 제품
- 오가피전문연구소 개설(제20031860호)
- 과학기술부 연구개발 사업참여 기업

오가피건강상담 무료자료신청 02)455-755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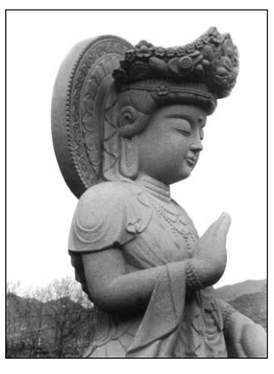
"천년전 마음으로 불사에 동참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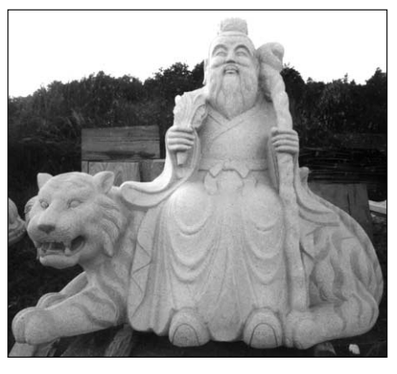
옛 신라인은 수 많은 불교 문화유산을 남겼습니다. 아직도 이 땅 곳곳에 우리 가슴을 따뜻하게 하는 신라인의 불심과 손길을 접할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 석굴암은 불교신앙을 대표하는 부처님상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저희 동국석재조각예술원은 이러한 신라인의 마음으로 소임을 다합니다. 천년 전 신라인의 마음으로 불사에 동참합니다.

문화재청등록 조각기능보유자







석재조각의 대가

동국석재조각예술원

전화: 031) 531-8736 팩스: 031) 531-5549 휴대폰: 011-284-5101

더 빠른! 더 좋은! 더 저렴한!

불자생활정보

▷ 광고문의 : TEL 02)732-1522, 737-8881
FAX 02)737-0697

▷ 광고가격 : 1Box(4.4×4.4) 4만원



1. 법회기도 – 지장기도, 관음기도, 정기법회, 기념법회 등
2. 구인/구직정보 – 공양주, 행자모집, 운전기사모집, 사찰총무원 모집, 일반사원모집 등
3. 알림정보 – 개업, 이전, 각종전시, 불교동우회 행사, 각종불교강좌, 수련회, 동창회, 부음 등
4. 불교용품정보 – 각종불교용품, 불교용품업체, 탱화 업체 등
5. 알뜰정보 – 팔고 / 사고 / 대행 / 대여 / 재활용 / 인테리어
6. 생활장터 – 가구, 도서, 음반, 컴퓨터, 통신기기, 비디오, 가전, 사무용품, 비품, 정수기 등 – 사보편집대행, 음반대행, 꽃집, 떡집, 승복집 등
7. 여행정보 – 성지순례, 사찰순례,

예수재, 49재, 천도재, 회심곡, 화청, 바라, 나비무, 법음범패, 제의식, 염불

각종 행사해 드립니다

011-9209-5691 / 051-265-5692

성불암 **용산** 합장

경면주사
(수비경면)

▷ 부적용, 서예용, 일반용 한의원 약국용 도, 소매

구입문의
011-9675-1089

예수재 | 영산재 | 49재 | 천도재 | 점안식

사찰의 행사에 직접

영인스님

염불 해 드립니다(바라, 작법)

방암사 055-882-3455
016-428-6665

전통의식, 각종행사, 천도재, 점안식, 기타불공 스님 필요하신 곳

016-9340-1725
055-521-3673

법음범패, 제의식, 염불 배우실 학인스님모집

※ 행자모집 0名

효자사 혜성 합장

참선스님 보세요

⊙ 정진중에
- 위장장애, 관절장애
- 수마(잠, 졸음)
- 몸이 냉하고 어혈
- 기력이 많이 떨어지는
- 기혈이 많이 막힌

있으신 스님

※성심껏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011-9715-6071
02)878-2515

사주 명리학 수강생 모집

사주, 신수, 궁합, 택일, 작명 기타

- ▶ 주2회(1회 2시간씩) 4개월 완성
- ▶ 수강료 : 월 15만원(교재대금 포함)
- ▶ 수료후 청강은 무료. 개업, 부업 적극지원

선주명리교육원
02)336-8484

범음범패, 전통의식, 각종행사 해 드림

점안식, 상주권공, 각종불공, 천도재, 바라나비춤, 사물다루는 법, 화청, 모든 재의식 경전, 민속, 역학 등 염불 배우실 학인 모집 중

대광명사 탄우 합장

02)939-3327

천도재 구병시식
태중아기영가 49재
천도 전문도량
(9월경 제 2회 예정)

● 천도재, 49재 구병시식 수시 접수 中
▷ 서울시 노원구 중계4동
02)3391-8523. 011-9002-8523

약천사 자운 합장

고혈압, 당뇨, 암, 각종불치병 어떻게 많은분들이 나았을까요?

어떻게 이런일이 ----
좋은 인연 되시기를 권합니다. 훼밀리 랜드(미전사)

031)651-0092
011-9638-0056



명 당

탐지기 관룡자 **월간역학**
02)2264-0258

동양상 역학강의도 함
www.kbs.c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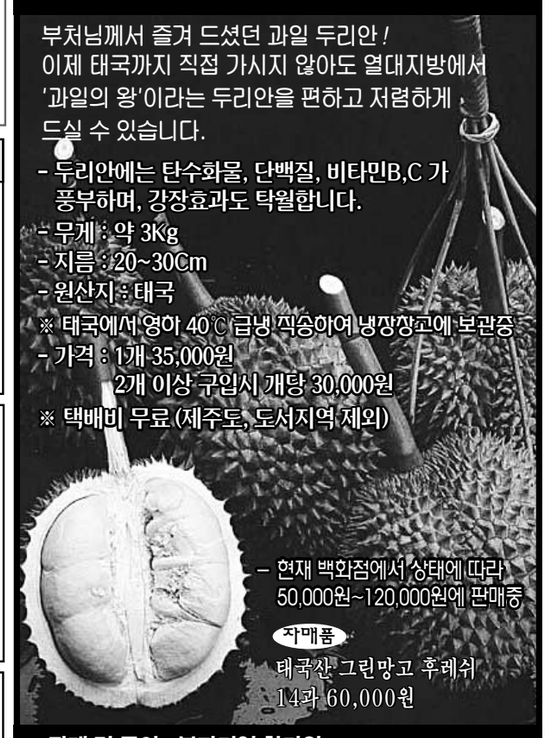
역학 동영상 강의 www.kbs.cc

3개월분 7만원
속성 확실한 교육. 자격증 수여.
명당 탐지기 관룡자 판매

월간역학 02)2264-0258

부처님께서 즐겨 드셨던

두리안(DURIAN)



부처님께서 즐겨 드셨던 과일 두리안 !
이제 태국까지 직접 가시지 않아도 열대지방에서 '과일의 왕'이라는 두리안을 편하고 저렴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 두리안에는 탄수화물, 단백질, 비타민B,C 가 풍부하며, 강장효과도 탁월합니다.
- 무게 : 약 3Kg
- 지름 : 20~30Cm
- 원산지 : 태국
- ※ 태국에서 영하 40℃ 급냉 직송하여 냉장창고에 보관중
- 가격 : 1개 35,000원
  2개 이상 구입시 개당 30,000원
- ※ 택배비 무료 (제주도, 도서지역 제외)
- 현재 백화점에서 상태에 따라 50,000원~120,000원에 판매중

자매품
태국산 그린망고 후레쉬
14과 60,000원

■ 판매 및 문의 : 불자기업 향다원
Tel 031)797-1357 H·P 011-474-1345 / 019-229-1345
입금계좌 : 농협 100023-56-156761 예금주 : 조명숙
전화주시면 두리안에 대해 자세히 안내하여 드립니다.

동학사 일초대강백께서 수년전 불교방송에서 하신 **〈유마경〉**강의 테이프를 매도하시거나 빌려주시면 사례하겠습니다

전화 : 02)722-4162
017-236-5769
임연태(현대불교편집부장)

불상을 급히 구합니다

▷ 크기 : 높이 3자~4.5자이내 넓이 2자이상
본존 석가모니불 및 좌우보처 지장보살님

016-261-2068
포교원

통영시 사량면 사찰 불사 동참할 인연을 찾습니다
인수도 가능함 상세한 내용은 전화문의 하십시요

017-229-8652

토굴 작은암자 외딴촌집
(경남지역)
보시해 주실분
(좋은인연 기다립니다)

011-9416-2261

행자,부전스님 공양주를모십니다.

▷ 충북영동

043)743-6800
011-574-9807

요양이나 기도하실분 모십니다

▷ 강원도홍천

011-688-6622
033)435-6617

공양주구함

서울 당고개역 부근 사찰에서 숙식가능

011-826-5289

공양주 보살님 행자 모십니다
천년관음기도도량

▷ 포항 자장암

011-584-0888
054)285-0129

공양주보살님 모십니다

▷ 서울 양천구

02)2645-6305

기도스님 원하는분

011-9597-6811

부전스님, 행자, 공양주 구함

- 기도법사님 (대학원생, 입학희망자)
- 행자(55세 이하)

▷ 대한불교조계종 삼보사

02)352-6406

처사님 두분, 비구니부전스님 한분 모십니다

▷ 40~50대
강원도 양양군 손양면 학포리 법비오는 동해사

033)672-2900

물 맑고 산 좋은 양수리

무궁화공원

- ▷ 서울에서 40분 거리의 편리한 교통
- ▷ 북한강이 보이는 명당의 산세
- ▷ 온 종일 비추는 일광조건
- ▷ 다양한 형태의 묘지설치
- ▷ 수도권 최고 저렴한 가격
- ▷ 이장 무료상담

상담전화 : 031-775-0114



행자모집

출가를 희망하시는 행자(45세이하)를 찾습니다.

▷ 충북영동

011-574-9807

朴 明 圭

▷ 본적 : 경북 성주군 금수면 명천리 1958년생
▷ 서울 역촌동 큰형에게 연락하기 바람

02)355-5021

부전스님 모십니다

▷ 경남지역

011-9346-5719

조계종 부산 중심가에 위치한 설법원에서 도시생활을 원하시는 계행이 현저한 수행승인 **조계종 스님**을 찾고있음.
그리고 이곳에 불심있는 40~50대의 **공양주 보살님** 구함

▷ 조계종 부산 설법원

051)441-1430

컴퓨터 가능한 **종무님**과 **공양주** 모십니다
(침식가능한분)

▷ 화정 광명사

031)978-9782
011-493-1121

부전 비구니스님 모십니다

▷ 서울금호동 관음사

017-260-3310

신심이 돈독한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45~55세)

▷ 경남밀양

055)355-9064
011-881-9064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 50대이상
보시금은 상담 후 결정

011-790-1583

신심있는 **여사무원, 처사님** **공양주보살** 모십니다

▷ 서울조계사에서 1시간거리 산세 수려한 천년고찰

031)948-7700~1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 경남함안

055)583-6811~2
011-865-1784

배우자 구함 정덕용(49세)

大田에서 목재 및 인테리어 사업을 하고 있으며 백제불교에 다니는 불자입니다.
同聲相應하며 同氣相求할 인연을 만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화로 말씀하시고 인연이 되면 만나 뵙고자 합니다.

017-401-2023

치 질

- **재발** 잘 되는 **치질**
- 한방 비법으로 완전치유
- 오래된 치질이나 **암치질** 특히 효염

※ **스님**들께서는 특별 보시함

▷ 팔공산 **천룡정사**

017-533-1356
053-986-1355

눈

- 안구건조, 충혈, 피로, 눈꼽, 눈물
- 침침함, 눈부심, 희미함, 시력이상
- 당뇨 등 다른질병으로 시력저하
- 눈 수술전후, 눈의 모든 불편증세

일본특허 2790212 미국특허 5332714
KIST KDAR03G-3K 식약청 2106909099



http://www.eye88.com
제조원 : 日本(주) MERCURY-MK

눈밝은 세상 (02)2237-8004

茶 한잔의 여유를 찾아보세요…

www.puretea.co.kr



- 수제 녹차
- 국산차(대용차)
- 중국차
- 각종 다도구
- 자사호/보이차 판매

※ **햇차 예약 판매(우전)**
호월 수제 녹차 예약판매 하고 있읍니다.
아래의 전화로도 예약 가능합니다.

서울 강남구 논현동 203-1 거평타운 A동 12층 1203호
☎ 02)3446-0869 / H·P : 019)875-0815

易學秘法 전수

구성학. 매화역수. 육임등의 핵심 비법만 모아서 숫자로만 간편하게 년운, 월운, 일운은 물론 래방객의 처해진 상황, 온 목적, 占事등을 정확하게 통변할 수 있는 역학비법을 전수합니다.
(출장지도 가능함)

02) 6081-8475 , 019 - 446 - 4755

2004 역학 컨설팅 교육생 모집

★ 모집과정 : 수시모집 ★ 강 의 : 주 2회(화,수요일)
★ 역 학 : 초 · 중급 – **남륜스님**
★ 사주통변 및 작명법, 인연법 : **김재덕선생**
(SBS 인생역전,KBS뉴스투데이, EBS 아름다운도전출연, 굿데이 인연법 연재)
★ 관상학 (특강) – **신기원선생**

신청문의 02)567-4833. 011-9702-2237
인생역전 김재덕 운세 상담 060-605-0914

종무소에서 근무하실분 (女)

- 초대졸이상, 불교대학 이수한자
- 25세이상 불심이 있는자
- 모집인원 : 0명
- 용무단정 필수
- 근무시간 상담 후 결정

※ **화주자모집**
황룡사와(황후스님)인연이 되어 성불하시고 극락정토 구현에 같이 동참할 화주보살 모집

한국불교 태고종 황룡사 031)901-3728

運睦谷堂

목당易학연구원

작궁운통 (개신지도) 명합쇄변

☎ 969-3169 (청량리 우체국)

불교대학 분원설치 및 자격취득 안내

어린이 포교원, 불교 문화원, 불음국악 연주회(포교단) 설치
교육인적자원부 산하 상학 인가된 분원 캠퍼스 설치

- ▶ **봉직자 과정** – 원사, 원무 자격
- ▶ **포교사 과정** – 상담포교사, 역학상담사, 유아놀이포교사, 불음법회포교사, 주술포교사, 풍수지관포교사, 국악연주포교사, 장례관리포교사
- ▶ **법사 과정** – 상담법사, 신앙상담사, 상담지도사, 아동지도법사, 불음지도법사, 염불지도법사, 장례지도법사, 국악지도법사

만대교학대학원 불교지도자연합회 011)412-8040

최면 책임 개인지도

상담내용

- ♠ 최면, 빙의(신들림), 전생확인 초능률 학습법 상담지도
- ♠ 몸속에 들어온 빙의와 직접대화하여 가족에게 확인시키고 천도 할 수 있음
- ♠ 집중력이 떨어져 학업에 취미가 없는 수험생에게 최면요법으로 학업성적을 향상 시킬 수 있음

대 상

- ♠ 비구 · 비구니스님, 교육지도자, 법사 수험생(입시)법사, 기타 상담사 등
- ♠ 개인적으로 사회생활에 문제가 있는분 상담
- ♠ 1:1 지도 및 단체모임 출장지도 상담도 가능함

상담지도: 일휴스님 직접

연락처 053)984-9569, 011-533-8022

성수철학원(학인모집)

■ 스님, 처사, 보살님 전문 교습 ■

- ▶ 무식자도, 공부해도 해도 안되는분 한달 수강 하면 역학 정통하여 환하게 개안(開眼)됩니다. (단체는 출장강의 가능)
- ▶ 눈치 안봐도 돼요, 다 맞으니까~
- ▶ 사주, 신수, 작명, 궁합, 택일, 신병 모두 100% 적중
- ▶ 불자님의 포교 일환(방편)으로 최고 (불교 교리로 푼다)
- ▶ 전국 일원, 제자 150명 활동중 임.
- ▶ 전화 감정도 환영합니다(신속 정확)

대구광역시 중구 남산동 2270-4 (2층)
053)255-4784, 256-4784. 018-531-2237

사주 개인 지도

- 특수비법으로 쉽고 정확하게 하루에 통변 승려에 한하며 보시금 150만원
- 지도 : 대주 스님

HP : 011-741-0867 ☎ 02)962-0867

불교신들의 만남, 불법 속의 생활 그리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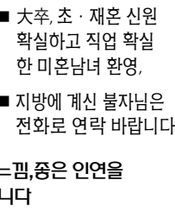
사랑을 추구하는 결혼연구원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부처님 가피로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사랑하는 사람 이자임 詩人

그리움으로 울고 말았다
그대 그리움
사랑으로 울고
내영혼 잠못드는 밤
우두커니 홀로앉아
온 밤을
지새워 울고
못내 그리운 마음
그대 찾아 가고 싶어

날마다 좋은 날이 되소서



원장 이영숙 합장

- 大卒, 초 · 재혼 신원 확실하고 직업 확실한 미혼남녀 환영,
- 지방에 계신 불자님은 전화로 연락 바랍니다.

현대결혼연구원에서 좋은 느낌,좋은 인연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 인생문제 특별상담합니다!!

현 대 결 혼 연 구 원

원 장 이영숙 (법명 : 無生子)
사무실 : 032)345-5411
휴대폰 : 011) 288-2944

불자정보

강좌안내, 각종 소식, 구인 · 구직, 불교관련상품홍보 등 생활 속의 모든 정보가 살아 있습니다.
· 사찰안내 : 규격 5×5cm=50.000원

· 전화 : 02)732-1522 (直) 02)737-8881 (代)
· FAX : 02)737-0697

사 찰 안 내

●위치 : 경기	●위치 : 경남	●위치 : 경북
●법당 : 17평	●법당 : 20평	●법당 : 40평
●요사 : 17평	●요사 : 40평	●요사 : 80평
●부지 : 350평	●부지 : 450평	●부지 : 1200평
●가액 : 1억6천만원	●가액 : 1억8천	●가액 : 6억 3천

※ 전국 사찰 , 포교당 다량보유. 양도, 운영하실분 연락바랍니다.

청송기획 02)998-1994 / 011)713-5634

사찰안내

● 위치 : 원주시 흥업면 흥업리
● 백운산 운장사 법당
● 10m돌탑영험부처님
● 전세 : 보증금 1000만원 월 50만원
● 가액 : 2억

033)766-0057

사찰안내

● 위치 : 부산
● 대지 : 300평
● 임야 : 2천5백평
● 인등 : 3천개
● 가액 : 9억원(절충가능)

011-9338-2993
소개업자 일체사절

포교당안내

● 위치 : 포항시내(우체국 뒤)
● 법당 21평, 삼존불, 탱화, 사리탑 (몸만 오셔도 바로 법회 가능)
● 가액: 전세 500만원에 월 30만원 (권리금 300만원)

011-9207-5296(스님)
016-520-7623(키관리)

포교당안내

● 위치: 부산 금정구 식물원 입구
● 평수 : 40평, 방2개,
● 주방, 화장실
● 전세 : 1000만원 월 50만원
● 시설비 1500만원

011-598-8673

사 찰 안 내

● 위치: 경북 예천 소백산 정화봉
● 종교용지 450평(풍수좋음)
● 법당 15평(불상 탱화 5점)
● 요사 40평(심야전기)
● 주차장 40평(주차 8대)
● 가액: 9천만원

011-9802-3136

사 찰 안 내

● 위치 : 천안시
● 부지 : 120평
● 법당 : 21평
● 요사 : 15평
● 가액 : 8천(급매)

● 위치 : 경기
● 부지 : 1000평
● 법당 : 33평 목조
● 요사 : 35평
● 가액 : 9억 5천만원

◈ 전국 사찰 포교당 다량보유, 양도 운영하실 분 전화 상담 환영합니다.

광진불사 02)723-4082, 011-232-4082

양평사찰부지안내

● 위치: 양평군 강하면 성덕리
● 부지: 2011평 시세보다 많이 저렴함
● 특징: 계곡이 있으며 우물도 남
주변환경이 쾌적하며 청정지역이며 명당자리임

011-786-3400

대지안내

● 위치: 서산 대산 상업예정지 (바닷가 라인땅)
● 용도: 팬션이나 식당, 모텔 부지(대로변)
● 건설교통부에서 서해안 고속도로 주변 개발 계획 확정 발표(2004, 4, 2)
● 가액: 평당 33만원

016-330-6426

포교당(급)안내

● 위치 : 대전 대흥동
● 건평: 35평 2층
● 주방1, 방1, 법당
● 삼존불, 108지장보살 모셔져 있음
● 가액: 전세 2천만원
● 시설비 1500만원

011-9848-3178

포교원안내

● 위치 : 울산시내최요지 아파트 및 주택밀집지역
● 4층건물3층 약30평
● 보증금1000만원 월30만원 시설비2000만원(최저절충가능)
● 몸만 오시면 법회가능
● 사정상 '급' 양도

011-202-2205

사찰(긴급)안내

● 위치: 합천 진주간 중간지점
● 건물: 법당(기와): 25평, 요사채(스라브신축): 30평 요사채(스라브): 20평 <등기필> 산신각, 용왕당
● 대지: 250평 등기, 임야 100평(법당뒤 산세수려)
● 사찰까지 차량진입가능(정남향 위치) 마을어귀
● 불필요 전화사절, 절충가능함(꼭 사시고자 한분)
● 가액: 1억 5천5백만원(경남권으로 포교 요충지)

011-9017-5445

사 찰 안 내 [포교당]

● 위치 : 울산시 중구
● 대지 : 50평
● 법당 : 20평(2층)
● 요사 : 40평(1층)
● 양도가 : 2억(대출가능)
● 도심속 사찰

● 위치 : 서울 강남 방배동
● 법당 : 60평
● 요사 : 방3개
● 보증금 : 1천만원, 월 1백만원
시설비 : 3500만원
● 강남최고요지임

한국최고의 사찰컨설팅 한국불사 011)530-1975 / 011)688-3521
전국소재 사찰, 암자 양도, 양수할 스님께서는 전화 상담 환영합니다.

토굴 별장 안내

● 위치: 남덕유산 자락
● 부지: 1631평, 가옥 신축 황토 기와집 55평
● 특징: 맑은 개울과 집뒤에 솔숲 넓은 정원을 갖춘 아름다운 집
● 주인직접 살고 관리해옴
● 가액: 5억3천만원(대출가능)

016-367-2112

소원성취척척 건강도지키는 화제의 염주

금강염주

2가지 소원이 꼭 이루어지는 신비와 영험의 염주

생육광선과 금강의 강한氣가 발산되는 신비의 금강염주



문의 및 신청전화 (02)723-0909

전화로 주소 성명을 알려주시면 우체국 등기소포로 전국 어디나 받아 접안식을 하고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金剛念珠社 서울시 종로구 관훈동 177 대형 B/D 406호

사 찰 안 내

● 대지 80평, 법당 40평 요사 80평
● 가액 5억5천만원 (대출가능)
● 역사 깊은 도심사찰임

011-688-3521

포교당(급)안내

● 위치:대구광역시 남구 대명5동 (명덕시장 앞 영대병원 전철입구)
● 법당(40평)후불, 신중, 시왕탱화
● 즉시법회가능
● 가액: 2500만원(보증금포함), 월 23만원

011-9850-2946
053-653-0287

사 찰 안 내

<포교당>

● 위 치 : 양산	● 위 치 : 경주	● 위 치 : 부산 부곡동
● 대 지 : 283평	● 대 지 : 문중땅	● 면 적 : 45평
● 법 당 : 25평	● 법 당 : 20평	● 전 세 : 2천만원 월세 70만원
● 요 사 : 30평	● 요 사 : 15평	● 시설비 : 4천만원
● 가 액 : 2억6천	● 가 액 : 5천	
※부산인근의 시골 암자 노포동종점에서 차로 10분	※보문단지 덕동댐호안 홈페이지 사진참조	※아파트앞 대로변 신축건물

부산 영남지방 풍수컨문 사찰 컨설팅(양도, 인수하실 스님 상담환영, 절대보안유지)

佛國불사 051)508-7570 / 018-563-9575
홈페이지 www.boolguk.com
(홈페이지에 오시면 사진과 상세한 설명을 볼 수 있습니다)

토굴 안 내

● 위치: 충남
● 부지 : 400평
● 건물 : 목조 한옥 21평 임법당(황토방)
● 가액 : 1억 8천만원

016-249-3393

암 자 안 내

● 경북 칠곡 왜관 구미시 중간지점 임법당 연꽃연못
● 정원 합 320평
● 가액 : 9천5백만원

017-813-9126

사찰안내

● 위치 : 대구 달성군 유가면 4km 산속 2층건물
● 2층 법당 23평, 종무실 7평,
● 요사채 1층 큰방1, 방2개 식당1, 황토방 1동 2칸짜리 사용가능
● 가액: 1억2천5백만원

053)616-0004
011-9394-1215

도심속 최고 포교당 안내

● 위치 : 오산시청앞
● 법당: 63평(최고급시설) ● 종무소: 약 10평, 요사채방: 7개
● 전통다실: 40평(성업중) ● 체육관: 선무도50평(성업중)
● 권리금: 없음 ● 총 260평(요사채 및 법당 150평)
● 특기사항
오산시청 맞은편 상가숲속에 위치해 있고 대단위 아파트 밀집지역에 위치함, 대형주차장 1일 평균 2000대 이상 출입 왕래
● 가액 : 답사 후 월세나 전세 상의해서 결정

011-9254-2353 / 031)374-2355

암자안내

● 위치 : 경북 상주시 공성면 용안리 김천, 상주에서 20분거리
● 대지 120평, 건평 25평
● 임법당1, 주방1, 방2개
● 가액 : 5,300만원 (집기일체포함)

011-462-5275

사찰터안내

● 위치 : 경북 봉화군
● 전 : 700평
● 용도 : 암자나 절터 및 별장 가능
● 깊은 산골 조용하게 수행하실분 적합
● 가액 : 2천 1백만원

010-6789-7266

사찰(급)안내

● 대구시내 위치좋음
● 2층건물중 2층, 현대식건물
● 법당(2층), 산신각 총 28평
● 요사채(1층) 총 45평
● 대지 105평, 뒤는 야산
● 용왕단
● 가액 : 3억 3천만원 (융자 4천포함) 절충가능

011-785-5670

포교당안내

● 위치 : 부산 시내
● 평수: 45평, 법당, 방2개, 주방, 화장실, 목욕탕
● 가액: 보증금 500만원 월 45만원 시설비 2500만원
● 몸만오시면 즉시법회가능

011-845-3596

포 교 원 안 내

● 위치: 부산 동래구 온천1동 269-53
● 대지 : 65.57평 ● 건물 : 약 30평(단층기와집)
● 동래온천관광호텔, 동물원, 금강공원, 동래별장 허심청 모두 도보로 3분거리
● 3억원에 구입했으나 일본유학관계로 2억원 선에서 양도하겠음
● 현재 석탑과 석등이 모셔져있으며, 전세 4천만원, 은행융자 2천만원 들어있음

019)368-3958 / 02)914-3958(주인직접)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예천 소백산 정화봉
● 종교용지 450평(풍수좋음)
● 법당 :15평(불상 탱화 5점)
● 요사 : 40평(심야전기)
● 주차장 : 40평(주차 8대)
● 가액 : 9천만원

011-9802-3136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예천 소백산 정화봉
● 종교용지 450평(풍수좋음)
● 법당 :15평(불상 탱화 5점)
● 요사 : 40평(심야전기)
● 주차장 : 40평(주차 8대)
● 가액 : 9천만원

011-9802-3136

사 찰 안 내

● 위치 : 경기 파주 임진강변에 소재
● 배산임수의 명당자리
● 대지 200평, 건평 90평
● 법당 20평, 요사채 70평
● 대방6개, 거실2개, 화장실2개
● 가액: 4억원

010-3124-7905

포교당(급)안내

● 위치: 경기도 광명
● 법당 70평(5층)
● 삼존불, 요사채,
● 방2칸, 공양실

011-750-5424

사 찰 안 내

● 위치: 대구중구 남산동
● 상가2층 법당실평수(20평)
● 사정상 급
● 시설비 2000만원,
● 편리한구조
● 월세 35만원(전세도가능함)

011-519-0808

포 교 당 안 내

● 위치 : 경기 성남시 중원구 중동(신흥전철역 옆)
● 평수: 약 20평(2층건물중 2층)
● 방1, 법당, 부엌, 목욕탕, 도시가스
● 가액: 1천만원에 월 30만원 시설비 600만원

031)735-9183

양산 취운선원 아파트 룸(방)에 평생 계실 회원님을 모십니다 출가하실 남 행자 모십니다

● 통도사내 취운선원

055)383-6479
016-696-9388

정말 좋은터입니다(절터, 수련원터)

● 위치 : 이천시 마장면(중부고속도로 서이천IC 부근)
● 부지(준보전임야): 7800평(평10만원) ● 부지(준임)3300평(평15만원)
● 대지(잡종지)2500평(평40만원) ● 대지(잡종지)5300평(평35만원)
● 선원건물(3층): 대지270평, 건물 250평(4억)
● 강남, 분당에서 30분거리 / 계곡물이 흐르고 주변숲이 아름다움 세계도자기 엑스포단지와 산책로 연결 / 가까운 곳에 전철역 확정
● 수행터로 이용되길 바라는 마음에 시세보다 싸게 내놓았습니다

031)637-6719, 017-242-4741

사찰.포항죽장하옥

● 편션 별장 같은 요사와 법당
● 산세 수려함
● 대지 200평, 전 500평
● 국유지 200평
● 가액 : 1억 5천만원

011-9302-0343
054)262-6673

포교당안내

● 위치: 대구 서구 정류장 근처
● 75평 방3개, 법당,
● 부엌, 화장실, 집기 일체
● 주차장 있음
● 가액 : 보증금 1000만원 월 70만원
● 시설비 3000만원 (시설 일체 완비)

011-308-4225

포교당안내

● 위치: 경북의성
● 임법당, 황토방, 창고
● 정원수 1만포기식재 돌탑 및 연못 계곡류
● 이차국도 300m 및 분묘자리 천기확보
● 무엇이든 가능
● 3500평. 평당 7만원

017-813-9126

포교당안내

● 위치 : 서울 상계동 당고개 인접
● 가액 : 계약금 3천만원에 월 30만원
● 시설비 : 1천9백만원 (절충가능)
● 유동인구 많은 시장입구

011-323-5804

사찰 터 안내

● 위치: 의령군 칠곡면 산북리
● 부지: 1500평(대지 600평, 전 200평, 임야 550평, 도로 150평)
● 현재 건물 3동(창고1, 주택1, 근린생활시설사용1)
● 모든시설 완벽히 되어 있음
● 좌청룡, 우백호로 배면임수의 전형적인 명당자리 ● 가액 4억

055)573-7525/011-858-8747
직접 오셔서 보시고 결정바랍니다

포교원안내

● 위치 : 서울 상계동 당고개역
● 평수 : 16평
● 가액 : 1,500만원
● 꼭 필요하신분만 전화요망

011-236-0899
02)952-7347

토 굴 안 내

● 위치 : 순천시 상사면 비촌리
● 대지: 271평 건평 25평
● 방3개 중 1개는 황토온돌방
● 가액: 6천만원

011-522-0676

사찰터안내

● 위치 : 경기도 여주군 금사면
● 면적 : 준 농림지 전답 1608평
● 특징 : 서울에서 50분거리 남한강이 보이고 경관이 좋음 사찰, 토굴, 암자, 전원주택, 주말농장으로 최적
● 현시설: 전기가설된 콘테이너 1동
● 가액 : 1억2천만원

031)885-9805

포교당 안내

● 위치 : 경기도 용인시 역북동 438-7 용인마트 옆, 건물 4층 자비선원
● 42평 방 3개 법당따로, 거실,
● 부처님 3분, 산신 시설A급 위치좋음
● 스님불사관계로 인연있는분 원함
● 보증금 1천만원, 월 50만원
● 보증금 4천만원 월 10만원 시설비 1200만원

031)336-9149
011-297-9149

포교원 안내

● 위치 : 하남시 중앙동 대도로변
● 4층 건물중 5층. 38평
● 법당, 친견실, 스님방
● 몸만 오시면 됨. 명리에 능한신분, 역학가능하신 분 유리함
● 보증금 1천만원, 월 50만원
● 시설비 : 1500만원
● 일신상 (급)안내

031)795-7579
011)663-2754

토굴안내

● 위치: 경북 영천시 화남면
● 대지 171평, 건평 70평
● 상태: 황토방2개, 보일러방5개, 주방, 샤워실, 화장실2개,
● 마당에 텃밭 있음
● 교통편리
● 가액: 4300만원

054)336-2826

포교원안내

● 위치 : 경기 일산신도시 주엽전철역 150m 3층건물에 3층
● 평수: 24평, 법당, 방1, 시설A급
● 도로변, 앞뒤로 아파트단지
● 보증금 2,000만원, 월 70만원 시설비 1천5백만원

031)919-0306
019-687-0306

사찰 안내

● 위치 : 경기도 포천 경기승마공원입구
● 부지: 1300평
● 건물: 53평, 25평, 17평 3동
● 가액: 3억 8천만원
● 서울에서 50분거리
● 산세수려, 전망좋음

031)533-2420
017-202-2741

사찰터(급)안내

● 위치: 충북 제천시 청풍호 주변
● 부지 두필지 708평
● 현재 하우스 전기 전화
● 계곡 자연수 흐르는 기도처
● 가액: 상담후 결정

043)644-1666
011-742-5925

신축사찰(급)안내

● 위치:충북 옥천 대전 10분거리
● 규모: 법당 대웅전 25평, 산신각 5평, 요사채2동(11평, 18평)
● 시설: 근목탱화, 후불 60평, 신중 40평
● 석물: 5층석탑, 자연석 신중, 산신탱화(화강암), 약사여래불입상, 지장보살입상 완벽조성됨
● 대지: 150평(산신환산지기결집 혈)
● 가액: 1억 3천만원(대출 2000만원 포함)

043)733-8186
011-9405-8186

포교원안내

● 위치: 부산시 중구 중앙동 시내중심가 위치좋음
● 건물 4층 옥상사용가 (엘리베이터 있음)
● 건평: 58평, 법당 20평
나머지 40평은 방5개, 주방2, 욕실 큼
● 순 한옥식으로 잘꾸며져있음 바닥은 전체 온돌방
● 가액: 보증금 3500만원, 월 50만원
● 시설비품 3500만원

011-9678-3248

사 찰 안 내

● 위치: 경북 포항시 기계면
● 평수 809평, 법당 15평, 요사채 30평
● 가액: 1억7천만원

054)246-2350
016-536-8774

사찰안내

● 위치:밀양 초동면 지역
● 대지: 330평
● 현 거주 평수: 500평이상
● 법당: 20평, 요사채(2동) 23평 1개, 20평 1개 용왕단 5평,
● 마당까지 차진입 가능
● 가액: 1억7천만원

011-557-6786

포교당 안내

● 위치 : 부산북구덕천로타리에서 약 5분거리. 구포시장내
● 평수 60평, 방4개. 주방시설 완비
● 삼존불, 신중 탱화, 지장불, 지장 탱화 모셔져 있고 산신탱화. 시설 A급
● 보증금 : 1500만원, 월 60만원
● 시설비 : 1,800만원

055)386-7463
011-9530-7463

포교원안내

● 위치 : 서울 상계동 당고개역
● 평수 : 16평
● 가액 : 1,500만원
● 꼭 필요하신분만 전화요망

011-236-0899
02)952-7347

토 굴 안 내

● 위치 : 순천시 상사면 비촌리
● 대지: 271평 건평 25평
● 방3개 중 1개는 황토온돌방
● 가액: 6천만원

011-522-0676

사찰터안내

● 위치 : 경기도 여주군 금사면
● 면적 : 준 농림지 전답 1608평
● 특징 : 서울에서 50분거리 남한강이 보이고 경관이 좋음 사찰, 토굴, 암자, 전원주택, 주말농장으로 최적
● 현시설: 전기가설된 콘테이너 1동
● 가액 : 1억2천만원

031)885-9805

포교당 안내

● 위치 : 경기도 용인시 역북동 438-7 용인마트 옆, 건물 4층 자비선원
● 42평 방 3개 법당따로, 거실,
● 부처님 3분, 산신 시설A급 위치좋음
● 스님불사관계로 인연있는분 원함
● 보증금 1천만원, 월 50만원
● 보증금 4천만원 월 10만원 시설비 1200만원

031)336-9149
011-297-9149

포교원 안내

● 위치 : 하남시 중앙동 대도로변
● 4층 건물중 5층. 38평
● 법당, 친견실, 스님방
● 몸만 오시면 됨. 명리에 능한신분, 역학가능하신 분 유리함
● 보증금 1천만원, 월 50만원
● 시설비 : 1500만원
● 일신상 (급)안내

031)795-7579
011)663-2754

토굴안내

● 위치: 경북 영천시 화남면
● 대지 171평, 건평 70평
● 상태: 황토방2개, 보일러방5개, 주방, 샤워실, 화장실2개,
● 마당에 텃밭 있음
● 교통편리
● 가액: 4300만원

054)336-2826

포교원안내

● 위치 : 경기 일산신도시 주엽전철역 150m 3층건물에 3층
● 평수: 24평, 법당, 방1, 시설A급
● 도로변, 앞뒤로 아파트단지
● 보증금 2,000만원, 월 70만원 시설비 1천5백만원

031)919-0306
019-687-0306

사찰 안내

● 위치 : 경기도 포천 경기승마공원입구
● 부지: 1300평
● 건물: 53평, 25평, 17평 3동
● 가액: 3억 8천만원
● 서울에서 50분거리
● 산세수려, 전망좋음

031)533-2420
017-202-2741

사찰터(급)안내

● 위치: 충북 제천시 청풍호 주변
● 부지 두필지 708평
● 현재 하우스 전기 전화
● 계곡 자연수 흐르는 기도처
● 가액: 상담후 결정

043)644-1666
011-742-5925

신축사찰(급)안내

● 위치:충북 옥천 대전 10분거리
● 규모: 법당 대웅전 25평, 산신각 5평, 요사채2동(11평, 18평)
● 시설: 근목탱화, 후불 60평, 신중 40평
● 석물: 5층석탑, 자연석 신중, 산신탱화(화강암), 약사여래불입상, 지장보살입상 완벽조성됨
● 대지: 150평(산신환산지기결집 혈)
● 가액: 1억 3천만원(대출 2000만원 포함)

043)733-8186
011-9405-8186

포교원안내

● 위치: 부산시 중구 중앙동 시내중심가 위치좋음
● 건물 4층 옥상사용가 (엘리베이터 있음)
● 건평: 58평, 법당 20평
나머지 40평은 방5개, 주방2, 욕실 큼
● 순 한옥식으로 잘꾸며져있음 바닥은 전체 온돌방
● 가액: 보증금 3500만원, 월 50만원
● 시설비품 3500만원

011-9678-3248

사 찰 안 내

● 위치: 경북 포항시 기계면
● 평수 809평, 법당 15평, 요사채 30평
● 가액: 1억7천만원

054)246-2350
016-536-8774

사찰안내

● 위치:밀양 초동면 지역
● 대지: 330평
● 현 거주 평수: 500평이상
● 법당: 20평, 요사채(2동) 23평 1개, 20평 1개 용왕단 5평,
● 마당까지 차진입 가능
● 가액: 1억7천만원

011-557-6786

포교당 안내

● 위치 : 부산북구덕천로타리에서 약 5분거리. 구포시장내
● 평수 60평, 방4개. 주방시설 완비
● 삼존불, 신중 탱화, 지장불, 지장 탱화 모셔져 있고 산신탱화. 시설 A급
● 보증금 : 1500만원, 월 60만원
● 시설비 : 1,800만원

055)386-7463
011-9530-7463

일 주 문



천수천안, 환경지킴이 발족

자원봉사단체 천수천안 대표 도명 스님은 4월 8일 경기 창릉천에서 '고양 Dream 맑은 하천 가꾸기 환경지킴이' 발대식을 개최했다.



연꽃 뿌리 무료 보시

남양주 봉선사 주지 철안 스님은 4월 11일 요사채 주변에 위치한 연밭에 있는 홍련(紅蓮)과 백련(白蓮)을 제주도, 경기 기림사 신도들에게 무료로 보시했다.



6대 군위사암연합회장에

군위 인각사 주지 상인 스님은 4월 12일 열린 군위사암연합회 정기총회에서 제6대 군위사암연합회장으로 추대됐다.

약사여래후불탱화 봉안

대구 관음사 주지 벽파 스님은 4월 13일 신도 1백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가로 8m 세로 5m 크기의 약사여래후불탱화를 봉안, 점안법회를 가졌다.



미얀마 3개 대학에 PC 기증

동국대학교 홍기삼 총장은 4월 12일 총장실에서 미얀마 양곤승가대학, 만달레이승가대학, 국제테라바다포교사대학 등 3개 대학에 보낼 PC 기증식을 가졌다.



'대불련의 사회적 역할' 주제 특강

(사)우리는선우 성태용 이사장은 4월 17일 경기 남한산성 만해기념관에서 열린 대불련 총동문회 수련대회에서 '대불련의 사회적 역할'을 주제로 특강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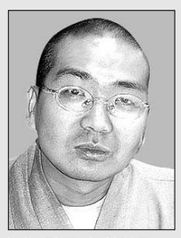


경주 남산 불교유적 답사

부산울산경남 불교언론인회 강호일 회장은 4월 25일 오전 9시 부산불교회관 앞에서 출발, 경주 남산 불교유적답사를 떠난다. 011-9308-0373

美 LA 웨스트大서 강의

성원 스님 7월부터



서울 구룡사 성원 스님(사진)이 미국 대학에서 한국불교와 일본불교 전공 겸임교수로 채용돼 화제다.

성원 스님은 7월 1일 시작되는 여름학기부터 미국 로스엔젤레스 웨스트 대학(University of the West)에서 '한국과 일본종교 – 비교종교 세미나'란 이름의 강의를 시작한다. 성원 스님은 89년 동국대 불교학과를 졸업하고, 92년 서울대 철학과에서 석사학위를 받은 후, 지난해 미국 위스콘신대학 아시아언어문화학과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오유진 기자**

학술대회 참석차 방한한

곰브리치 교수



"옥스퍼드에 불교학 연구센터 세웁니다"

"옥스퍼드 대학에 불교학 연구센터(Oxford Center for Buddhist Studies)를 건립할 생각입니다. 불교학 연구센터를 통해 옥스퍼드 대학의 불교학 전통을 이어나가야겠죠. 영국 브리스톨 대학이나 런던 대학의 소아스(SOAS) 불교학 연구센터와 차이점은 불교를 공부하는 누구에게나 열려있다는 것입니다."

4월 22~23일 동국대학교에서 열리는 인도철학회(회장 김선근) 국제학술대회 참석차 내한한 초기불교의 대표적인 석학 곰브리치(Richard F. Gombrich ·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 · 사진) 교수는 요즘 '옥스퍼드 불교학 연구센터'를 세우는 일에 전력을 쏟고 있다. 올해 9월 곰브리치 교수가 은퇴하면, 옥스퍼드 대학에 불교학을 전공한 교수의 맥이 끊기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옥스퍼드 대학 도서관의 불교학 장서들과 박물관 자료들이 사장될 위기에 처할 수도 있어, 불교학연구센터 설립이 절실한 상황이다.

곰브리치 교수는 연구센터를 설립한 후, 2005년부터는 초기 · 대승 · 티베트 불교와 불교미술 · 불교사회학 등에 5명의 강사를 초빙해 옥스퍼드 대학의 동양학과, 신학과, 평생교육원 등에서 불교학 강의를 주관할 생각이다. 이외에 불교학을 전공하는 대학생들에게 장학금도 지원하고, 불교 심리학 · 서양 심리학 · 현대 심리학을 비교하는 국제학술대회도 개최할 계획도 갖고 있다.

9월 은퇴, 센터 건립에 전력
내년부터 불교학 강의 주관

22일 '현대의 위기와 인도철학적 대안'을 주제로 열리는 인도철학회 국제학술대회에 참석하는 곰브리치 교수. 그는 현대사회의 최대 위기로 경쟁으로 인한 '적대감'과 '성(性)' 문제를 꼽으며, "이를 해결하는데 불교만한 대안이 없다"라고 단언한다.

곰브리치 교수는 또 "기독교나 이슬람교와 같은 유일신교는 '성' 문제에만 집착해 '적대감'을 해결할 수 없지만, 불교는 무상(無常)과 업(karma · 業) 사상을 통해 경쟁이 아닌 조화와 상생의 원리로 나아갈 수 있다"고 덧붙였다.

곰브리치 교수는 초기불교를 대표하는 석학이다. 1994년 빨리경전협회(Pali Text Society) 회장으로 취임하면서 빨리 경전 주석서인 아타카타(atthakatha)번역 사업을 계획하고, 이후엔 조계종 총무원 사회부장 미산 스님 등 한국인 제자 3명과의 인연으로 한국에서 더욱 유명해졌다. 다른 초기불교 연구자들과 마찬가지로 곰브리치 교수도 빨리 경전 번역으로 부처님의 가르침에 접근하는 것을 영원한 화두로 삼고 있다.

곰브리치 교수는 9월 퇴임 이후 불교학 연구센터를 건립해 빨리 경전 문서 번역을 계획할 계획이다. **오유진 기자** e_exist@buddhapia.com

천태종, 미얀마 난민에 PC 전달



천태종 나누며하나되기운동본부(총재 운덕)는 4월 14일 대구 대성사에서 미얀마 서부국경에 위치한 메솟지방 난민촌에 중고컴퓨터 160대를 기증하는 전달식(사진)을 개최했다.

사무총장 무원 스님은 "컴퓨터 보급은 다양한 국적 · 종교 · 민족을 뛰어넘는 인도주의 지원사업으로, 차별 없는 부처님 가르침의 면면을 실천하는 한 방편"이라고 말했다. **대구=배지선 기자**

문광부 종무1과장에 강배형 씨



불교업무를 담당하는 문화관광부 종무1과장에 강배형(사진) 前 국립현대미술관 섭외교육과장이 4월 1일자로 임명됐다. 강 과장은 국립국악원, 공보처 해외공보관 등을 거쳐 정부간행물제작소 국정신문과장, 주 인도공화국대사관 1등 서기관, 주 뉴욕총영사관 영사 등을 역임했다. **남동우 기자**

"언론서 배운 노하우 포교에 회향하겠습니다"

제1회 한국여성불자상 선정
최정희 前 현대불교 편집국장



"일선에서 물러나 있는데 이런 상을 받게 돼서 부끄럽기도 하고 한편으론 어깨가 무겁습니다. 불교언론에서 배우고 익힌 노하우를 기회가 있을 때마다 적절하게 회향하라는 의미로 받아들이겠습니다."

한국여성불교연합회(회장 김묘주)가 창립 10주년을 맞아 제정한 '제 1회 한국여성불자상'에 수상자로 선정된 최정희(前 현대불교신문 편집국장 · 사진) 씨는 소감을 이렇게 피력했다.

75년 불교신문 공채기자로 출발해 25년간 불교언론에 몸담았던 최정희 씨는 불교출판의 저변 확대와 불교문화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는데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아 이번에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또 현대불교신문에 재직하며 '사찰문화체험기행'을 비롯해 '데생용 반가사유상 보내기 운동', '국악 찬불가 혜초 공연' 등을 적극 주도 했다. 이런 공로를 인정받아 2000년에는 문화관광부 장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이와함께 방송포교에도 관심을 가진 최 씨는 불교방송에서 '자비의 전화' 등을 진행하기도 했다. **김주일 기자**

미륵종, 중국 관음성지 순례



(사)한국불교미륵종(총무원장 송정)은 최근 닷새 동안 중국불교 4대 성지 보타낙가산을 순례했다. 미륵종 종정 연화 스님을 비롯해 총무원장 송정, 감사원장 영각, 사무총장 보성 스님 등 사부대중 1백50여 명이 보타산 해수관음원을 참배했다. **조범제 경남지사장**

적조사, 생전예수재 회향



적조사(주지 자성)는 4월 11일 서울 적조사 대웅전에서 신도 300여 명이 동참한 가운데 생전예수시왕재 회향법회를 봉행했다. 자성 스님은 이날 법회에서 "살아 있는 동안 수승한 복을 짓기 위해 항상 기도하는 불자가 되자"고 말했다.

미륵사 열반와불 조성 1주년 법회



포천 미륵사(주지 성광)는 지난 4월 11일 세계최대 단일석상 열반 와불 봉안 1주년 기념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법회는 금강선원장 활안, (재)일붕선교종 사정원장 용암 스님 등을 비롯해 포천군내 기관장 등 사부대중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부처님 조성 모연문

본 암자 **내원암**은 **지리산 도솔봉**에 위치하며 대한불교조계종 19교구 본사 **지리산 화엄사 산내 암자로** 창건연대가 신라 경덕왕시대 8원 81암자 중 하나 였던 내원암이 6.25사변을 겪으면서 내원암에 거주하기 어렵도록 쇠락소멸 되어 터만 남은 것을 시절 인연이 도래함에 산승이 복원을 발원하여 **현재 건물 1동을 건립하는 중** 입니다.

하오나 본승의 원력이 부족함에 부득이 **도솔봉 내원암에 모실 아미타 부처님과 관세음보살님, 지장보살님**을 조성하는 **불모 시주님**과 법당에서 사용할 **법당종 조성** 불사 인연을 발원하게 되었습니다.

신심 깊으신 많은 **불자님의 동참 인연을 기다립니다.**

※ 불구와 가전 및 일체 생활용품 등도 보시를 기다립니다.

전남 구례군 마산면 황전리 지리산 화엄사 산내 도솔봉 내원암 암주 보광당 지암 합장

연락처 전 화 **061-783-0095** 휴대폰 **017-611-0096**

● 온라인 : 우체국 601625-02-021246
국민은행 576-21-0308-915
예금주 : 장훈섭(지암스님)

녹음테이프로 공부하는

太極四柱가 나왔다

(사주배우기가 너무 쉬워졌다)

중국 命理學을 완전 압도하는 새로운 太極四柱가 나왔다.
太極四柱는 이론이 간단명료해서 누구나 쉽게 배우고 속성으로 완성하며 자신있게 개업할수 있다.
中國四柱인 命理學은 10년을 공부해도 끝이없고 올바른 판단이 불가능하다. 그러나 太極四柱는 배우기가 매우 쉽고 자상하며 간단명료해서 구체적이고 논리가 정연함으로서 차분하고 능소 능대한 강의는 들을수록 감명과 실감이 생생하다.
누구나 이해하고 터득하도록 실례를 들어 흥미 진진하게 설명하므로서 질문이 전혀 나오지 않는다.
녹음테이프를 하루 한시간씩 독학으로 2개월이면 완성하고 인간만사를 정확하게 판단한다.
20여년간 강의하고 연구개발한 太極四柱는 오판과 실수가 없다. 中國命理學과 는 하늘과 땅 차이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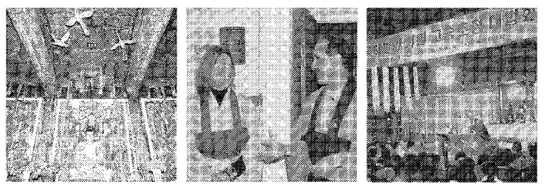
(안내서 무료 배부)

● **주문방법** : 아래 계좌로 송금하시고 전화하면 즉시 배송해 드립니다.
테이프(14개)와 교재 代金 30만원
▶**농협** : 100080-56-022361 (손선영)
※ **스님 및 포교사 특별할인 (20만원)**

學術團體 **韓國陰陽學會中央會**
(053) 324-2468 / 326-4585
釜山支部 : (055) 384 - 2303 大邱支部 : (053) 641 - 2334
龜尾支部 : (054) 465 - 2642 慶南支部 : 016 - 274 - 3170
慶北支部 : (054) 553 - 5145

불교와 문화

www.buddhistculture.co.kr



(재)대한불교진흥원이 불교의 대중화 · 현대화 · 생활화를 위해 펴내는
불교 속의 문화, 문화 속의 불교와 만나는 유익한 잡지

2004 3 · 4월호 주요 내용

특집 | 한국 불교의 선맥(禪脈), 어떻게 살려야 할까
세대 교체기 다시쓰는 한국 선종사, 한국 선불교의 맥을 어떻게 살려야 할까? 이를 다각도로 점검해 본다.

한국 불교의 법맥(法脈)과 선맥은 근본부터 다르다
현단계 한국선의 문제점과 과제
지금 왜 논강법회인가 – 세대 교체기 한국 선불교가 나아갈 길

교리 – 지혜의 샘

생활인을 위한 경전 읽기
『유마경』(2) 유마힐이란 누구인가
지상중계 | 불교경전강좌
흑백논리를 비판하고 중도를 논한, 용수 보살의 『중론(中論)』

수행 – 조화로운 삶을 위하여

재가불자를 위한 눈높이 수행, 수행의 ABC
참선은 어떤 마음으로 시작해야 하나
서양인의 참선수행 체험기
승산 스님의 제자 제인 도비즈가 말하는 "나의 스승, 나의 禪 수행"

문화 속으로

마음을 맑혀주는 세계 음악여행 | 티베트 음악
성낙주의 석굴암 건축기행 | 주실의 돔 지붕 ①
공연리뷰(뮤지컬 '맘마미아') 연기설에 의한 자아찾기
성보박물관을 찾아서 | 수덕사 근역성보관(槿域聖寶館)
테마가 있는 문화산책
– 불전의 하늘궁전, 닫집(논산 쌍계사 · 완주 화암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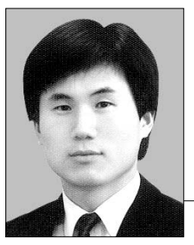
자연과 사람

절집의 나무들 | 은행나무
내가 만난 불교문화 | 불교 건축학자 김정기
등잔 밑을 밝히는 사람들
– 뮤지컬 연출가 이광열('오세암') · 박근형('나부상화')
서양 불교계를 빛내는 불교인 | '로터스' 프로그램 개발자, 미첼 카포

불교 정보창고

고전 읽기의 즐거움 | 연암 박지원의 '규공탑명(虯公塔銘)'
한국불교관계논저총합색인(2003, 2004 단행본 · 학위논문)

격월간 『불교와 문화』 전화 02-719-2606, www.buddhistculture.co.kr



불자 세상보기

김 상 득

전북대 철학과 교수

이제 국민 위한 정치를

주사위는 던져졌다. 그 결과는 여당인 열린우리당이 압승을 거두고 야당인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패배하고, 진보 정치를 표방해온 민노당이 마침내 국회에 입성하게 되었다. 16년만에 여소야대 국회가 다시 여대야소로, 그것도 양당 체제로 재편된 셈이다. 이는 대통령 탄핵으로 인해 이미 예고된 결과였다.

탄핵으로 야당은 힘의 논리에 회심의 미소를 지었지만, 그 힘을 맡겨준 국민의 생각을 눈치채지 못했다. 즉, 작용이 있으면 반작용이 있다는 물리학의 법칙을 야당은 간과하였다. 그 결과 탄핵의 부작용 앞에 거대 야당은 침몰한 것이다.

이제 선거는 끝났다. 물론 과거 청산이 중요할 수 있지만 인간은 과거를 먹고사는 존재가 아니다. 우리 국민은 오늘을 살아가야 하고 또 내일을 준비해야 한다. 이제 우리는 탄핵 심판에 숨겨진 의미를 찾아 그것을 오늘의 정치에 실현하고 나아가 미래 정치의 방향으로 삼을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하다.

탄핵 심판은 두 가지 의미를 지닌다. 하나는 포용의 정치이다. 탄핵은 거대 야당이 수적 우위를 바탕으로 자신들과 다르다는 이유로 대통령 보고 죽으라는 말이 아닌가? 야당은 대통령의 존재 자체를 부인했지만 국민은 대통령편이었다. 대통령은 야당을 포용하지 못해 탄핵을 받았고, 야당은 그 대통령을 포용하지 못해 선거에서 심판을 받았다. 과반 의석을 차지한 열린우리당 역시 보수주의를 표방하는 한나라당과 진보주의를 표방한 민노당을 포용하지 못하면 다음 선거에서는 자신들이 '탄핵' 받을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정치의 아름다움은 다름을 인정하고 그 다름을 끌어안아 조화로운 전체를 만드는 데 있다.

탄핵 심판의 또 다른 의미는 변화 내지 개혁의 정치이다. 기업과 정치인이 돈을 매개로 검은 커넥션을 형성하여 우리나라의 정치와 경제를 어지럽게 만들었음이 정치자금 수사에서 여실히 드러났다. 국민은 이에 분노하면서 "이것은 아니다"라는 판단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정치인들은 구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편가르기와 싸움만을 일삼으면서 결국 탄핵이라는 승부수를 던졌다. 그러나 국민은 표를 통해 저항하였다. 국민의 열린우리당 선택은 결코 우리당이 다른 정당에 비해 탁월한 그 무엇을 보여주었기 때문이 아니라, 기성 정치에 대한 혐오감에서 생긴 하나의 반작용이다. 단지 "아직 때 묻지 않았다"는 이유로 국민은 우리당에 표를 몰아주었다. 이번만은 '혹시나' 하는 국민의 기대감이 '역시나'로 끝나지 않기를 학수고대한다.

이제는 정말 선거가 끝났다. 선거는 정치이다. 따라서 선거가 끝났다는 말은 이제 정치 이외의 현안 문제에 관심을 돌려야 한다.

사실 노대통령 취임 이후 우리는 너무 긴 시간을 정치에만 매달려왔다. 정치는 우리 삶의 전부가 아니다. 아니 정치가 삶의 전부인 것은 바람직하지도 않다. 사교육비 문제, 청년실업으로 대표되는 경제 문제, 부동산 투기, 이라크 파병, 남북 문제 등 너무 많은 문제가 산적해 있다. 정치가는 정치로 먹고 살지 모르지만 국민은 교육, 경제, 사회 등의 피부에 와닿는 어려움으로 신음하고 있다.

감성적인 정치는 가능할지 모른다. 하지만 경제 교육 사회 문화 외교 등의 문제는 감성만으로 안 된고, 도덕적인 가치관 아래 합리적인 현실분석과 뚜렷한 미래에 대한 청사진이 있어야 해결될 수 있다. "국민의, 국민에 의한, 그리고 국민을 위한 정부"라는 민주주의의 기본 정신이 생각난다. 무엇이 국민을 위한 것인지 생각할 줄 아는 정치를 기대해 본다.

본란(本欄)의 내용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불자의 눈 논설위원 기명사설

그동안 추진돼 온 경부고속철도 부산-경남구간 건설사업은 사업 타당성과 안전성, 환경적 측면에서 문제점이 지적돼 왔다. 사업을 재추진하는 과정에서 고속철도 건설공단은 사업을 강행하기 위해 형식적인 환경영향평가를 수행했다. 뿐만 아니라 사업 중단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재협의와 재평가, 문화재보호구역 협의 등 법적인 문제점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한 채 사업을 강행했다.

그리하여 불교계와 환경단체들의 문제제기 및 재검토작업이 진행됐다. 이 과정에서 환경영향평가 부실과 절차상 하자를 문제로 이른바 '도룡뇽 소송'이라 불리는 자연물 권리소송이 제기됐었다. 우리나라 최초의 인간이 아닌 자연물 소송이라는 점에서 '인간 이외의 생명체가 자연물의 권리를 인정받을 수 있는가'에 대한 판단과 환경에 대한 인간의 새로운 인식을 전환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도 했다. 그러나 결과는 기대를 저버리고 말았다.

도롱뇽이 우는 진짜 이유

법원은 판결문에서 도롱뇽 소송에 대해서 절차상의 하자와 미비점이 인정한다 하더라도 자연물인 도롱뇽이나 이를 대신하는 환경단체들도 사법상 권리의 주체가 될 수가 없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이는 매우 좁은 의미의 법률적 해석으로서 오히려 현행 환경법체계를 수십 년 후퇴시키는 판결이라는 점에서 앞으로 일부 사법당국의 근시안적인 시각으로 판단되며, 과거로의 회귀에 대한 심한 의구감을 갖게 된다.

오늘날 주요 선진국의 법체계는 자연물의 소송주체로서의 자격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으나 자연물을 대변한 환경단체나 이해당사자들의 소송권리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인정하여 왔다. 이러한 현실에서 이번 판결은 우리나라 재판부의 환경에 대한 무지를 확인할 수 있는 한 사례로 기록될 수 있을 것이다. 더욱 현행법상의 법적인 하자를 인정하면서도 소송주체의 권리여부만을 가지고 판결을 내린 점은 법원스스로 불법적인 관행을 묵인해 준 판례라고 할수밖에 없다.

이러한 점은 1960~70년대의 개발위주의 잘못된 관행을 21세기인 지금에 와서도 추인해 주고 있는 한 단면이라는 사실에서 다시금 환경에 대한 법원의 관심을 촉구하며, 상급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 ■이병인(밀양대 교수)

이렇게 들었다 무감각

비록 육신은 허망하다 해도 오직 은혜로운 보시의 복은 있어 자기를 따르는 양식되나니. 감관을 잘 거두어 단속하고 선정을 닦는 공덕을 의지하여 돈이나 재물, 또 음식을 그 힘 따라 보시하고 잠에서 깨어나면 그것은 헛되이 산 것이 아니니라. 〈잡아함 노사경〉

〈꽃으로도 때리지 마라〉

연기자 김혜자 씨가 굶주림의 대륙 아프리카, 그 대륙의 곳곳에서 굶어 죽어 가는 아이들을 만나고 눈물로 쓴 책의 이름이다. 10년 세월을 아프리카 대륙을 뒤덮고 있는 기아와 전쟁의 고통을 지켜보며 쓴 〈꽃으로도…〉는 요즘 화제인데,책을 읽는 내내 주체할 수 없이 흘러내린 긴 눈물과 그 뒤의 두통으로 내 기억에 남아있다.

멀리 아프리카로 날아가지 않더라도 우리나라에도 1997년말 닥친 IMF 위기 이후 17만 명의 어린이들이 끼니를 거르고 있다. 우리의 아이들이 배를 곯고 있는 사이, 먹고 버리는 음식물 쓰레기는 하루 평균 1만 2천 톤을 넘어섰고 이것을 돈으로 환산하면 연간 15조원, 그 처리비용만도 4천억원이 넘는다. 새삼스러울 것도 없는 이 통계 수치는 이웃의 고통에 대한 우리의 무감각을 웅변할 뿐이다.

정작 두려운 것은 바로 무감각이다. 나와 나를 둘러싼 세상에 대해 무감각하면 어디로 가고 있으며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좌표를 잃게 되고, 바른 지향점을 찾아나갈 수도 없다. 육신의 허망함을 자각하고 감관을 잘 거두어 단속하고 전정을 닦는 정진이 있을 때라야 나를 둘러싼 세상의 실상을 바로 볼 수 있는 안목이 생긴다. 그때라야 당장 밥을 굶는 사람에겐 한끼 밥을, 마음의 고통에 허덕이는 사람에게는 한마디의 말이라도 위로를 줄 수 있게 된다. 바른 안목을 키우는 정진과 바른 행으로 나의 무감각을 깨워야 할 때다. ■천미희(부산 주재 기자)

독자의 소리-이렇게 생각한다

승복 간소화 절실

요즘 조계종 스님들이 모인 곳이면 어디나 승복을 입고 있는 모습이 제각각이다. 장삼에 대가사를 두르고 있는 스님, 장삼에 일명 반가사를 수하고 있는 스님, 오조 가사를 하고 있는 스님, 장삼까지만 입고 있는 스님, 두루마기 위에 대가사를 입고 있는 스님, 동방아위에 대가사를 수하고 있는 스님, 적삼 위에 대가사를 하고 있는 스님, 두루마기까지만 하고 있는 스님, 동방아 까지만 입고 있는 스님 등 그 수를 헤아리기 힘들다. 심지어는 의식이 진행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바지와 적삼만 입고 있는 스님도 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 스님들의 옷 문화다.

비구의 뜻과 분소의 정신을 한번쯤 생각해보았으면 좋겠다. 오늘날 스님들의 복장은 너무 복잡하고 종류가 많다. 게다가 비싸기까지 하다. 요즘은 값비싼 승복을 입지 못하도록 규제해야할 정도다. 스님들에게는 바지와 동방아, 대가사면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겨울철에는 내복과 스웨터를 입으면 될 것이다.

법회나 집회, 회의 때 스님들의 복장은 진풍경을 연출한다. 의제를 지키지 않는 것도 한 원인이겠지만 종류가 너무 많은 점이 보다 직접적인 원인이라 할 수 있다. 그동안 승복의 간소화에 대한 필요성은 누누이 제기되어 왔지만 제대로 시행된 적이 없다.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오늘날 한국불교의 비전은 스님들의 승복을 분소의 정신에 맞게 착용하는 데 그 희망이 있다. 비구 스님(붓다뉴스)

사찰재정 투명화 이뤄야

불교를 믿게 된 지 이제 3년째인 초보 불자다. 그런데 여러 사찰을 다니면서 사찰의 재정이 공개되는 곳이 거의 없다는 것을 알게 됐다. 재정을 공개하는 일이 마치 치부를 드러내는 일인양 생각되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적잖이 실망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모든 종교는 맑고 청정한 이미지를 지녀야한다고 생각한다. 그 가운데 불교는 '걸식과 분소의'에 바탕을 둔 무소유의 가르침을 갖고 있다. 물론 시대와 환경이 많이 변했다. 하지만 근본정신마저 변할 수는 없다. 스님이 재산을 모아서는 안되는 것이다.

따라서 사찰의 재정은 맑고 투명하게 공개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대중이 공유함으로써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유익하게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이는 직접 복지시설이나 불우이웃에 후원하는 불자들의 보시를 사찰을 통해 할 수 있도록 하는 좋은 방법이다.

또 한가지 사찰의 재정이 사회복지와 스님들의 노후복지에 적극 활용되었으면 좋겠다. 큰스님들이 법랍이 낮은 스님들이 갖고 있는 토굴만도 못한 곳을 전전하며 홀대 받는다는 것은 결국 승가의 위상을 떨어뜨리는 일이라 할 수 있다. 노스님들을 잘 봉양해야 젊은 스님들도 세월이 지난 후 지금같은 대접을 받지 않을 것이다. 해연심(붓다뉴스)

이웃위한 등을 켜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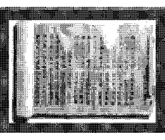
부처님오신날이 다가오는 요즘, 사찰 종무소 앞은 연등을 밝히려는 사람들로 문전성세를 이룬다. "아무개 아무개의 무사태평한 한해를 빌며…." "김아무개씨 집에 부처님의 가피가 가득하길." 연등을 신청하기 위해 줄을 서 있다가 연등에 비는 불자들의 바람이 판에 박힌 듯 똑같다는 생각을 했다. 개인의 안위나 가족의 건강과 행복. 개개인이 살아남기조차 각박하고 힘겨운 게 요즘 세상이라지만, 다들 자신 앞에 놓인 일들만 걱정하고 우려하며 사는 게 아닐까 우려됐다.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주위의 불우한 이웃들이 조금 더 따뜻하게 살 수 있기를', '사회가 안정되고 평화스러워 지기를' 같은 큰마음을 내는 사람이 없다니….

사회 전반적으로 어느 때보다 '나눔'과 '사랑'이 강조되는 요즘이다. 이는 그만큼 우리의 과심과 사랑이 필요한 곳이 많다는 이야기일 것이다. 보다 큰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그 안에서 함께 살아가고자 노력한다면, 부처님이 말하신 정토를 이룰 수 있지 않을까? 올해는 이웃을 위한 등불을 밝혀봐야겠다.

조선혜(서울 노원구 중계동)

'현대' 만평 심 민 섭





동양학의 명문 대유학당 신서안내

후천을 연 대한민국/ 실전 자미두수

▸후천을 연 대한민국



주역으로 풀이한 대한민국 100년사
무극시대(1910~1944)
→태극시대(1945~2004)
→황극시대(2005~)
※ 신국판 384쪽. 16400원.
저자: 건원 윤상철.

노무현대통령 탄핵은 운명인가?
5400년을 주기로 반복되는 초봄의 혼란
45년 8월의 광복부터 2004년 8월말까지의 60년은 태극시대에 해당하므로 모든 것이 불안정한 시기다(1편).
6.25동란은 음과 양이 교류하여 아이를 잉태하기 위한 전쟁이었다(170~175쪽)
올 8월말까지 막가파식으로 다투어야 나라가 잘된다(280~282쪽)
9월 2일 신시의 사작경신의 행사가 시작되면, "도저히 이래서는 안되겠다"는 공감대가 길러지고 통일을 열 庚金의 지도자가 모습을 드러낸다(3편).
부산에서 태평양으로 뻗어가는 水路, 신의주에서 유럽으로 뻗어가는 陸路, 나진에서 북극으로 뻗어가는 精神路의 삼태극이 이루어지면 人極人尊시대가 열린다(3편).

▸실전 자미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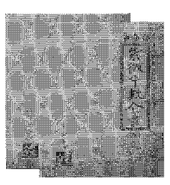


※ 변형신국판 700여쪽.
상하 2권, 36,000원
저자: 이두 김선호.

2004년 1월 12일 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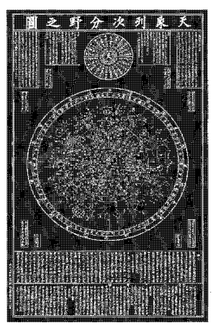
"더 이상의 비법은 없다!"고 자부하며….
자미두수계의 선구자 이두 김선호선생의 13년 풍부한 임상경험의 비법을 아무런 사심없이 공개한 책, 사람의 명반을 놓고 "이때 왜 이 사건이 벌어져는가?"에 대해 일일이 별들과의 관계를 추론해 나간 책. 이 두 권만 다 소화한다면 누구나 자미두수를 자유자재로 활용할 수 있음.

▸자미두수 전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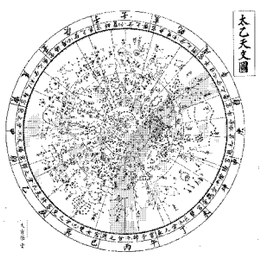
※ 4×6배판 1,700쪽.
상하 2권, 100,000원
(명반 CD포함)
저자: 이두 김선호.

▸태을천문도(太乙天文圖)



천상열차분야지도(720×1200)
태을천문도(720×670mm)
부록(해설서, 28수를 우리나라에 배당한 지도, 휴대용 동서양 비교천문도)
※120,000원. 저자 : 윤상철
2004년 3월 15일 수정판 발행.

고구려시대의 천문도를 조선시대 태조의 명으로 권근이 수정보완한 「천상열차분야지도」를 재수정 보완하고, 오운경천(五運經天)의 이론을 넛붙인 「태을천문도」와 설명서. 서예가 김홍구님의 필적과 보관하기 좋게 천에 인쇄하여, 주변 분들에게 좋은 선물이 될 것입니다.



▸편해매화역수(編解梅花易數)



※ 4×6배판 증보판
20,000원
저자 : 김수길·윤상철
2004년 3월 20일 증보판 발행.

"알기는 소강절"이라는 말이 인구에 회자될 정도로, 주역의 대가이자 점의 최고봉이었던 소강절 선생 그 점학의 진수와 대가들의 비결을 합리적으로 설명하고, 각종 점법에 따른 점치는 방법과 해석을 실전위주로 정리. 기존 편해매화역수에 소강절선생의 절자수, 글자점, 황극책수조수에 대한 내용을 증보하여 소강절 점학에 대한 이해를 넓힘.

▸근간안내

심곡비결,
신기묘산,
현응결미두점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대유학당
2249-5630
홈페이지 : 대유학당

화제의 신발

성불화 룸비니 신발

세상에서 가장 가볍고 편안한 신발



남여공용
성불화룸비니

룸비니는 석가모니 부처님 고향이름

세상에서 이렇게 가볍고 편안한 신발이 있을까?
성불화 룸비니를 신는순간 누구나 이말을 하지 않는 사람이 없다. 최첨단 신발과학의 명품으로 불자는 물론 일반인들 까지도 감탄과 찬사를 받으며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

서울에 사는 공무원 K씨는 광고를 믿지 않지만 어머니가 10년이상 관절염으로 활동도 못하고 고생하는 것이 안타까워 신발이라도 가볍고 편안한 신발을 사드리려고 하던중 성불화룸비니신발이란 신문기사를 읽고 속는 셈치고 구입해 드린것이 지금은 1Km이상 가볍게 걸을수 있으며 활동도 한다고 한다. 서초구에 사는 P여사는 신발이 너무 가볍고 편해 1족을 구입했으나 혹시 생산이 중단되면 어떠할까 해서 평생 신으려고 3족을 더 구입했다 할 정도로 가볍고 편안한 최고급 신발로 평가 받고 있으며 여의도에 사는 개신도 권사도 절에 다니는 친구가 신은 것을 보고 너무 좋아 종교를 떠나 사신고 다닌다고 할 정도로 인기를 끌고 있다.

최고급 천연방수 가죽 뉴벅 사용

과학적인 설계로 신발의 무게를 획기적으로 줄여 대단히 가볍고 편안한 것이 특징이다. 룸비니 신발은 최첨단 신소재와 20만원대 신발에만 사용하는 최고급 천연방수가죽, 뉴벅을 사용했으며 밑창은 골프화 같이 조경량 골프그립을 개발하여 접지력과 마모력을 강화했고 눈, 비올때에 미끄럼 방지기능이 탁월하며 원적외선과 음이온이 발산하여 신진대사를 촉진하고 발냄새를 제거하는 기능성을 갖추었다. 디자인면에서는 평상복 또는 케주얼복에도 잘어울리게 제작했으며 불자님들의 사찰불공시, 또는 성지순례와 해외여행, 등산에도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시켜주는 과학적이고 인체공학적인 신발이다.

성불화룸비니는 남여공용으로 225mm~285mm까지 사이즈별로 제작되어 전화로 신청하면 우체국 택배로 보내준다. 가격88,000원

문의전화:(080)755-0003
농협 944-12-417900 고덕림

윤달이 낀 갑신년에 신발을 선물하면 건강장수합니다.

관세음보살 여의주 수진언 향로



무게2.7kg 높이22cm 가로17cm

갑신년, 가지가지 보배 재물을 얻고 소원을 성취할 것이다.

'소원성취 향로' 화제집중

99%청동을 만든 국보급 명작

불경에 입각한 법구를 전문으로 제작하는 관음예술원에서 불교의 관음 신앙에 등장하는 **관세음보살의 영험의 손모양(수진언)과 지물을 향로로 제작해 점안 불공과 축원불공을 마치고 시판하고 있어 화제가 되고 있다.**

불교에서 **관세음보살 수진언은 세상 모든 중생들의 소원을 성취시켜주는 영험**을 담고 있으며, 실제로 관세음수진언은 큰 스님들로 하여금 그림으로 그려져 어려움을 격는 불자들에게 긴급 비방으로 사용해 왔다. 출시한지 100일도 안되어 관세움보살의 성심으로 어려운 사업장이 부도 위기를 넘기고 2년간 패하기만 한 소송에서 승소를 하고, 어렵다고 생각한 아들이 S대학에 합격하고, 팔리지 않아 고민하던 집이 팔리고, 복권 1.2.3.4등이 모두 당첨되는 등 관세움보살님의 영험이 나타나고 있는 국내 최고의 향로로 평가되고 있다.

특히 윤달이 낀 갑신년에 부처님 공양구를 가정에 모시면 삼재도 소멸되고 가족이 건강하고 화목하며 화를 쫓고 꼬였던 일들이 풀린다 하여 인기를 끌고 있다.

관세움보살 수진언 향로는 99% 청동만으로 국내에서 불경에 입각해 제작했으며 중국에서 싸게 만들어 들어오는 향로는 만들기 쉽게 합금을 하여 2~3년만 지나면 회색 꽃이피고 부식되고 변질되지만 **관세움수진언 향로는 천년이** 지나도 변질되지 않으므로 가정의 번영과 안녕을 지켜주는 가보와 수호신으로 가정에서 예불시 또는 제례시 사용하다 후손에게 물려줘도 손색이 없는 국보급 향로로 인정 받고 있다. 전화로 신청하면 전국 어디든 우체국 특급택배로 정성껏 보내드리고 있다.
가격295,000원

관음예술원

문의전화:(080)330-7555
농협 : 906-12-369914 김현석

갑신년名品특집

윤달이 낀 갑신년

윤달이 낀 갑신년은 지금으로 부터 120년 전 1884년 갑신정변이 일어나든 해로 정변의 기운이 넘치는 해다. 역학적으로 서방의 氣가 동방으로 쏠려 정치는 격동기를 맞을 것이며 민심은 구심점이 없어 방황하고, 사회는 혼란스럽고, 서방의 氣가 동방으로 몰려 괴질과 풍토병이 만년하여 氣가 약한 사람은 건강적으로 어려움을 당할수 있는 해로 누구에게나 윤달이 낀 갑신년은 좋은 해는 아니다. 역학적으로 볼 때 한 마디로 윤달이 낀 갑신년은 집을 잃고 방황의 해다. 정치도 집이 없어 방황하고, 돈도 집이 없어 방황하고, 민심도 집이 없어 방황하고, 건강도 방황하지만 갑신년 후반기 부터는 모든 분야에서 집을 찾아 안정이 된다. 옛부터 윤달이 낀 해에는 누구에게나 삼재를 당하는 해와 같다하여 화를 쫓고 악을 물리치고, 복을 부르고 지혜를 얻기 위해 부처님 공양구 또는 법구를 집안에 또는 몸에 지니고 다니면 불교에서는 삼재를 물리치고 건강장수하며 복을 받는다고 했다.

금강저 건강밸트

부처님의 지혜를 얻는 승리의 금강저 밸트

삼고 금강저(金剛杵)



삼고 금강저

삼고 금강저는 고대 인도에서 인드라신(神)의 밀교 의식에 쓰이는 무기로 불퇴전의 강한 보리심을 상징한다. 밀교의 만다라에는 금강부의 여러존상이 모두 금강저를 가지고 있으며 금강역사는 부처님의 위신력을 받들어 악귀와 잡귀도 물리쳤을 정도로 금강저 앞에는 대적할 상대가 없다는 세상에서 제일 강한 지혜의 무기를 뜻한다.



뱃속에 잡귀와 악귀를 물리치고 강건할 것이다.!!

승리의 선물! 건강의 선물! 합격의 선물!

험한 세상 믿음의 호신용으로 인기

국내 최대의 불교성구 제작 전문업체인 관음예술원에서 불퇴전의 승리의 수호신인 금강저밸트를 제작하여 남자들로 부터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 불교에서 금강저는 험한 세상 사는 동안 악을 물리치고 화를 쫓으며 부처님의 지혜인 금강의 지혜를 받아 각자 소망하는 소원이 성취되고 승리한다는 뜻을 담고 있는 법구다.

악귀와 잡귀 보기만 해도 도망

금강저는 고대 인도에서 인드라신(神)의 밀교 의식에 쓰이는 무기로 불퇴전의 강한 보리심을 상징한다. 금강저는 부처님의 위신력을 받들어 악귀와 잡귀가 보기만 해도 도망치며 금강저 앞에는 대적할 상대가 없다는 세상에서 제일 강한 지혜의 무기로 불경에 입각하여 제작된 승리의 수호신인 금강저를 밸트에 부착하여 남자들이 항상 몸에 지니고 다닐 수 있게 제작한것이 돋보여 직장인은 물론 중·고등학교 학생과 수험생, 경찰관, 군인등 믿음의 호신용 선물로 인기를 끌고 있다.

장이 약하고 허리 약한 분 최고

업체 관계자는 금강저 밸트에서 발산되는 氣와 원적외선은 신진대사를 촉진하며, 허리와 장이 약하신 분은 15일 정도 착용하면 튼튼해지는 것을 알 수 있다고 말한다. 금강저 자동밸트는 실용신안 및 건강밸트로 특허를 획득한 국내 밸트 중 기능성을 가진 최고급 자동밸트로 평가되고 있다.



특별증정 삼고금강저

출시기념으로 여성들이 핸드백에 넣어 자신감을 갖고 다닐 수 있도록 순금도금한 삼고금강저를 선물로 증정하고 있다.
가격65,000원

관음예술원

문의전화:(080)330-7555
농협 : 906-12-369914 김현석

부처님 福 지갑

東西南北의 福을 모으는 靈驗!



남여공용
반지갑

여성용 장지갑

★ 고급 케이스에 담겨있습니다.
사업이 어려우신분은 꼭 사용하세요.

영험의 룸비니 福 지갑

120년 만에 맞는 갑신년 金의 해. 룸비니 福지갑으로 부자되세요

갑신년 선물로 최고!

생일선물! 개업선물! 이사선물! 결혼선물!
합격선물! 승진선물! 취업선물! 사랑의 선물!

왜! 윤달이 낀 갑신년에 지갑을 바꿔야 하는가?

120년만에 온 윤달이 낀 갑신년은 격동의해로 아주 특별한 해입니다. 역학적으로 윤달이 낀 해는 언제든지 누구나 삼재를 맞는 것과 같은 해로 환란을 소멸 하고자 윤달이 낀 해에 따라. 부모님의 수의를 장만하면 좋은 해가 있고, 가구를 바꾸면 좋은 해와, 적색내의를 입으면 좋은 해. 등 해에 따라 다르며 2004년 갑신년은 120년전 갑신년과 같이 서방의 氣와 金이 동방으로 몰리면서 지갑과 신발을 바꾸면 좋은해 입니다. 특히 윤달이 낀 갑신년에는 돈이 집을 잃고 방황하는 해라 하여 金의 해라하고. 돈의 집인 지갑을 새지갑으로 바꾸면 방황하는 돈이 새지갑으로 들어오는 해로 120년만에 온 윤달이 낀 갑신년입니다.

부처님지갑인 룸비니 복지갑에는 불교에서 유일하게 동서남북의 복을 부르는 부처님성구 卍자를 지갑정면에 넣고 윤달이 낀 갑신년 악귀와 잡귀를 물리치고 건강을 지키는 금강저를 지갑 내부에 순금도금하여 넣었으며 부처님 꽃이며 소원성취꽃인 백연화를 넣어, 가지고 다니는 순간부터 자신감을 갖게 했습니다. 부처님 지갑인 룸비니복지갑은 명산인 소백산에서 부처님께 점안불공과 축원불공을 드린 영험의 지갑입니다. 브랜드를 룸비니라 한 것은 석가모니 부처님 탄생지 이름 입니다.

부처님 지갑인 룸비니지갑은 안과 밖이 똑같은 최고급 천연가죽으로 내부도 기존지갑과는 비교가 될수 없게 대단히 잘 꾸며져 있으며 국내 최고급 지갑으로 인정 받고 있습니다.

룸비니지갑은 부처님지갑으로 지갑을 받으시면 사용할 분의 신분증등을 넣고 깨끗한 상위에 놓은 다음 서쪽을 보면서 3배하시고 사용하시면 윤달이 낀 갑신년에 삼재도 물리치고 소원성취 하십니다.

이런분은 꼭 사용해 보세요.

- 사업을 하면서 어려우신 분
- 개업을 준비중인 분
- 장사를 하고 있으나 안돼는 분
- 이사를 계획하고 계신 분
- 항상 하는 일이 안돼시는 분
- 결혼을 앞둔 분
- 취업을 준비중인 분
- 특별한 선물을 찾고 계신 분
- 집을 팔려고 하시는 분
- 점포를 팔려고 내놓으신 분

신청 및 문의전화:080-755-0003

www.lumbinistar.com

전화로 룸비니복지갑을 받으실 주소와 성명을 알려주시면 우체국택배로 전국어디나 정성껏 보내드립니다.
남여공용반지갑55,000원 여성용장지갑95,000원은 신용카드 분할 또는 하기구좌로 입금하시면 됩니다.
농협 : 944-12-417900 고덕림

성불화 Lumbini 성불화 룸비니

“필요한 곳에 있어야 빛나죠”



국립중앙박물관에 유물 2,117점 기증 신영수 티벳박물관장

“테마박물관 많아야 문화 성장”

“문화재나 사람이나 있어야 할 곳에 있어야 활용가치가 크지요. 특히 문화재로서 가치가 높은 유물들은 창고에 쌓아두고 혼자만 즐기기 보다는 여러 사람들이 보면서 연구하고 전시해야 제값을 합니다.”

티베트를 비롯해 중국, 몽골 등에서 20여년간 수집한 고대 유물 2,117점을 4월 1일 국립중앙박물관에 기증한 신영수(49) 티벳박물관장. 중앙 박물관이 생긴 이래 해외 문화재 기증으로는 최대 규모라는 진기록을 낼 만큼 많은 유물을 내놓으면서도 신 관장은 “제 길을 찾아 오히려 더 대접받을 수 있는 큰 박물관으로 가는 것인데 섭섭할 일이 뭐 있겠냐”며 전혀 미련이 없는 기색이다. 필요에 의해서 수집했지만, 그 물건들에 얽매이지 않겠다는 그의 무집착적인 수집철학을 엿볼 수 있다.

이번에 기증한 고대유물들은 중국과 미수교 상태였던 1980년대부터 홍콩 등지에서 치밀하게 모아온 것들이다. 특히 이들은 국내에는 별로 없는 중국 고대 상대(商代)부터 한대(漢代)까지의 청동 · 철기 유물과 도자기, 당송대(唐宋代) 금속공예품과 주요 청동기 유물이 망라돼 있다. 이중 요령식 동검과 오르도스식 동검 등 무기류와 청동도끼 · 청동끌과 같은 농기구류는 내몽골과 오르도스를 비롯한 중국 북방지역 고대문화의 흐름을 체계적으로 알 수 있는 수집품이라는 점에서 높은 가치를 인정 받고 있다.

고대 이래 진귀유물 20년 모아
티베트 고산지대 40시간 헤매기도
6월 인사동에 총포 박물관 열 계획

“수집가는 집념보다 근성과 끈기가 있어야 이 일을 해낼 수 있습니다. 이것은 개인적인 소유욕과는 좀 다른 개념이에요. 어딘가에 필요한 물건이 나왔다는 소문이 들리면 지구 반대편에 있어도 즉시 배낭을 꾸립니다. 그 놈을 손에 넣을 때까지 가격이 맞지 않으면 몇 번씩 찾아가 흥정하기도 하지요.”

여행을 좋아하는 신 관장이 물건을 구입하는 경로는 대부분 발품을 파는 것이다. 말 그대로 재래시장이나 ‘소문’을 따라 산 넘고 물 건너 찾아낸다. 티베트 의상을 구하러 4천미터급 고산지대에 위치한 ‘무스탕 왕국’에 40시간 이상 말을 타고 찾아가기도 했다.

대학에서 농학을 전공한 신 관장은 혼자 있는 것을 좋아하는 성격탓에 군 입대전 인사동과 황학동, 박물관 등에서 유물 수집에 관심을 갖게 됐다. 1980년대 초반에는 한강 하류에서 채집한 석기를 故 김원룡 박사에게 제보해 조사팀에 합류한 경력도 갖고 있다.

30여년의 경력과 10만여점이 넘는 해외 유물들이 말해 주듯 신 관장의 수집 인생은 험난했다.

우선 가장 현실적인 문제가 궁금했다. 이런 방대한 양의 문화재 수집에는 수월찮은 돈이 들어갔을 테고, 외국에서 문화재를 들여오기가 쉽지 않았을 텐데 남다른 고충은 없었을까. “돈이요? 가족들에게는 늘 미안하지요. 인테리어 사업을 병행하고 있어 어려움은 있지만 간신히 버텨 나갑니다.” 이어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무용담이 이어진다. 실제로 신 관장은 총포박물관 설립을 염두에 두고 중국에서 문화재급 무기를 반출하다 세관에 적발돼 고스란히 빼앗기기도 했다. 또 네팔의 오지에서는 길을 잃어 며칠동안 헤매기도 했으며, 티베트에서는 고산병에 걸려 죽을 고비도 맞았다. 그래서 유물들만 쳐다보면 자식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소중하게 느껴진다는 것이다.

“열 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 없잖아요? 수집품들도 다 내자식이기 때문에 규모가 크든 작든, 가치가 높든 낮든 똑같이 귀하게 다루지요. 한가지 가슴 아픈 점은 아직까지 세상 구경 못한 자식들이 창고에 가득하다는 겁니다. 그 아이들에게 세상 빛을 보여주고 싶어요.”

신 관장의 이런 결심이 티벳박물관이외에도 인사동의 성(性)문화박물관을 탄생시켰다. 또 그는 박물관 컨설턴트로도 활동하며 사립박물관 건립붐에 일조하고 있다. 얼마전에 문을 연 서울 인사동의 ‘아름다운 차(茶) 박물관’과 경기도 파주시의 스키 등산 박물관도 모두 그의 손에 의해서 빛을 본 것들이다. ‘박물관 제조기’라는 별명답게 그는 6월 서울 인사동에 ‘총포 박물관’도 개관시킬 계획이다.

신 관장은 박물관 하나도 만들기 어려운데 왜 계속 수를 늘려나가느냐고 묻자 이렇게 토로한다. “외국처럼 다양한 테마의 박물관들이 많이 생겨야 교육적인 효과도 크고 그 나라의 문화 수준도 높일 수 있습니다.”

신 관장은 그가 만든 박물관들을 스스로 ‘서비스센터’라고 강조한다. 그래서 그가 만든 박물관에 가면 다양한 이벤트와 기획전이 꾸준히 개최된다. 티벳박물관은 1년에 3차례씩 유물을 번갈아가며 전시하고 있다. 차(茶) 박물관에서는 관람 후 고려시대나 조선시대의 진품 찻잔으로 차를 마실 수 있는 체험을 하게 만든다.

수십차례 방문한 인도에서 ‘내게는 소유가 범죄처럼 생각된다’는 간디의 영향을 받아서 일까. “꼭 필요한 유물을 잘 활용할 수 있는 기관에 기증하는 것도 수집가의 미덕”이라는 신 관장은 이번 기증에 그치지 않고 현재 소장하고 있는 중국도자기와 국내 민속자료도 공신력 있는 기관에 내놓을 생각이다.

문화포교사 신관수 관장의 말총머리 뒷모습이 오늘따라 더욱 아름답게 느껴지는 것은 비록 돈과 물건은 아니지만 ‘문화의 향기’를 많은 이들과 나누고 싶은 보시정신 때문은 아닐런지.

글=김주일 기자 · 사진=박재완기자



자신이 국립중앙박물관에 기증한 유물뒤에 서있는 신영수 관장.

우 · 리 · 절 · 은 · 불 · 자 · 여 · 러 · 분 · 을 · 사 · 랑 · 합 · 니 · 다

◆ 교통편
1. 강변역 → 광주 → 곤지암 1113-1
2. 잠실 → 모란 → 광주 → 곤지암 500-1
3. 양재 → 모란 → 광주 → 곤지암 500-2

곤지암 우리절

천도재 기도도량 · 대비주 기도도량 우리절!

우리절은 국내에서는 보기 드문 대비주 기도도량입니다.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 – 오후 3시, 장장 5시간에 걸쳐 논스톱으로 올리는 대비주 기도에 불자님들의 모든 바램을 한번 멋지게 걸어보십시오.
그리고 또한 우리절은 온갖 정성을 다 기울여 선망조상 영가님들을 천도하는 역시 국내에서는 보기 드문 천도재 기도도량입니다.

주[대비주 = 신묘장구대다라니]

우리절 정기기도 · 법회
- 매주 일요일 오전 10시 ~ 오후 2시 일요법회
-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 ~ 오후 2시 자녀 및 입시기도 목련사랑법회
-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 ~ 오후 3시 특별대비주기도회
- 매월셋째 화요일 오후 2시 ~ 4시 부 산 동 선 회 법 회
- ● 곤지암터미널 – 우리절 셔틀버스 운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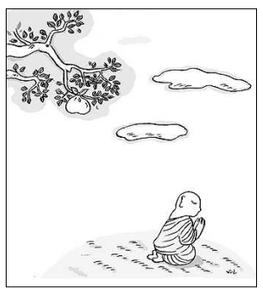
대한불교조계종 우리절 http://www.urijeol.com / 우리절.com /우리절.net 우)464-881 경기도 광주시 도척면 상림리 178 전화 031)763-4674-5 / 팩스 031)763-2150

이제열 법사의
경전속의 수행법 〈7〉

삘로띠까를 깨닫게 한 누더기와 밥그릇 스승

부처님을 가까이 모시고 있던 아난 존자가 어느 때 탁발하러 성에 나갔다가 구걸하는 어린 거지 아이를 만나게 되었는데, 어찌나 불쌍했던지 그를 데려다 출가시켜 동자승이 되게 하였습니다. 이름을 삘로띠까라 부르게 되었는데 그 까닭은 그가 아주 초라한 옷을 입었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삘로띠까는 자기가 입던 더러운 누더기와 찌그러진 밥 그릇을 보자기에 싸서 수도원 뒷산의 나무 가지에 매달아 두는 것이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그는 정식 비구가 되었고 적어도 겉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는 수행자의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삘로띠까는 때때로 이와 같은 수행자의 생활



보다는 구걸하며 살던 때가 오히려 좋았던 것이 아닐까 하는 그리움과 함께, 지금이라도 계를 반납하고 다시 옛날의 생활로 돌아가 버릴까 하는 생각을 하곤 했습니다. 그럴 때 마다 삘로띠까는 수도원 뒷산으로 올라가 매달린 누더기 옷과 찌그러진 밥그릇을 쳐다보며 준엄하게 자신을 꾸짖었습니다.

"부끄러운 줄도 모르는 자여 너는 어찌 여태까지 마음을 잡지 못하고 잘 먹여주고 잘 재워주며 존경까지 해주는 이곳을 떠나겠다고 하느냐. 너는 다시 저 더러운 누더기 옷을 몸에 걸치고 찌그러진 그릇을 손에 든 채 구걸을 다니면서 온갖 괄시와 천대를 받겠다는 것이냐."

그는 이런 말로 자신을 채찍질 하여 마음의 갈등을 자주 일으켰기 때문에 수도원 뒷산을 자주 오르내렸고 이를 이상히 여긴 다른 비구들이 물으면 스승을 뵈러 갔었다고 대답하였습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가 마음이 또 산란해져 뒷산을 올라가 누더기와 밥그릇을 쳐다보고 자신을 책망하고 있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났습니다.

"나의 마음을 지켜주는 저 옷과 밥그릇을 보러 이곳까지 꼭 올 필요가 있을까, 여기를 찾아올 것이 아니라 수도원에 앉아서 이들을 떠올리면서 마음을 꾸짖자." 수도원에 돌아간 그는 그 뒤로 항상 갈등이 일 때마다 누더기 옷을 연상하였고 마침내 이 방법이 수행 주제가 되어 오온이 무상한 것임을 깨달아 아라한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어 가지 수행에 유익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먼저 사람의 경향은 쉽

구걸하던 시절로 돌아가고 싶을 때마다 자신 꾸짖고 정진

게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중생의 마음은 항상 과거에 살아왔던 방식이나 습관으로 돌아가려는 버릇이 있습니다. 실제로 수행을 하다 보면 지금 내가 왜 이런 공부를 하나 과거에 이런 것 모르고도 잘 살았는데 하면서 수행이고 뭐고 다 그만두고 싶은 때가 많습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수행하는데 있어 반드시 필요한 스승이나 수행방법은 어디에나 존재 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삘로띠까가 자신이 구걸 하던 시절의 옷과 그릇을 스승으로 삼고 수행의 주제로 삼았듯 마음먹기에 따라 주변에서 얼마든지 자신의 마음을 닦을 수 방법과 기회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멀리서 찾으려고만 하지 말고 주변에 흔히 있는 현상들을 주제로 삼아 마음을 조절하고 집중해 보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유마선원장

실천으로 '깨달음 지상주의' 벗어야

'깨달음이란 무엇일까. 이를 위해 어떻게 수행해야 하나. 깨닫고 난 이후에는 어떻게 닦아야 하나. 상구보리가 먼저인가, 하화중생이 먼저인가?'

계간 〈불교평론〉 봄호는 '깨달음과 수행에 관한 몇 가지 관점'이란 주제로 특집을 마련, 이러한 궁금증에 답하는 다양한 시각을 보여줘 눈길을 모은다.

이 특집에는 모두 네 편의 논문이 게재되었는데, 공통적으로 불교의 깨달음과 수행관에 대한 '고정관념'의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깨달음이 불교의 목적인가'(홍사성 불교신문 주필), '선의 깨달음, 그 정체와 문제점'(김성철 동국대 불교학과 교수), '깨달음의 불교에서 행복의 불교로'(조성택 고려대 철학과 교수), '수행도의 다양성과 깨달음의 의미'(안성두 금강대 국제불교문화연구소 연구원) 등의 논문들은 한결같이 '깨달음 지상주의'를 탈피해 현실 속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구체적으로 실천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기존의 깨달음에 대한 인식전환은 홍사성 주필이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깨달음은 오랜 시간 좌선명상을 해야 깨닫는 그런 문제가 아니다. 그야말로 '한 생각' 돌리면 그만인 그런 깨달음이다. 대승불교의 보살이 대자대비심으로 서원과 회향의 보살행을 실천하는 것도 이것을 알았기 때문이지 다른 것을 깨달아서가 아니다."

홍 주필은 "깨달음은 진리에 대한 인식전환이기에 경전을 읽거나 설법을 듣고도 가능하다"며 최초의 여섯 아라한을 예로 든다. "부처님이 녹야원으로 가서 교진여를 비롯한 다섯 수행자를 교화한 뒤 그들이 진리를 완전하게 이해하자 '이제 이 세상에는 6명의 아라한이 있다'고 말한다."

조성택 교수 역시 '깨달음 지상주의'를 비판한다. 그는 "승가에서 조차 깨달음은 더욱 더 희귀한 뉴스가 되고 있는 지금 출가자 중심의 '최종적 깨달음'을 위한 불교는 이미 그 존재 이유를 상실하고 있다"고까지 말한다.

"원효나 경허 등의 파계 행위에 대한 선불교 전통 일반의 관용적 태도는 '마음의 자유가 행위의 자유를 보장한다'는 깨달음 지상주의에 책임이 있다. 할과 방은 바로 그 당시 '현장'에서의 일회적인 활발발한 사건이다. 대승 보살사상의 핵심은 중생 구제의 서원으로서 '자신의 깨달음을 미루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보살사상의 종교적 동기는 출가중심 불교의 깨달음 지상주의의 극복에 있었다고 본다."

조 교수는 붓다가 성도 후에 우리에게 보여주었던 것처럼 깨달은 이후의 살아가는 모습 또한 도덕적이며 상식적이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수행에 대한 관점과 깨달음 이후의 닦음에 대해서도 다양한 논의가 보인다.



'불교평론' 봄호 '깨달음과 수행' 특집 주요내용

참다운 대승의 수행은 깨달음과 사회적 회향을 둘로 보지 않는다. 사진은 해인사 수련회에서의 정진 모습. 현대불교신문 자료사진

깨달음 **진리에 대한 인식전환…끝 아닌 시작**

수 행 **팔정도·사념처 닦고 보시 실천하는 일**

김성철 교수는 깨달음 전후의 수행 방식에 대해 언급하면서 견성 후에도 부처님의 자취를 따라야 한다고 주장한다. "부처님의 마음 전체를 닮기 위해서는 선 수행을 통해 지적인 깨달음을 추구하기 전에, 탐심과 진심을 가라앉히는 부정관과 자비관을 닦음으로써 우리의 감성을 정화해야 한다. 견성 후에도 '습기를 제거해야 한다' 든지 '견성 후에 보림한다'는 말이 선가의 격언으로 회자되어 온 것은 '선 수행'만으로는 탐욕이나 분노, 교만과 같은 '감성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일 것이다. 혹, 견성 후에 습기를 제거하지 않을 경우 어떻게 될 것인가, 가장 안전한 것은 부처님의 자취를 따르는 것이다."

홍사성 주필의 견성 이후 수행론은 더욱 구체적이다. 홍 주필은 "'마음이 곧 부처'임을 깨달았다면 나는 정말 부처로서 살고 있느냐 하는 것이 화두가 되어야 한다. 화두 타파란 '그렇게 살고 있다'는 대답이어야 한다"고 단호하게 말한다. "'깨달음을 위한 수행'이란 관념을 폐기하는 것이 좋다. 불교 수행은 깨달은 내용을 실천하기 위한 수행이고 부처로 살기 위한 수행이며 열반을 완성하기 위한 수행이다. 계정혜 삼학과 사념처, 팔정도 이것을 대승적으로 표현한 육바라밀은 부처로 살기 위한 수행이다." 홍 주필은 깨달음과 열반의 문제를 이해하는 방식으로 〈구사론〉 '삼도론(三道論)'을 예로 든다. 삼도란 견도(見道), 수도(修道), 무학도(無學道)를 가리키는 말로 부처에 이르는 차례와 방법이다. 여기서 부처님이 설한 교리를 바르게 아는 것이 '견도'이고 깨달음이다. '수도'란 알고 깨달은 진리를 실천해 몸에 배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마침내 최고의 경지, 더 이상 배울 것이 없는 열반과 해탈의 경지인 '무학도'에 이르게 된다는 것.

안성두 연구원은 수행이란 '병에 대한 다양한 처방'일 뿐이라고 말한다. 수행이란 하나의 치료약과 같은 것으로 자신의 능력과 관심에 맞는 방법을 채택하는 것이기에, 모든 수행도는 그것에 의해 궁극적 진리가 증득되는 한에 있어 모두 '하나의 맛(一味)'이란 것이다.

깨달음과 수행을 문제 삼을 때 약방의 감초처럼 빠질 수 없는 부분은 '상구보리'와 '하화중생'의 관계 설정이다.

홍사성 주필은 대승불교의 전통적인 해석에 따라 '상구보리'와 '하화중생'을 선후의 문제가 아니라 동시적인 것으로 설명한다. 대승 실천수행의 핵심이라 할 서원과 회향의 사상은 하화중생을 통해 상구보리를 성취하라고 가르친다. 예를 들어 아미타 48원, 약사여래 12대원, 보현보살 10대원은 모두 하화중생으로 상구보리를 이루겠다는 발상이란 것이다. 홍 주필은 "깨달음이란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며 "바른 수행은 팔정도와 사념처를 닦고 보시(布施), 애어(愛語), 이행(利行), 동사(同事)와 같은 덕목을 실천하는 것이다"고 규정한다.

조성택 교수는 "깨달음 후에도 붓다는 팔정도와 바라밀을 실천하였을 뿐이다. 깨달음에 이르는 길과 깨달음 이후 걸어가는 길은 똑같은 길이다"고 말한다.

조 교수는 "우리가 보살로서 달성해야 할 '영원한 현생'에서의 수행의 목표는 나와 타인의 행복이다"며 타인을 위해 봉사하고 도덕적으로 살겠다는 보살이라면 '행복하십시오' 라고 행복을 기원하는 것이 더 불교적이라고 강조한다.

안성두 연구원은 "재가든 출가든 불교도가 보살적 이상을 내면화 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신적, 사회적 실천에 나설 때 참다운 대승의 세계는 열리게 된다"고 거든다.

김재경 기자 jgkim@buddhapia.com

구례 금강선원 '화두선 학교' 개설

구례 금강선원(선원장 봉산)은 매달 첫째주 일요일 오후1시 전남 구례군 구례읍 봉동리 조한의원2층에서 '화두선 학교'를 연다.

강좌 내용은 △선, 인간정신의 역사 △모래이론(삶의 구조) △6식, 7식, 8식의 특성과 구분(의식, 생각의 구조) △화미와 화두 특성과 구분(알아야 할 것과 앎과 관계없는 앎들) △화두 참구법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의 특성 △일체자연, 관법, 거울에 비친 대상, 소위 일상사와 다른 선 △도달키 어려운 이유와 간과하기 쉬운 함정들(의심화두, 진심화두, 에고와 관심) △이 시대 선의 의미(영성개발, 폭력과 거짓으로부터 자유, 삶의 발견, 올바른 인생방향 제시) 등. 참가비 무료. (061)781-0582

한국위빠사나 선원 개원

한국위빠싸나선원(www.vipassanacenter.com)이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소재한 청호불교문화원에서 새롭게 둥지를 틀고, 4월 13일 개원법회를 가졌다.

원장인 묘원 법사는 매주 화요일 오후 2시~5시30분 사념처 중 신념처에 대한 법문과 수행, 문답을 실시한다. (02)517-3052

간(肝)이 간염 지방간 간경화 …

건강해야 장수할 수 있습니다.

지리산자락 신비의

참다슬기 농축액



토종 웅담과 비길만한 자연산 참 다슬기로 삶의 활력을 찾으세요.
지리산 자락 청정 지역에서 서식하는 자연산 참다슬기만 가지고 전통재래식(가마솥) 방법으로 달인 참다슬기 농축액은 상쾌한 하루를 열어줍니다.

◘ 다슬기 농축액: 지리산 자락 계곡 맑은 물에서 채취한 참 다슬기와 구슬알 다슬기를 죽은 것과 빈 껍데기를 골라 내어 깨끗이 씻고 해금 시킨다. 다음 다슬기 10kg을 분쇄하여 가마솥에 넣고 전통비법으로 다슬기 속살이 녹을때까지 48시간을 다린다. 여기 마늘, 생강, 대추를 넣고 24시간을 더 달입니다. 농축액은 60포 단위로 포장합니다.

◘ 다슬기 기름: 다슬기 15Kg을 항아리에 넣고 왕겨 9가마니를 덮은 뒤 왕겨에 불을 붙여 그 열로 다슬기가 땅속에 묻어둔 빈 항아리에 녹아 흘러내리게 합니다. 다슬기 기름을 만드는데 왕겨가 다 타들어 가기까지 꼬박 8~9이 걸립니다. 한달분은 1.8리터입니다.

『농축액을 개발하여 KBS TV "6시 내고향"에 방영된 이래로 "생방송 좋은아침" MBC TV "고향은 지금" 조선일보, 중앙일보에 소개 됨』

자료신청 : 055) 963-9583 · 상담문의 : 055) 355-5626
산마을 토종 (민속농원)

기도처 자연속에 보금자리 자광원

행복하고 편안한 노후를 위한 최고의 선택입니다.



보살 염불원의 특징

≫ 남한산성 자락에 위치하여 쾌적한 환경 속에 날마다 부처님을 모시고 염불과 기도정진으로 마음을 닦으며 남은 여생을 편안하게 즐기며 보내시도록 새로운 기도처를 마련하였습니다.

≫ 20년간의 무료 노인요양원인 사회복지법인 부처님 마을 자광원에서의 경험을 통하여 엄어진 전문지식에 의하여 설계된 노인을 위한 기도처 입니다.

≫ 외롭고 우울하게 혼자사는 노인 또는 부부노인중 한분의 거동불편으로 의 · 식 · 주 해결에 고민하시는 어르신들을 위한 낙원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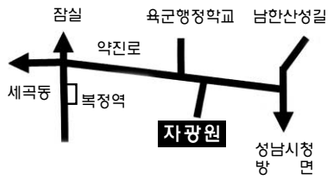
≫ 자손들에게는 효도의 기회를 노인들에게는 안락한 여생을 제공하며 임종 시까지 정성껏 모셔드리겠습니다.

≫ 고부간의 갈등으로 고민하시는 분

≫ 홀로계신 시아버님, 모시기가 어려우신 분 자광원에서 해결하여 드립니다.

위치 및 시설개요

◆ 소 재 지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복정동 116
◆ 대 상 : 만 65세 이상. 노환스님 또는 부부, 개인 등 거처하고자 하는 모든 불자
◆ 정 원 : 24명~30명 내외
◆ 시설개요 : 본 건 물 → 방규모(약 7평) 24실(각실 인터폰 설치)
법당, 팔각정자
부대시설 → 제2물리치료실, 목욕탕, 이 · 미용실, 식당, 오락실
◆ 입방비부담 : 평생회원과 일반회원으로 구분 자비부담
◆ 연 락 처 : 전화 031)759-5320 팩스 031)759-4209



2002년 5월 15일 개원 대한불교 조계종 자광원

명당을 만들어 주면 운이 바뀝니다 명당 육氣방



본인, 가정집, 점포, 사무실 처방을 해보십시오.
氣가 바뀌면 좋은 운으로 바뀝니다.
재수없는 일들과 불화와 액운이 사라지고
새로운 앞길이 열리며
새로운 좋은 일이 있게 되고
새로운 관운, 명예, 재물운이 옵니다.

아무리 할려구 노력해도 안되시면
집터나 공장터나 조상 묘지터를 처방해 보십시오.
불화와 우환이 사라지고 하시는 일들이 잘되며 관운, 명예, 사업, 재물운이 옵니다.

이것이 처방이다 명당육氣방 051)865-9933

천도재 49재와 같들인 처방법 전화주시면 안내 책자를 보내드립니다.
처방전용 명당육氣방은 각 사찰, 암자, 철학관에만 있습니다.

氣가막힌 복이들어와 황금운으로 변합니다. 氣당어리 복당어리 황금당어리 氣당어리

‘명상과 뇌’ 어떤 관계일까

과학적 연구 활발…일부선 상업화 움직임

마음은 마음으로 전할 뿐 언어로 표현할 수 없다는 ‘이심전심’이란 말이 무색한 시대다. 지극히 주관적인 마음의 작용을 최첨단 기기를 이용해 낱낱이 해부하는 요즘, “마음 연구 역시 주류과학에 진입했다”는 평가가 낯설지 않다. 그 가운데서도 명상에 대한 ‘과학적’ 연구는 특별히 인기가 높아, ‘명상의 효과’와 ‘뇌의 변화’와의 관계를 규명하고자 하는 작업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이와 동시에 그에 대한 결과를 상업적으로 이용하려는 움직임도 보인다. 명상과 뇌를 둘러싼 여러 가지 논의들을 살펴본다.


뇌파조절 학습기를 테스트하고 있는 학생.


뇌파측정기구를 이용해 알파파 상태에 접어든 사람.

명상을 하면 뇌파는…

사람의 뇌는 평상시에는 초당 13㎐ 이상의 베타파를 방출하고 수면 직전이나 긴장이 이완된 상태에서는 8~12㎐의 알파파를 내보낸다. 또한 잠들었을 때는 보통 4~7㎐의 세타파를, 깊은 잠에 골아떨어졌을 때는 1~3㎐의 델타파를 일으킨다. 명상의 결과를 과학적으로 입증하려는 과학자들은 명상시 변화하는 뇌파의 상태에 주목한다.

허버트 벤슨(하버드 의대), 리처드 데이비슨(위스콘신 감성신경과학 연구소) 교수 등 과학자들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명상을 하면 알파와 세타의 뇌파가 활성화된다고 한다. 즉, 명상에 들면 깨어있는 가운데서도 수면상태에 가까운 휴식과 이완상태의 뇌파를, 혹은 수면상태와 동일한 뇌파를 방출하게 된다는 얘기다. 명상의 편안함은 뇌파의 변화와 관련이 깊다.

‘명상상태’를 조작할 수 있을까

“30분 만에 수십 년간 수도한 선승과 같은 선정에 드는 것이 가능합니다.”

두뇌훈련 및 뇌파조절기기 관련 업체들이 하나같이 내거는 문구다. 이들이 주장하는 것은 “좋은 상태의 뇌파는 정해져 있으며 사용자는 원하는 뇌파상태로의 전환이 언제든지 가능하다”는 것. 명상시에 검출되는 뇌파 분석을 토대로 특정 뇌파를 유도하면 언제든지 명상 수련자와 비슷한 체험에 이를 수 있다는 얘기다.

그러나 인하대 신경과의 이일근 교수는 “특정 뇌파를 특정 작업과 관련짓는 것은 성급한 생각이며, 어떤 뇌파상태가 좋고 나쁘다는 식의 일률적인 평가 역시 오류”라고 밝혔다. 그에 따르면 뇌파조절기 등을 이용해 인위적으로 유도하는 알파파 상태가 고요하고 편안한 것만은 아니라는 것이다. 얕은 수면에 들었을 때나 혼수상태일 때도 알파뇌파가 검출된다. 결국 명상이나 참선 상태에서 알파파가 나타난다고 해서 알파 뇌파를 내보이는 상태를 모두 명상상태로 규정지을 수 없다는 판단이다. 뿐만 아니라 정신이 고도로 집중된 상태에서는 알파파가 넓게 분포하는 가운데 작은 진폭의 세타파가 동시에 나타나는데, 이것을 단순한 뇌파조절기로 유도한다는 것은 무리라는 평가다.

뇌의 변화가 명상효과의 전부인가

명상이 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는 뇌파변화 외에도 심리적 만족감과 관련된 ‘왼쪽 전전두 피질의 활성화’ 등으로도 설명된다. 그래서 특별한 자극이나 훈련을 통해 ‘왼쪽 전전두 피질’을 활성화시키는 방안들도 함께 연구되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신체상에 나타나는 명상의 결과들’을 다른 방법으로 복원시킨다고 해도 ‘명상으로 얻어진 심신상의 변화’까지 기대하기는 역시나 힘들다. 명상에 대한 과학적인 연구들이 축적되고 연구의 방법들은 날로 정교해지고 있지만, 근본에 깔린 한계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크다. 상계백병원에서 12년간 명상을 이용한 치료를 벌여온 이정호 교수는 “상황에 따라 과학적인 연구도 필요하지만 마음작용은 분석적인 사고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것”이라며 “‘과학적’이라는 사고틀에 갇혀 명상의 궁극적인 이유를 간과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명상에서 얻는 편안함, 뇌파 변화와 관련 깊어
“분석적 사고만으로 마음작용 설명 못해” 지적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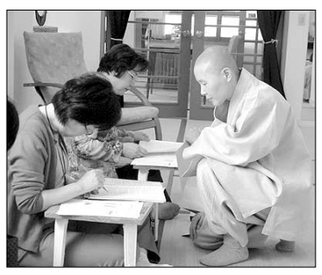
강신재 기자 thatiswhy@buddhapia.com

‘나와 타인’ 바로 알고 마음공부의 문을 연다

마음고요선방 ‘로터스 명상’

“제대로 찾아야만 제대로 놓을 수 있는 것이 ‘나’입니다.”

서울 신사동 마음고요선방에서 로터스명상을 지도하고 있는 정목 스님은 “나와 타인에 대한 바른 이해와 인식을 통해 본격적인 마음공부의 장을 열어주는 것이 로터스명상”이라고 말했다. 불교와 심리학의 관계를 오래전부터 주목해 온 스님은 이를 위해 인간의 성격유형을 탐구하는 도구인 에니어그램(Enneagram)을 명상에 도입, 불교적 수행과 다양한 마음공부 프로그램을 접목한 프로그램을 보급하고 있다.


정목스님이 로터스명상과정을 지도하고 있다.

“‘나의 성격’에 갇힌 나의 본래면목을 발견하는 것을 우선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 마음공부의 기반을 닦은 이들에게만 명상법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로터스명상 프로그램은 아봐타 최고과정 이수자 등 의식개발 프로그램 연구와 불교수행을 병행한 지도진들이 고안한 것으로 수행보다는 심리치료에 가깝다.

스님은 “누구나 쉽고 재미있게 즐길 수 있는 ‘한국인을 위한 수행법’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02)548-0218

강신재 기자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여기 있는가?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그에 대한 답이 여기 있습니다.
밝은길 아봐타 센터
전화주시는 분께는 안내 자료를 보내드립니다.
경전의 이 말씀을, 당신께서 투자하는 단, 9일간의 내면 여행으로 터득하실 수 있습니다. 당신의 소원을 이루십시오.
서울 종로구 평창동 45번지 ☎ 02)396-2736 · HP 016)228-2358
http://www.avatarcenter.co.kr E-mail:bokbat@kornet.net

세계 불교 여성지도자들

패트리샤 펠런 (下)

가능성 풍부한 일반인 참선 지도

조동종의 근본 가르침 또는 묵조선을 닦는 기본 관점은 우리가 모두 부처라는 것, 우리가 이미 부처라는 것이다. 미국 채플힐 선원장 패트리샤 펠런(Patricia Phelan) 법사의 스승인 스즈끼 선사는 이렇게 말했다 “사람이 되는 것은 부처가 되는 것이다. 불성(佛性)이란 인간성 즉 본성(本性)의 다른 이름일 뿐이다.”

펠런 법사는 스승의 가르침 그대로 좌선과 더불어 일상생활 속의 올바른 노력을 통한 수행을 강조한다. 그녀는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 간에 온 마음과 육체, 완전한 주의집중 등을 통해 전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함을 강조한다. 이렇게 수행할 경우 우리 자신과 우리의 행위는 전혀 분리되지 않는다. 우리의 집중이 흔들리지 않는다면 우리 자신과 세계에 대한 체험들이 구분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본래부처’ 자각하는 조동종 선법 계승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고통 속에서 삶을 변화시킬 필요성에 의해 수행하려는 동기를 갖게 된다. 그러나 부처님의 견해에 따르면, 우리는 이미 부처이며, 수행한다는 것은 우리의 참 성품을 드러내는 것일 뿐이다. 우리의 습관은 구름에 시야가 가린 것처럼 무명(無明)에 빠져있을 뿐 본심을 회복하면 되는 것이다.”(www.intrex.net/chzg)

‘본래 부처’임을 자각하는 조동종의 선법을 충실히 계승한 펠런 법사는 “초심자의 마음에는 수많은 가능성이 있지만 구참자의 마음에는 별 가능성이 없다”는 스즈끼 선사의 가르침 그대로 일반인을 위한 참선 프로그램을 계속해 오고 있다.

1959년 55세의 나이에 미국 샌피란시스코에 도심 선원을 연 순류 스즈끼(Shunryu Suzuki) 선사는 불교나 참선에 대해 전혀 모르는 초발심자들이 오히려 텅 비운 마음으로 공부하기 쉽다고 생각했다. 그의 예상대로 몇 안 되는 평범한 미국 시민들이 아파트 거실에서 좌선을 하며 시작된 선방은 꾸준한 성장을 거듭했다. 샌프란시스코 선원, 산타 로사시에 있는 소노마산 선원, 아시아 외부 지역에 처음으로 설립된 전문 승원인 타사하라, 유기농을 하며 선농일치(禪農一致)를 추구하는 그린걸치, 버클리 선원, 카논도 선방, 초심사(初心寺) 등이 잇따라 문을 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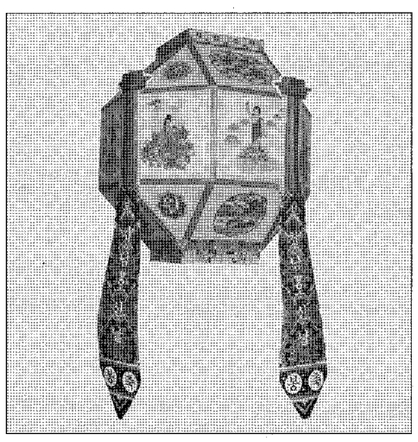
미국이라는 낯선 문화권에 들어와 황무지에서 불교를 일구었던 스즈끼 선사는 처음에는 ‘돌에 나무를 심어 뿌리가 내리기를 기다리는 것’과 같은 막막한 심정을 자주 느꼈다고 한다. 그러나 단 한 명이라도 법문을 청한다면 몇 시간이고 고심하며 철저히 준비했다. 만성 천식에 시달린 그였기에 ‘건강을 유지하려면 일본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아무리 권해도 스님은 들은 척도 않고 별 진전도 없어 보이는 포교를 계속한 것이다.

이러한 스즈끼 선사의 선각자적인 전법의 노력은 오래지 않아 열매를 맺는다. 1966년 샌프란시스코 선원에서 공부를 시작한 지 5년째 된 리처드 베이커(Richard Baker)는 가장 눈밝은 수행자였다. 그 동안 수백 명의 사람들이 스즈끼 선사에게 참선을 배워 삶에 적지 않은 영향도 받았고, 법사가 될 가망성이 있는 사람도 있었지만 가장 장래가 촉망되는 제자가 베이커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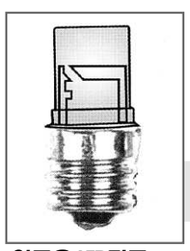
이 해 스즈끼 선사는 베이커 법사에게 대외적으로 자신의 제자라고 말해도 좋다는 허락을 한다. 이후 베이커 법사는 샌프란시스코 선원의 제2인자가 되어 행정과 수행의 큰 틀을 짜게 된다. 펠런 법사에게 깊은 가르침을 준 두 스승이 스즈끼 선사와 베이커 법사였던 것이다.

스즈끼 선사가 1971년 세수 67세로 입적한 뒤 후계자인 베이커 법사가 샌프란시스코 선원장을 이어받자 펠런 법사는 베이커 원장의 지도를 받으며 선원을 함께 이끌다가 91년부터 채플힐 선원을 맡아 묵조선을 가르치고 있다.

김재경 기자



이제 연등에 번잡한 풀칠이 필요없습니다!!
우리불교 전래의
조립식 팔각등
가격 동결 단행!!
어려운 사찰의 경제에 도움을 드리고 국산품을 애용하자는 운동에 동참하기 위해 가격을 동결하였습니다.
★ 제작이 간편한 등
종래의 철골 구조에 낱장으로 풀발이 하던 등제작이 「한번의 공정으로 아름답고 멋 스러운 등」이 3분내에 완성.
★ 형형색색의 문양과 미감
고려시대 연등회, 팔관회의 고증을 토대로 「형형색색의 단청 문양과 현대적 감각의 색상을 조화」하여 봉축의 의미와 중생의 불심이 더욱 고취될 수 있도록 디자인.
★ 아외장엄용
「특수 이중 합지방식에 코팅 처리」를 하여 이슬에 젖지 않음은 물론 견고성을 지니고 있어 「행사 수일 전부터 사찰의 축제분위기 장엄」에 활용
★ 경제적인 가격
종래의 복잡 다원화된 유통 구조로 인한 높은 가격을 배격한 「사찰을 위한 경제적 가격」
★ 운반 및 보관 용이
「운반 및 보관이 편리」하도록 고안.
▣ 펼친 상태 [골조 및 인쇄겉지 합지 방식]
▣ 단 한번의 공정으로 3분내 완성
결합
현우기획
전화:(043)877-6464 팩스:(043)877-8239 핸드폰 : 016-552-9360
■우체국 013706-01-003311 예금주:(주)국민피앤텍
■농 협 415051-51-000057 예금주:(주)국민피앤텍

인등 연등 전구의 혁신
귀의삼보하옵고 불자기업 기보전자산업에서는 기존의 인등전구와 연등전구의 단점(짧은수명, 고유지비, 화재위험, 낮은견고성)을 보완하여 사찰에 보급하고 있습니다.
한번의 교체로 유지보수가 필요없는 반영구적인 인등 연등용 LED전구로 바꾸어보십시요.
기존 인등, 연등을 사용시 전력이 부족했던 사찰은 지금 전구를 바꿔보세요 !!

인등용 LED전구
◇소비전력 : 0.07w
◇가 격 : 700원
특징
● 기존 설비에 전구만 교체 사용 가능하며 비용이 절감 됩니다.
● 필라멘트가 아닌 반도체로 되어 수명이 반영구적 입니다.
● 발광 효율이 높고 소비전력이 낮아 유지 관리비가 감소 합니다.
● 반도체로 되어 있어 가열로 인한 화재 위험이 거의 없습니다.
● 전구 알이 견고하여 잘 깨지지 않습니다.

실용신안등록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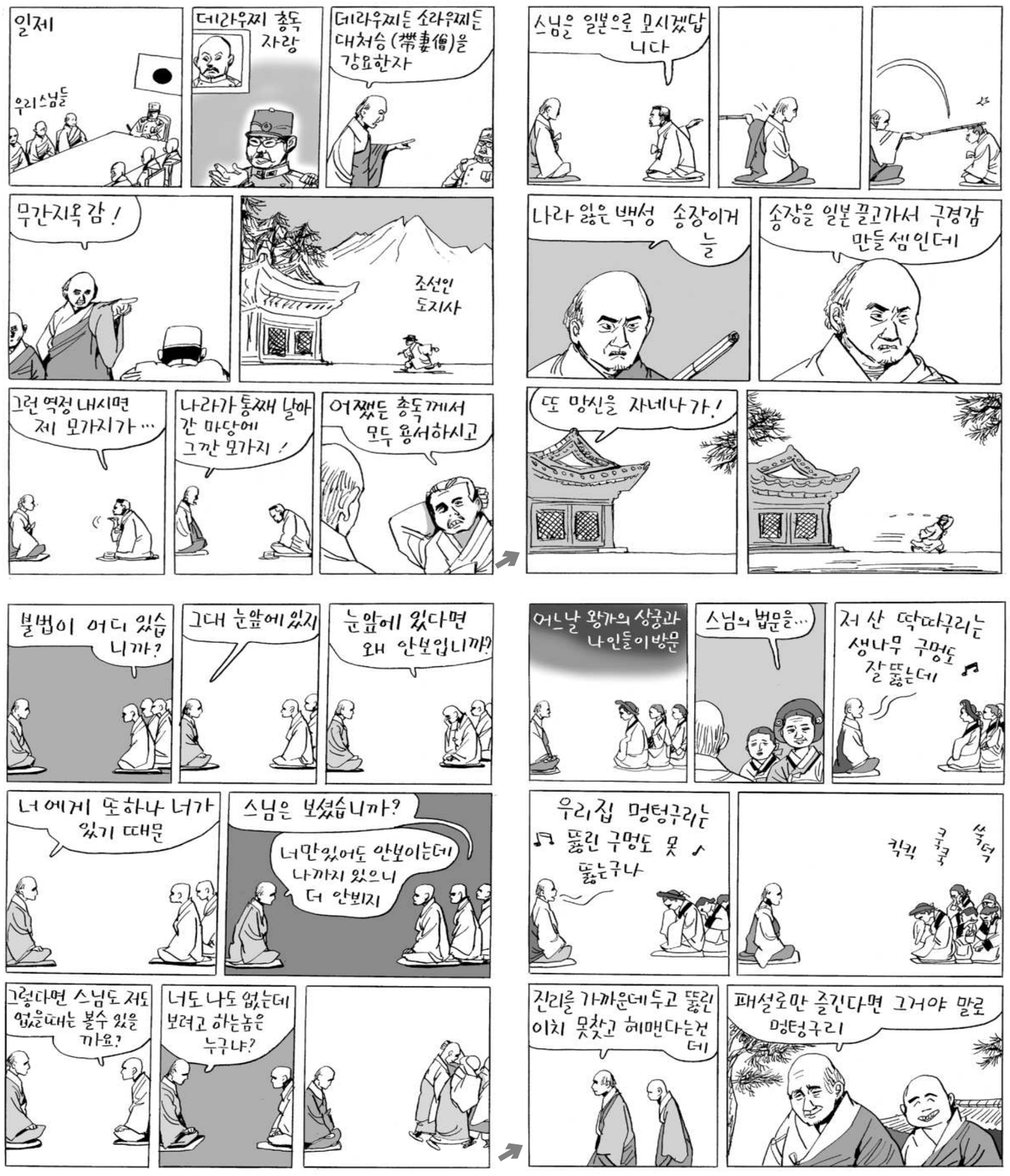
연등용 LED전구
◇소비전력 : (대) 1.4w (중) 0.8w (소) 0.5w
◇가 격 : (대) 5,000원 (중) 3,000원 (소) 2,500원
특징
● 일반 소켓 220용에 다용도로 사용할수있습니다.
● 별도 전선 교체없이 전구 교체 가능합니다.
● 기존의 전구 소켓에 삽입할 수 있습니다.
● 안정된 전원을 공급 할 수 있습니다.
● 다 방향으로 빛을 조명 할 수 있습니다.

실용신안등록증
제품문의처
황금 LED 조명 – 기보전자산업 서울시 중구 산림동 205 청계상가 가열 117호
TEL : 02)2266-9098, 7550 FAX : 02)2266-7557 www.kibosa.com E-mail : kibosa@kornet.net

주장자따라…

⑯ 만공 스님의 '또하나의 너'

조태호



만공 스님(1871~1946): 전북 태인生. 17세에 서산 천장사에서 득도. 경허선사를 지극히 모시며 수행정진해 법을 이었다. 수덕사 · 정혜사 · 경성암을 중창 선풍을 떨쳤다.

네티즌 교리문답

지관(止觀)이란 무엇인가

문 불교 책에서 '지관(止觀)하라' 란 말이 자주 보이는데, '지관' 이란 말의 뜻 풀이 좀 부탁합니다. (ID '초발심자')

답1: '지(止)' 는 사마타, 즉 삼매(定)를 뜻하고 '관(觀)' 은 위빠사나를 의미합니다. 사마타는 육근이 육경(대상세계)에 끌리지 않고 마음이 완전히 텅비어 고요한 상태인데, 이 경지에서 관(觀)을 하면 물질세계의 본질을 볼 수 있고 그들은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겠지요. (ID '세등')

답2: 지(止)는 마음이 멈춘 상태를 말하며 관(觀)이란 이 마음이 멈춘 상태에게 일체를 관조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보통의 사람들은 상에 마음이 끌려가 버려 마음이 멈출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ID '주시자')

답3: '지' 란 본성의 공함에 의지가 두어져서 일체 경계에 물들지 않는 것이며, '관' 이란 중심을 통해 근본과 경계를 비춰보는 것입니다. (ID '구선')

답4: 지관은 정과 혜를 함께 닦는 이법(二法)으로 천태종에서 강조하는 수행법입니다. '지' 는 모든 번뇌를 그침이요, '관' 은 자기의 천진심(天眞心)을 관찰하는 것으로서 산란한 온갖 망념을 그치고 고요하고 맑은 슬기로써 만법을 비추어 보는 것을 말합니다. (ID '법설')

붓다뉴스(www.buddhanews.com)에 '네티즌 교리 문답' 코너가 있습니다.



선의 세계 ㊵

불립문자(不立文字)-13

앞의 글에서, 대승기신론(大乘起信論)에 나오는 인언견언(因言遣言)이라는 개념을 소개하였다. 직역하자면 말로써 말을 여읜다는 뜻이다. 말로는 안 되는 이야기지만 그게 말을 넘어서는 이야기임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할 수 없이 말을 한다는 뜻이다. 즉, 일상적인 분별의 구도를 넘어선 세상의 통합성, 그 불이적(不二的)인 진상은 언어로는 도무지 온전하게 표현하고 전달할 길이 없는 언어도단(言語道斷)의 주제이지만, 그게 그렇다는 것을 알게 하자니 어쩔 수 없이 언어에 의지한다는 뜻이다. 또는, 일단 말을 제대로 잘 알아듣고 나아가 마침내는 그 말에 다 담을 수 없었던 언어 너머의 메시지까지 파악해야 한다는 뜻이라고 풀이할 수도 있겠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보통 하는 말은 그 말 자체의 뜻을 내세우는 그런 말이다. 하지만 인언견언의 말은 그 자체에 대한 부정을 이미 전제하고 풀어내는 말이다. 그 말을 팽개칠 수 있어야만 그 말을 제대로 이해한 셈이 된다.

말 놓을 수 있어야만 제대로 이해
어법·문법 붙들면 그에 얽매여

흔히 듣는 손가락과 달의 이야기가 바로 이를 위한 비유이다. 저기 달 좀 보라는 뜻으로 치켜세우는 손가락은 손가락 그 자체를 내세우기 위해서 세운 것이 아니다. 손가락을 세운 뜻을 제대로 이해한다면 손가락에서 시선을 거두어 그것이 가리키는 방향을 따라 달을 바라보아야 한다. 그렇게 달을 본 사람에게는 손가락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손가락의 주인도 손가락을 거두고, 달을 보는 사람도 더 이상 손가락에는 아무런 신경을 쓰지 않는다. 반면에, 옆 사람이 손가락을 치켜세우며 '달 좀 봐라' 하니 그 손가락만 뚫어지게 쳐다보며 '아, 이걸 달이라고 하는가보다' 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겠다.

실제로야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을까 생각되겠지마는, 집개손가락을 세워 어떤 방향을 가리키는 몸짓의 의도를 모르는 어린아이라면 그럴 수도 있다.

그런데, 실상은 우리가 바로 그런 어린 아이들이다. 우리의 일상적인 언어생활을 보면, 말과 글을 대할 때 그 어법과 문법의 틀 안에서만 뜻을 파악하려고 하는 습관이 있다. 말이나 글 그 자체를 붙들고 늘어지며 그에 얽매어버리는 것이다. 그런데 불교의 경이나 논서를 보면 기껏 심각하게 이야기를 풀어내놓고 나서 나중에는 앞에 한 말을 부인하는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그렇다고 해서 단순하게 앞에서 한 이야기가 다 헛소리라고 하지는 않는다. 학교 화장실에서 본 낙서에 이런 것이 있었다. "아래 명제는 참이다"라고 써놓고는, 그 아래에 다가는 "위의 명제는 거짓이다"라고 써놓았다. 아마 논리학 강의에서 모순율에 관해서 배우고는 재미있어서 그런 낙서를 해놓은 모양이다. 불교의 경론에서 자기 자신이 한 말을 스스로 부인하는 것도 마치 그런 양상이다. 그 낙서의 두 명제를 모두 참이라 여기고 그 두 문구 사이에서만 눈길과 의식이 오가다보면 왕복에 끝이 없다. 그런 낙서를 해놓은 의도와 정황을 짐작하기에 우리는 그런 어리석은 짓을 하지 않고 그냥 피식 웃고 눈길을 거두어버린다. 종교언어를 대할 때에도 마찬가지여야 한다. 그런데 문제는 종교적인 가르침을 풀어내놓는 그 체험의 경지를 우리가 공유하지 못하기 때문에 말씀 그 자체의 현장을 벗어나지 못하고 그 안에서만 맴도는 경향이 있다는 점이다.

■**윤원철**(서울대 종교학과 교수)

권탄준 교수의 경전읽기

화엄경 입법계품 〈66〉



무승군 장자의 법문

일상 생활 속에서 다양한 깨달음 성취

열가지 선법 행하고 악법 멀리해 해탈

선재동자는 묘월장자로부터 남쪽의 출생(出生)이라고 하는 성에 있는 '이길이 없는 군대(無勝軍)' 라고 하는 장자를 찾아가서 보살행을 배우고 보살도를 닦는 법을 물으라고 하는 가르침을 받았다.

그 성에 가서 장자가 있는 곳에 이르러 예배드리고 나서 가르침을 청하자, 장자는 다음과 같이 대답하였다.

"선남자여, 나는 보살의 해탈을 얻었으니 이름이 '다함없는 형상(無盡相)' 이다. 나는 이 보살의 해탈을 증득하였으므로 한량없는 부처님을 뵈옵고 무진장(無盡藏)을 얻었다. 선남자여, 나는 다만 이 '다함없는 형상해탈' 을 알 뿐이니 저 보살마하살들이 한량없는 지혜와 걸림없는 변재를 얻은 것이야 내가 어떻게 알며, 그 공덕의 행을 말하겠는가."

무승군장자가 얻고 있는 '다함없는 형상(無盡相)' 이라고 하는 보살의 해탈은 언제 어디에서나 항상 여러가지 공덕의 모습(德相)을 무궁무진으로 출생함을 밝힌 것이다. 장자가 살고 있는 성의 이름이 '출생' 인 것도 그가 언제나 모든 법과 온갖 공덕의 행을 출생하고 있음을 나타낸 것이다.

그리고 장자의 이름이 '이길 이 없는 군대(無勝軍)' 인 것은 그가 짓는 공덕의 행이 훌륭하여 무명 · 교만 · 삿된 견해 등의 온갖 좋지못한 마군(魔軍)을 능히 이길 수 있음을 나타낸 것이다.

장자가 얻고 있는 해탈이 '다함이 없는 형상' 이라고 하고 있는 것은 단계적으로 보살행을 닦아서 얻는 것이 아니라 하고 있는 것은 단계적으로 보살행을 닦아서 얻는 것이 아니라 인간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한없는 깨달음을 다양하게 얻음을 나타낸다. '다함이 없는 형상의 해탈에 의해서 한량없는 부처님을 뵙는다' 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내용을 말해주는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무승군장자의 법문을 통해서 깨달음이 특정한 과정을 통해서 얻어진다거나 특별한 환경 속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도 알 수 있다.

그러면 일상생활 속에서 이 해탈을 얻고자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장자가 설하고 있는 '무진상해탈' 의 법문은 너무나 간략해서 그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없다. 아주 간략한 법문으로 되어 있는 60권 화엄경이나 80권 화엄경과는 달리 40권 화엄경에는 이 해탈을 얻는 법이 다음과 같이 설해져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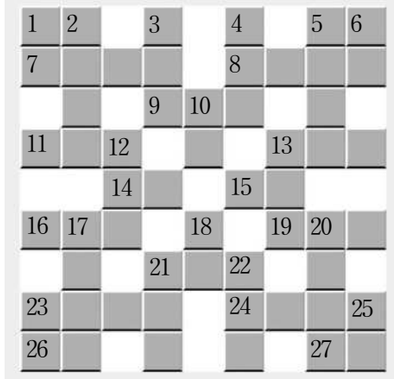
"선남자여, 보살이 열 가지 법을 닦으면 이런 해탈문을 증득할 수 있다. 하나는 한가한 곳에 있으면서 다섯 가지 욕락을 살펴보는 것이니 모든 선정을 닦으려 하는 것이다. 둘은 부지런한 방편으로 삼매에 드는 것이니 색신을 널리 나타내어 중생을 교화하는 것이다. 셋은 지혜로써 평등하게 관찰하는 것이니 나고 죽는 일과 열반이 한 모양인 까닭이다. 넷은 견고한 생각을 부지런히 닦는 것이니 선하고 선하지 못함을 알아 잊지 아니하는 것이다. 다섯은 보살의 공덕을 부지런히 쌓는 것이니 바라밀다에 만족함이 없는 까닭이다. 여섯은 계율의 숲을 부지런히 심는 것이니 바른 법 동산에서 늘 유희하는 까닭이다. 일곱은 나쁜 소견 중생을 항상 구호하는 것이니 잘못된 길에서 벗어나 바른 소견에 머물게 하는 것이다. 여덟은 가지각색 법약을 널리 보시하는 것이니 중생들의 번뇌병을 다스리는 까닭이다. 아홉은 부지런히 삼세의 법을 관찰하는 것이니 꿈과 환술과 같아서 물들지 않는 까닭이다. 열은 외도들의 삿된 언론을 꺾는 것이니 잘못된 소견으로 중생을 해롭히지 말도록 하는 것이다. 보살이 만일 부지런히 닦아서 이 열 가지 법을 구족하면, 이러한 해탈문에 들어가며, 수없는 백천 법문에 자재하게 들고 나고 하리라.

선남자여, 보살이 또 열가지 법을 멀리 여의면 이 해탈을 얻을 것이니, 하나는 계율을 범한 모든 중생들을 멀리 여의는 것이요, 둘은 바른 소견을 파괴한 중생들을 멀리 여의는 것이요, 셋은 바른 위의를 깨뜨린 중생들을 멀리 여의는 것이요, 넷은 바르게 사는 생명을 깨뜨린 중생들을 멀리 여의는 것이요, 다섯은 세간 학설을 말하기 좋아하는 중생들을 멀리 여의는 것이요, 여섯은 게으른 중생들을 멀리 여의는 것이요, 일곱은 모든 욕락에 탐착하는 중생들을 멀리 여의는 것이요, 여덟은 흰 옷 입은 이 가까이 하기를 좋아하는 중생들을 멀리 여의는 것이요, 아홉은 삿된 복을 닦기를 좋아하고 바른 행에 머물지 않는 이로서, 출가하였거나 집에 살거나 하는 중생을 멀리 여의는 것이요, 열은 번뇌가 많고 몸이 게을러서 권고하여도 고칠 수 없는 중생들은 멀리 여의는 것이니라."

위의 법문을 통해서 대승 보살의 해탈을 얻는 법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다. 위의 경문에 밝혀져 있는대로 보살의 해탈은 생활 속에서 선법을 부지런히 행하고 악법을 멀리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무진장의 공덕을 얻게 되고, 생사의 바다 속에서 우리들을 일깨우고 바른 길로 인도해주시는 부처님을 항상 만나게 되는 것이다.

■**금강대 불교문화학부 교수**

상식퍼즐



정답은 26면에

가로

1. 불법(佛法)의 참다운 이치를 깨닫는 지혜 5. 실제의 기능이나 기술 7. 회사의 가장 말단에 있는 사람 8. 부처님이 출가하기 전 태자로 있을 때 동서남북의 성문을 나서 생로병사의 모습을 보고 출가를 결심한 일 9. 화엄사 경내의 전각으로 국보 67호 11. 범왕(梵王)과 더불어 불법을 지키는 신 13. 사찰에서 독성(獨聖)을 모셔둔 전각 14. 임금이 기거하는 궁전 15. 학생을 가르치거나 돌보는 사람 16. 산사에 들어서면 맨 먼저 만나게 되는 문 9. 한걸음 더 나아감 21. 법신불의 다른 이름 23. 산간의 외진 곳 24. 한집 한집 26. 수산업, 수산물의 준말 27. 하루의 수입.

세로

1. 함부로 낮추어 부르는 말 2. 야외에 자리를 마련하여 부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 3. 광대하고 완전한 깨달음, 부처님의 지혜를 말함 4. 조사 스님들의 영정이나 위패를 모신 전각 5. 중생에게는 모두 불성이 있다는 실대승가(實大乘家)의 주장 6. 생물체를 형성하는 한 부분 10. 제국의 군주 13. 혼자서 찍은 사진 17. '이것저것을 천천히 살펴볼 틈이 없이 바삐 서둘러 대강대강 보고 지나침' 을 이르는 말 18. 앞으로 나아감 20. 날마다 좋은 날이라는 한자성어 21. 하늘, 땅, 사람을 아우르는 말 22. 아무리 구해도 인지할 수 없는 것으로 공(空)의 다른 이름 23. 자연의 경치 25. 육지의 내부에 위치하여, 못이나 늪보다도 넓고 깊게 물이 괴어 있는 곳.

혁명가의 거친 삶, 애잔한 가족사 조명

이정 박헌영 일대기

임경석 지음

역사비평사/2만원





모스크바 주세죽(박헌영의 첫부인) 무덤 앞에 선 원경 스님과 박비비안나.



1946년 4월 조선공산당 책임비서 시절 모스크바의 고아원에서 생활하고 있던 딸 비비안나에게 보내기 위해 찍은 박헌영의 사진.

한국 공산주의운동의 대부

1956년 美 간첩혐의로 北서 총살

행적과 언행, 시간 순서로 구성

아들 원경 스님 보관자료 흥미로워

'두만강 푸른물에♬♬'

가수 김정구의 노래 '눈물 젖은 두만강'이 사회주의 운동가 박헌영(1900~1956)을 소재로 했다는 재미있는 주장이 제기됐다. 임경석 성균관대 인문학부 교수가 최근 펴낸 <이정 박헌영 일대기>에서 아들인 원경 스님(평택 만기사 주지)의 증언으로 밝혀진 사실이다.

이 책은 한국 공산주의 운동의 대부이면서도 훗날 김일성에게 숙청당한 혁명가 박헌영의 생애를 연보 형식으로 엮은 것이다. 특히 이 책은 박헌영의 행적과 언행을 시간순서에 따라 상세하게 재구성했으며, 행적에 대해 배경설명과 해설, 논평 등도 덧붙였다. 또 박헌영의 가족과 친구들의 동정, 국제정세의 변동, 조선공산당과 남조선노동당의 주요 사건들도 다뤘다.

무엇보다도 저자가 94~96년 모스크바 문서보관서에 직접 가서 발굴한 사료들과 딸 박비비안나와 아들 원경 스님의 보관자료들이 적극 반영돼 있어 흥미로운 사실들이 많이 드러나 있다.

박헌영의 사망일을 1956년 7월로 확정한 것도 한 예다. 전직 북한 고위관리 박길룡이 원경 스님에게 "1956년 연안파와 소련파가 합세하여 김일성에 도전하자 동유럽과 소련을 순방 중이던 김일성이 급거 귀국해 그날 저녁 내무상 방학세에게 박헌영의 처형을 지시했다"고 증언한 데서 밝혀졌다. 또 박헌영이 1928년 11월부터 1931년 말까지 코민테른이 운영하는 모스크바의 국제레닌학교 영어반에 재학했을 때의 일도 자세히 드러났다. 당시 그는 호치민 등 각국에서 온 청년 공산주의자들과 교유하면서 공산 혁명의 이론과 전략을 배웠고 뛰어난 역량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보통 인물 연구를 다룬 책은 연구 대상에 대한 지나친 애정으로 인해 그 인물의 모든 행동을 정당화 시켜 독자들에게 이해를 강요하기 마련이다. 하지만 이 책은 저자의 꼼꼼한 자료추적을 통해 이런 문제를 비켜가기에 적절한 형식을 갖췄다. 그래서 저자는 연구 대상의 사상과 활동에 대한 개인적인 평가 없이 그저 박헌영이 어느 시기에 무엇을 하고 살았는가만을 자료를 통해 제시할 뿐이다.

박헌영은 남과 북에서 모두 버림받았던 사람이다. 남쪽에서는 공산주의자로, 북에서는 미제의 간첩으로 처형됐기 때문에 어느 쪽에서도 반기지 않는 미아 신세의 인물이다. 일제하에서는 한국의 독립을 위해 공산주의자로서의 길을 걸었고, 광복 후에는 조선공산당의 책임비서로서 미군정과 대립했다. 그러다 결국 1956년 북한에서 미국을 위해 간첩활동을 한 혐의로 처형됐다. 이렇게 남과 북 모두 양립의 의미가 컸기 때문에 일제강점기와 분단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박헌영은 계속해서 주목받을 수밖에 없는 인물이다. 특히 조선공산당의 책임자가 미제의 간첩으로 처형됐다는 아이로니컬한 역사적 사실은 분단이라는 특수한 상황을 떠나서는 이해될 수 없다.

이 책에서는 박헌영의 두 자녀들에 대한 이야기도 소개됐다. 첫번째 부인 주세죽이 소련으로 망명하는 도중 1928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태어난 딸 비비안나와 일제를 피해 도망다니던 1941년 '아지트 키퍼'였던 정순년과의 사이에서 얻은 아들인 원경 스님이 그들이다. 특히 원경 스님은 할아버지와 큰아버지 밑에서 자라다 6·25 전쟁을 전후해 절에 맡겨진 뒤 불가에 귀의하게 됐다.

1991년 10월 두 혈육은 모스크바에서 감격적인 만남을 가졌다. 원경 스님은 이날의 만남에 대해 "참 뭐랄까, 식민지와 전쟁으로 인해 깊이 상처받은 사람들만이 공감할 수 있는 불쌍하고 가련한 느낌이 가슴에 차 올랐다"고 회고했다. 이 자리에서 두 사람은 박헌영이 1953년 북한 당국에 체포됐으며, 56년 7월 평양 근처 산속에서 총살됐다는 얘기, 주세죽은 해방 후에 북으로 귀환하고 싶었으나 끝내 허용받지 못했다는 등의 슬픈 가족애사가 이어졌다. 이후 두달 뒤 서울에서 이 두 사람은 다시 만났고 이러한 만남은 이번 책을 출간하게 된 계기가 됐다.

이번에 나온 박헌영 일대기는 오는 6월 간행 예정인 <이정 박헌영 전집>에 포함된 것을 대중용으로 만든 것이다. 93년부터 서중석 성균관대 교수 등의 주도로 편찬 작업이 시작된 <이정 박헌영 전집>은 제1~3권 박헌영 저작집 제4~7권 관련 자료집 제8권 증언과 회고류 등 간접자료 제9권 일대기와 사진자료로 구성돼 있다.

김주일 기자 jikim@buddhapia.com

전문가 서평



미쳐야 미친다

정민지음

푸른역사/1만1900원

<정민 선생님이 들려주는 한시 이야기> <책 읽는 소리> <비슷한 것은 가짜다> 등을 통해 딱딱한 고문(古文)을 현대와 소통 가능한 살아 숨쉬는 이야기로 쉽게 풀어 소개해온 정민 한양대 국문과 교수가, 이번에는 '벽(癖)'이라는 새로운 코드를 중심으로 조선시대 지식인의 내면을 소개한 책이다.

허균, 권필, 홍대용, 박지원, 이덕무, 박제가, 정약용, 김득신, 노긍, 김영 등 이 책에 등장하는 이들은 모두 무언가에 '미친' 마니아들이었다는 것. 그래서 책 제목도 <미쳐야 미친다>이다.

꽃에 미쳐 하루 종일 꽃만 바라보며 꽃그림을 그렸던 김덕형, 돌만 보면 벼루를 깎았던 석치 정철조, 담배를 너무 좋아해 아예 담배에 관한 기록들을 모아 책을 엮은 이옥, <백이전>을 무려 1억1만3천번 읽은 독서광 김득신, 스스로를 간서치(책에 미친 바보)라 했던 이덕무…. 또한 정약전의 <현산어보>, 김려의 <우해이어보>, 정약용의 그 엄청난 저작들은 어느 한 분야에 온전히 미치지 않고서는 도저히 나올 수 없는 지적 소산들이라는게 저자의 설명이다.

조선 지식인은 '원조 마니아'

정약전 박지원 등의 저서에서 열정과 광기 탐색

저자는 18세기 조선시대 지식인의 내면을 사로잡았던 이러한 열정과 광기를 그들이 남긴 옛글의 행간을 토대로 하나하나 탐색해 나간다. '미치지 않으면 미치지 못한다'(不狂不及)라는 화두는 나태한 자신을 일으켜 세우는 저자의 삶의 화두이기도 하며,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큰 울림으로 남는다. 조선시대 '원조' 마니아 이야기와 함께, 이들의 만남과 남다른 우정, 일상의 평범한 풍경으로부터 비범한 일깨움을 이끌어내는 통찰력에 대한 흥미로운 에피소드들을 만나볼 수 있다. 특히 김덕형에 대한 일화는 재미와 감동이 한꺼번에 다가온다.

<백화보>는 꽃에 미친 김덕형이 1년 내내 꽃밭 아래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절에 따라 피고 지는 꽃술의 모양, 잎새의 모습을 그림으로 그려놓은 책이다. 김덕형은 아침에 눈만 뜨면 꽃밭으로 달려가 꽃 아래 아예 자리를 깔고 드러누워 하루 종일 꽃만 보았다. 아침에 이슬을 머금은 꽃망울이 정오에 해를 받아 어떻게 제 몸을 열고, 저물 녘 다시 오무렸다가 마침내는 시들어 떨어지는지, 그 과정을 쉴 새 없이 관찰하고 그림으로 그렸다. 아니 그리는 것만으로 부족해서 글로 옮겨 쓰기도 했다. 손님이 찾아와도 혹 꽃 피는 모습을 놓치게 될까봐 말도 시키지 말라는 표정으로 꽃만 바라봤다. 그의 이런 행동을 보고 사람들은 '저 사람 완전히 돌았군! 미친 게 틀림없어' 하며 혀를 차거나, '젊은 사람이 어쩌다가 실성을 했누' 하며 안됐다는 표정을 짓기 일쑤였다.

미치지 않고는 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준 일화다. 자기자신의 길을 걷는 것이란 바로 남들이 손가락질을 하든 말든, 출세에 보탬이 되든 말든 혼자 뚜벅뚜벅 묵묵히 걸어가는 것이다. 이리 재고 저리 재고, 이것저것 따지기만 해서는 전문의 기예, 즉 어느 한 분야의 특출한 전문가가 될 수 없다. 그런 진리를 알려준 이 책은 나태해진 우리들의 삶에 경종을 울려주기에 충분하다.

■홍희선(영서대 국문학과 강사)

불교 최고의 경전 화엄경! 80권本 화엄경의 완역판 드디어 재간행!

無比스님 완역 한글 화엄경

전 조계종 교육원장 무비(無比)큰스님께서 완역한
『한글 화엄경』(12권)이 품절된지
10년만에 드디어 재간되었습니다!



3만명의 불자가
이미 『한글 화엄경』을 모셨습니다!

무비스님 완역 『한글 화엄경』에 대한 언론의 격찬!

- 대승불교의 최고의 경전인 華嚴經이 無比스님(前범어사 講主)에 의해 한글로 完譯됐다. 도서출판 민족사가 최근 펴낸 『한글 화엄경』(전12권)은 善財동자의 구도과정을 그린 入法界品을 비롯해 80권本 화엄경 전 40品을 모두 한글로 옮기고 뒤에 원문을 붙여 대조할 수 있게 했다. 특히 경전의 긴 내용을 단락을 나누고 소제목을 붙여 독자의 이해를 돕고 있는 점이 특징이다.
- 조선일보 1994년 간행당시 -

- 최근 간행된 무비스님 완역 한글 화엄경은 단순한 번역이 아닌 경전의 치밀한 내용 파악으로 연구자와 일반인 모두에게 잘 읽히도록 번역편찬됐다는 것이 특징이다.
- 불교신문 1994년 간행당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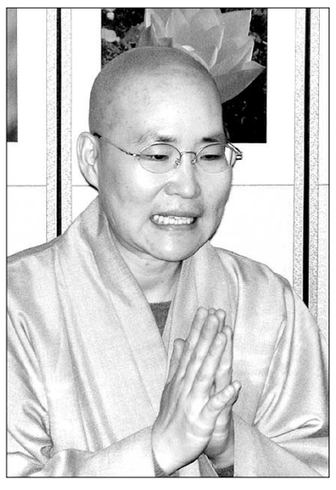
무비스님 완역『한글 화엄경』의 특징

① 80권本 화엄경(전40품)의 완역판.
② 모든 불자들이 읽고, 독송하기 좋은 새 한글 번역.
③ 중국 天童山판 80권本 화엄경 원문 수록
④ 상세한 단락구분과 소제목이 첨부되어 내용 파악이 용이함.

구입방법

① 특가 : 전 12권 220,000원
② 신청 즉시 택배로 보내드림.
③ 송금방법 : 아래의 은행구좌를 이용하십시오.
국민은행 006-01-0773-002 윤재승 외환은행 059-18-17838-6 윤재승
농 협 053-02-109450 윤재승 조흥은행 390-01-033705 윤재승

도서출판 민족사
우편번호 110-130 서울 종로구 청진동 208-1
전화 : 02)732-2403~4 / 팩스 : 02)739-7565
E-mail : minjoksa@chollian.net



국내 첫 하버드 박사 비구니 스님

불교 역사 · 사상 알기 쉽게 정리

짧게 읽어도 이해는 길고 명쾌

하룻밤에 읽는 불교
소운 스님 지음
랜덤하우스중앙 / 1만원



"불교는 어렵다."

이 말을 '부처님 가르침이 어렵다'거나 '불교사상이 난해하다'는 뜻으로 읽어서는 안된다. 2천5백여 년을 이어오며 다양한 철학과 사상, 문화를 포용하고 발전을 거듭해온 불교를 '쉽게' 알기 어렵다는 하소연으로 이해하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

그런데 '불교를 하룻밤에 읽는다'니? 자연히 <하룻밤에 읽는 불교>를 펴낸 소운 스님(사진)의 이력을 먼저 살피게 된다. 스님은 1984년 불교를 쉽고 체계적으로 배우고 싶어 동국대 선학과에 입학한 후 20여 년의 수행기간을 '불교 공부'에 쏟아 부었다. 일본 동경대와 미국 하버드대에서 공부한 스님은 '하버드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국내 최초의 비구니 스님'이 됐고, 현재는 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에서 연구원으로 근무하며 공부를 계속하고 있다.

"제가 처음 불교를 접했을 때는 온통 한문과 어려운 문장투성이인 책 때문에 너무 당혹스러웠습니다. 이 책을 쓰면서는 '쉬운' 불교책을 쓰자는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한 권의 책에 불교의 모든 것을 담을 수는 없지만 불교를 전혀 모르는 사람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핵심 포인트만을 추려서 담았습니다."

책에서는 불교의 역사와 사상을 개괄적으로 살피고 있다. 인도와 중국, 한국, 일본, 티베트 등의 불교역사를 시대순으로 차근차근 설명한 뒤 불교사상을 초기불교, 중관사상, 유식사상, 화엄사상, 선사상 등으로 분류해 핵심만 풀어 썼다. 각 시대와 사상의 주요 사건에는 '10대 뉴스'와 '역사메모'를 따로 두었다. 100여 장에 달하는 사진과 지도, 도표 등을 덧붙여 핵심 개념을 체계적으로 이해하는데 도움을 준다.

하지만 스님은 이 책을 쓰며 한국불교의 또 다른 문제점을 발견했다고 말한다.

"불교개론서를 쓰기 위해 관련 서적들을 수소문 했는데 66권의 참고문헌 중 한국 사람이 쓴 책은 20%를 넘지 않았습니다. 한국불교의 세계화를 위해서는 집중적인 외국어 교육시스템 확립과 후학들을 위해 작은 연구 성과라도 차곡차곡 쌓아가는 학문풍토가 필요하다는 것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공부가 수행'이라는 스님은 요즘 서울 성북동 약사암에 기거하며 일본 원로불교학자 마가오 가진이 쓴 <중관과 유식>을 우리말로 옮길 준비를 하고 있다. 한국불교 발전을 위한 초석을 하나하나 쌓아나가는 준비인 셈이다.

"종교는 지식, 앎 자체보다는 그것을 실행에 옮겨 정체된 삶을 바꿀 수 있을 때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 책이 자기 삶을 좀더 새롭고 나은 방향으로 바꿀 수 있는 매개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수령 기자 snoopy@buddhapia.com

새로나온 책



■ **<부처님과 코드 맞추기>**(보각 스님 지음, 운주사, 8천5백원)= <승가>지 편집장을 지내기도 한 반야사 주지 보각 스님의 산문집. 개인적인 감회를 담은 1부 '함께 가세 진리의 저 언덕에'와 불교 교리를 풀어쓴 2부 '법등명 자등명', 미국에서의 포교활동을 그린 3부 '굿모닝 워싱턴'을 통해 방대하고 풍부한 부처님의 '코드'를 알기 쉽게 풀어주고 있다.

■ **<불교문예 25호>**(현대불교문인협회 엮음, 8천원)= 2004년 봄호. 제9회 현대불교문학상 수상자와 불교문예 신인상 수상자의 작품과 수상소감을 만날 수 있다. 기획특집으로는 조지훈 시인의 대표시선과 문학평론가 김선 씨의 시인론 '불교정신의 수용을 위한 탐색'을 담았다.

■ **<산정만리>**(한상철 지음, 삶과 꿈, 1만원)= 은행 지점장 출신 산악인인 지은이의 세 번째 산(山) 소재 시조집. 인도 강고트리, 중국 부용산, 몽골 뭉크하이얀, 일본 후지산, 남미 안데스 등 외국의 산을 소재로 삼은 작품 120여 편이 담겨있다.

■ **<병을 부르는 말 건강을 부르는 말>**(바바라 호버맨 레바인 지음, 박윤정 옮김, 샨티, 1만5천원)= 몸에 대한 말과 마음의 중요성을 일깨워주는 책. 32세에 뇌종양에 걸렸던 지은이는 매일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사용하는 수백 가지의 표현들을 제시하고 이런 생각들이 어떤 식으로 병을 만들어 내는지를 보여준다.

금주의 베스트불서 10

책방 여시아문 집계

순위	도서명	저 · 편자	출판사
1	틱낫한 스님의 금강경	틱 낫 한	장 경 각
2	365일 부처님 말씀	윤 창 화	동 숭 동
3	불교의 수행법과 나의 체험	우룡 스님	효 림
4	불교사의 이해	조계종 포교원	조계종출판사
5	유식30송	서광 스님	불 광
6	불교 수행법 강의	남 회 근	세상을 투자는 사람들
7	불교신행공덕	마성 스님	불 광
8	수행의 단계	달라이 라마	들 녘
9	대승입능가경 외	동국역경원 편집부	동국역경원
10	불교입문	조계종 포교원	조계종출판사

도서 안내 : (02)737-0695



〈 바로보인 선문염송 제4권 출간 〉
『선문염송』은 세계 최대의 공안집으로서 1,454칙의 본 공안마다 여러 선사님들의 법문과 송이 딸려 있다. 역저자인 대원 문재현 선사는 선문염송 매 칙마다 도움말과 송으로 취모검을 휘둘러 법문의 참 의중이 숨어 있는 공안참구의 길잡이 역할을 하였다.
☞ www.zenparadise.com
☎ 02-597-2460 도서출판

죽음도 꺾지 못한 피끓는 예술혼

미불
강석경 지음
민음사 / 9천원



칠순 노화가를 통해 완전과 불완전 · 미와 추 극과 극 오가는 모습 그려

<내 안의 깊은 계단>과 <인도 기행> 등의 작가 강석경(53) 씨가 5년만에 신작 소설을 냈다. 죽음을 앞둔 화가의 치열한 예술혼을 그리고 있는 이 소설의 제목은 <미불(米佛)>. '쌀 한톨만한 불성을 지녔다'는 뜻의 '미불'은 주인공인 화가 이평조가 젊은 시절 불가(佛家)에 몸담았을 때 받았던 법명이다.

미불은 수묵 중심의 기존 동양화를 거부하고 색채와 구도로서 한국화의 독특한 경지를 꽃피워온 화가다. 어느 날 화가로서 자신의 삶을 되돌아본 미불은 혜초의 구도행각을 떠올리고 딸과 함께 인도로 향한다. 자신이 '그림의 모든 것'이라 생각하는 구도(構圖)를 찾기 위한 구도(求道)의 길에 오른 것이다. 그는 인도에서 성(聖)과 속(俗), 미와 추, 완전과 불완전에 대한 물음을 던지고 해답을 구하는 체험 끝에 자신만의 색채와 구도를 완성하고, 귀국 후 제2의 전성기를 구가한다. 그러나 그는 얼마 되지 않아 식도암 진단을 받게 되고 설상가상으로 동거녀 진아는 생활고에서 벗어나려는 심사로 그의 그림들에 가압류 소송을 낸다. 주인공이 자신이 토한 피로 그림을 그리는 마지막 장면을 통해 지은이는 과학철학자이자 시인인 가스통 바슐라르의 "위대한 예술가의 참다운 운명은 '일의 운명'이다"라는 말을 선연히 그려 보이고 있다.

이화여대 조소과를 졸업한 후 30여 년 가까이 '예술가란 무엇인가'를 화두로 삼아온 지은이는 이 작품에서 '어떤 삶의 고난도 진정한 예술혼을 꺾을 수 없다'는 믿음을 답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삶의 강렬한 근거로서 에로티즘을 추구하는 노화가는 칠순에도 정념을 끊지 못하는 벌거숭이 인간이지만 화폭 앞에선 구도(構圖)로써 제왕처럼 완전을 지향하는 미불은 완전과 불완전, 미와 추, 예술가와 범인의 경지를 모두 보여준다"는 것이 주인공 미불에 대한 지은이의 설명이다.

90년대 초 인도에서 2년여 머물다 귀국한 뒤 10여 년 전부터 경주에서 집필활동을 해오고 있는 지은이는 올 가을쯤 에세이 <경주산책>을 펴낼 예정이다.

여수령 기자

'님의 침묵' 근대시의 출발이었다

한국 근대 자유시의…
정우택 지음
소명출판사 / 1만6천원



"만해 한용운의 시는 '부재(不在)하는 님'에 대한 인식 혹은 자각으로부터 출발했다. 그는 님이 부재하는 비극적 현실을 한국의 근대적 현실로 인식하고, 그 속에서 자기완성의 계기를 찾았다."

한국 근대시의 정서적 구조이자 근대적 서정의 원천을 '현실 속에서 부재하는 님'으로 파악한 연구서가 출간됐다. 대원과학대 정우택(42) 교수가 펴낸 <한국 근대 자유시의 이념과 형성>은 1900년대에서 1920년대 중반까지 한국에서 근대 자유시가 형성되는 과정과 근대 자유시가 갖고 있는 이념의 체계화를 시도하고 있다.

이 책에서 지은이는 "한국근대시는 근대적 삶에서 생겨나는 충돌과 속력을 시적 창조의 에너지로 전화하는데서 확립됐다"며 "이러한 관점에서 지은이는 한국 근대시가 이상화, 김소월, 한용운에 이르러 비로소 성취됐다"고 주장한다. 특히 1926년 발표된 한용운의 '님의 침묵'은 근대 자유시의 방향을 제시한 작품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익살과 웃음이 퍼지는 禪

그래서 어쨌단 말인고
이오안나 살라진 글·그림
안정효 옮김
들녘 / 7천원





네 컷 만화에 부처님의 가르침을 담은 '선(禪) 만화' <그래서 어쨌단 말인고>가 다시 번역되어 나왔다. 지난 1986년 <스님들이 보는 만화책>(우리출판사)으로 국내에 처음 소개돼 큰 인기를 끌었던 이 만화는 이오안나 살라진이 네덜란드 잡지 <우주(Cosmic Paper)>에 'Zen Comics'라는 제목으로 연재했던 것이다.

만화에는 알듯 말듯한 제자와 노스님의 선문답을 통해 단순하면서도 심오한 불교의 가르침을 전하고 있다.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제자는 선(禪)을 '알음알이'로만 이해하려다가 노스님의 한 마디에 번번이 허를 찔린다. 노스님의 가르침은 간단하고 때론 익살스럽지만 '이 순간에 당신에게 남은 것이라고는 웃음뿐이로다', '네 부모의 미생전(未生前)에는 무엇이 네 얼굴이었더냐?' 등의 말은 마음속으로 몇 번이고 되새겨보게 된다.

전국 사찰 주지스님께 드리는 호소문 !!

귀의 삼보 하옵고,
중생교화와 가람수호에 얼마나 노고가 크십니까?
모진 추위와 굶주림으로 힘겹게 겨울나기를 하고 근근히 봄을 맞고 있는 북한 동포를 위해 생필품(잠바, 내의, 신발, 치약, 칫솔등)을 모아 보냅시다.

북한 동포들에게 따뜻한 동포애를 전합시다.

윤 2월 예수재, 49재 등 각종 재에서 사용하신 옷가지와 생필품을 태워버리지 마시고 모아서 평불협으로연락을 주십시오.
예수재와 천도의 참된 공덕을 인간방생으로 회향하시기 바랍니다.

나무통일보살마하살

※ 보내주신 생필품은 당해 사찰의 이름으로 북한 동포에게 전달 됩니다.

■ 연락처 : 대표전화 1544-0408
전 송 02)741-9347
이 메 일 bubta@orgio.net
136-020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동 179-74번지

(사)조 국 평 화 통 일 불 교 협 회 이사장 정 인 악
회 장 법 타
북한사리원금강국수공장 후 원 회 회 장 김 도 현

종각 대법종 불사 동참 바랍니다

귀의삼보하옵고,
인연있는 종각, 법종 불사에 동참하시어
소원성취하시고 무량공덕 지으시기 바랍니다.


은성사 주지 법륜

옛 신라에는 국운이 기울자 황룡사 9층 석탑을 세워 삼국통일의 위업을 이뤘고, 고려인은 호국의 일념으로 8만대장경을 조성하여 외세의 침입으로부터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렇듯 은성사 법륜스님은 옛 신라인과 고려인의 진솔한 마음과 정성을 이어받아 3만 3천근 대 법종 탁발 불사를 시작하여 세계적으로는 불안한 핵 테러의 공포를 소멸하여 인류가 평안하도록 하고 국내로는 정치적 불신과, 경제적 불안정 등으로 인하여 고통 받는 중생의 고뇌와 아픔을 소멸하고자 합니다.

이번 대 법종 불사가 원만히 예정대로 성료되는 2005년은 우리민족이 새롭게 도약하는 해입니다.
2005년 을유년은 해방 60주년을 맞는 뜻 깊은 해입니다. 일제치하 36년의 고통과 설움에서 해방을 맞이 했듯이 삼천리 강산에 삼천만 중생이 새로운 희망을 맞도록 불제자님들의 적극적인 동참으로 이 뜻깊은 불사가 원만히 회향되기를 기원합니다.

모든 업장 다 소멸하시고 소원성취는 물론 무량공덕의 큰 힘을 얻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금액에 상관없이 정성껏 동참바랍니다.
◆농 협 521013-56-014321
◆광주은행 148-121-656943 (예금주 : 한칠성)
※ 입금하여 주시고 성명, 주소, 생년월일시를 은성사로 알려주시면 대 법종 및 동판에 이름을 각인합니다. 참여한 불자님들의 공덕이 만세에 빛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불교삼론종 은성사 주지 법륜 합장
은성사 종각 대법종 불사 후원회 회장 조영희(신도회장) 합장
전북 고창군 고창읍 성두리 옥동 139 은성사
전화 : 063)561-1826 / 561-1783. 011-634-4498.019-501-1826

동의대학교 음악 아카데미
응용피아노 수강생 모집



지도교수 권 상 무
• 방송 피아니스트
• 필라델피아 음대 음악박사-편곡
• "크로스 오버" 오케스트라 지휘자

피아노 치며 노래하는 반주법(초보, 중급) -
생활피아노(초보 누구나 가능)
• 찬불가, 가곡, 가요 강좌번호 108번
• 찬불가 합창단 반주 및 법회 반주

예술적인 고급 연주법 및 째즈(고급): *연주용 피아노*
• 피아노 전공자, 피아노 교사, 사찰 반주자
강좌번호 109번

수시모집 *12주-주1회* ₩300,000
1:1 렛슨 · 눈높이 교육

동의대학교 평생교육원
TEL:(051)890-1947~8 FAX : (051)890-1949
http://www.educate.dongeui.ac.kr E-mail:educate@dongeui.ac.kr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가야동 산24번지
권상무 교수 H.P : 011-342-8215

당 뇨
당치 발란스

국내최초 천연원료로 안전성을 입증한 생약캡슐

- 당뇨, 고혈압, 만성피로 등 각종 성인병 개선에 효과 '놀라워' -

▶당치 발란스의 당뇨에 대한 효과
7일~15일만 드셔도 효과가 나타나며 1~2개월만 드시면 병원약(신약)을 먹지 않아도 됩니다.





개발자(김종연 교수) 약력
-영남대학교 의과대학 부교수
-영남대학교 의과대학 생리학교실 주임교수
-영남대학교 기초의학연구소 소장
-영남대학교 비만-당뇨 선도연구센터 센터장
현재 역임중

현직 의과대학 교수들이 의학적 검증을 거쳐 개발된 한국인의 식생활 습관에 맞춘 혈당강하 식품입니다.

- 당치발란스의 기타 질환에 대한 효과 -
• 위궤양, 비만증, 무좀, 체력증강
• 감기에 걸리지 않는 체질로 개선
• 피로를 없애고 뇌를 맑게 해줌
• 갱년기 장애
• 고혈압, 고지혈증

영남대학교 당뇨선교연구센터 소재 공동연구
주문 및 무료상담전화 080-558-6633

제9회 현대불교 신행수기공모

특별상 (대한불교진흥원 이사장상)

채상희 (서울 서대문구 창천동)

언어도단의 세계를 언어로 표현함이… <하>



그림 · 김흥인

가족에 병 숨기고 매일 5백배와 관음정근
죽음에 대한 집착 버리니 큰 병이 '씻은듯'

제가 (좌우 가슴의 종양으로) 아프다는 이야기는 남편에게 비밀로 하였습니다. 부모님과 아이들을 비롯한 여러 가족에게 아픔과 걱정을 끼칠 것 같다는 생각에서 저 홀로 병원에 다니며 치료를 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전 치료에도 그렇게 커다란 의미를 두지 않았으며 삶에 커다란 애착은 없었습니다. 사는 그 순간 그 날까지 저의 최선을 다 할뿐이었습니다.

그 후로 저는 매일 절을 500 배씩 하였고 건강이 허락하는 그 날까지 할 것이라 마음먹었습니다. 또한 의식이 있는 시간에는 다라니와 관음정근에 몰두하고 매사에 더 적극적으로 남을 위해 봉사했습니다. 동분서주 하며 다니는 곳이 도량이요, 입에서 나오는 것이 염불이요, 눈으로 보는 것이 부처님 경전이며, 스님네 설법이었습니다.

전 이제 죽어도 아무런 여한이 없을 것 같았으며 다만 아이들과 부모님께 미안할 뿐, 그리 고통스럽지 않았습니다. 진실로 전 행복 하였으며 그러면서도 제가 하던 일을 더욱 열심히 하였습니다.살아 오면서 열심히 일했고 돈을 벌었지만 난 한푼의 세금도 내지 않았지. 나라에 내는 것도 세금이지만 어렵고 가난한 이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도 세금이 될 수 있는 거야. 이제 남은 나의 삶은 그들을 위해서 내게 남은 물질적인 것이나 정신적인 에너지를 나누는 것이야.이것이 진정한 보살의 회향인 것이야. 전 여러 사찰의 불사에 동참 하고 나름대로 애썼으며, 공부하시는 스님네에게, 장애인들에게, 제게 남은 사랑을 나누기에 바빴습니다.

하지만 순간 순간 문득 찾아 오는 병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는 이루 다 말할 수 없었으며 솔직히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좋은 세상에… 아직 난 40살밖에 되지 않았는데….'

'나의 아이들은, 나의 사랑하는 남편은… 어떻게 내가 죽을 수 있어.'

'이것은 말이 되지 않아' 라며 항거도 해보았지만 어떤 거대한 절대자의 힘에 전 어쩔 수 없이 끌려 가야만 하는 처절한 상황이었습니다.

오로지 전 '그래, 난 나대로 살다 죽을 거야, 기도하다 죽으면 왕생극락 하겠지.'

'만공 스님 좀 봐. 열반 하시는 날, 거울 앞에서 "나 이제 자네를 떠나려 하네. 자네와 꽤 오래 지냈지?" 하시며 자신의 생사를 결정하시잖아. 난 불자인데 생과 사를 초월해야 하는 거야' 하며 더욱 저 자신을 탁마해 갔습니다.

그러던 중 2001년 1월1일 새벽 두 시, 전 깜짝 놀라 잠에서 깨었으며 꿈이 너무나 해괴망측 해서 감히 입에 담을 수 없었습니다. 아무도 없는 법당에 제가 갈색의 가운을 입고 부처님을 지그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법당 문이 열리고 스님 한 분이 가사 장삼을 수하시고 제 앞으로 다가 오시더니 저의 두 가슴을 칼로 후벼 파듯이 잡아 당기셨습니다. 전 깜짝 놀랐으며 너무나 세게 잡아 당기셨으므로 눈물이 번쩍 났습니다. 놀라 깨어보니 꿈이었고 전 아이들을 깨워서 1월 1일 새벽 예불에 참석하고 부처님께 신년 인사를 드리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병원에서 사진과 초음파를 받고 의사와 저는 깜짝 놀랐으며 저의 가슴에 있던 종양이 감쪽같이 사라졌다는 믿기지 못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지난 해 4월, 7월에 다시 재검사를 하였지만 가슴 부위의 종양은 말끔히 사라졌던 것 입니다.

부처님 말씀에 '죄무자성종심기(罪無自成 從心起)'라 했습니다. 죄의 자성이 본래 없고 병 또한 원래 있는 것이 아니며 우리의 마음이 죄와 병, 그 모든 것을 짓고 만든 다고 하신 것이 어찌 하나의 그릇됨이 있겠습니까. 제법(諸法)의 공도리(空道理)에서 본다면 이 모든 것은 꿈 같이 존재 하는 것이지 실상은 없는 것 입니다. 본래무일물(本來無一物)이라, 본래 한 물건도 없으며 다만 존재하는 것은 우리의 진여불성(眞如佛性)만이 상주불멸 하는 것임을 배웠습니다.

이렇듯 여러가지 크고 작은 여러 일들이 일어났으며 이루 말할 수 없을 만큼 커다란 불 · 보살님들의 가피는 참으로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전 남은 삶을 다시 태어난 것처럼 살 것이에 지금도 역시 부처님을 떠난 저의 삶은 말할 수 없습니다. 제가 돈을 버는 것도 저 자신 보다는 남을 위해 쓰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아이들이 어느 정도 성장하게 되면 소외된 계층과 육체적, 정신적인 고통을 받으며 사는 장애인이나 노인들을 위해서 남은 에너지를 쓸 것입니다. 또한 병들고 연로하신 스님네들을 위해 불자의 한 사람으로서 하는 봉사는 어쩌면 의무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불교의 꽃이라고 하는 <화엄경>을 보면 불자들이 궁극에 가서는 보현행원을 함으로서 그 극점에 도달한다고 했습니다. 올바른 행원만이 우리 불자들이 가야 할 참 다운 길이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경전 공부, 염불, 참선 등 그 모든 도리도 좋지만 어렵고 힘든 이웃에게 따스한 말 한마디 건내고 그들의 고통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자 만이 진정한 참 불자가 아닐까합니다. 구구절절 나열한 이야기들이 혹 여러 불자들에게 어떻게 느껴졌는지 모르지만 제겐 커다란 의미가 있는 사건이자 부처님의 커다란 채찍질이라 여기고 있습니다. 만약 제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더라면 아무 부족함 없이 살아온 저의 아상은 하늘을 찔렀을 것이며 오만과 자만에 빠져 남들을 경외시 하였을 것입니다.

이에 버금가는 경책으로 부처님께선 저를 달금질 하셨으며 가장 사랑하는 나의 아이와 급기야는 제 자신의 몸까지 담보로 저를 문책하셨던 것입니다. 이제 어리석은 중생이 오만의 눈이 띄어 고개를 숙일 수 있게 되었으며 한 걸음 부처님 곁에 다가 갈 수 있었습니다. 제가 하여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확연히 깨달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부처님이시여. 대자대비 관세음이시여. 제가 부처님을 만난 것이 더 없는 행복입니다. 제가 불자라는 것이 최상의 기쁨입니다. 세세 생생 당신과 함께 하여지이다. 송광사 여러 스님과 사부대중 모든 분들에게 항상 불은이 함께 하소서.

신행수기 일년내내 받습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가슴속에만 꼭꼭 담아두었던 감동깊은 신행체험들을 진솔하게 적어 보내주십시오. 연중 접수한 신행수기 가운데 우수작은 신문에 연재하며, 연말에 최종 심사를 거쳐 시상합니다.

- 주제: 신행 및 수행 체험, 불심으로 고난을 이겨낸 이야기
- 분량: 200자 원고지 30매 안팎(A4용지 4장)
- 접수처: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편집국 신행수기 담당자
- 문의 전화: (02)722-4162
- 인터넷 접수: thatiswhy@buddhapia.com

릴레이 수행일기 <하>



김성규
영남대 의대교수

어떻게 올바르게 살아가는가를 화두로
불교중흥과 인류평화 열쇠 찾기에 최선

어쩌면 철이 들기 시작하고부터 이제까지 40년 동안 나의 뇌리에서 한 번도 떠나 본적이 없는 화두는 '불교중흥으로 인류평화'였다. 한 때는 조직과 경제력만 있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 같았다. 몇 년 동안 불교활동을 통해 얻은 결론은 조직도 경제력도 그 무엇도 아니었다. 우주라는 거대한 유기체 속에 지구가 차지하고 있는 부분은 한 점에 불과하다. 그렇지만 한 점의 요동으로 전체 유기체는 변화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다. 조직체는 절대 변하지 않을 철옹성 같기도 하지만, 한 인간의 노력으로도 얼마든지 변할 수 있는 것이다. 손톱 밑에 박힌 가시와 같은 것이다. 우리 육신을 변화시키는 못하지만 손톱 밑의 가시로 온 전신이 고통을 받는 것이다.

우리 인간부터 미물까지, 지구부터 우주까지 어떤 조직체이든 묘한 역동성을 다 가지고 있다. 우리가 속해있는 한국 사회나 승단이라는 조직체도 절대 변화지 않을 것 같으면서도 한 인간의 의지로 변할 수 있는 것이다. 결국 인간이 궁극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는 '왜 늙고 병들고 죽느냐' 하는 문제이며, 이 문제의 해결 방법은 인간에 내재해 있는 탐심과 진심과 치심의 절제와 직시를 통해 깨끗함과 올바름과 깨달음을 증득하여 진리, 열반의 세계로 나아가는 것이다. 조직도 마찬가지다. '왜 발전하지 못하고 부패하고 멸망하느냐?' 하는 문제이다. 이 문제의 해결 방법은 조직이 갖고 있는 이기성과 독단성과 우매성의 절제와 직시를 통해 윤리성과 행복성, 진리 지향성을 증득해 인류를 자유와 평화의 세계로 나아가게 하는 것이다.

부처님께서 평생 가르치신 진리는 '어떤 종교를 신봉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올바르게 살아가는가' 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것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우주의 진리다. 불교란 무엇인가를 경전에서 찾을 때, 인간이 사회에 살아갈 때 어떻게 올바르게 살아가느냐 하는 문제임을 알 수 있다. 이 사회의 모든 부분을 근본적으로 살펴보면 자기 중심주의로 되어가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사회가 복잡해지면서 부모, 자식, 이웃을 외면하게 된다.

<화엄경>에서도 이 우주의 구성이 날줄과 씨줄로 되어 있다고 한다. 하나의 날이 움직이면 우주가 움직인다고 한다. 자신의 생명체는 개별적으로 떨어진 것이 아니라 우주와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생명체 뿐만 아니라 이웃에게 깨끗한 마음을 내도록 발원해야 할 때 바람직하다. 참회기도를 열심히 하면 발원하지 않는 상황도 이루어짐을 경험할 수 있다.

<밀린다왕문경>에 나오는 나선 비구가 예를 들기를, 돌을 배에 얹고도 가라앉지 않고 강을 건널 수 있음을 비유하여 기도도 배와 같은 것이라 설명했다. 받아야 할 업도 자신의 청정한 마음에 의해서 좀더 부드럽게 또 다른 방법으로 업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것이 기도의 원리이다.

청정의 원리는 우리가 실천할 중요한 과제이다. 재가불자로서 가장 바람직한 삶은 청정한 마음으로 이웃의 행복을 추구하고 나아가서 모든 사람의 행복을 비는 마음이 청정한 삶이며 불국토를 이루는 것이다.

우리들은 간혹 조직과 이데올로기의 허구에 빠지기도 하고, 지배자들은 자신의 권력과 이익의 창출을 위하여 우리를 허구에 빠뜨리기도 한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던지면 다시 돌아오는 부메랑처럼 자신의 문제로 귀착된다. 결국 진리는 진리일 뿐이다. 진리는 진리를 추구하며 그렇게 애쓰고 노력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몫일 뿐이다.

윤년 윤달의 효도 선물 대광[孝]수의로 하세요

갑신년 윤달 수의 특별가로 불자님들을 모십니다

불자님들을 위한 특별한 기회! 놓치지 마세요



사은품



대광[孝]수의를 구입하시는 모든분께
성묘용 제기세트를 사은품으로 드립니다

수의 가격표

상품명	재질(성분)	원사가공지	판매가격
국화1호	삼베100%	경북안동지역	1,515,000
국화2호	삼베100%	강원일부지역	1,395,000
국화5호	삼베100%	경남남해지방	1,249,000
국화7호	삼베100%	충남서천,홍성지방	950,000
특 1호	삼베100%	중 국	670,000
보성삼베	대마+저마	전남보성지방	1,450,000
남해삼베	삼베100%	경북남해지방	2,345,000
안동삼베	삼베100%	경북안동지방	4,300,000

윤달 3월 21~4월 20일 원하시는 날 받으실 수 있도록 예약 주문 받습니다.



수의제품 품질보증업체 Q마크 획득





세시풍속 〈歲時風俗〉

윤달(閏月)은 재액없이 무난하게 여기고 모든일을 거리낌없이 하는 풍속이 내려오고 있다.
특히 일년중에 한달이 덤으로 있는 윤달에는 손재 등이 없는 기간으로 모든일에 부정을 타거나 액이 끼이지 않는 달로 인식되어 왔고, 그래서 평소에 꺼려하던 이장(조상의 묘를 옮기는 일), 집을 헐고 새로 짓는 일 등을 윤달에 하는 것이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는 예이다.
그래서 이 기간에는 집안어른의 수의를 마련해두면 집안어른이 무병장수하고 자손도 번창한다는 세시풍습이 있다.
그 뜻을 미루어 짐작컨데, 수의를 마련함으로 자손들은 여생이 얼마남지 않으신 집안어른을 더욱 공경하고 효심으로 받드는 마음가짐을 가질 수 있지 않겠는가 생각되며 집안어른은 죽음을 다스리고 대비하면서 여생에 대한 진한 삶을 살고자 했던 조상들의 지혜라 여겨집니다.

대광[孝]윤년수의를 미리 마련해 놓으시면...

(1) 믿을 수 있는 좋은 품질의 제품을 여유있게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시중에는 혼합된 원단으로 만들어진 제품들이 고가품으로 둔갑하여 유통되고 있으나 금년 윤달에 "대광"에서는 고품질의 제품을 저렴한 가격으로 소개하고자 합니다.
막상 큰일을 당하여 급한 나머지 아무 수의나 입혀드린 후 두고두고 후회하는 일을 겪지 않으셔도 됩니다.
(2) 고품직의 수의를 적정한 가격으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큰일을 당하여 경황없는 중에 저가품의 수의를 비싼 가격에 구입하시는 일이 비일비재 한 것은 현재 유통의 문제점입니다.
좋은 품질의 수의를 적정한 시기 윤달에 구입하시는 것은 이런점들을 고려해 볼때 좋은 기회라 생각됩니다.
(3) 금번 윤년 "대광상사"에서는 좋은 삼베만을 골라 한올한올 공경과 정성의 마음을 담아 맞춤 바느질한 제품을 그 동안 대광 삼베를 성원해 주신 보답으로 불자님 여러분들께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해 드리겠습니다.
(4) 수의의 옷감은 자연섬유로만 사용하여야 매장용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수년만에 윤달이 가장 좋은 해라고 하는 설이 있습니다.
길년에 효도하시고 고품질에 수의도 저렴한 가격으로 구매하시어 두가지의 행운을 함께 하십시요.

윤년에 수의를 준비하시는 불자님에게는 오동나무 상자를 무료로 공급해 드립니다.

孝 대광수의 서울시 종로구 예지동 296-19 광장시장(1층)
TEL. 02)2275-8075, 2279-7450 FAX. 02)2272-6715

간화선 중흥을 위한 전국 선원장 초청 대법회 지상중계 ⑧

주제 : 선 수행의 요체

번뇌망상만 털어내면 본래 부처



지환 스님은 참선수행을 바르고, 간절하게, 꾸준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상 백고좌
지환 스님 (조계종 기본선원장)

世尊(세존) 未離兜率 已降王宮(미리도솔 이강왕궁)이요, 未出母胎 度人已畢(미출모태 도인이필)이라.

세존께서 도솔천을 떠나기도 전에 이미 가비라 왕국에 태어남이요, 마하부인의 모태에서 나오기도 전에 중생을 다 제도하여 마쳤느니라 이런 뜻입니다. 이 도리를 아시겠습니까?

이 도리를 안다면 오늘 선 법문은 이것으로 다 끝났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많이 오셨는데 그냥 내려가기가 서운하니까, '참다운 행복의 삶을 위한 선 수행의 요체'라는 주제를 가지고 초심자를 위해 군더더기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를 공부하기 전에 먼저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 불자님들은 왜 불교를 믿고 참선 수행을 하려고 합니까? 그냥 머리로 어렴풋하게 아는 것 말고 분명하게 이 문제에 대한 가치관이 정립돼야 합니다.

절대 행복은 한번 열리면 영원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해 보십시오. 이 질문에 대해 스스로 대답을 정확하게 해야만 참선을 바로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수행을 하고 참선을 한다고 하면 이것은 유행 따라 남이 하니까, 참선을 하면 좋다고 하니까 한 번 해보는 그런 식의 참선 밖에는 안 됩니다. 이런 사람은 얼마 가지 못해서 참선을 그만두게 됩니다. 이래가지고는 참선하는 목적을 이룰 수 없습니다. 그래서 불교를 믿는 사람, 불교를 제대로 믿고 참선 수행을 하려고 하는 사람은 반드시 이 문제에 대한 뚜렷한 가치관을 확립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나고 죽고 이렇게 생사윤회를 하고 있습니다. 이 생사윤회에 대한 문제도 충분히 정리가 돼야 합니다. 사람들은 생사윤회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고 생사윤회를 믿는 사람들 가운데에도 영혼이라는 것이 있어서 좋은 업을 지으면 좋은 과보를 받고 나쁜 업을 지으면 나쁜 과보를 받으며 다음 생에 태어난다는 식으로 생사윤회를 이해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첫 번째도 틀렸고 두 번째도 틀렸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도 바르게 공부해야 합니다. 수없이 반복되는 생사윤회 속에서 받게 되는 괴로움, 바로 이 괴로움이라는 것을 해결하고 참다운 행복의 삶을 살기 위해 참선수행을 해야 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행복을 원합니다. 그런데 행복에 관해 말하자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행복론과 불교에서 말하는 행복론은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행복을 추구하느냐면 내가 원하는 조건이 충족될 때 행복감을 느낍니다. 그 행복감은 머지않아 사라져 버립니다. 이것을 일시적인 거짓 행복이라 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만족하지 못하고 끊없이 더 큰 것, 더 좋은 것, 더 많은 것을 얻으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원하는 것들이 충족될 때에는 행복감을 느끼지만 안 되면 불만족 즉 괴로움을 느끼게 되므로 이런 거짓 행복감으로는 결코 참다운 행복의 삶을 살수 없기 때문에 깨달음을 통해서 열리는 참다운 행복의 삶을 살기 위해서 참선수행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열린 절대 행복은 영원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가치관이 확립되어야 올바른 수행, 즉 참선 할 수 있는 바탕이 마련된다 이 말입니다.

참선 수행에 있어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것은 신심입니다. 이 신심에 대해서는 화엄경이나 다른 경전에서도 찬탄이 많이 나와 있어요.

"신심은 도의 근원이고 모든 공덕의 어머니다. 그러기에 믿음은 온갖 착한 법을 길이 기르며, 의심을 끊고 애착에서 벗어나 열반의 무상도(無上道)를 드러낸다." (화엄경)

그러니까 신심이 없으면 무상도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성불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봅시다. 아무리 성능 좋은 컴퓨터가 있더라도 전원에 콘센트가 꼽혀 있지 않다면 쓸모가 없습니다. 아무 작동이 안돼요. 이와 같이 신심은 마치 전원에 콘센트가 꼽혀 있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신심은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신심 발심 수심' 절실해야

그럼 신심은 무엇을 말하느냐. 여러 가지로 신심을 말할 수 있겠지만 핵심은 우리의 참 마음자리, 이것이 본래부터 부처님하고 똑 같은 것이다 이런 얘깁니다. 정확히, 아주 정확히 한점 오차 없이 부처님과 똑같습니다. 우리가 본래부터 부처님이다 그런 말입니다.

이 소식을 부처님께서 깨닫고 나서 맨 처음에 "아! 기특하고도 기특하구나. 일체중생이 여래지혜 덕상을 다 갖추고 있구나. 그런데 분별망상으로 인하여 증득치 못 함이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위대한 인간선언입니다. 사실 생명선언이에요. 이 말은 모든 중생이 그대로 부처님이다. 그런데 분별망상으로 인해서 부처의 삶을 살지 못한다. 깨달음의 삶을 살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본질적인 측면과 현실적인 측면, 양면을 말씀하셨어요. 아무리 중생이 번뇌 망상 때문에 이렇게 중생 노릇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실제적으로는 모든 중생이 다 부처님 입니다.

정리해서 말한다면 신심 이것은 바로 '우리는 본래부터 부처다' 이렇게 믿고 이해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좀 어려운 말로 말하자면 우리는 연기적 진리생명이다. 진리생명인데 이것이 연기작용을 한다. 무슨 말이냐 하면 부처라니까 부처님이 실체가 있는 그런 부처님이 아니고 텅빈 진공의 마음, 이것이 우리의 참마음이요. 참마음이 참 부처님이다 이 뜻입니다.

우주의 실상이 진공심으로 되어 있는데 텅 빈 이 진공심이 인연 따라 조건 따라 어떤 현상을 전개하면서 끊임없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묘용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만, 참마음의 내용은 지금 말한 이런 정도로 다 말할 수 없어요. 부처님께서 이 내용을 다 계속해서 말씀 한다고 하더라도 이 내용을 다 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내용이에요. 그런데 하여튼 핵심만 뽑아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의 참마음은 이와 같습니다. 이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이게 신심입니다.

내가 있다는 착각에서 탐심나와

두 번째 발심입니다. 이 발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본래모습이 위에서 말한 심신의 내용대로 본래 부처인데 다시 말하면 나의 참모습이 부처인데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겠느냐. 때로는 행복한 것 같지마는 조그만한 것에 매달려 가지고 울고불고 하면서 어설프게 힘들게 고달프게 살아서 되겠느냐. 내가 부처님 진리생명인데 이렇게 살아서 되겠느냐. 이런 자각 위에서 나도 나의 본래 모습을 회복해가지고 참다운 행복을 누리며 살자. 지혜와 자비심을 가지고 그렇게 살자. 이와 같은 마음을 일으키는 것을 발심이라고 합니다. 말하자면 아까 신심에 대한 정리가 되어 신심이 크고 투철할 때 이 두 번째 발심이 되는 것 이지, 신심이 확립이 안 되어있는데 발심이 되겠습니까? 신심이 없는 사람은 발심도 안 됩니다. 신심이 크면 발심을 크게 할 수가 있어요. 발심이 크게 되어야만 제대로 공부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음에는 중요한 수심(修心), 마음 닦음 입니다. 바른 수행을 위해서는 지금부터 말하는 내용이 갖추어져야 됩니다. 마음 닦음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첫째는 바르게 수행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중국의 유명한 마조도일선사가 계셨는데 선지식 80여명을 배출할 정도로 대선지식이었습니다. 그분의 스승은 남악회향선사로 아주 유명한 선사인데, 그 밑에서 마조도일선사가 공부할 때 얘기입니다.

어느 날 마조도일선사가 좌선을 하고 있을 때 스승인 남악회양선사가 마조스님 앞에서 기왓장을 갈고 있었습니다. 이상해서 "스님 기왓장을 왜 갈고 계십니까" 하니까 "을 기왓장을 갈아 거울을 만들려고 그러네" 하셨습니다. 그래서 마조도일선사가 "아니 스님, 기왓장을

스님 불자님께 드리는 편지
신제품 식물성 양초
실용신안특허 0293571호

귀의 삼보하옵고
금번 저희 삼환양초에서 식물성 양초를 개발(실용신안특허) 공급합니다. 지금까지 양초는 석유에서 추출한 파라핀 왁스로만 제조하고 있습니다. 양초가 연소되면서 발생하는 그을음, 냄새 등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 고심하든차, 동남아 모처에서 생산하는 팜(식물성 야자열매)왁스로 양초를 만들어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100% 식물성 양초를 만들 수 없지만 가까운 시일내 100% 식물성 양초를 만들 수 있도록 삼환양초 가족일동은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스님, 불자 여러분의 지도 편달을 기다립니다.

「이제는 건강을 생각하여 양초도 선별하며 사용할 때 입니다」

◆ 선진국 소비자들의 양초선별 방법
1. 심지가 면사로 되어있는지<국내제품 면사로 제조>
2. 원료가 식물성 인가
※ 미국, 구라파 등지에서는 콩, 옥수수 등 식물성으로 만든 양초 선별사용



▶ 식물성 양초의 특징
- 그을음이 없어 실내공기정화에 도움을 준다.
- 양초 연소시 발생하는 냄새가 적다. (거의 없음)
- 양초 연소시간이 일반양초보다 약 20 ~ 30% 길어진다.



① 전사지양초(호랑이, 용, 반야심경) 지름 7.5cm x 45cm
② 쌍용(용이마주보고 있음) 지름 8.3cm x 30cm
③ (전사지)용 – 지름 9.2cm x 31cm
④ (전사지)반야심경 – 지름 9.2cm x 31cm



⑤ 원기둥 양초 지름 7.4cm x 29cm 전사지, 반야심경, 연화, 용, 호랑이, 무지개, 금박, 호랑이, 용

상기제품외 모든 양초를 만드는 삼환종합양초 TEL 031)766-0242~3 FAX 031)766-0233
제품에 대하여 문의하시면 제품설명서를 무료로 우송하여 드립니다.

화제의 염주
소원성취척척 건강도지키는
금강염주
2가지 소원이 꼭 이루워지는 신비와 영험의 염주
선물로도 최고! 성불에도 최고!



생육광선과 금강의 강한氣가 발산되는 신비의 금강염주

이런분은 스님께 보시 또는 본인이 사용하시면 됩니다
❖새로운 사업을 계획하고 계신분
❖자녀가 없어 고민하고 계신분
❖법적인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분
❖구직을 원하시는 분
❖수험생 자녀를 둔 가정
❖사업이 잘 풀리지 않는 분
❖연분을 찾고 계신분
❖투병중인 분
❖고시준비 하시는 분

부처님께로 가까이
염주는 부처님께로 가고자 하는 마음의 법구 이므로 항상 귀중하게 생각하며 정중히 사용해야 복을 받고 소원이 성취 됩니다
훰심이 들어간 12단주를 제작하였으니 기도 정진하시는 스님 및 불자님께 주문 판매 합니다.

금강의 밝은 지혜와 강한 힘으로 건강을
금강염주를 방이나 거실에 걸어놓으면 금강의 강한 기와 93%의 생육광선, 음이온등이 발산되어 현대인들이 자주 사용하는 컴퓨터 OA사무기기 등에서 발생하는 전자파를 차단하며 도심의 좋지 않은 공기 환경속에서 건강이 약해지는 스님 및 불자님들의 건강을 도와드립니다. 신진대사가 원활해지며 피로회복, 신경안정, 스트레스해소, 혈액순환 등에 효과 있는 세계유일의 금강염주입니다. 밝은 지혜와 금강의 강한 氣가 발산하는 금강염주는 기도 정진시 일념무아 하면 부처님 가피로 고시준비나 어려운 일이 있으신분은 뜻을 이룰수 있는 신비의 금강염주입니다.

2가지 소원이 이루어지는 금강염주
세계 최고의 신비와 영험의 염주로 전래되는 북한 신비의 금강염주를 국내 반입하여 조립 시판하고 있어 화제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금강염주는 北韓 평안도 명산에서 소량이 발견되며 세계 유일의 희귀 금강석으로 이곳은 원효대사께서 부처님의 깨달음을 받아 유학을 포기하고 참선 안거 하시던 곳으로 유명한 일화가 있는 곳입니다. 금강염주는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정신이 안정되며 악귀와 잡귀들이 보기만해도 도망쳐서 액운과 화를 쫓고 동서남북의 복을 불러오며 2가지 소원이 꼭 성취되는 신비와 영험의 염주로 옛날부터 전해오고 있는 염주입니다. 금강염주는 점안식 후 사용하여야 합니다.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합니다. 신용카드도 분할구입 가능합니다.
※12단주와 108염주 1set 가격 195,000원
※ 농협 743-02-563237 (정해철)

문의 및 신청전화 (02)723-0909
전화로 주소 성명을 알려주시면 우체국 등기소포로 전국 어디나 받아 점안식을 하고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金剛念珠社 서울시 종로구 관훈동 177 대형 B/D 406호

조계사·현대불교 공동 주최 (4월11일-조계사 대웅전)



지환 스님의 법문을 한마디라도 놓치지 않으려는 듯 이날 법회에 참석자들은 1시간30분동안 법문에 빠져들었다.

간다고 거울이 됩니까"라고 묻자 "좌선을 한다고 부처가 되나" 하신 겁니다. 그 말에 마조도일선사가 알아차렸습니다. "기왓장을 간다고 부처가 되나" 이 말에 확 깨쳤습니다.

어떻게 보면 좌선을 하지 말라는 말 같이 들리는데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부처와 중생을 이원적으로 보고 '나는 지금 중생인데 좌선을 해가지고 부처가 된다' 이런 생각으로 좌선을 하면 안 된다는 가르침입니다.

나는 중생이 아니라 본래 부처라는 이 반야(지혜)의 안목을 갖추고 지혜와 선정이 등지(等持) 된 수행이 올바른 수행이에요. 이에 대해서 육조 스님께서는 이렇게

순간순간 꾸준히 진리 찾아야

말씀 하셨습니다.

"정(定)과 혜(慧)로서 근본을 삼나니 먼저 혜와 정이 다르다고 말하지 말라. 정과 혜가 한 몸이요 둘이 아니니 정은 혜의 체요 혜는 정의 작용이다. 정과 혜는 등불과 같아서 등불이 있으면 곧 빛이 있고 등불이 없으면 빛이 없나니… 이 정과 혜 또한 이와 같으니라"

화두를 잘 든다는 말은 성성(惺惺 · 지혜의 측면) 적적한(寂寂 · 선정의 측면) 가운데 화두의심이 간절하게 뭉쳐 있어 망상이 일어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마치 화두 의심은 큰불덩어리 같아서 큰불덩어리에 나비나 벌(망상)이 접근 할 수 없는 것처럼 간절히 화두 의심하는 가운데 망상은 저절로 쉬어지게 되어있는 가장 힘 있는 수행법이 간화선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큰 신심, 큰 발심(분심), 큰 의심(화두의심)을 위해서는 일상의 삶이 무아, 공, 연기의 이치를 잘 알아 자기(에고)를 비우고 자비심과 소욕지족으로 용심(用心)을 잘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평소의 삶이 탐욕스럽고 집착하고 원망과 분노 등으로 얼룩져, 아무렇게나 살면서 화두만 들면 된다는 식으로 하면 수행이 안돼요. 내가 있다는 착각에서 탐심이 나오는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단리망연(但離妄緣)하면 즉여여불(卽如如佛)'이라. 망상만 놓아버리면 본래부처라.

망상을 따로 버리려고 하지 말고 화두만 챙기면 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수행의 원리대로 하여 화두만 간절하게 의심하면 됩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할 수 없으면 하루 1시간씩이라도 간절하게 하면, 그리고 시간을 늘려서 간절히 하다보면 나중에는 빨래하면서 밥 먹으면서 다 됩니다. 그러면 화두를 착 드는 순간에 망상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참 마음의, 진리 생명의 힘으로 사니까 나날이 좋은 날이 됩니다.

순간순간 매 순간 마다 간절히 해야 합니다. 그리고 꾸준히 아주 꾸준히 해야 합니다. 처음엔 어렵지만 하다보면 쉬워집니다. 꾸준히 하다보면 쉬워집니다. 공부에 힘을 얻는 것입니다. 몸과 마음이 경안해지고 참선하는 힘으로 모든 것이 다 잘됩니다. 아주 굳건한 신심을 가지고 공부하다 죽으면 죽지 하는 용맹심으로 바르게 간절하게 꾸준하게 해야 합니다.

정리=한명우 기자 · 사진=박재완 기자

간절하게 알고 싶어하는 것이 '화두'

'묻고 답하기' 현장

▲크게 의심하면 크게 깨닫는다고 합니다. 크게 의심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또 깨달음에 크고 작은 것이 있을 수 있습니까?

-깨친다는 것은 미세 망념까지 완전히 공해져 버린 상태를 말 합니다 이것을 구경각(究竟覺)이라고 합니다. 그 구경각이 되기 전에 변화가 오는 데 이것을 작은 깨달음 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크게 의심하면 크게 깨닫는다고 하는 것은, 크게 의심하면 의심이 강하게 뭉쳐 번뇌 망상이 작용을 못하고 의심의 극점에서 마침내 폭발하는 데 이때 확철대오 하게 됩니다 이것을 큰 깨침, 구경각, 돈오라고도 합니다. 의심이 작으면 한 소식하는 정도로 끝납니다. 이것을 작은 깨달음 이라고 하는데 엄격히 말하면 그것은 바른 깨달음이 아닙니다. 구경각 즉 돈오만이 바른 깨침입니다. 크게 의심하는 방법은 제가 말한 법문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크게 의심하면
번뇌가 작용 못하고
탁 터져 확철대오

▲불교를 접하면서 일체유심조라는 얘기를 듣고 그 얘기가 머리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이것도 화두입니까.

-그것은 화두가 아닙니다. 화두는 우리가 모르니까 간절하게 알고 싶어 의심하는 공안으로서 사량 분별로 아는 것이 아닙니다. 일체유심조는 우리가 가치관을 정립하는데 하나의 원리로서 이해해야 할 명제이지, 화두는 아닙니다.

"법문, 테이프로 들으세요"

고우 스님의 법문을 비롯해 2월 15일~5월 9일 진행되는 선원장 초청법회의 법문을 테이프로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문의:조계사(02-732-2115), 여시아문(02-737-8881)
법회 동영상 중계
www.jogyesa.org
www.buddhanews.com

안양규 교수의 **경전이야기** <16>



욕망이 고통의 근원인 이유

붓다는 욕망이 고통의 근원이라고 사성제에서 가르치고 있다. 사람들이 욕망하는 대상은 비슷비슷하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서로 어울리며 살아야 한다. 서로의 교류를 통해 일종의 가치체계가 형성된다. 이러한 가치체계는 사회 구성원이 공유하는 것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물질적인 가치관을 지니며 명예, 권력, 재력 등을 중시한다. 이러한 것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두 바라는 대상이다.

그런데 이런 대상들은 제한되어 있는데 비해 이들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많다. 따라서 이런 세속적인 대상을 추구하는 사람들 사이에는 경쟁과 갈등이 존재하게 된다. 권력을 먼저 쥔 자는 그것을 놓지 않으려 하고 그 권력을 추구하는 사람은 그것을 갖고자 한다. 법을 어겨 가면서 권좌에 앉은 사람은 계속 유지하고 싶어하고 경쟁자는 그 권좌를 빼앗으려고 한다. 이런 투쟁관계 속에서 술한 권모술수가 존재하게 된다.

붓다는 이런 상황을 간단하게 다음과 같이 비유하고 있다. <중아함경>의 <포리다경>에서 붓다는 욕망의 위험을 몇 가지 비유로 설명하고 있는데 두 가지만 살펴보자.

많이 달려 있는 과일 나무가 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와서 굶주리고 지쳐 그 과일을 먹으려 한다고 하자. 그는 이렇게 생각한다. '이 나무에는 맛있는 과일이 많이 달려 있다. 나는 배고프고 기력이 떨어져 저 과일을 먹고 싶다. 그러나 이 나무 밑에는 저절로 떨어진 과일이 없어 먹을 것도 없으며 그리고 가지고 돌아갈 것도 없다. 나는 이제 이 나무에 올라가리라.' 그는 이렇게 생각한 뒤에 곧 올라가 과실을 딴다. 그때 다시 어떤 사람이 굶주리고 지쳐 나무에 달려 있는 과일을 먹고자 하여 아주 날카로운 도끼를 가지고 왔다. 그는 생각했다. '이 나무에는 과일이 탐스럽게 많이 달려 있다. 그런데 이 나무 밑 주위에는 저절로 떨어진 과일이 없어 배불리 먹을 수도 없고 또 가지고 돌아갈 수도 없다. 또한 나는 나무에 오르지도 못한다. 나는 이제 이 나무를 베어 넘어뜨려 과일을 따서 먹어야겠다.' 이렇게 생각한 그는 곧 그 나무를 찍어 넘어뜨렸다. 그대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만일 나무 위에 있던 사람이 빨리 내려오지 않는다면 나무가 땅에 쓰러질 때에 과연 그 팔이나 몸뚱이 중 다른 부분이 부러지지 않겠느냐?"

한정된 대상을 두고 경쟁하게 되므로 사람들은 살인적인 경쟁에 몰두하게 된다. 재산, 권력, 명예를 차지하기 위해 서로 다투다가 목숨을 잃는 경우를 자주 접하게 된다. 돈 문제로 자식이 부모를 살해하고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아내를 죽이는 일도 일어난다. 선거에 이기기 위해 지저분한 흑색 비방이 난무한다. 우리는 여기서 과연 이런 대상들이 자신의 삶을 바칠 만큼 가치 있는 것인가 하고 물을 수밖에 없다.

한정된 부·권력 차지하려고 경쟁에 몰두
즐거움은 순간… 집착하면 고통 뒤따라

"마을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자그마한 고깃덩어리가 땅에 떨어져 있을 때 까마귀나 솔개가 그것을 물고 달아나면 나머지 다른 까마귀나 솔개들은 앞다투어 그 뒤를 쫓는다. 만일 이 까마귀나 솔개가 그 조그마한 고깃덩이를 재빠르게 버리지 않는다면 다른 까마귀나 솔개들이 앞다투어 계속 쫓아오지 않겠느냐?"

고깃덩어리는 한정되어 있고 모든 까마귀와 솔개들은 한결같이 고기를 먹고 싶어 한다. 공급되는 물량은 제한되어 있는데 그것을 원하는 자가 많으면 당연히 경쟁이 있게 마련이다. 누군가 먼저 포기하지 않으면 결국 싸움으로 발전할 수밖에 없다. 먹이를 위한 싸움은 생명의 위협으로, 살생이라는 악행으로 끝날 것이다. 그래서 붓다는 제자들에게 욕심은 고깃덩이를 차지하려는 것과 같아 즐거움은 적고 괴로움만 많아서 많은 고통이 따른다고 경계하고 있다. 배가 고파 음식을 요구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배를 채우고 난 뒤에도 음식의 맛에 탐착한다면 문제가 있는 것이다. 욕망을 채우기 위해 겪게 되는 치열한 경쟁으로 목숨이 위험에 빠진다는 교훈은 다음의 비유에서도 발견된다.

"마을에서 멀지 않은 곳에 탐스럽게 과일이

동국대 (경주) 불교학과

육 법 등(六法燈)





용암사(서울·광진구) 대웅전에 장엄된 육법등

특 징

1) 부처님께서 보리수아래서 성도 하신후 49년간 설법을 하셨기에 등을 49개 밝히니 그 모양이 마치 보리수 나뭇잎 모양으로 형성되어 있음
2) 더러운 곳에서 물들지 않고 항상 깨끗함을 나타내는 연꽃모양을 만들어 등을 밝힘
3) 연등의 밝기를 자유로이 조절하여 전기료를 절감할 수 있음
4) 등의 재질을 신주 및 아크릴로 제작하여 변형 및 변색이 되지 않음

활 용 범 위

1) 법당내 상단 부처님전 조명 및 장엄등
2) 지장단 영가천도를 위한 49재 및 각종 제사단에 활용
3) 각단의 인등 및 장엄 등으로 활용 가능함
4) 예식장의 주례단 단상의 장엄 및 촛불 대용으로 활용가능
5) 장례 예식장의 영가단에 화환대신 장엄 가능함
6) 등 장엄이 필요한 각 단상 및 기타장소

㈜동원전기 주 소 : 경기도 포천군 포천읍 설운리 290-1
전 화 : 031)541-1417 / 팩 스 : 031)541-1419
총판 및 대리점 모집

사찰 연등용 전선 (케이블)
사찰용 전구 3W, 5W, 10W • 건전지용 초 • 형사초롱 및 손잡이대
등간격 22cm, 30cm, 50cm, 1M, 2M, 3M, 5M, 10M 기타주문



"생산에서 시공까지 책임 지겠습니다."

사찰전구(정품)
▶ 불제 고추전구, 인지전구
▶ 종류 : 3W, 5W, 10W
▶ 일반 전구에 비하여 전구알이 견고하여 잘 깨지지 않으며 윌라멘트가 6배(특 윌라멘트)로 밝이 윌등이 밝고 절전 효과가 있다.

불제 건전지용 초
▶ 형사초롱 및 연등용으로도 사용이 편리하며 4월초파일날 행사, 각종 연등행사(탑돌이, 방생)등 바람이 불어도 꺼지지 않는 장점이 있어 공연행사 등 이동에 적합 합니다. (건전지 사용)

불제대원기업
구입문의 (031) 986-0277~8 구입문의 (02)2266-2634 (02)2263-2638
구입문의 (032) 582-6235~6 011)630-7092
http://www.bulje.co.kr 주소 : 경기도 김포시 장기동 475

전시

춤사위와 가락에 혼을 싣고

'제33회 한국의 名人名舞전'

4월 23~25일 호암아트홀

10년동안 꾸준히 계속된 국악공연이 올해도 다시 관객들을 찾는다. 국내에서 유일하게 국악무대만을 기획하고 있는 박동국 씨가 '제33회 한국의 명인명무전'을 4월 23~25일 저녁 7시30분 호암아트홀에서 마련한다.


한국미래춤학회 이사 김지원 씨의 살풀이춤.

이번 공연에는 70대의 '영원한 현역' 김문숙 선생을 비롯해 김진홍 · 정재만 · 임이조(승무), 이현자(태평무), 김희숙(춘앵전) 등 전통예술계의 원로들과 자은 · 일초 스님, 박재희씨 등 중진 예술가들이 대거 동참한다.

23일은 한애영(이매방류 살풀이춤 전수자)의 '입춤', 노수은(중앙대 타악연희과 강사)의 '한량무', 양대승(승무이수자)의 '진도북춤', 윤민숙(한국종합예술대 강사)의 '장고춤' 등이 선보인다.

24일에는 일초스님(인천광역시 무형문화재 제 15호 인천수륙재 기능 보유자)의 법고 · 바라춤, 송정숙(교방굿거리춤 이수자)의 '교방굿거리춤', 박재희(청주시립무용단장)의 '태평무', 안춘자(승무 · 살풀이춤 이수자)의 '태평소 시나위', 임이조(승무 전수조교)의 '승무' 등이 공연된다.

25일도 자은 스님(하와이 불은사 주지)의 '번뇌', 이현자(준 인간문화재)의 '태평무', 이춘희(인간문화재)의 경기민요, 정재만(인간문화재)의 '허튼살풀이춤', 김진홍(승무 · 살풀이춤 이수자)의 '승무' 등이 펼쳐진다. (02)2278-5452

일곱빛깔로 빚어낸 봄꽃

'FLORA-꽃의 여신전'

5월 26일까지 목금토 갤러리

변할 수 없는 자연의 섭리, 그 속에서 화려한 꽃송이로 본연의 아름다움을 뽐내는 꽃.


김광일 작 그래픽 아트 'DF040101'.

그 꽃들의 빛과 향이 일곱명의 작가들에 의해 재탄생했다. 목금토 갤러리가 5월 16일까지 개최하는 'FLORA-꽃의 여신'전이 바로 그것. 전시회장은 박훈성, 추경, 심명보, 백미혜, 서정희, 김광일, 박혜련 등 작가 개개인의 작품관과 표현기법에 의해 다채롭게 피어난 꽃들로 이색적이고 개성 넘치는 정원으로 꾸며진다.

이번 전시회는 마음속의 순수한 사랑과 정열의 꿈을 깨우는 기회가 될 것. 관람료 무료. (02)764-0700

극장가



밝은미래 / 드라마 / 92분
개봉예정일: 4월 23일
감독: 구로사와 기요시
출연: 오다기리 죠, 아사노 타다노부, 후지 타츠야 등

방황하는 일본 젊은이들의 모습을 독특하게 그려 낸 2003 칸 영화제 경쟁부문 초청작. 미래에 대한 계획도 꿈도 없이 잠자기가 취미인 24살 청년 니무라. 물수건 세탁공장에서 임시직으로 일하게 되면서 세살 위인 마모루와 친해지게 된다. 니무라가 곤란에 빠질 때마다 충고를 해주던 유일한 벗 마모루는 어느 날 세탁공장 사장과 벌어진 사고 끝에 자살을 하고 만다. 니무라에게 과연 밝은 미래는 올까?



투스카니의 태양(Under the Tuscan Sun) / 드라마 / 112분
개봉예정일: 4월 23일
감독: 오드리 웰스
출연: 다이안 레인, 산드라 오, 린제이 던칸 등

프란시스 메이어스의 베스트셀러 소설 '언더 더 투스칸 선'을 영화한 작품. 주인공 프란시스는 갑작스런 이혼으로 인생에서 소중히 여겼던 것들을 모조리 잃어버린 듯한 공허감에 빠진다. 이런 그녀에게 친구는 이탈리아행 비행기표를 건네준다. 따뜻하고 아름다운 이탈리아 토스카나 지역에서 프란시스는 삶의 희망과 소박한 행복을 찾아가기 시작한다.



아라한 장풍대작전 / 액션 /
개봉예정일: 4월 30일
감독: 류승완
출연: 류승범, 윤소이, 안성기 등

추억의 만화 '마루치와 아라치'의 2004년 영화버전. 평범한 순경 상환은 나쁜 사람들을 혼내주고 싶어 경찰이 됐지만 건달들에게 번번이 당하는 신세. 좌절한 그에게 다가온 도인들은 그가 마루치가 될 재목이라며 장풍과 무술을 가르쳐주겠다고 한다. 무술수련이 시작된 후에도 상환이 계속 허드렛일을 하는 동안 오랫동안 봉인됐었던 절대악이 깨어난다.



건강 지키고 이웃 돕고 환경도 살려요

불교계 걷기 · 마라톤대회 전국 곳곳서

참가비 일부 이웃돕기 … 장애인도 동참

4월 11일 생명나눔실천 광주전남지역본부와 자비신행회가 백혈병어린이와 독거노인을 돕기 위해 전남 보성에서 개최한 '제1회 나눔과 사랑의 벗꽃 길 달리기 대회'에 많은 불자들과 시민들이 참가해 뜻을 함께 했다. 시진=이준엽 기자

"건강 지키고, 이웃 돕고, 환경도 살리고"

동국대 '이웃사랑 나누기 서울 국제 걷기대회'와 경주 '남산 산길 마라톤대회', 월정사 '오대산 천년 숲길 걷기대회' 등 불교계가 주최하는 걷기 · 마라톤대회가 곳곳에서 펼쳐진다.

#1 5월 9일 여의도 공원 문화광장에서는 온 가족이 참가할 수 있는 걷기대회가 열린다. 동국대가 주최하는 이날 행사는 '시민에게는 심신건강을, 소외된 이웃에게는 자비를, 자연에게는 깨끗한 환경을'이라는 캐치프레이를 가지고 (사)한국체육진흥회와 '사랑의 전화 복지법인'과 함께 여는 걷기대회다.

9시 30분 준비운동으로 도심 청소, 오물 수거 등 깨끗한 서울환경 캠페인을 펼치고, 10시부터는 각자에게 맞는 10km, 20km, 30km 코스에서 신나게 걷다보면 가족 사랑 또한 커지지 않을까. 게다가 참가비 3천원의 일부는 이웃사랑 기금을 전달된다니 이보다 더 좋을 순 없다. 참가희망자는 참가신청서를 받아 참가비와 함께 제출하면 된다. (02)2260-3120

#2 부처님오신날을 기념해서 경주 불국사, 직지사, 은해사, 동화사, 고운사 등 경북 지역 조계종 5대 본사가 '경주 마라톤대회'를 공동 주최한다. 5월 16일 오전 10시에 개최되는 대회는 하프코스, 10km 코스, 걷기 5km코스 3종목으로 나눠 진행된다. 특히 5km 걷기코스는 마라톤을 하기에는 다소 불편한 장애인들을 위해 마련했다. 천년고도의 멋이 살아 숨쉬는 경주에서 마음껏 뛰어보면 어떨까. 행사 참가는 물론 몸이 불편한 이웃들을 위해 자원봉사자로 참여해보는 것도 뜻 깊을 듯. (054)775-0408

#3 환경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걷기를 통해 자아를 발견하자는 취지의 월정사의 '오대산 천년의 숲길 걷기대회'는 5월 16일 월정사를 시작으로 전나무 숲길과 반야교, 상원사 선재농장, 오대산장 등 10km 가량의 숲길에서 진행된다. 단거리 코스라 연인끼리 가족끼리 손을 잡고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며 걷기에 좋다. 또한 상원사에서는 간단한 회향식과 함께 사진전 및 회화전, 선원 참배 등 다양한 부대 행사도 진행하니 오감만족. 참가자 제한은 없으며, 참가 희망자는 행사 당일 오전 9시 30분까지 월정사 매표소에서 참가 번호표를 받으면 된다. (033)332-6661

#4 9월 12일에는 서울광역신도회가 여의도 한강시민공원에서 개최하는 '제1회 달마마라톤 대회'가 있다. 대회는 '나눔'을 주제로 개최되며, 마라톤 마니아를 위한 하프코스와 생활인의 건강을 위한 10km코스, 여성들을 위한 5km코스, 가족단위 참가자를 위한 4.8km, 1.8km 코스가 마련된다. (02)736-7785

김은경 기자 ilpck@buddhapia.com

20면 상식 퍼즐 정답

반	야		대		조		실	기
말	단	사	원		사	문	유	관
	법		각	황	전		불	
제	석	천		제		독	성	각
		왕	궁		교	사		
일	주	문		전		진	일	보
	마		천	진	불		일	
산	간	벽	지		가	가	호	호
수	산		인		득		일	수

화려함의 절정 중국 등축제

과천 서울대공원 5월 30일까지


중국등축제에서 전시되는 초대형 전시물 '천수관음'.

밤하늘을 화려하게 수놓은 중국 등 구경을 가보자.

사천성 자공시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자공등(燈)무관리위원회가 등 제작 분야에서 내로라 하는 기술자 120명을 모아, 과천 서울대공원 특설전시장에 화물컨테이너 25개 분량의 크고 작은 등으로 '작은 중국'을 세웠다. 바로 주한중국문화원과 대전중국문화원 등이 주최하는 초대형등축제 '천하제일 중국등축제' 현장. 축제는 당나라때부터 발전되어온 중국 대표적인 문화유산, 전등을 필두로 2m 높이의 용주예화, 100m 길이의 동방자룡, 중국 법문사의 부처를 응용한 사면불상 등 30여개의 초대형 전시물들이 위용을 뽐낸다.행사는 5월 30일까지. (02)455-5331

서울 전통문화 배워볼까

박물관대학 5월 23일부터 목요 강좌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중심지인 서울의 역사와 문화를 알아볼 수 있는 기회. 서울역사박물관(관장 김우림)이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5월 13일부터 7월 15일까지 매주 목요일 '박물관대학 제5기 과정'을 관내 1층 강당에서 운영한다.

강좌는 '서울 전통문화 이해'라는 주제로 진행되며, 서울의 역사와 문화(4월 13일, 명지대 교육학습개발원 홍순민 교수), 고고학적으로 본 백제의 건국과정(5월 20일, 전남대 인류학과 임영진 교수), 풍수로 보는 한양(5월 27일, 대구한의대 역사관광학부 조인철 교수), 한국의 불교회화(6월 3일, 동국대 미술사학과 정우택 교수) 등 10개의 주제로 진행된다.

신청은 5월 7일까지 홈페이지(www.museum.seoul.kr)에서 하면 된다. (02)724-0191

방송 프로그램

BBS 불교방송

06:05 불교강좌
07:55 우리들의 찬불가
11:00 행복스튜디오
14:45 고승열전
17:00 무명을 밝히고
18:15 유쾌한 저녁길
22:00 영화음악실

서울 FM 101.9 MHZ
부산 FM 89.9 MHZ
광주 FM 89.7 MHZ
대구 FM 94.5 MHZ
청주 FM 96.7 MHZ
춘천 FM 100.1 MHZ

Btn 불교TV <ch 32>

21일 08:20 신영희와 함께하는 국악한마당
22일 09:20 지운 스님의 기신론 강의
23일 12:10 향토음식기행
24일 09:20 다시듣는 법문
25일 07:50 참선요가
26일 08:20 열린마당
27일 08:20 불교문화특강

하이라이트

■**불교방송**: 불교강좌(4월 28일 06:05~06:25)- 현대사회의 현상과 원리를 불교적 관점으로 해설하는 프로그램. 이날 방송에는 한국빠알리성전협회 전재성 회장이 출연한다. 빨리어 대장경 <쌍윳다니까야>를 통해 일상의 문제들을 바라보고 성찰하는 시간을 갖는다.

■**불교텔레비전**: 신영희의 소리한마당 얼씨구 좋다!(4월 21일 08:20~09:10)- 국악인 신영희 씨의 진행으로 민요 등 전통음악을 직접 배우고 체험하는 프로그램. 이날 방송에는 19세기 후반에 대중들이 즐겨 불렀다는 굿거리장단의 제주민요 '오돌또기'를 함께 배운다.

클릭! 불교문화상품
불교전문쇼핑몰 mahamall.co.kr
연꽃리본

봉축행사용 연꽃리본. 기존의 포장용 리본으로 만든 봉축행사 리본과 달리 빨강, 오렌지, 분홍빛의 수려한 연꽃이 봉축의 뜻을 더해준다. 리본은 고급형과 일반형 두 가지로 나뉘며, 일반형은 노랑, 연분홍, 연보라 3가지 색. 1백개 1세트로 가격 고급형 3만 5천원. 일반형 2만 5천원. (02)732-1520



게시판

공부합시다

주말 선수련회 길상사가 4월 24일부터 25일 양일간 시민선방 길상선원에서 길상선원 원장 지수 스님을 법사로 개인수련 점검 및 참선 실참의 시간을 갖는다. (020741-4696

자비의 전화 카운슬러 대학 동화사 부설 '자비의 전화'가 5월 4일부터 한 달간 제 13기 카운슬러 대학을 운영한다. 매주 화요일 금요일 주 2회 교육으로 진행되는 카운슬러 대학은 5월 4일 경북대학교 철학과 김윤동 교수가 '철학과 인간문제'라는 주제로 첫 강의를 시작하며, 사회변화와 가족관계, 상담에서 본 인간심리, 인간과 종교문제, 전화상담이론, 상담수칙, 상담기법 등을 강의한다. (053)654-9704

주부만화예술강좌(사진) 부천만화정보센터가 5월 4일부터 7월 24일까지 '주부만화예술대학'을 운영한다. 강좌는 이현세, 한승원, 김수정, 이두호 등 유명 만화가에 의한 주제별 특강과 교사의 통합적 실기수업 등으로 이뤄지며, 오후 3시부터 4시까지 주1회 2시간동안 진행된다. 신청접수는 4월 30일까지. (032)320-3745



방송작가교육 한국방송작가협회 교육원이 제29기 방송작가 교육과정을 진행한다. 교육은 드라마, 시트콤, 다큐멘터리, 라디오, 쇼 · 오락, 코미디 부분으로 나눠지며, 교육기간은 주1회 2시간씩 6개월 동안 진행된다. 접수는 4월 23일까지. (02)780-0003

함께 해요

서운암 들꽃축제 서운암이 4월 17일부터 23일까지 '제3회 서운암 들꽃축제'를 개최한다. 축제 기간동안 서운암에서는 '들꽃사진 전시회' '들꽃사랑 시화전' '들꽃 분재 전시회' '사찰음식 전시회 등이 열리며, 들꽃, 차, 도자기, 천연염색 등의 전시 및 판매 행사도 진행된다. (055)382-7094

무에타이 교실 몰운대종합사회복지관이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후 8시, 관내에서 베트남 외국인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체력증진, 자기방어 능력향상을 위한 무에타이 교실을 운영한다. (051)264-9033

동물원 사진공모전 (사진) 서울대공원이 개원 20주년을 맞아 '대한민국 동물원 100년 사진공모전'을 개최한다. 창경원과 서울대공원을 배경으로 한 역사사진 및 창경원에서 찍은 잊지 못할 추억사진, 창경원 동물들과 함께 한 사진 등 창경원 개원 당시부터 지금까지의 사진들을 사연과 함께 5월 10일까지 서울대공원으로 보내면 된다. 문의는 홈페이지(http://grandpark.seoul.go.kr)로.



충무공 탄신기념 군악대 연주회 해군군악대가 충무공 탄신 제459주년을 맞아 4월 19일부터 5월 7일까지 전국 7개 도시 순회 연주회를 개최한다. 4월 19일 경기도 과천을 시작으로 서울(21일), 진주(26일), 대전(28일), 부산(30일), 전주(5월 4일), 칠곡(5월 7일) 등에서 차례로 열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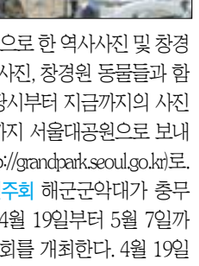
직업훈련교육 과천시가 취업을 희망하는 저소득층 여성을 상대로 직업교육을 실시한다. 교육과목은 한식조리기능사 자격증 과정, 창업요리 전문과정, 창업교육 등이며, 4월 28일까지 신청서를 접수해야 한다. 단, 20명 이내. (02)507-6319

한강사랑 그림그리기 대회 환경보전협회가 서울 · 인천 · 경기 · 강원 · 충북지역 어린이와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강사랑 그림그리기 대회'를 개최한다. 작품은 한강의 생태계 등 아름다운 사계와 수질보전활동, 물사랑 정신을 고취시킬 작품이면 되며, 5월 10일까지 우편으로 보내면 된다. 재료선택은 자유롭게 할 수 있다. (02)2249-5265

훌륭한 어버이 추천 광진노인종합복지관이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광진구 내에 거주하는 어르신 중 모범이 되는 어버이를 4월 22일까지 추천받는다. 추천을 받은 모범 어버이는 5월중 열리는 '어버이날 기념식 및 경로잔치' 때 표창하게 된다. (02)466-6242

즐겁게 떠나요

장애인 세상나들이(사진) 조계종사회복지재단이 장애인의 날을 받아 4월 20일부터 22일까지 2박 3일간 경주 불국사, 석굴암 등지로 '신라천년의 아름다운 고도 경주를 찾아서' 문화기행을 떠난다. (02)723-5101



태안반도 관광열차 철도청이 4월 25일 '태안반도 유람선-수덕사 관광열차'를 당일코스로 운영한다. 여행권은 비타민여행사(02-736-9111)와 청송여행사(02-853-7787)에서 판매. (02)1544-7788

칠갑산 벚꽃관광 잡사여행의 길잡이 터사랑이 4월 25일 청양 칠갑산 장곡사와 마곡사, 외암리 민속마을 등지로 답사여행을 떠난다. 칠갑산의 산철쭉과 벚꽃 등 수려한 경관과 함께 우리 조상의 생활상을 엿볼 수 있는 기회. 성인 3만 8천원, 어린이 3만 3천원. (0207222-9747

왜 쓰레기 분리해야 하냐구요?

매립지 가보면 압니다

매주 월 · 수 · 금이 되면 각 가정은 수거 시간에 맞춰 쓰레기를 내놓느라 분주하다. 음식물 쓰레기, 재활용 등 분리배출 해야 하는 필요성은 알지만 귀찮은 마음에 슬쩍 한데 묶어 내놓기도 한다.

하지만 2005년부터는 음식물쓰레기의 수도권매립지 반입이 금지돼 분리수거를 철저히 하지 않으면 쓰레기를 마음대로 버릴 수도 없게 됐다. 젖은 것뿐만 아니라 건조시킨 음식물쓰레기라도 매립지에 반입할 수 없어 지자체마다 따로 자원화시설 마련해 퇴비화 시킬 예정. 하지만 무엇보다도 근본적인 해결방법은 쓰레기량을 줄이는 것이다. 현장견학체험 교육과 쓰레기 제로 토론회를 통해 각종 생활폐기물을 줄이는 방법을 배워보자.



현재 월드컵공원으로 생태현장이 된 옛 난지도 쓰레기매립지의 모습. 사진제공=월드컵공원 환경보존과



서울시와 각종 환경시설을 돌아보는 주부들. 사진제공=서울시 환경과

내년부터 음식쓰레기 매립지 반입금지… 줄이는게 최선책

'직접 보고 실천하자' 서울시, 환경기초시설 무료견학 프로그램 운영

환경기초시설 현장견학체험 프로그램

백문(百聞)이 불여일견(不如一見). 쓰레기를 줄이려면 쓰레기가 어떤 과정으로 처리되는지를 먼저 알아야 하지 않을까. 서울시는 이러한 취지에서 4월 27일부터 7월 20일까지 서울시 내의 쓰레기처리장, 하수처리장 등의 환경기초시설을 무료로 견학하는 현장견학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 프로그램은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쓰레기매립지, 자원회수시설, 하수처리장, 정수장, 생태하천, 생태공원 등 19개 환경관련 시설에서 진행된다. 학생 및 가족단위의 시민들이 직접 환경시설을 돌아보고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각자의 역할을 현장에서 배우게 된다. 지난해에도 150회의 견학교육을 통해 6천여 명의 시민이 쓰레기 분리의 필요성을 깨닫는 기회를 가졌다. 올해는 교육시간 200회, 참여인원 8천여 명으로 규모를 더욱 확대,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음식물쓰레기 처리문제 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강동 퇴비화시설과 서남 하수병합시설 등이 새로운 견학장소로 추가됐다. 또 김포 수도권매립지, 월드컵공원(옛 난지도) 등 쓰레기매립지에서 쓰레기 매립과정과 매립지의 활용사례를 살펴본다. 이밖에도 양천 · 노원 · 강남 등의 자원회수시설, 탄천 · 중랑 · 난지 · 서남 하수처리장, 영등포 · 강북 · 뚝도 · 구의 · 암사정수장, 길동자연생태공원, 선유도공원 등도 방문한다.

현장체험 위주지만 이론교육도 포함됐다. 각 환경시설을 돌아보는 이동 시간을 활용, 전문 강사를 통해 일반환경교육을 받게 된다. 서울시 환경과 홈페이지(http://env.seoul.go.kr)나 서울시 인터넷 통합예약시스템을 통해 예약하면 날짜와 견학시설을 선택할 수 있다. (02)307-9515~6

불교환경교육원 쓰레기 제로 토론회

쓰레기를 효과적으로 줄인 사례와 전문가들의 의견도 참고해보자. 한국불교환경교육원(www.jungto.org)은 4월 30일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쓰레기제로운동과 대안적 생활양식' 토론회를 연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1999년부터 정토회가 펼쳐온 '쓰레기제로운동'의 실천사례와 결과가 공개된다. 정토회는 5년 동안 분리배출은 기본이고 '화장지 대신 뒷물하기', '면생리대 쓰기', '지렁이를 이용한 음식물쓰레기 퇴비화' 등 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해 왔다. 이를 통해 정토회관 외부로 음식물 쓰레기가 전혀 배출되지 않는 성과도 얻어냈다.

이밖에도 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향후 과제와 전망을 모색하는 전문가의 발표와 토론도 이어질 예정이다. 가정 뿐 아니라 사회 전체의 쓰레기를 줄일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02)587-8997

한상희 기자 hansang@buddhapia.com

환경가계부 모니터 모집

대한주부클럽연합회는 5월 10일까지 환경가계부를 작성할 주부모니터를 모집한다. 환경가계부는 생활폐기물 감량을 위해 음식물쓰레기 배출량, 합성세제 사용량, 재활용품 분리배출 여부, 종량제 봉투사용량 등을 적는 기록서다. 선발된 주부모니터는 6월부터 10월까지 5개월 간 가계부를 기록하게 된다. (02)752-4227

자녀와 동요부르기 대회

인천시 서구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제13회 자녀와 함께 동요부르기 대회'를 개최한다. 18세 미만 어린이나 청소년, 부모가 포함된 인천지역 가족이면 누구나 4월 24일까지 접수가능하다. 예선은 5월 1일 오후 1시 서구문화회관에서 열리며, 예선통과자는 15일 본선무대에 오르게 된다. (032)560-4323

무료 소자본 창업교육

경기도와 창업e닷컴(www.changupe.com)은 4월 26일부터 5일 동안 고양시 여성회관에서 무료 소자본 창업교육을 실시한다.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성을 비롯해 청년 실직자, 명퇴자, 중장년층 전직 희망자를 대상으로 열린다. 참가를 희망하는 사람은 경기도 북부 시 · 군 · 구 지역경제과에 접수하면 된다.

여성 가장이 참가할 경우에는 점포 임차보증금으로 5000만원까지 연리 3%로 융자도 해준다. 문의 경기도 제2청사 (031)850-2332, 고양시 (031)961-3005

현장에서 만난 우바이

'아줌마는 나라의 기둥' 김용숙 대표



"'아나기 운동' 내 삶의 기둥"

사람을 바꾸는 교육·집필활동 가장 보람

탤런트, 스튜어디스, 남대문 시장 상인, 여성민간단체 대표…. 여러 생을 거쳐 가졌을 법한 다양한 직업을 이 사람은 이생에서 한꺼번에 경험했다. '아줌마는 나라의 기둥(이하 아나기)' 김용숙(52) 대표. 평범한 사람에게는 그가 했던 일 중 어떤 것도 쉽지 않은 기회처럼 보인다. 하지만 정작 김 대표는 자신의 모든 경험은 현재 진행 중인 아나기 운동의 준비과정이었다고 말한다.

"탤런트, 스튜어디스 시험에서 수차례 낙방하는 등 실패도 했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원래 호기심이 많고 기운이 넘치는 성격이라 한번에 그치지 않고 계속 도전했나 봅니다. 그러다 아줌마들의 의식을 바꾸는 아나기 운동을 시작하면서 처음으로 천직임을 느꼈습니다."

1999년 2백여명의 아줌마 회원들로 출범한 아나기는 한국 사회에 '아줌마'라는 존재를 다시금 일깨워 준 단체다. 가정의 주체로서 아줌마들의 정체성과 자립심을 심어주고, 1999년 '민원서류쓰기 캠페인', 2002년 '아나기 월드 홈스테이 행사' 등을 통해 아줌마들의 적극적 사회활동의 기회도 마련했다. 이같은 아나기의 활동은 김 대표의 철학에서 비롯됐다.

"항상 문제에 대한 올바른 대안을 제시하는 방법에 대해 고민해 왔어요. 결국 생활 실천적이고 합리적인 부처님의 가르침을 사람들에게 쉽게 전달하는 것이 제 역할임을 깨달았습니다."

아나기 활동의 기본이 되는 '아줌마 헌장'에서도 김 대표의 생각을 엿볼 수 있다. 남의 어려움을 내 일처럼 여기고 봉사하는 것, 환경이나 남의 탓을 하지 않고 스스로 해결책을 찾는 것 등 김 대표의 말처럼 불법을 일상적인 표현으로 설명해 놓은 듯 하다. 현재 아나기 아저씨회 명예회장을 맡고 있는 이웃종교인 이한택 주교(가톨릭학원 이사장)도 처음 이 헌장에 감명받고 아나기와 인연을 맺게 됐다.

요즘도 김 대표는 <금강경>을 중심으로 불경을 공부하며 틈틈이 근처 사찰을 찾는다. 절에 가는 것은 무엇을 바라는 기도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에게 만족하는 삶과 하심을 일깨우기 위해서다. '마음닦기'를 바탕으로 사회봉사활동과 아나기 운동을 지속하려는 김 대표의 노력이기도 하다.

"아나기는 올해부터 '사람을 바꾸는' 교육을 목표로 결혼 바로하기 운동, 실천하는 부모자격증 운동을 벌여나갈 계획입니다. 사람에게 올바른 생각을 심어주고 키워내는 일이 가장 의미 있는 일이니까요."

이를 위해 김 대표는 지난 3월 <결혼 대사기극>을 펴냈다. 이혼율이 지나치게 높은 우리사회에 경종을 울리고 결혼을 제대로 알고 하자는 주제의 책이다. 그는 또 경희대 NGO 대학원에도 입학하고, 개인상담 실무교육을 받는 등 사람들에게 좋은 생각을 심어주는 준비된 활동가가 되기 위해 끊임없이 정진하고 있다. 한상희 기자

해동승복

직접 만나보세요!! 품질로 보답하겠습니다

겹누비면(먹물)
적삼, 조끼, 바지 180,000
동방, 바지 180,000
두루막 250,000

면(먹물), 광목
적삼, 조끼, 바지 160,000
동방, 바지 160,000
두루막 140,000

무 명
적삼, 조끼, 바지 220,000 ~ 300,000
동방, 바지 220,000 ~ 300,000
두루막 180,000 ~ 250,000

모 직
적삼, 조끼, 바지 160,000 ~ 200,000
동방, 바지 160,000 ~ 200,000
두루막 140,000 ~ 170,000

마(먹물)
적삼, 조끼, 바지 170,000
동방, 바지 170,000
두루막 140,000

하복지-구김없고세탁 용이
적삼, 조끼, 바지 150,000
동방, 바지 150,000
두루막 130,000

※ 장삼 200,000 ~ 260,000 조끼 몸빼 60,000 ~ 셔츠 30,000 ~

대구 고속터미널 ↔ 동부정류장 (중간)
대구광역시 동구 신천 4동 399-1
TEL : 053)741-8131
FAX : 053)741-8132
H.P : 011)549-8130

대구 대승불교대학 부설 불교의식 대학
제2기 불교의식 (범음 · 범패)
수강생 모집
5월초 개강
본 대학은 대승불교의 수행 이념을 전파코자 설립한 교육기관으로서 갑신(甲申)년에 경전 강의와 함께 불교의식반 신입(수강)생을 모집합니다.

과 정
가 초급반 (3개월) : (매주, 수요일 오후 3시 ~ 5시)
사물 (목탁, 요령, 태징, 법고) 다루기
도량석, 쇳송, 상단예불, 각단예불, 향수해례, 행선축원.
신중청, 관음기도법, 산왕기도…
나 중급반 (3개월) : (매주, 화요일 오후 3시 ~ 5시)
상주권공, 대령관욕, 신중작법, 지장청, 관음시식,
시다림법, 점안의식, 방생의식, 구병시식
다 작법반 (6개월) : (매주, 화요일 오후 5시 ~ 6시 30분)
천수바라, 다게작법, 오공양작법, 요잡바라, 삼귀의작법
(일명 바라 나비춤)
라 고급반 (6개월) : 영산재, 예수재, 수륙재 등… (희망자 소수)
대구 대승불교대학 부설 범음 · 범패 의식교육원 · 정토사
신청 문의
대구광역시 달서구 송현동 1914-5 (월촌역4거리)
전화 : 053)622-0333 / 011-699-9120

승복 법복 안내
확실한 품질 · 만족할 가격
1. 고급 모직(물세탁)
적삼, 바지 130,000 동방, 바지 160,000
두루막 130,000
2. 면,광목(먹물, 손염색)
적삼, 바지 100,000 동방, 바지 130,000
두루막 100,000
3. 면레프사(먹물염색)
적삼, 바지 130,000 동방, 바지 150,000
두루막 130,000
4. 무명(먹물, 손염색)
적삼, 바지 180,000 동방, 바지 220,000
두루막 180,000
5. 마 : 한국산 100% (먹물, 손염색)
적삼, 바지 140,000 동방, 바지 160,000
두루막 140,000
6. 장삼 고급모직 200,000
경남제일모직 250,000
7. 가사 대가사 150,000 / 반가사 70,000
◆ 유사제품과 비교채 보십시요 ◆
전화주시면 상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위치 : 대구 중구정 뒤편 [동삼아파트 지하 공장] (지역판매점 모집)
30년 전통의 승복 전문 업체 원방각
아름승복
전시장 : 053-256-0108
공 장 : 053-425-4449
휴대폰 : 016-597-4449
011-809-2398
주소 : 대구광역시 중구 동인 3가 88번지(동삼아파트 지하 공장)





5월에 열리는 지역 '차 축제'

전국 茶香가득…온몸으로 느껴봐!

문경찻사발축전
(5월 1일~9일)


도자기 그림그리기 체험행사

문경시는 그동안 지역적으로 열려왔던 한국전통찻사발축전과 문경산악체전, 전국관광하프마라톤대회, 전국한시백일장 등을 '문경새재대축제'라는 이름 아래 5월 1일부터 9일까지 문경새재 일원에서 펼칠 예정이다.

'문경전통찻사발축제'에서 '한국전통찻사발축전'으로 명칭을 변경한 찻사발축전은 올해로 6회째. 찻사발축전의 특징은 전통 망댕이 가마에서 생산되는 찻사발 등의 도자기를 선보이는 것이다. 올해는 일본과 중국의 도예가를 초청한 '한중일 도자기국제교류전'과 학술세미나, 다례시연 등도 마련된다. 또한 관람객들이 망댕이가마 체험행사, 도자기 제작체험, 도자기 그림그리기 등에 직접 참여할 수 있다. 5월 7일 문경관광호텔에서 개최되는 '문경전통도자기 학술세미나'에서는 윤용이(명지대) 교수가 '한국전통 찻사발의 이해'를 주제로 기조강연을 한다. 유태근(문경대 도자기공예과) 교수는 '문경전통도자기의 발전과정과 전망'을, 정지원(문경대 호텔관광경영학과) 교수는 '문경전통도자기의 관광상품개발방안'을 주제로 발표할 예정이다.

찻사발, 도자기교류전 등 5월 5일 봉암사 일반에 개방

특히 행사 기간 중인 5월 5일 하루 동안 축제 참가자에 한해 봉암사가 개방될 예정이어서 많은 이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1년에 한번 초파일에만 일반인의 출입을 허용하고 있는 봉암사의 산문이 열리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054)550-6393

문경 전통찻사발축전 www.fst.mg21.go.kr

일자	행사내용	장소
5/1	11:00 개막식 16:00 문경도예인 추모헌다례	도자기전시관
2	11:00 유치부 배례시연, 초등부 다례시연 14:00 다례시연(성균관대 예절다도학과)	도자기전시관
3	14:00 일본 우라센케 다도시범, 한국선비차 다례시연	도자기전시관
4	14:00 중국 다례시연, 오방차 다례시연	도자기전시관
5	11:00 가족다례경연대회 14:00 중국 오룡차 시연 어린이 생활다례, 고려차접빈다례	도자기전시관
6	14:00 선학다례시연 및 운화차 다례시연	도자기전시관
7	14:00 전통도자기학술세미나 14:00 연차시연 및 전차 접빈다례	문경관광호텔 도자기전시관
8	11:00 유치부 배례시연, 중등부 행다시연 14:00 전통 성인식	도자기전시관

보성 다향제
(5월 5일~9일)


차아가씨들의 다례경연대회

올해로 30주년을 맞는 보성 다향제는 5월 5일 보성다원에서 열리는 풍다기원제 및 다신제를 시작으로 9일까지 펼쳐진다. 다신제의 주제는 '차 · 사람 · 자연의 열린 만남'.

대원사와 보성다향제추진위원회과 공동으로 주관하는 '국제차문화교류전'에서는 한중일 삼국의 전통다례시연과 종교음악 공연 등이 선보인다. 차를 이용한 각종 음식들을 맛보고 차음식 강좌도 들을 수 있는 '차음식 페스티벌'도 눈길을 끈다. 관람객들은 행사 기간 동안 보성 차밭에서 찻잎 따기와 차 만들기를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다. 이 밖에 명원문화재단의 궁중 다례 시연, 한국차문화회의 생활 다례 시연, 대원사의 중국 황실 다례 시연 등도 놓칠 수 없는 볼거리다.

'차, 사람, 자연의 열린 만남' 다례 종교음악 차음식 눈길

한편 보성군은 2007년까지 '한국茶 · 소리 문화공원'을 조성한다는 목표 아래 현재 90여 억 원을 투자해 녹차밭 조성과 차문화회관, 다도체험장, 야외공연장 등을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061)852-2181

보성다향제 www.boseng.jeonnam.kr

일정	행사내용	장소
5/5	08:00 다신제(풍다기원제 및 제례음악공연) 13:00 국제차문화교류전 15:00 중국황실다례시연	보성다원 실내체육관 대원사
6	13:00 궁중다례시연	공설운동장
7	10:00 찻잎 따기 체험 및 강연 13:00 생활다례시연 13:00 학생 차예절 경연대회	보성다원 체육공원 내 보성소리전수관
6~7	차문화 차산업 세미나	보성소리전수관
8	전국차인의 밤	실내체육관
5~9	차아가씨 선발대회 09:00~17:30 국제명차 선정대회 및 전시 10:00~18:00 국제차요리 페스티벌 14:00 차밭 작은 콘서트	실내체육관 체육공원 내 별도부스 체육공원 내 별도부스 보성다원 내 특설무대

하동야생차축제
(5월 20일~23일)


찻사발 빛기 체험

올해부터 세계적인 문화, 관광축제로 거듭나는 제9회 하동야생차문화축제에서는 무려 60여 개에 달하는 행사가 펼쳐진다.

5월 20일부터 23일까지 하동군 화개면 운수리 차 시배지 일원과 진교면 찻사발 도요지에서 열리는 이번 행사에서는 관광객들이 차를 따고 만들기까지의 과정을 체험할 수 있다. 또 찻사발 빛기, 녹차 떡메치기, 햇차 무료시음 등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도 마련된다. 제2회 야생차국악동요제와 올해의 명차 선정, 야생차 학술세미나 찻사발 빛기 체험, 전국어린이 차예절경연대회 등이 펼쳐지는 행사장도 찾아보자. 화개장터에서 쌍계사를 지나 법왕리 신흥부락에 이르는 지리산 자락에 펼쳐진 20만평 규모의 야생 차밭도 둘러볼 만하다.

60여 행사, 세계적 축제로 20만평 차밭기행 둘러볼 만

지난 2000년 문화관광부 지정문화축제로 선정된 하동야생차문화축제는 매년 15만 여 명의 관람객이 찾을 정도로 큰 인기를 끌고 있다. (055)880-2114

글=여수령 기자 snoopy@buddhapia.com

하동야생차축제 www.hadong.go.kr

일정	행사내용	장소
5/20	14:00 찻사발축제 개막 15:00 개막축하 길놀이 20:00 전야제	진교찻사발 도요지 쌍계사 일원 화개면 운수리 야생차축제 행사장
21	10:00 개막식 11:00 야생차음식축제, 야생차글짓기 및 사생대회 12:00 차시배지 다례식 18:00 차 한잔의 향연 19:00 야생차 가요제	야생차축제 행사장 부대행사장 차시배지 일원 야생차축제 행사장 주무대
22	11:00 전국어린이 차예절 경연대회 13:00 하동야생차다례시연 15:00 야생차세미나	야생차축제 행사장 주무대 차문화센터
23	10:00 야생녹차국악동요제 찻잎따기 대회 14:00 올해의 명차선정	야생차축제행사장 주무대 차시배지 차문화센터

차 단신

(주)태평양 '오설록' 새단장
삼국~조선시대 잔, 차문화실 선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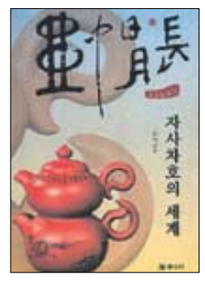

최근 재개관한 제주도 차박물관 내부 전경

(주)태평양이 운영하는 제주도 차 박물관 '오 설록'이 새단장을 했다. '오 설록'은 최근 삼국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시대별 잔 150여 점을 전시하는 '잔(盞) 갤러리'와 한국 차문화 변천사와 다기 명품 등을 소개하는 '차 문화실'을 새롭게 선보였다. 차문화실은 '조선시대 차의 부활과 초의, 추사, 다산 3인의 다인' '한국 차문화의 변천사' '차의 전파경로와 세계의 다원' '한국 30인의 다기명품전' '오설록이 제안하는 다실(茶室)' '18~20세기의 세계의 찻잔' '한국 · 중국 · 일본의 차의 종류 전시' 등을 테마로 꾸며져 있다. 큐레이터 문선주 씨는 "찻잔을 통해 당시의 차생활과 미의식을 엿볼 수 있다"고 말한다. 박물관은 제주도 남제주군 안덕면에 위치하고 있으며 개관시간은 오전 10시~오후 5시, 관람은 무료다. (064)794-5312

한편 태평양은 지난 4월 10일 서울 명동에 녹차 카페 '오 설록 티 하우스'를 열었다. 이 카페는 80여 평 규모에 90여 석을 갖추고 있으며 녹차를 이용한 다양한 음료를 비롯해 녹차아이스크림, 녹차를 넣어 만든 빵과 케이크 등을 선보이고 있다. 태평양은 하반기에 서울 강남에 2호점을 개점한뒤 프랜차이즈로 사업을 확대해 나갈 것을 검토 중이다.

'자사차호의 세계' 발간
제작, 고르는 방법, 유파 분류 설명

오늘날 우리나라 차인들 사이에서도 널리 쓰이는 자사호(紫砂壺)에 관한 정보를 담은 책 <자사차호의 세계>가 나왔다.



경기도 고양시에서 지유명차 일산 차예관을 운영하고 있는 문수 씨가 엮은 이 책에서는 자사호의 유래와 제작 방법, 고르는 법, 사용과 관리법 등을 비롯해 현대에 이르기까지 자사호의 여러 유파들을 분류해 설명하고 있다. 도서출판 바나리, 2만원. (02)3210-2634

여수령 기자

기사 넘쳐 '우리 사찰 차 모임' 쉽니다

봉축
2548년 부처님오신날



• 특허.실용신안필. 상표의장출원

금강저 건강밸트

영험의 복을 부르는 승리의 금강저 밸트

안전의 선물! 승리의 선물!
건강의 선물! 합격의 선물!

삼고 금강저(金剛杵)

삼고 금강저는 고대 인도에서 인드라신(神)의 밀교 의식에 쓰이는 무기로 불퇴전의 강한 보리심을 상징한다. 밀교의 만다라에는 금강부의 여러존상이 모두 금강저를 가지고 있으며 금강역사는 부처님의 위신력을 받들어 악귀와 잡귀가 보기만 해도 도망치며 부처님의 지혜를 받은 성구로 금강저 앞에는 대적할 상대가 없다는 세상에서 제일 강한 지혜의 무기를 뜻한다.

삼고 금강저의 영험!

불경에 입각해 부처님 성구를 전문으로 제작하는 관음예술원에서 **불퇴전의 승리의 수호신인 삼고 금강저를 남자 불자님들께서 항상 몸에 지니고 다닐 수 있도록 순금 도금하여 밸트에 넣어 축원 불공을 마치고 시판하고 있습니다. 삼고 금강저**는 금강부의 여러 존상들이 모두 가지고 있던 것으로 악귀와 잡귀가 보기만 해도 도망치고 세상 사는 동안 악한사람을 만나지 않게 하고 화를 미리 쫓으며 금강의 지혜를 얻어 승리한다는 삼고 금강저 입니다. 또한 금강저 밸트에는 신진대사를 촉진하고 허리와 장을 튼튼하게 하는 강력한 **氣와 원적외선**이 방출되는 **건강 특허**를 받은 기능성 최고급 건강자동 밸트입니다. 직장인 불자님께는 화를 미리 쫓으며, 학생과 수험생에게는 부처님의 지혜를 얻어 합격을, 위험한 일을 하는 불자님께는 안전을, 사업을 하는 불자님께는 승리를 안겨주는 부처님의 영험이 담겨진 안전밸트 입니다.

이런 분은 꼭 사용하세요

- 사업을 하고 계신 분
- 직장에 다니시는 분
- 경찰직에 근무 하는 분
- 중 · 고등학생을 두신 분
- 군 장교로 복무 중인 분
- 딸 자녀를 두신 분
- 공무원으로 위험한일을 하는 분
- 운전을 많이 하는 분
- 위험한 일에 종사 하시는 분
- 해외 여행을 자주 하시는 분

부처님 오신날 기념 삼고금강저 특별증정



가족의 수호신 삼고 금강저

1분 앞도 모르는 험한 세상 납치, 살인, 간음, 강도, 유괴, 사고, 근심과 걱정 속에 사는 현실입니다. 삼고 금강저는 부처님 법구 중 법구로서 닥쳐올 화를 미리 피하게 하고 악한 사람을 쫓으며 부처님의 지혜인 금강의 지혜를 얻어 승리하며 가족을 지키고 자신을 지켜주는 불경에 입각한 수호신입니다. 2548년 부처님 오신 날을 기념하고 금강저 밸트 출시를 기념하기 위하여 밸트 구입 고객님께 평생 지니고 다닐 수 있도록 순금 도금한 삼고 금강저를 축원 불공을 마치고 특별 증정합니다. 여성께는 핸드백 속에 학생은 가방속에 노인과 어린이는 주머니속에 항상 넣고 다닐 수 있도록 제작 되었습니다. ※별도 구입시 20,000원 추가 하시면 됩니다.

밸트에서 강력한 氣와 원적외선 발산!!
불심도 튼튼! 장도 튼튼! 허리도 튼튼!

금강저 밸트 신청전화 080-330-7555

전화로 주소와 성명을 알려 주시면 우체국 특급택배로 특별선물 순금 도금한 여성핸드백용 삼고 금강저와 함께 정성껏 보내 드립니다. 대금65,000원은 구좌로 입금하시면 됩니다. 농협: 906-12-369914 김현석
※일요일 공휴일도 신청하시면 됩니다.

관 음 예 술 원

안팎 경계를 몽땅 뿌리에다 놓고 관하라

무엇을 놓고 관하라는지요?

문 놓고 관하는 것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스님께서는 안팎이 둘이 아니니 더불어서 함께 다 놔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자기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생각이나 혹은 밖에서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을 보는 그런 것을 다 놔야 된다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스님, 구체적으로 무엇을 놓아야 하는 것이고, 또 무엇을 관하라고 하시는 것인지요.

답 이미 알고 있으면서도 또 질문을 하는군요. 우리가 관한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의 근본 뿌리가 그냥 배겨 있듯이, 나무 이파리가 바람이 불면 흩어지는 것처럼 우리가 살면서도 흔들리는 안팎 경계들을 몽땅, 그 자체를 뿌리에다가 놓고 관하라고 하는 소리입니다. 뿌리에다 놓고 관하되, 만법을 활용하는 것도, 관을 함이 없이 하는 것이 바로 거기에서 다 나오는 것을 말하며 오관을 통해서 내고 들이고 하는 그 자체를 한군데서 들이고 낸다는 것을 알고 관하라 하는 거죠.

놓는 방법을 비유한다면 세 가지인데, 그렇게 해서 나를 발견했을 때에는 또 그 아는 것마저 놓으라고 하는 겁니다. 즉 말하자면 안 보이는 거 보이는 거, 또 남이 어떻게 오고 가나, 잘될 건가 못될 건가, 죽을 건가 살 건가를 아는 것이 숙명통이라고 하지만 그것도 놓으라고 했습니다. 신통력도 놔라, 한 가지 한 가지 신통력을 다 놓고 그 신통력에서 벗어나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오신통에서 벗어나면 오신력이 되지요. 그냥 무심으로 그 역(力)이 되는 거예요.

그럼 무심을 놓으려면 무엇을 어떻게 하느냐. 그때는 통틀어서, 사생에 대해서 모든 들이고 내는 것을 다 놨을 때는 오신통에서도 벗어나는데 무심에서도 또 놔야 되거든요. 무심조차도 놔야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사유(四有)와 사무(四無)를 한데 합쳐 보면 모든 별성이라든지 혹성이라든지 이런 문제 등등이 전부 나오는 겁니다. 보이는 거예요. 그 안에서 뭐를 하고 있고 뭐가 되어 있고 뭐가 어떡하고 있고, 이런 게 전부 법망으로 인해서 그냥 쫙 통신이 오는 거죠. 보는 것도 명경을 갖다가 놓고 보는 거와 같다 이겁니다. 그것도 놔라 이거예요. 그래서 놓는 게 세 가지인데 계단 없는 세 계단이 있다, 그러니 그거 얼마나 방대합니까. 그런데 그것도 놓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왜 그런 경지까지도 놔야 됩니까? 그 광대무변한 경지가 얼마나 좋고 환상적인데요." 이렇게 말들을 하거든요. 그러고선 그러한 경지가 나타나면 그걸 잡으려고 하죠. 그렇지만 그걸 놔야 돼요. 그걸 놔야 되는 이치가 있어요. 그거를 놓지 않으면, 그 모두를 속속들이 놓지 않으면 일체를 다 알 수가 없어요. 가다가 중지해 버리는 게 되고, 뭐가 되느냐 하면 미치광이가 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광대무변한 세계가 보이고, 부처님의 형상도 보이고, 설법하는 것도 보이고 그런다는데, 그건 오신통을 놓게 되면 자동적으로 무심에서 오는, 법망에 있는, 무심이니까 이게 다 뚫렸단 말입니다. 사방이 다 뚫렸으니까 그것이 다 들어오죠. 한 눈에 들어오고 한 귀에 들어오고 다 들어오게 돼 있는데, 맛도 알고 다 알지만 그것을 놓지 않으면, 그걸 놓아 가지고서 전체 한 덩어리가 돼서 그 한 덩어리까지도 놔야 급할 때는 한 덩어리로도 쓰고, 두 덩어리로도 쓰고, 또 만 덩어리로도 쓸 수 있지 않으냐 이 소리입니다. 그거를 놓지 않는다면 내가 움죽거릴 수 없어요. 전체를 움죽거릴 수가 없다고요.

어느 한 부분만을 알고선 '아, 이만하면 족하다' 이러고 놓지 않고 붙들려고 한다면 나에게 권리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서만 대통령을 해먹을 수 있지 딴 데서는 그 권리가 주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렇게 된다 하더라도, 딴 나라 대통령이 됐어도 그것도 마저 놔라 이겁니다. 그건 왜? 우주 대통령이 돼야 되니까요. 또 우주 대통령마저도 놔야 그게 고정됨이 없이 전부 삼천대천세계로 이른다 이런 겁니다. 그게 무슨 소리냐 하면, 아무리 보고 듣고 그렇게 해도 고정됨이 없기 때문에 놓지 않으면 안 된다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일체를 내려놓는 이 방법이 무척 무서운 도리이며, 빠른 길입니다. 또 자기 주체를 믿고 일체를 놓는다는 게 제일 소중합니다. 일체를 놓고 자유롭게 사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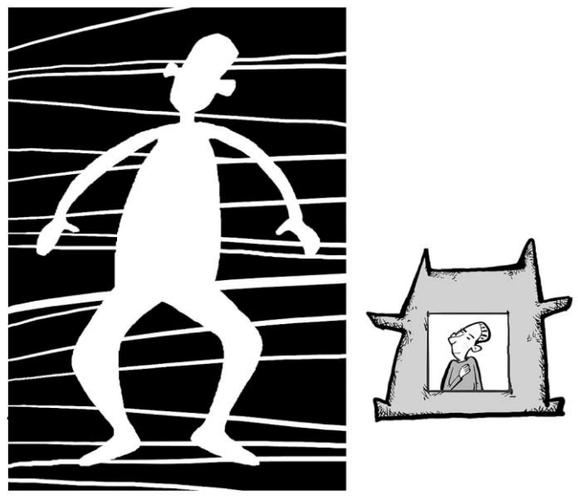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고정됨이 없기 때문에 놓지 않으면 안 된다!

다음 생에는 나오지 않았으면...

문 올바른 생각과 행동을 하면서 인간답게 살아간다는 것이 너무도 어렵고 힘든 시기입니다. 모든 것이 가식인 것 같고 무의미한 삶으로만 느껴집니다. 스님께서 말씀하시는 중세계에서의 삶은 어쩔 수가 없는 것인지요? 다음 생에는 인간의 육을 가지고 나오지 않았으면 하는 것이 저의 오직 유일한 희망입니다.

답 사람들은 모두 죽으면 그만이다 이럽니다. "에이, 죽어 버리면 그만이지, 정말 살기가 고역스럽고 죽겠구나." 이럽니다. 그러나 죽어도 몸뚱이만 없어졌지 아주 죽지를 않기 때문에 그렇게 죽어도 허탕이에요. 모두 어리석게 '죽어야 한다. 죽었으면 좋겠다.' 그러는데 죽을 생각이 있으면 빠져나갈 생각을 하세요.

주체 의식이 확고하고 그런 이상을 가지며, 우리가 이런 게 있죠. 삼세심이다 하는 이치는, 삼계가 한데 합쳐서 일어난 것도 마음으로부터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니 마음으로부터 일어났으니, 바로 삼세심은 어떻게 해서 삼세심이 되느냐. 왜 삼세심이라고 했을까?

예를 들어서 작년 콩씨를 올해 심었는데 올해 심은 콩씨가 또 많이 열려 가지고 사람들을 다 먹이고도 그 콩씨 하나가 되남아서 내년 봄에 또 심습니다. 그러니 어저께의 오늘도 오늘이요 오늘의 오늘도 오늘이요, 내일의 오늘도 오늘이니까, 이것이 삼세가 연결된 삼심이 연결되지 않으면 지속되지 못하는 진리입니다. 삼세심이 한데 연결되기 때문에 진리라고 합니다. 지속되구요.

그런데 삼세심이 공했다, 공한 자체의 나 주체의식 근본에서 보게 되면 이것은 하천세계로 가고 이것은 중천세계로 가고, 이건 상천세계로 간다. 이것은 주체 의식 그 자체의 근본에 의해서 세 갈래로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세 가지로 나가는 그 원리가 사람 마음먹기에 달렸다는 거예요. 네 마음을 그렇게 쓰면 이렇게 되고, 그렇게 쓰면 이렇게 되고, 그렇게 쓰면 이렇게 된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하천세계를 비유해서 봅시다. 딴 데서 보지 말고 우리 지금 현재를 보세요! '오관지옥에 떨어진다' 하는 것은, 얼른 쉽게 말해서 종합된 인간의 탈을 못 쓴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끓는 지옥 이런 문제들이 나오는데 그건 헤아릴 수 없습니다. 그건 왜 어디서 보느냐? 우리가 소를 잡되 도끼로 잡거나 몽둥이로 잡거나, 하여튼 그렇게 잡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갖다 구워 먹든 볶아 먹든 끓여 먹든 합니다. 그러면 이 인간의 의식 자체가, 짐승들의 의식 자체는 떠나질 못합니다, 자기 육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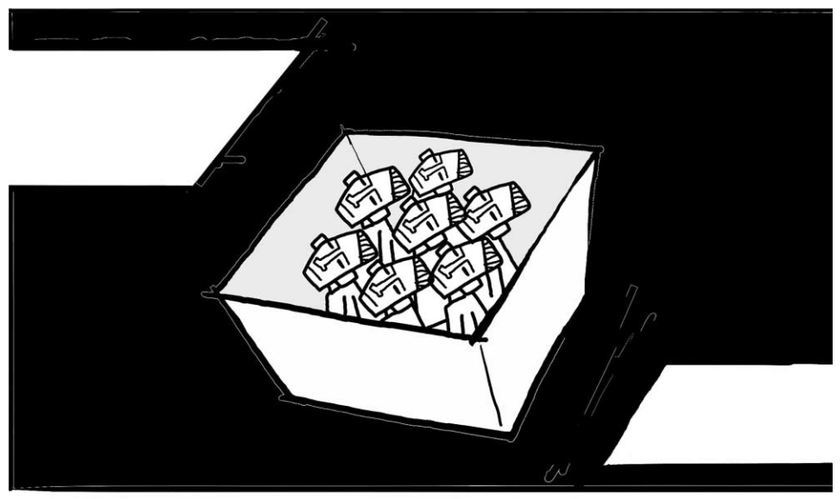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사람도 만약에 그 육(肉)에서 떠나지 못하면 그 지경이 되는 거죠. 그 육에서 떠나지 못하기 때문에, 내 삶에 의해서 떠나질 못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육안의 5억이라는 생명체들이 한데 붙어서 있다가 거기에 주둔돼 있다 이겁니다. 그렇게 주둔돼 있으면 고기를 끓이면 끓이는 대로 이게 살생이 되는 겁니다. 왜? 거기에 붙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뜨거운 맛을 보는 것이 한 번의 맛이 아니라, 거기에서 착을 떼지 못하면, 벗어나지 못한다면 내내 윤회에 돌고돌며 뜨거운 꼴을, 화탕지옥 꼴을 수만 번 수억을 겪어야 합니다. 이거 참 자세히 말하자면 이게 복잡합니다, 아주.

그러면 이 중천세계는 어떠한 거냐. 이 중천세계는 사람이 사람으로 태어나는, 사람으로 태어났다 하면 중천세계를 뜻합니다. 또 사람의 모습이 천차만별이듯 사람의 차원도 많습니다. 그러니 내 마음에 의해서 창살 없는 감옥에서 얼마나 헤매고 돕니까. 또 내 마음으로 잘못해 가지고 지금 창살없는 감옥에 갇힌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 내 마음으로 잘못해 가지고 얼마나 지금 고를 당하고 있습니까? 인간으로 살아가면서도 얼마나 고가 많습니까? 자식들의 일로 괴롭고, 부부지간에 마음이 안 맞아서 괴롭고, 부모자식지간에도 괴로운 일들이 여간 많지 않습니다. 사업에 실패를 해서 괴롭고, 남이 나를 떨어뜨려서 괴롭고, 내가 남을 떨어뜨리니 괴롭고, 연방 같이 상대로서 이어져 가면서 괴로움을 당하는 겁니다. 올라가면 밑에서 치받히고 위에서는 떨어뜨리고 이렇게 하는 이 지속된 중세계의 이 맛을 우리가 지금 맛보면서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고 우리는 인연에 따라서 내 몸 집을 지어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딱 내가 한 생각에 이것이 잘되면 몽땅 한데 합쳐서 하나로, 하나로 상천세계에 이르고 부합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대로 상천세계가 아니라 중천세계 윤회에 끄달리면서 돌아간다면 이 씨가 그냥 중천세계에 떨어져서 그냥 모두가 화합니다. 내가 죽으면 죽는 대로 이것도 같이 부합이 돼서, 만약에 내가 넝마의 차원이라면 넝마의 차원으로 이 씨가 여기에 부합이 돼서, 나가서는 모든 게 인연에 따라서 가고, 내가 나의 그 씨를 바로 넝마 씨로 만들었으니까 내가 가는 대로 또 쫓아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내 뱃속에다 넣고 이 세상에 또 태어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 죽어도 마찬가지 살아도 마찬가지죠. 죽어도 죽는 게 아니고 살아도 사는 게 아니니까요, 결국은. 그래서 집합된 한 단체에서 내 한생각에 은이 되느냐 금이 되느냐, 무쇠가 되느냐 넝마가 되느냐의 문제가 있습니다. 갈림길입니다, 지금. 이 중세계 갈림길인데 이 갈림길에서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겁니다. 내가 생각을 어떻게 해야 상천세계에 가느냐 이겁니다. 상천세계에 가는 것도 아니고 오는 것도 아니면서도 상천세계를 응시한다 이겁니다. 고등학생들이 공부를 안 하면 대학을 못 가고 대학원을 못 가듯이 말입니다. 어떤 여건에 의해서 인연에 따라서 내가 공부를 못하게 되는 결과도 있죠.

그래서 '모든 것을 놔라. 모든 것이 다 공했으니 놔라. 하루에도 고정되게 생각하는 법이 없고 고정되게 보는 것도 없고 고정되게 듣는 것도 없고, 고정되게 행하는 것도 없고 고정되게 먹는 것도 없으니 모두 공했으니까 거기 놔라.' 하는 원리도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 5억이라는 이 단체가 바로 내 한생각에 달렸다 이겁니다. 내 생각에 의해서 5억이라는 생명이 한데 부합이 돼서 하나로, 일심으로 돌아갈 수 있겠느냐? 일심으로 돌아가는 그 원리를 안다면 일심이라는 그 자체도 없다 이런 논리가 나옵니다. 웬 줄 아십니까? 상세계에서는 혹성만 혹성이 아니란 얘깁니다. 이 혹성만 혹성이 아니에요. 수성도 있고 금성도 있고, 또는 토성도 있고 목성도 있고 은하계가 있는, 해왕성, 천왕성 이런 게 있는데 그 외에도 그보다 더 큰 혹성이 있거든요.

그러면 내 몸속에서 이것을 부합하게 만들어 가지고 하나로, 내 마음은 체가 없는 거니까 그거를 융합시켜서 하나로 뭉쳐서 그 하나마저도 없다는 원리를 알게 되면 스스로서 자기가 샘물이 나오게 되고 스스로서 알게 될 때 비로소 그걸 홀랑 벗게 되는 겁니다. 껍데기를 홀랑 벗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이 중세계의 교차로를 홀랑 벗는 겁니다. 벗으면 어떠한 문제가 나오느냐? 내가 내 몸에서 홀랑 벗고 나니까 딴 사람도 다 홀랑 벗었음을 알게 되는 거죠. 그때에 비로소 나와 남이 둘이 아닌 뜻을 진실로 알게 되는 겁니다.

일체 만물이 둘이 아니요, 장소도 둘이 아니요, 옛 사람과 지금 사람도 둘이 아니요, 부처와 중생도 둘이 아니라는 그 뜻을 알게 됐을 때에 비로소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닌 나에서 그냥 그대로 여여하다는 그 뜻이 그대로 나왔을 때 열반경지가 되는 거죠. 그 열반 경지가 될 때에 자유인의 경지까지 가는 것이며, 비로소 상천세계에 등장할 수가 있다는 얘깁니다. 그러면 그때는 또 어떻게 되느냐. 내가 보지 않으면 몰라요. 여기를 거쳐 가지 않으면 부처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중천세계를. 그래서 여기서 먹고 살고 하던 것을 다 알게 됐기 때문에 생각을 해서 먹는 겁니다.

☞30면으로 계속

내가 공한데 무슨 착을 두겠습니까

☞29면에서 계속

그래서 내 몸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아니 되고 지구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얘깁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어떠한 부처가 되려고 앨 쓰고 그런다면 욕심이 과해서 또 아니 되니까, 욕심이 과해서만이 아니라, 내가 항시 놓치지 않고 일을 하나, 자나 깨나 그저 생각이 들면 모든 거를 주인공에다가 놓으세요! 모든 걸 착을 두지 말고 그저 평상시에 그냥 벌어서 살되 착이 없이 살라 이겁니다. 착 없어도 얼마든지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공했는데 무슨 착을 둘 게 있습니까? 내가 돈을 이렇게 쌓아 놓더라도 이것은 내 게 아니라, 바로 내가 있기 때문에 나한테 주어진 거니깐 관리를 하는 거라고 생각하라는 겁니다. 알아듣기 쉽게 하자면 주인의 것이지 내 것이 아니다 이 소리죠. 그대로 자기 주인의 나툼이니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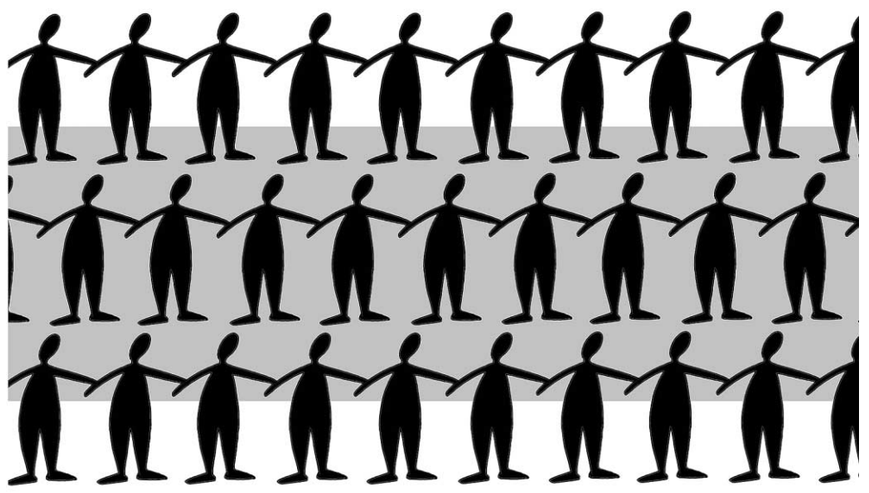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부처님 가르침의 대의

문 요즘 화제를 일으키고 있는 TV 특강에서 어느 지식인이 인도문명에서 윤회라는 윤리가 생겨난 것은 윤회와 업, 응보 사상이 카스트 제도를 정당화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기 때문이며, 인과응보라는 것이 근원적으로 잘못됐다는 정도전의 사고는 대단히 과학적이라고 강의를 해서 불교계에서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도 불교가 예전처럼 떡이나 놓고 밥이나 놓고 비는 그런 종교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부처님께서 49년 설하실 때에 무엇을 중생들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하셨는지 불법의 대의를 다시 한 번 알고 싶습니다.

답 그거야 각자 자신들의 마음을 깨달아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도 쉼이 없이 설하셨습니다. 그래서 첫째 문제가 전생과 후생이 한데 합락이 돼야만이 그것을 견성이라고 하고, 합락이 돼 가지고 바로 자기 전생과 지금 이 생이 같이 한데 혼합이 되는 그런 마음으로서 우리가 공부를 진짜 해 나가는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내가 낳기 이전에 내가 살던 그 전생과 지금 생과 더불어 같이 합쳐져야 나툴 이끌어가는 데 조금도 손색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전생을 믿질 않습니다. 어저께에 우리가 했던 것이 전생의 일이고 오늘 하는 일이 후생이 하는 일이라면 벌써 이 한 생이 전생도 되고 후생도 되고 현생도 됩니다. 그런데 전생이자 현생이자 미래 후생, 이 삼생을 삼십으로 다 모아서 우리가 생활 속에서 모든 일을 해 나갈 수 있는 그 능력을 기르라는 겁니다. 그런데 모두들 어저께는 생각도 안 하고 내일도 생각 안 하고 오늘도 생각해 보는 일이 없습니다. 벌어서 먹고 살고 그저 어떡하든지….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마음먹는 대로 되느냐 하면 그게 아닙니다.

그래서 첫째 내 영원한 생명의 근본을 믿는 겁니다. '주인공!' 하면, 그 삼십 삼생 삼신이 다 한데 합쳐져서 돌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자기 주인공을 믿으라는데, 자기 전생을 믿으라는데도 왜 안 믿느냐 이겁니다.

전생이라고 해서 지나온 생이 아니라, 늘 하는 얘기입니다만 올 수박 속에 수박씨가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수박 겉이라면 수박씨는 그 겉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 수박씨가 바로 전생이라면 바로 지금 현생의 내가 그 전생을 믿어야 할 게 아닙니까. 바로 그 전생이 없다면 지금의 나도 없는 겁니다. 지금 안락사라고 하는데 그 안락사의 뜻이 뭐냐. 이 몸에서 전생의 혼을 꺼내면 이 몸은 송장이 된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영혼이 없으면 의식이 없고 의식이 없으면 송장이 되는 거죠. 그런데 자기를 끌고 다니는 자기 전생을 그렇게 믿지를 않고 그 마음을 믿지 않고 항상 남의 말만 듣고 산다면 그게 될 법한 일입니까?

어떤 신도는 남편이 군인이었는데 남편이 죽고 나서 받은 연금으로 증권을 했습니다. 벌어먹기는 어렵고 그러니까 부업으로 증권을 해서 사는데, 어떤 분들은 이걸 사라 저걸 사라 이러지 않습니까? 거기에 따라서 혼동이 돼 가지고 산 사람은 그냥 몽땅 다 잃어버렸는데, 이 분은 오로지 자기의 주인을 믿고 중심을 가지고 거기에서 생각나오는 대로 사고 또 거기서 팔 생각이 들면 자기가 그냥 팔고 이렇게 했지, 남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경사 났다고 한 것이, 그렇게 해 가지고도 자기가 집 한 채만 사고선 딱 끊었습니다. 왜냐하면 욕심을 부리면 안 된다 해서 애들하고 거리로 나앉지만 않게 만들어 놓고는 그냥 딱 손을 떼고서는 요새 남의 집에 낮이면 가서 일해 주는 파출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걱정 근심 없이 삽니다, 집 세 놓고. 그런 것도 볼 때에 내가 나툴 이끌어가지 누구의 말을 듣고 끌려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불(佛)은 여러분 생명의 근본이요, 우리가 말하고 사는 것이 교(敎)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교라는 것은, 저런 흙바닥에 난 풀이파리 하나도 불교 아닌 게 없습니다. 그것도 생명이 있고 말없이 말을 전달하고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체만물이 다 전달이 되는 거죠. 그래서 통신이 되고 그럽니다. 우리가 아는 거를 우주법계에서 알고 있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전부 뱃속의 16억이라는 생명들이, 의식이 다 듣고 있습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딴 사람이 모르게 행동은 했지만 자기 양심만은 알고 있지 않으냐고 하는 것이죠. 양심이 아는 것이 뱃속의 모든 생명의 의식들이 알고 있고, 생명의 의식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우주간 법계에서 알고 있다는 얘깁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대로, 내가 항상 여러분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살아가면서 꿈을 꾸거나 누구의 얘기를 듣거나 이래도 나쁘게 생각하지 마라. 잘되는 거 못되는 걸 떠나서 내가 생각하는 대로 그냥 나가면 그게 법이다." 라고 말합니다. 남이 잘됐다거나 못됐다거나, 너는 나쁘다 너는 좋다, 이런 걸 다 떨쳐버리고 망상에 개입하지 말고 내가 주장하는 대로, 꿈을 꿔서 나쁜 생각이 들어가더라도 주인공에 맡기고 좋게 생각을 돌리면 좋게 돌아가는 것인데, 그렇게 탁 내려놓질 못하니까 온통 붙들고 '아이구, 이거 이렇게 되면 어쩌나.' 이렇게 하면서 그냥 고통스럽게 사는 겁니다. 마음이 벌써 그렇게 끄달리면 고렇게 일이 돌아와요. 그런 일이 닥친다 이겁니다. 그래서 한생각 하는 게 그렇게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지금 마음의 도리를 배우는 겁니다. 딴 거 배우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마음공부를 해서 깨달음을 가져오라는 거고, 여러분의 몸을 보존하라는 거고, 가정을 화목하게 보전하라는 거고, 자식들을 잘 이끌어가면서 햇빛을 주라는 거고, 위로는 부모님들의 묵은 빚을 갚고 은혜를 갚으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능력을 길러야 자식들에게도 그 빛이 거기까지 간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능력을 길러야 자식들도 뿌리가 깊게 박히게 하고 견전하고 건실하게 뿌리가 자랄 수 있게 할 수 있습니다. 왜 혈통, 핏줄이라고 그러죠? 그러니 어머니 아버지의 그 혈통과 그 핏줄이 어디 가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마음을 닦으면 모든 혈통과 피가 전부 닦아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살고 있는 그 자체가 바로 여러분의 그 모든 인연에 따라서 뭉쳐진 업덩어리입니다. 모든 생명의 의식들이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악이고 선이고 나쁜 거고 좋은 거고, 화내고 이런 것도 전부 다 거기서 나오는 건데, 전자 과거에 살 때의 인연에 따라서 온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주먹을 불끈 쥐고 견전하게 살아나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막 견전치 못하고 돈 한 푼이라도 생기면 이리 쓰고 저리 쓰고 해서 방탕하게 사는 사람이 있죠. 그것이 다 과거의 인연으로 인해서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것을 고치고 그것을 제재해 나가려면 내 마음이 나툴 바로 이끌어갈 수 있고 다스려갈 수 있어야 합니다.

또 다스려 가면서 모든 것을 한마음으로 맡겨 놔야 됩니다. 왜냐하면 악업 선업을 지닌 인과로서 이파리 하나도 불교 아닌 게 없습니다. 그것도 생명이 있고 말없이 말을 전달하고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체만물이 다 전달이 되는 거죠. 그래서 통신이 되고 그럽니다. 우리가 아는 거를 우주법계에서 알고 있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전부 뱃속의 16억이라는 생명들이, 의식이 다 듣고 있습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딴 사람이 모르게 행동은 했지만 자기 양심만은 알고 있지 않으냐고 하는 것이죠. 양심이 아는 것이 뱃속의 모든 생명의 의식들이 알고 있고, 생명의 의식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우주간 법계에서 알고 있다는 얘깁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대로, 내가 항상 여러분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살아가면서 꿈을 꾸거나 누구의 얘기를 듣거나 이래도 나쁘게 생각하지 마라. 잘되는 거 못되는 걸 떠나서 내가 생각하는 대로 그냥 나가면 그게 법이다." 라고 말합니다. 남이 잘됐다거나 못됐다거나, 너는 나쁘다 너는 좋다, 이런 걸 다 떨쳐버리고 망상에 개입하지 말고 내가 주장하는 대로, 꿈을 꿔서 나쁜 생각이 들어가더라도 주인공에 맡기고 좋게 생각을 돌리면 좋게 돌아가는 것인데, 그렇게 탁 내려놓질 못하니까 온통 붙들고 '아이구, 이거 이렇게 되면 어쩌나.' 이렇게 하면서 그냥 고통스럽게 사는 겁니다. 마음이 벌써 그렇게 끄달리면 고렇게 일이 돌아와요. 그런 일이 닥친다 이겁니다. 그래서 한생각 하는 게 그렇게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지금 마음의 도리를 배우는 겁니다. 딴 거 배우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마음공부를 해서 깨달음을 가져오라는 거고, 여러분의 몸을 보존하라는 거고, 가정을 화목하게 보전하라는 거고, 자식들을 잘 이끌어가면서 햇빛을 주라는 거고, 위로는 부모님들의 묵은 빚을 갚고 은혜를 갚으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능력을 길러야 자식들에게도 그 빛이 거기까지 간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능력을 길러야 자식들도 뿌리가 깊게 박히게 하고 견전하고 건실하게 뿌리가 자랄 수 있게 할 수 있습니다. 왜 혈통, 핏줄이라고 그러죠? 그러니 어머니 아버지의 그 혈통과 그 핏줄이 어디 가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마음을 닦으면 모든 혈통과 피가 전부 닦아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살고 있는 그 자체가 바로 여러분의 그 모든 인연에 따라서 뭉쳐진 업덩어리입니다. 모든 생명의 의식들이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악이고 선이고 나쁜 거고 좋은 거고, 화내고 이런 것도 전부 다 거기서 나오는 건데, 전자 과거에 살 때의 인연에 따라서 온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주먹을 불끈 쥐고 견전하게 살아나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막 견전치 못하고 돈 한 푼이라도 생기면 이리 쓰고 저리 쓰고 해서 방탕하게 사는 사람이 있죠. 그것이 다 과거의 인연으로 인해서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것을 고치고 그것을 제재해 나가려면 내 마음이 나툴 바로 이끌어갈 수 있고 다스려갈 수 있어야 합니다.

또 다스려 가면서 모든 것을 한마음으로 맡겨 놔야 됩니다. 왜냐하면 악업 선업을 지닌 인과로서

자기 주처를 믿고

일체를 놓는다는 게 제일 중요해

내 마음을 다스려 가면서

모든 것을 한마음으로 맡겨 놔야

이렇게 뭉쳐진, 개수로 따질 수가 없이 많은 그 의식들이 수효를 헤아릴 수가 없는데, 헤아릴 수 없는 그 모습은 또 얼마나 많겠습니까? 모습들이 그렇게 많고 많은데 그 모습과 의식, 생명들이 내가 마음먹는 대로 따라갑니다. 남뿐만이 아니라 내가 다리가 아파서 걷지 못한다 이럴 때 '야! 한마음으로 심부름을 하는데 아니, 이 다리가 이렇게 아파서 어떡하니?' 이렇게 생각을 하고선 탁, 참 아주 그게 진실하고 아주 건실한 생각이죠. 그렇게 하면 벌써 이 속에서 알아듣습니다. 알아들어서 다리가 금방 괜찮아질 수가 있습니다. 다리뿐이 아닙니다. 어떠한 문제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듯이 지금 여러분이 살고 있는 모습을 본다면 그게 바로 인과응보요, 인연의 소치라는 것을 알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에만 끄달려서 이러니저러니 하지 말고 나툴 이끌어가는 내 주인공을 믿고 올라오는 생각들을 잘 다스려서 조금이라도 편하고 자유스럽게 살아가기 바랍니다.

– 매일경제신문 인체 경영학 연재 –

이강옥 교수의 체질개선 ☆ 해독다이어트 ☆

"당신도 날씬해질 수 있다"

일상 생활하며, 공복감 없이 2주에 5~8kg 뺄 수 있다.

95%의 다이어트가 실패로 끝나는 현실에서 수십년간 몸안에 쌓인 온갖 노폐물이 빠지면서 체중감량이 된다는 이강옥 교수의 20여년 임상경험은 비만인들에게는 귀가 번쩍 뜨이는 희소식이다.

"여자가 살빼기 더 힘든 이유"

여자가 살빼기가 더 힘든 것은 임신과 출산이라는 여성 본래의 역할로 남성보다 2배 이상의 체지방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영양과다, 운동부족, 대사기능의 장애 등으로 노폐물이 쌓여 임신전의 체중으로 복귀하지 않는 여성이 상당수이다. 또한 생리기간 동안 체내에 축적된 수분이 부종으로 바뀌어 체중이 증가하여 합병증과 암 발생 등 고위험을 수반하게 된다.

체내 노폐물이 빠지며, 건강체질로 바꾸는 발효원액 절식법

뚱뚱하다는 것은 단지 체내에 보기 싫은 지방만이 쌓인 것이 아니다. 산업사회의 오염된 환경에서 성장한 우리의 몸 속에는 현대의학으로도 규명 못하는 노폐물이 장 속에는 이끼처럼 숙변이 쌓이고 관절 사이사이에 박히고 간에는 지방이 엉키고 혈관에 쌓여 혈액이 탁해지고 굳고 막히는 현상이 발생한다. 살 빼는 약을 먹거나 물단식을 하여도 살은 빠지지만 무엇이 빠지느냐가 문제다. 체중은 줄이되 노폐물을 제거하고 줄여야한다. 그렇지 않으면 손발이 저리고 숨이답답해 지고 피는 더욱 탁해져 혈액순환 장애의 증상이 있다.

당신도 날씬해질 수 있다

발효원액은 우리땅에서 자란 50여종의 야채, 과일, 해조류 등을 3~5년간 장기간 자연발효 숙성시킨 것으로 그 속에는 천연비타민과 미네랄, 수억의 효소들이 살아 숨쉬고 있다. 이것을 인체에 공급하면 모든 인체의 장기들이 휴식을 취하면서 효소는 인체 곳곳에 마치 쓰레기처럼 수십년간 쌓인 독성 노폐물을 청소하고, 과잉으로 축적 되어있는 지방을 분해하는 내과 대수술을 일상 생활 중에 소리없이 진행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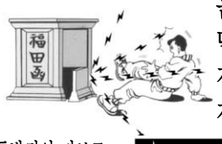
02)523–0708 초 록 원 (팔보효소)

전자식 2중문 3중경보 특허

불 전 함



가격 수요증가로 시중품과 가격동일



움직이거나 덛문만 열어도 경내 전지역 경보상태

◈ 돌발적인 경보로 침입자, 100% 도주

◈ 도난의 염려가 없는 사고 미연방지100%

◉ 각지역 대리점 모집



서원기전 문의 043-647-2378, 011-467-1472

관 절 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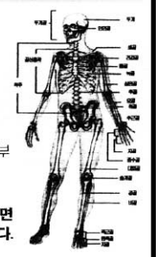
↓

자 생 환(自生丸)

관절염 류마티스 초기 퇴행성관절염 혈액순환장애 디스크 → 약간의 활동이나 계단을 오르내릴 때 무릎이 쑤시고 저리는 경우 자생환(自生丸)을 복용후 1개월부터는 확실한 효과가 나타남

선천성 냉체 산후비람 낭습진 → 자생환(自生丸)을 2-3주만 복용해도 효과가 나타남

"자생환(自生丸)의 뛰어난 효과 때문에 입에서 입으로 소개되어 많은 고객으로부터 주문 및 문의가 쇄도"



▶주의사항 – 심장질환자, 폐질환자, 임산부 음주전후에 복용금지

관절염은 참 견디기 힘든 병입니다. 빠마디의 통증은 통증대로, 약을 먹으면 위장장애 때문에 이중으로 고생을 합니다. 자생환으로 근본적인 치료를 해보세요 상태가 심한 분은 3개월 이상 복용해야 합니다.

1개월분 ₩180,000
2개월분 ₩320,000

발명자 : 민속의학자 권재우 옹(경남 산청)

주문 및 상담전화 (055)972-4054

한방을 선도하는 기업 骨仁製藥(株)

중풍(뇌졸중)고혈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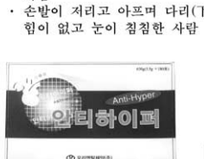
해결책 보인다

100% 한방생약제제 안티하이퍼 Anti-hyper

한국인의 사망율 1위
: 고혈압 및 상관된 질환인 뇌졸중 · 심장마비 · 협심증 · 심근경색

안티하이퍼(Anti-Hyper)복용이 꼭 필요한 사람

- 고혈압환자
- 협심증, 뇌졸중(중풍), 동맥경화증, 심근경색환자 및 동 질병 예방
- 약물(신약)의 각종 부작용이 염려되는 사람
- 당뇨병과 고혈압 등의 심혈관계 질환을 동시에 앓고 있는 사람
- 손발이 저리고 아프며 다리(下肢)에 힘이 없고 눈이 침침한 사람



2달분 258,000원

- 개발약사 약력 -
▶1941년 2월 5일 경북 상주 출생
▶1963년 효성카톨릭 대학교 약학과 졸업
▶1977년 홍제학 연구소 설립
▶현재 대체의학, 분자 교정의학, 체질영양학 연구 겸 한빛한국본부 당뇨 연구실 경영중
▶저서 : 21세기 만성 난치성 질병

구입신청 033-255-5669 안티하이퍼



베란다에 꾸며진 실내정원. 사진제공=지그린



살아있는 식물을 돌보고 가꾸는 원예작업을 통해 심신의 안정과 회복을 꾀할 수 있다.

식물 가꾸며 건강 지켜요

보기만 해도 氣 '쑥쑥'

EQ(감성지수), NQ(네트워크지수)에 이어 HQ(건강지수; Health Quotient)가 강조되는 사회다. 건강지수는 행복지수(Happy Q), 애정지수(Heart Q) 등 여러 가지 요인과 밀접한 관련을 갖지만, 그 중에서도 특별히 눈길을 끄는 것은 원예지수(Horticulture Q). 식물을 보고 가꾸는 과정을 통해 심신의 안정과 회복을 꾀하는 '원예치료'가 이 시대의 새로운 건강지킴법으로 각광받기 시작한 것이다. 건강을 주는 원예치료에 대해 알아본다.

알파파 증가, 심신안정 도움
파장 혈압 낮추고 통증완화
'꽃치료' 대체요법으로 각광

■ 색이 건강을 지킨다

최근 발표된 한 연구에 따르면 녹색식물을 보고 있으면 몸의 정화와 이완을 유도하는 알파파가 증가해 심신이 안정되고 편안해진다고 한다. 산에 오르기만 해도 피로와 스트레스가 풀린다는 것도 그와 같은 맥락의 얘기. 실제로 녹색 파장은 신경흥분을 가라앉히고 혈압을 낮춰 불면증이나 각종 통증완화에 도움이 된다. 그래서 스킨다브서스나 벤자민 등의 녹색식물을 거실에 비치해 두면 좋다.

녹색식물만 몸에 좋은 것이 아니다. 일본의 경우 대체요법의 하나로 '꽃 치료법'이 성행하고 있다. "사람의 오장(간, 심장, 비장, 폐, 콩팥)과 오색(파랑, 빨랑, 노랑, 하양, 검정) 등이 서로 깊이 관련돼 있고, 오색의 기가 오장에 영향을 미친다"는 기(氣)이론을 근간으로 하는 치료법이다.

장미, 백일홍, 베고니아 등 빨간색 꽃은 감각신경을 자극하여 혈액순환과 교감신경계 활성화에 도움을 준다. 수선화, 해바라기, 나리 등의 노란색 꽃은 운동신경을 활성화시키고 우울감을 덜어준다. 또한 아네모네, 팬지 등의 파란색 꽃은 근육긴장 감소와 염증 완화에 좋다. 라일락, 도라지, 아프리칸 바이올렛 등의 보라색 꽃은 식욕억제의 효과는 물론 백혈구 조성과 감수성 조절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 직접 가꾸면서 치료해요

꽃 자체의 유익한 파장으로 인한 심신상의 변화도 주목할 만하지만, 살아있는 식물을 돌보고 가꾸는 행위를 통해 얻는 심리상의 치유효과는 그 이상이다. 그래서 최근 복지관이나 문화센터 등지에서 원예치료를 도입해 치료 방편으로 적극 이용하고 있다.

역삼재가노인복지센터, 태화복지관 등 5개 기관에서 원예치료 지도를 담당하고 있는 원예치료사 곽성신(한국원예치료협회) 씨는 "원예작업은 정서적 안정, 인지 기능 향상 및 회복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치매환자나 장애아동의 경우, 직접 파종한 생명체의 결실을 마주할 때나 잡초제거 등의 작업으로 연약한 식물의 성장을 도울 수 있을 때 자신감과 만족감을 얻을 수 있다고 한다. 또한 모종을 옮겨심는 과정에서 부담없는 손운동을 병행할 수 있어 적게나마 근육 발달에 도움이 되고, 꽃잎을 눌러서 다양한 장식품에 문양화하는 '압화'를 통해 미숙한 표현능력의 향상도 꾀할 수 있다.

원예작업 통해 만족감 회복
모종 운동, 압화 창의력 효과
베란다, 텃밭 이용 재배 붐

이처럼 환자들의 재활에 적극 응용됐던 원예작업이 이제는 가정으로 흘러들고 있다. 최근 아파트 베란다나 거실 한켠에 정원을 꾸미는 집이 느는 추세다. 마당의 텃밭을 집안의 1.5~2평 남짓 공간에 그대로 들여놓는 것이다. 이곳을 통해 상추, 고추 등의 식용식물을 비롯해 다양한 종류의 꽃을 재배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지그린(www.ggreen.co.kr, 02-579-0597) 등의 실내정원을 시공하는 업체, 원예작업 동호회(예쁜 정원을 만드는 사람들: cafe.daum.net/gardenjigi) 등의 활동도 잇따라 활발해지고 있다.

강신재 기자 thatiswhy@buddhapia.com





눈과 귀를 다스리는 원예치료. 사진제공=한국원예치료연구센터(왼쪽), 지그린(오른쪽).

최윤근 교수의 아유르베다 읽기 ⑮

냉동식품, 생명력 잃은 음식

냉동 식품과 날 음식은 왜 나쁜가



가공 식품이나 인스턴트 식품은 당장은 편리할지 모른다. 그러나 우리의 육체와 정신에 많은 해악을 끼치고 있는 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음식을 저장하고 처리하는 과정에서 인체에 해가 되는 많은 양의 화학 조미료와 방부제를 사용하므로 이것들을 섭취할 경우 도샤의 조화를 깨뜨려 건강한 삶을 저해하는 건 틀림없는 사실이다.

그뿐만 아니다. 육류나 채소를 막론하고 대부분의 음식들은 인공적인 비료, 호르몬, 항생제, 살충제 등등으로 키워진 것이다. 이들이 체내에 들어올 경우 우리 몸은 이들을 분해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을 느낀다. 그 결과 대부분은 유해 잔재물로 남아 독소를 생성한다.

화학조미료, 방부제 도샤에 해
녹이는 순간 변질 소화 질서 파괴
날것 섭취 몸에 큰 영양 주지 못해

다음으로 냉동 식품은 어떠한가?

흔히 냉동 식품은 원형 그대로 보존시키는 것이므로 괜찮겠지 하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다. 다시 녹여서 먹는 음식물들은 탄수화물과 지방, 단백질 성분은 얼리기 전의 성분과 같지만 몸과 마음에 미치는 영향은 신선한 음식을 섭취했을 때와는 전혀 다르다.

냉동, 냉장 식품들은 더 이상 우리 마음에 창조성과 영감을 불어넣을 수 없다. 몸에 진짜 영양을 주지 못함도 물론이다. 아유르베다에서는 하루 저녁 이상 묵힌 음식은 생명력이 없어진 음식이라고 여긴다. 일단 녹인 음식은 건조해지고 색깔이 변하면서 내용물의 변질을 가져오기 때문에 조금만 지나도 상한 냄새가 난다. 이것을 신선한 음식을 먹었을 때와 비교해 보자.

신선한 음식을 먹을 때 우리의 몸은 음식물들을 받아들여서 순차적으로 이들을 소화하고 동화시킨다. 하지만 오래되고 냉동된 경우 이들 음식은 벌써 변하기 시작했으므로 소화와 흡수 대사의 질서가 파괴되었다. 그 결과 조직들을 노화 또는 퇴화시키고 병을 유발하기 쉽게 조직을 변화시킨다. 이것은 냉동된 찬 음식이나 음료가 카파 성질을 증가시켜 소화기관에 부담을 주고 대사와 동화 과정을 방해해서 그런 것이다. 그렇다고 아유르베다에서 음식을 보관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냉동의 필요성을 부인하는 것은 아니다. 그보다는 찬 음식이나 음료, 또는 요리한 음식을 오래 두었다가 먹는 것을 반대하는 것이다. 오래되고 생명력이 없는 음식은 혼탁하고 무기력한 정신, 즉 타마스를 증가시킨다.

그러면 날 음식은 어떨까?

날 음식은 흔히 신선한 것을 강조하다 보니 그와 반대 개념으로서 섭취하는 경향이 강한데 이것도 나름대로 문제가 있다. 얼핏 생각할 때 날로 먹는 것이 조리해서 먹을 때보다 좋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왜냐면 가열이나 기타 다른 과정을 거치면서 식품 속의 자연적인 효소나 비타민, 무기질들이 파괴될지 모른다는 우려 때문이다. 그러나 아유르베다에서는 이들 영양소가 여러 형태로 가해질 때까지는 실제로 몸에 별로 영향을 주지 못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 포천중문의대

참된 말씀을 바로펴는 BBS 불교방송

4월 19일 봄철 프로그램 개편

BBS 대표 · 특성화 프로그램

차한잔의 선율
월-일 [09:05 ~ 10:00]
진명스님 진행
이른 아침 맑은 산사의 향취를
클래식 소품에 실어 청취자에게 전달

BBS 신행상담실
월-토 [10:05 ~ 10:55]
성열 · 지묵 · 성정스님 진행
교리와 신행생활에 대한 궁금한 점을
스님의 상담을 통해 풀어가는 시간

행복스튜디오 구효서입니다
월-일 [11:10 ~ 12:00]
소설가 구효서 진행
다양한 문화가 소식, 화제의 인물,
청취자 사연등을 통해 오늘의 삶을 되돌아 봄

무명을 밝히고
월-일 [17:10 ~ 18:00]
김상영교수 진행
불교계 주요현안을 진단하고 올바른 방향설정과
불자들의 신행 길잡이가 되는 프로그램

다시듣고 싶은노래
월-일 [20:05 ~ 21:00]
코메디언 김병조 진행
진행자의 구수한 입담이 어우러진 진행과 노래를 통해
서민들의 정감어린 삶의 모습을 전달

거룩한 만남
매주 금요일 [09:05 ~ 10:00]
도현스님 진행
어려운 이웃과 청취자들에게
진정한 보시정신을 일깨워 나눔의 기쁨을 공유

서울FM101.9MHz · 부산FM89.9MHz · 광주FM89.7MHz · 대구FM94.5MHz · 청주FM96.7MHz · 춘천FM100.1MHz

인도그림기행 41

만다라 세계 인도여 영원하라

그림·글 이호신

연재를 마치며

인도의 여정과 감회를 그림일기로 풀기 시작한 나날이 꼬박 한 해를 채웠다.

지난해 이맘때 (2003. 4. 16), 첫 회를 내 놓을 때만 해도 장장 40회에 이르는 그림 연재가 큰 부담이 되었기에 능력이 부치면 중도 하차할 수도 있겠다는 우려로 늘 긴장속에 한해를 보냈다.

지난해 초(1月)에 이루어진 인도성지 순례는 현장을 떠나서도 지금껏 내내 순례의 여정으로 되새겨 지고 밤낮으로 그 날의 풍광과 문화유산의 숨결, 그리고 현실의 삶을 추스르는 생활로 이어져야만 했다.

10년을 미루어온 인도기행이 마침내 성사된 계기는 안성 도피안사 송암(松菴)스님의 적극적인 권유와 배려로 이루어졌고, 경험 많은 실크로드 여행사를 길라잡이로 의존했다.

사실 인도를 여행하는 행로는 저마다 목적과 방법에 따라 모두 다르다. 소위 배낭여행을 통해 온 몸으로 체득하는 과정이나 여행정보와 현지 가이드를 통해 호흡하는 통로가 다르기 때문에 장 단점도 큰 법.

후자의 경우인 나는 길지 않은 체류 기간을 체계적으로 장거리 순례코스로 잡아 준비했고, 기존의 여행기와 정보를 섭렵한 다음 길을 떠났다.

그러나 웬걸, 생생한 현실과 마주한 체감은 모두 생경하고 낯설었으며 대륙을 횡단하고 국경을 넘는 여정은 늘 새로운 인연으로 가슴에 와 닿았다. 마치 처녀지나 황무지를 그리듯 '그리움의 섬'으로 일찍이 접어두었던 '인도의 꿈'은 내 삶의 둘레와 사고방식을 새삼 성찰하게 하였다.

그리하여 그 인도의 첫사랑이 비로소 내게 용기를 주었다. 인도를 수 십 번 다녀온 이들도 첫 만남만큼 강렬한 인상과 감동을 준 예는 없었다는 고백에 크게 위안 삼고 마침내 붓을 들게 된 것이다.

초기 불교문화유산의 발생지와 불교유적을 중심으로 한 순례가 목적이었지만 나는 가능한 과거와 현실을 통찰하고 역사의식으로 느끼고 싶었기에 오늘의 만남을 중시했다. 즉 인도의 생활과 풍습, 지역풍광과 삶의 숨결을 화폭에 담아보고 싶었다. 이일을 위해 순례단을 이탈하여 맞닥뜨린 생생한 삶의 조우 또한 가슴 설레는 사건의 연속이었다.

인도의 여정 중에 잊지 못할 또 하나의 사연은 연재기간 중 '한국-인도 수교 30주년 기념 전'(인도 뉴델리 렐리트 깔라 아카데미, 2003. 12.5 ~ 12.11)으로 나의 개인전 '인도의 인연'이 인도 현지에서 열렸다는 사실이다. 우여곡절 속에 치러진 전시였으나 돌이켜 보면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닌 필연으로 살펴지고 다만 행운으로 감사할 따름이다. 한지에 수묵으로 담은 '인도의 인연'전은 모두 인도그림으로 현지 사정의 난관속에서도 인도 청년들과 교민들의 도움으로 무사히 치러졌으니 지금껏 인도의 여신(?)은 내내 나와 함께 동행해 주었다고 믿고 싶다.

그림기행 연재중 인도 불상의 제작 흐름을 알기 위해 간다라 불교미술의 보고인 파키스탄의 여러 박물관과 초기 불교유적을 살피고 돌아온 일, 그리고 인도 전시 후 캘커타 지역을 한주간 강행군하며 감회에 젖었던 일 또한 각별한 추억으로 남아 있다.

계획된 연재를 끝내는 마당이라 이 부분은 따로 묶어 후일 단행본 출판 시 소개할 계획이고 또 인연이 닿는다면 인도 작품전을 국내에서 새롭게 펼쳐 볼 희망을 가지고 있다.

애초 불교성지 순례로 붓다의 뒷모습을 따라간 여정이 인도의 아버지 간디의 정신과 만났고, 캘커타에서 인도의 지성 타고르 시인, 마더 테레사 수녀, 그리고 라마크리쉬나 성자들과의 만남으로 이어졌다. 모두 인도의 역사와 인류의 빛으로 살아간 위대한 영혼과 체취 앞에서 삼가 무릎을 꿇었던 내 가난한 영혼의 나날이여….

내 의지의 박약함. 만용과 억측이 산산이 부서져야만 했던 참구의 시간앞에 진리의 숲은 참으로 깊고도 넓었음에랴.

인류의 문명발상지인 갠지스강 유역과 생사(生死)를 초월하는 인디아의 풍습. 데칸고원 주변에서 마주한 불가사의한 석굴사원은 세계의 유산으로 생생히 빛났다.

한편 거리의 노숙자와 가난한 아이들의 파리한 눈빛, 호수같이 맑고 청순한 여인들의 애잔한 눈빛 또한 인류애의 가슴으로 차마 눈물겨웠다. 또 하늘의 별만큼이나 많은 인도신(神)의 이야기와 현란한 사리복장이 보여주듯 다양한 삶의 방식은 움직이는 만다라의 세계요, 살아있는 별천지의 그림이었다.

나그네는 이제 돌아와 화실에 앉았으나 추억의 강물은 여전히 마르지 않고 인도의 여정으로 살아올라 나를 감싸고 흐른다.

연재를 마칠 수 있게까지 부족한 이를 끝까지 배려해 주신 현대불교신문사 관계자들과 주변 지인(知人)들의 격려, 그리고 독자님들의 사랑을 나는 평생 안고 살아가야 할 것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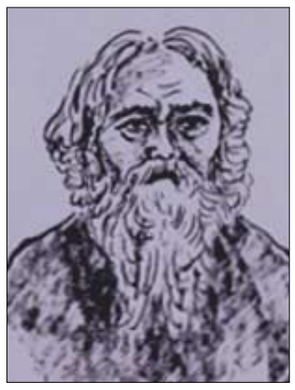
언제나 열린 문과 흐르는 길
나를 만나고 세상의 지평을 넓혀준 인디아
그 모든 인연의 빛이여!
너로 인해 살아 오르는 오늘이 은혜롭다.

lhs1957@lycos.co.kr

그동안 '인도그림기행'을 애독해 주신 독자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40회 연재하며 초발심 잃지 않으려 노력
수묵으로 역사 문화 삶의 현실 생생히 표현
현장에서 마주친 체감들 곳곳이 새로운 인연
성지순례 목적외 과거, 현재 통찰한 귀한 만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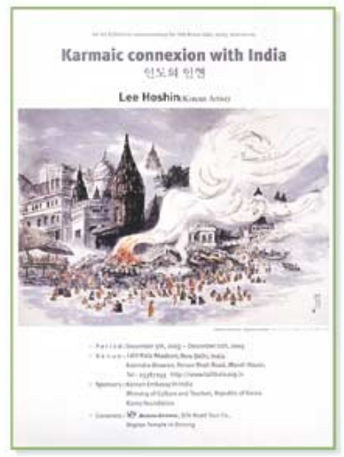




마더 테레사 수녀(왼쪽), 인도의 지성 라빈드라나드 타고르 시인.



캘커타 인도박물관에서.



이호신 화백의 인도에서 가진 전시회 '인도의 인연' 포스터.

작은 나눔의 빛이 모여
온세상을 밝힙니다
대한불교조계종이 스님들의 노후 복지와
사회복지 지원을 위해 '자비의 보험금 나눔운동'을 전개합니다.
스님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노후복지에 대한 걱정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제 스님들이 평생 수행에 정진하고 노후에 편안히 지낼 수 있도록 스님들의 노후복지를 위한 제도가 필요할 때 입니다.
불자님들의 수희 동참을 바랍니다.

'자비의 보험금 나눔운동'은 스님들의 복지향상과
사회복지 지원을 위한 새로운 포교운동이자 재보시 실천운동입니다.

연인원 1,000여명의 중단 원로스님들을
모실 수 있도록 년차적으로 노스님 수행관을 교구본사별로 건립 운영합니다. 노스님 수행관에는 요사채와, 진료실, 체력단련실, 목욕탕, 식당 등의 편의시설과 함께 신도들과 늘 함께 수행을 하실 수 있도록 법당과 상담실이 준비될 것입니다. 원로스님들을 입주부터 입적시까지 종단에서 면히 모시겠습니다.

조계종의 사회복지 지원제도는
어려운 이웃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고 사회봉사에 참여할 불자들을 양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자비의 보험금 나눔운동'
스님복지
단체적 노스님 수행관 건립 및 운영
스님 복지기금 조성
사회복지
불교사회 복지재단기금 조성

참 보시의 실천 '자비의 보험금 나눔운동' 이렇게 참여하세요
생명보험을 보시보험 가입을 통한 참여
바르 육바라밀을 실천하는 좋은 방법이 됩니다.
자동차보험 가입을 통한 보시운동 참여
'자비의 보험금 나눔운동'에 동참하는 가장 간편하고 큰 보시의 실천입니다.
사찰종합보험 가입을 통한 보시운동 참여
사찰 종합보험은 사찰의 화재, 재난, 도난, 배상 등 뜻의의 사고에 대비한 사찰전용 특수 보험입니다.
화재보험 가입을 통한 보시운동 참여
사회복지 단체, 중립학교 등 화재보험을 가입하고 계신 모든 종단 등록 단체에게 권하는 참여 방법입니다.
사후재산 기증을 통한 보시운동 참여
불자님들의 사후재산 기증운동을 통해 대학들사에 소요되는 기금이 조성됩니다.

대한불교조계종 자비의보험금나눔운동본부
주최 : 대한불교조계종 '자비의 보험금 나눔운동'본부
TEL 02)2011-1753 FAX 02)733-8536 www.buddhism.or.kr
후원 : 조계종 중앙신도회, 불교신문사, 현대불교신문사, 주간불교신문사, 대한불교신문사, BBS, BTN
주관 : (주)에이비엠씨 TEL 02)2003-5793 FAX 02)2003-5786
'자비의 보험금 나눔운동'에 참여하실 불자님은 주관사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립니다.